

KOREAN ARCHITECT

月刊 建築士 1993년 12월호
통권 296호(매월 15일 발행)
발행 · 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등록 · 1967년 3월 23일
등록번호 · (서)라-26
1993년 12월 31일 제3종우편물
(나)급인가

建築士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December 1993



기고

건축진정—이대로는 안된다/윤혁경

회원작품

부산 카톨릭 대학/강석원

대덕과학문화센터/(주)정림건축

탐라교육원 연수동/강행생

곤지암 컨트리 클럽/이충언+김광섭

덕진구청사/故 이영수

카톨릭중앙의료원 의정부 성모병원/김종근

광주 "K"씨 주택/한진수

비평

헌법재판소—"단절과 권위"/이범재

토론회

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건설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건축기행

영국의 미술관 건축/김용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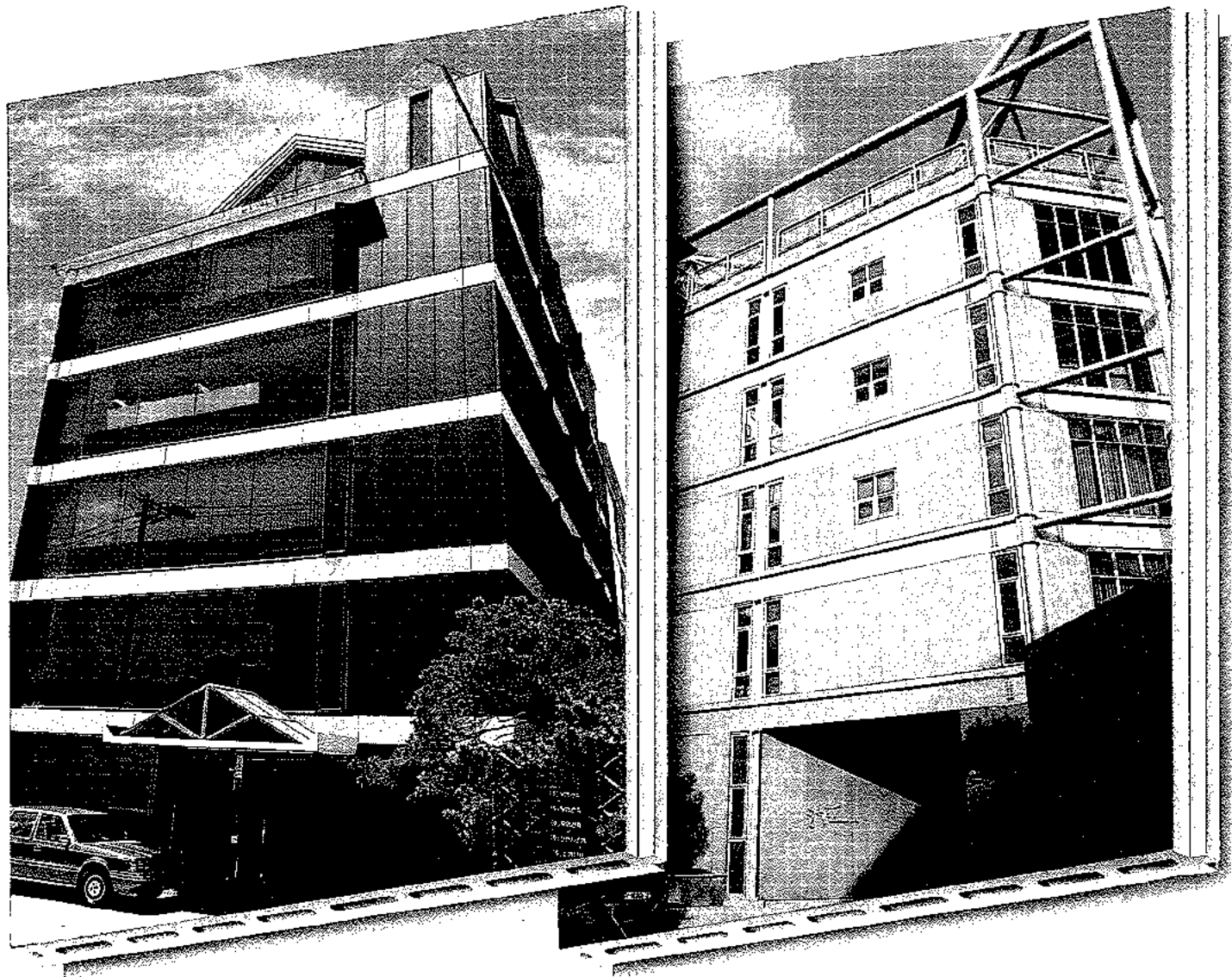
기획연재

도심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I)/최찬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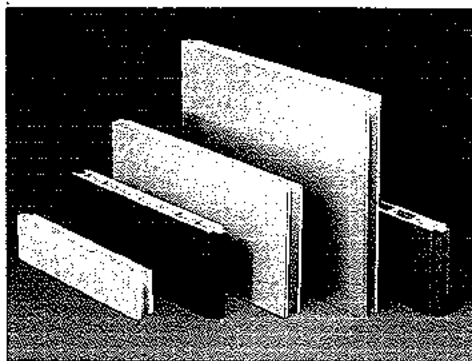
건축, 건축인 그리고 COMPUTER(I)/박찬원

12

DECEMBER



미려한 건축물에는 벽산 베이스판넬입니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 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M^2 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타일, 본타일, 페인트 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넬

벽산 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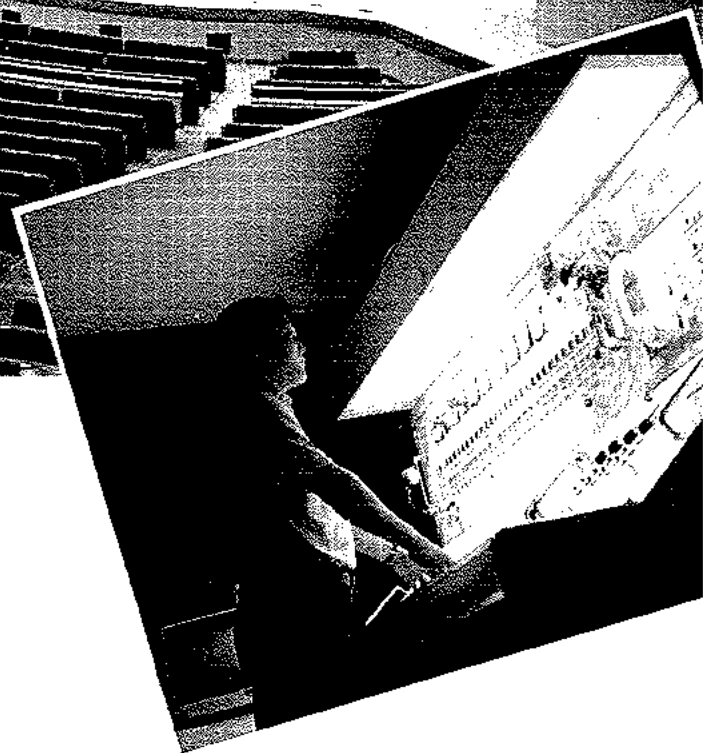
• 제품·시공문의상담 (02)260-6250 ~ 8 특수영업부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실적

- ◉ 세종문화회관
- ◉ 국립극장
- ◉ 웨라온워커힐
- ◉ 롯데호텔
- ◉ 부산문화예술회관
- ◉ 이화여대강당
- ◉ 유관순기념관
- ◉ 흥현교회본당
-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 ◉ 서울·제주 산라호텔
- ◉ 수안보 와이키키관광호텔
- ◉ 안양문화예술회관
-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 계동센타 예술극장
- ◉ 육군박물관
- ◉ 대전시민회관
- ◉ 부곡하와이 등

주요 생산품목

- STAGE & STUDIO
-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大雅互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332-4500(代表), (02)335-4642(代表)
FAX. (02)392-2751

工場: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串面 山209-1 松蔭里 山209-1
TEL. (0341)987-4184, (02)632-0216

입고는 즉시 출고는 40초

삼성셔틀파킹

삼성이 만든 차세대 주차설비, 셔틀파킹

1978년 국내최초로 기계식 입체주차설비를 제작 설치한 삼성이
드디어 미래형 주차설비인 셔틀파킹을 선보입니다.

연속적인 동시 입출고

삼성셔틀파킹의 가장 큰 특징은 입고실과 출고실을 분리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입출고시에 다음 팔레트가 동시교대로 준비되므로
입출고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팔레트 동시교대로 대기시간 제로

셔틀파킹의 최대 비밀은 팔레트 교환시스템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고속 승강기로
올려갈 때, 다음 차를 위한 빈 팔레트가 동시교대로
입고실에 대기하므로 종래시스템에서 문제시되던
입고대기시간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분당 300m의 고속이동대차

셔틀파킹 시스템의 고속성능 발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속이동대차는 1분에 약 300m의 속도로
주행하며, 정확한 정지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5배 공간효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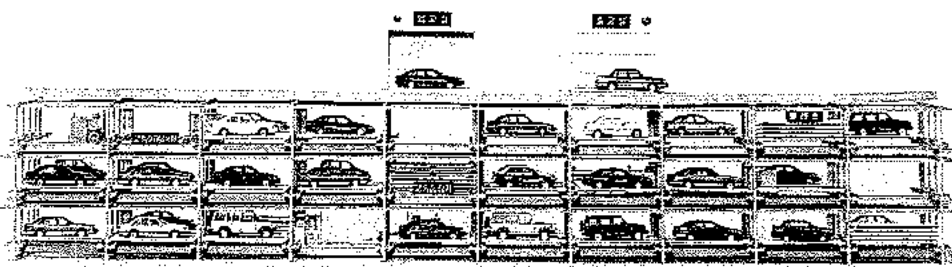
셔틀파킹의 한 유니트(Unit)는 3단 기준으로 평균
138대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선반은 최고
6단까지 설치가능하고, 유니트를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 대규모 주차도 가능합니다. 바닥면적 대비 설비
가동효율과 주차공간활용면에서 종래의 기계식
주차장에 비해서 5배 이상 효율적입니다.

분당 120m의 고속 승강기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입고되면 고속 승강기를
통해 지시된 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삼성 셔틀파킹은 1분에 120m를 승강하는 고속
승강기를 내장,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신속하게
자동차를 원하는 층으로 이동시킵니다.

문열림 사고방지 시스템 채택

기계식 주차설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자동차
문열림 사고—이러한 사고는 자동차의 파손은 물론,
전체 주차시스템의 밸런스를 깎니다. 셔틀파킹은
팔레트에 자동차의 문열림 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세계속에 한국을 펼쳐가는—

SAMSUNG

삼성중공업

- 건축물부분 K, S, U, L 마크 획득업체/창호건설업면허, 철물건설면허 보유
- 국내 최대규모의 저온 소성용 세라믹 판넬 전문생산 시설 완비(전장140m, 전자동, 원적외선로), 월생산능력 11,000m²
- 전자동 CNC절단, 절곡 밴딩, 수직형(선진국형) 도장방식채택등 완벽한 생산시설로 최고급 품질제품생산

king[®] CERACO-PANEL

ARCHITECTURAL FINE-CERAMICS COATED ALUMINUM PANELS

건축 외장재로
건축가와 건축주가 48년의 역사를 지닌
킹 세라코 판넬을 고집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환상의 최첨단 신소재

세라믹 외장판넬

KING CERACO-PANEL이란?

고도로 정제된 순수 무기질인 바인더 타입의 FINE CERAMIC을 알루미늄, 철, 스테인레스 등 광범위한 피도물에 전자동절단, 절곡, 수직형 도장방식을 갖춘 완전자동설비에 의한 최첨단 코팅방법으로 제조된 순수무기질인 화인세라믹(일명 하이세라믹) 제품으로써 철판범랑과 불소코팅복합판넬의 단점을 보완시킨 제품입니다.

삼화정밀의 생산품목

세라믹 외장판넬, 세라믹 내장판넬,
후론트 AL창호 및 커튼월, 스테인레스 문과 문틀,
자동선판터, 전동선판터, 도어클로저, 후로어 힌지,
자동문, 회전문, 배연창 개폐기, 오토힌지



연세세브란스빌딩 (26층/서울역앞) /정일엔지니어링/(주)대우

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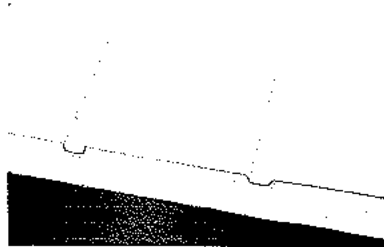
三華精密株式會社
SAM HWA PRECISION CO., LTD.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9-9 (한국관세사회관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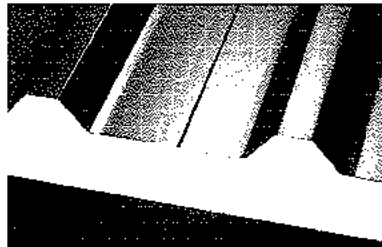
전화 (02)516-2700, 515-7383~5 FAX(02)517-8709

제1공장/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338 전화(0351)63-3111~4 FAX(0351)63-0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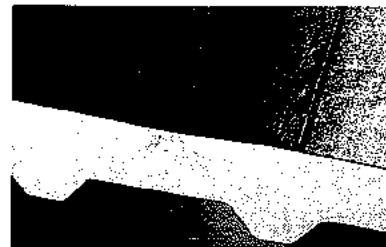
제2공장/경기도 미금사평내동 41-1 전화(0346)592-2103 FAX(0346)591-8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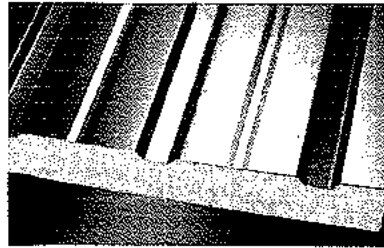
인슈 E.P.S.패널 SC-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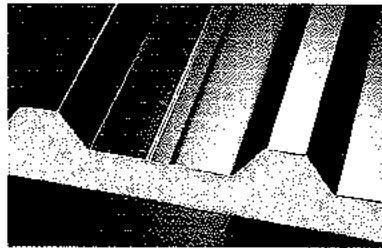
인슈 E.P.S.패널 SR-250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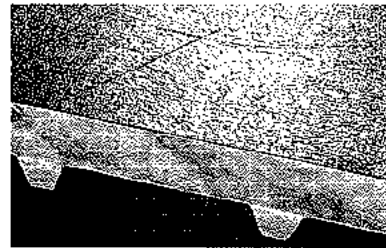
인슈데크 UE-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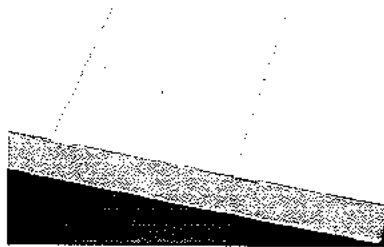
인슈우레탄패널 UC1-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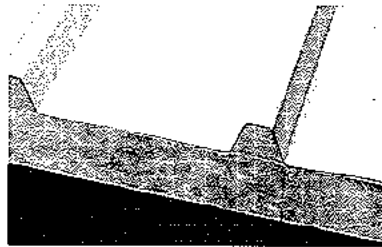
인슈우레탄패널 UR-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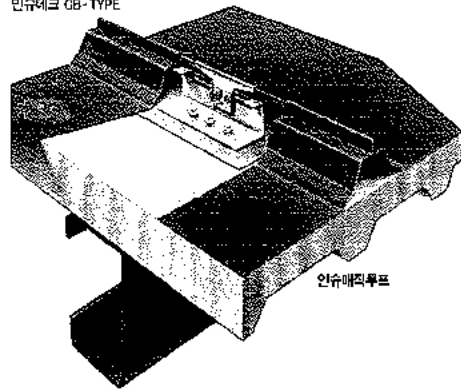
인슈데크 GB-TYPE



인슈그라스울패널 GG-TYPE



인슈그라스울패널 GR-TYPE



인슈매직루프

공업화 건축자재를 대표하는 브랜드, 인슈패널시스템!

공업화 건축시대를 앞당긴다!

공업화 건축자재 전문메이커 연합인슈 -

단열패널 전제품 생산, 생산 전품목 KS마크 획득,

업계 최초 내화구조지정 고시 획득 등

공업화 건축자재의 선택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연합인슈의 앞선 기술력으로 공업화 건축자재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인슈패널시스템!

공업화 건축시대를 한발 앞당깁니다.



주식회사 연합인슈
주식회사 대명건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슈빌딩

TEL : (02) 555-6891 FAX : (02) 553-1651

공장 :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도립리 39-2

TEL : (0336) 34-8880 FAX : (0336) 32-4243

부산사무소 : (051) 816-7701 FAX : (051) 816-7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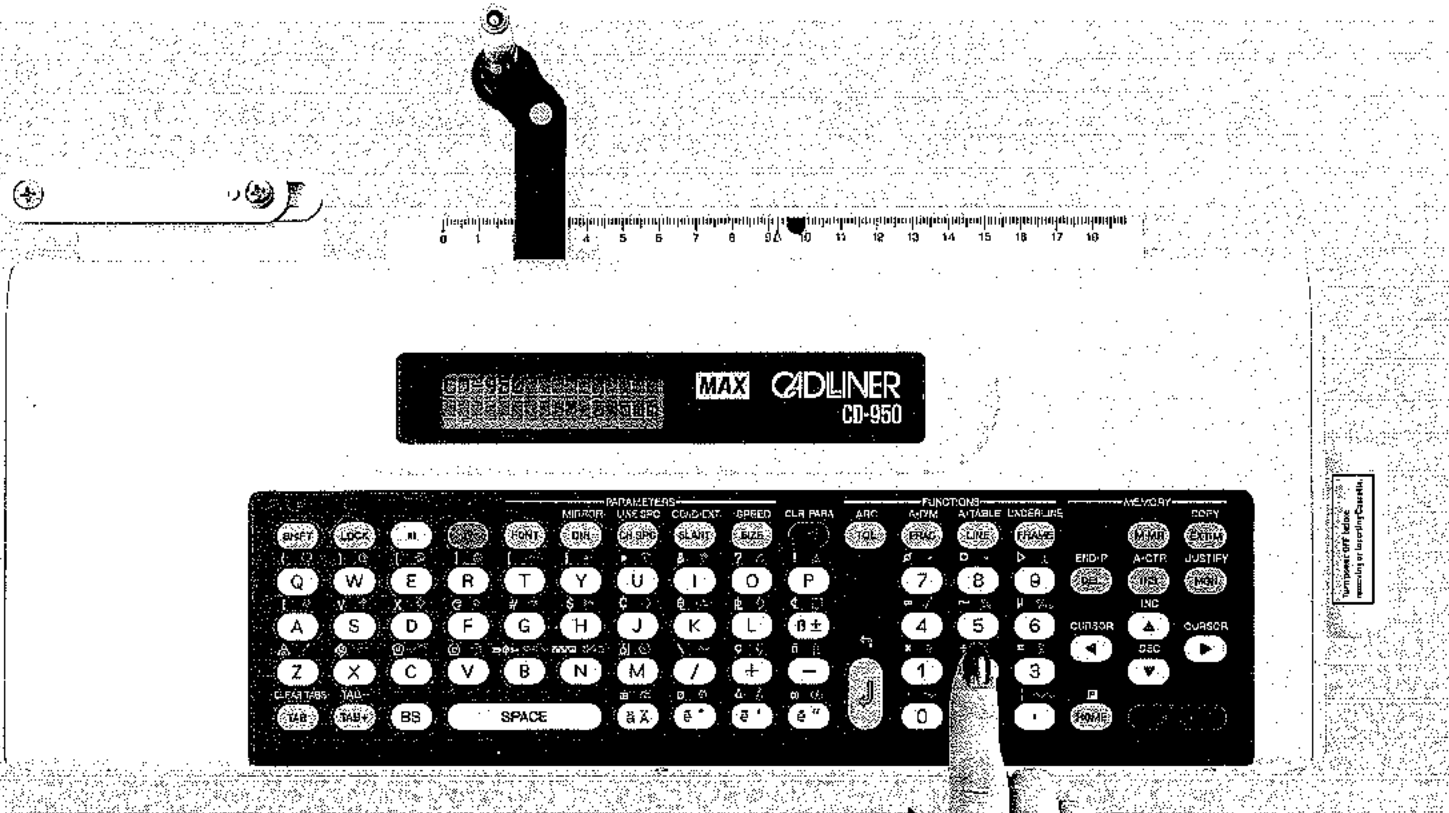
대구사무소 : (053) 629-2202 FAX : (053) 654-9886

광주사무소 : (062) 527-7144 FAX : (062) 524-9779

“깨끗한 도면, 살아있는 글자체 (한글·영문)”

세계최초 전원이 필요없는 최첨단 레터링 프로터

아직도 글씨를 손으로 쓰고 계십니까?
설계도면 및 레터링 작업시 빠르고 깨끗하게 쓸수있는 레터링 프로터.
자, 이제는 맡기십시오!



CAD LINER CD - 950

특 징

- 세계최초로 개발된 전원이 필요없는 최첨단 레터링 프로터로 정전시나 현장등 어느곳에서나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7가지 영문체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도면 사양에도 적합합니다.
- 더욱 깨끗하고 새로워진 한글체도 기본으로 되어있어 편리합니다.
- 기존제품 보다 훨씬 다양해진 기능과 사용하기에 더욱 편리해진 콤퓨터식 보턴.

용 도

- 기계 도면 제도, 건축 도면 제도, 전기 도면 제도, 전자 도면 제도, 토목 도면 제도, 측량 도면 제도, 설비 도면 제도, 연구 논문 작성, OHP 필름작성, CAD 원도작성, 기타 서류 작성 등.
- 각종 설계도면의 내용 표기, 글자, 기호등 표기.
- 정확하고 깨끗한 글씨는 설계도면의 품위와 신뢰도를 높여 줍니다.

CADLINER CD-950

MAX

수입원: (주) 한국구영
덕천교역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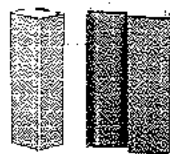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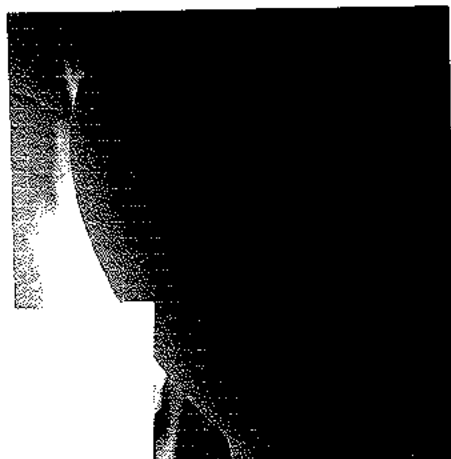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44-15

(충무빌딩 7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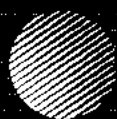
TEL.(02)786-3161(대)

FAX.(02)786-3165

CERAMETAL[®]



■ 제일 상호신용 금고 사옥 (송파구 가락동)
 • 외벽면적 : 4,400㎡
 • 시 공 고려계법
 • 상 계 입자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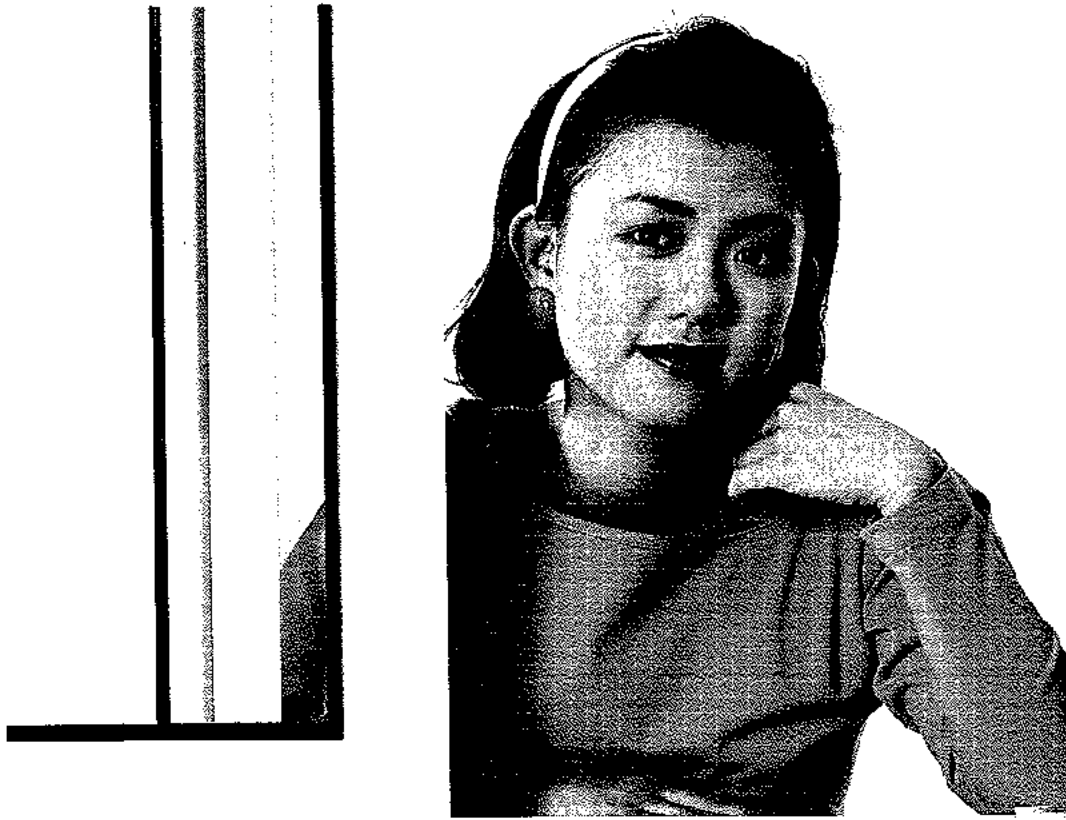


(주)금원세라믹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75-14/한일빌딩 11층

대표 전화 : 515-8003 FAX : 514-8722

본사 · 공장 : 충북 증원군 삼척면 송강리 132-1 전화 : (0441)42-7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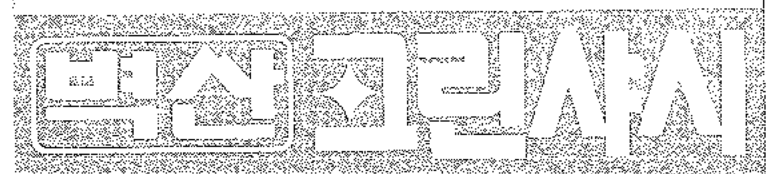
조립·설치가 간편합니다

벽산크린사시는 (주)벽산화성의 자체기술과 일본최초의 PVC SASH 제조회사인 대진공업(주)와의 기술 제휴로 개발한 고품질의 창호재로서 기존 용접식 창호가 제작상 특성으로 구입, 설치가 곤란한 점을 완전개선한 조립식 창호로서 특별한 장비없이 간편하게 조립이 가능합니다.

벽산크린사시의 특성

- 방음효과가 큼니다. ■ 결로현상을 방지합니다.
- 개폐가 유연합니다. ■ 내한충격성이 우수합니다.
- 색상이 미려합니다. ■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단열·방음 조립식 플라스틱 창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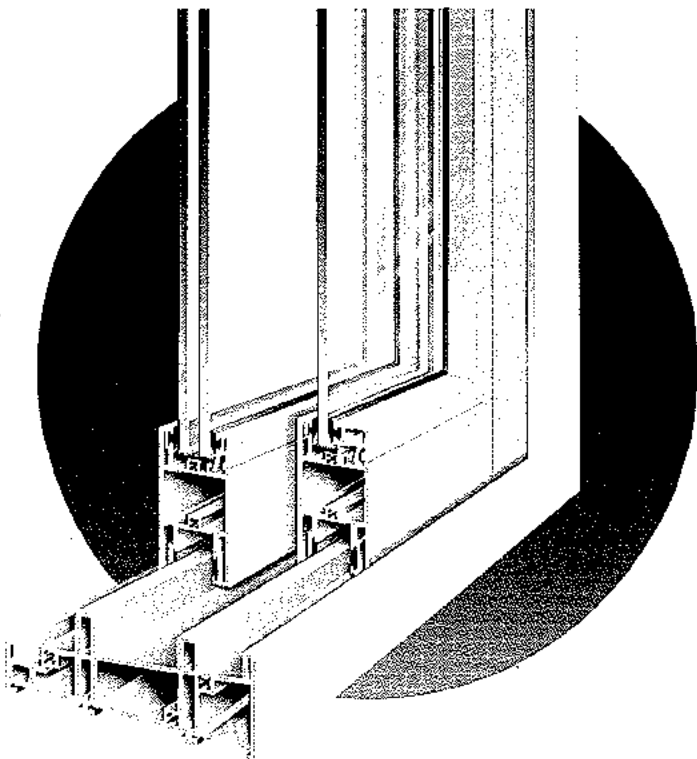


벽산고객상담실

080-021-7272 / 7282
(수신자부담 클로버서비스)

주식 벽산

문의전화/852-7701~6



콘크리트 보다 3배 단단한 시멘트 압출 판넬

신소재의 탁월한 특성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사용되어온 에이스판넬 -

(주)서일건영이 에이스 판넬의 국내생산으로 건축 문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납품, 시공

실적으로 그 장점이 입증된 서일 에이스 판넬 -

이제 판넬계라면 서일 에이스판넬을 주목해 주십시오.

서일 에이스판넬

서일 에이스판넬의 특징점

■ 얇고 단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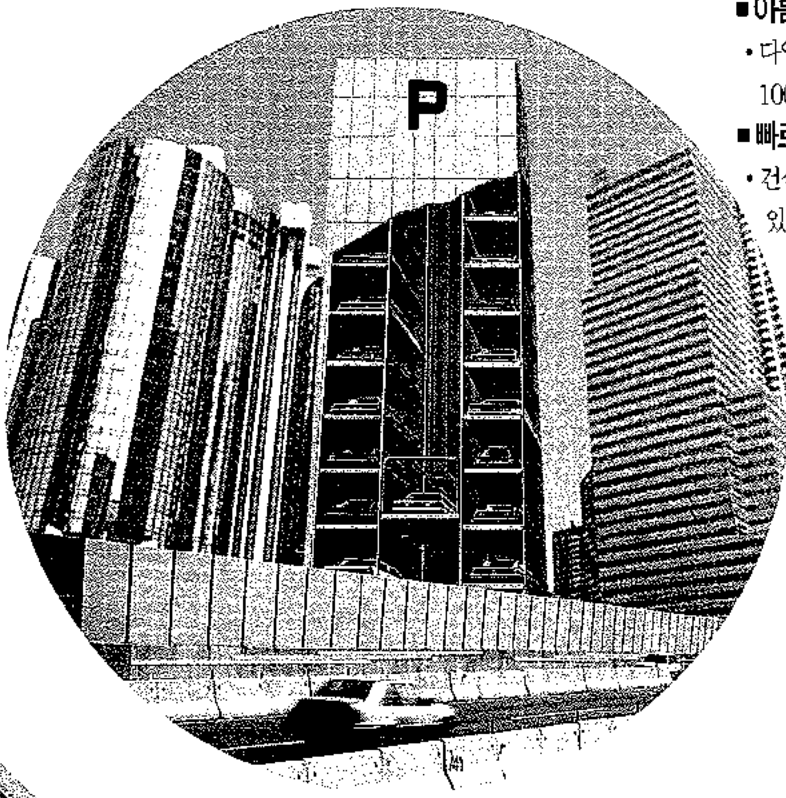
- 中空구조이므로 경량이며 방음, 단열효과가 뛰어납니다.
- 벽의 두께가 1/3로 줄어 보다 넓은 실내공간이 확보됩니다.

■ 아름다운 모양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 다양한 표면무늬의 연출이 가능하여 건축주의 취향을 100% 만족시킵니다.

■ 빠르게, 경제적으로 시공한다.

- 건식공법이므로 계절에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시공 할 수 있습니다.



서일 에이스판넬의 용도

- 고층빌딩, 아파트의 외벽재 및 바닥재
- 산업프랜트 및 공장의 내·외벽재
- 조립식 농촌주택의 내·외벽재
- 도로 및 철도변의 방음벽
- 주차 타워의 외벽재
- 지하 이중벽

■ ACE란?

(Autoclaved Cement Extrusion)

시멘트 복합소재를 진공압출 한 후, 고온고압의 증기 양생에 의해 완성하는 건축자재 제조분야의 新기술을 뜻합니다.

ACE 공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판넬은 내·외벽재로 적합한 고강도의 전혀 새로운 물성을 보유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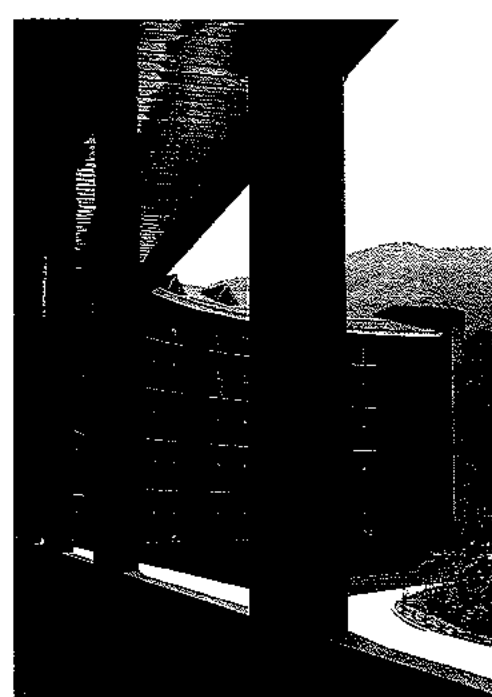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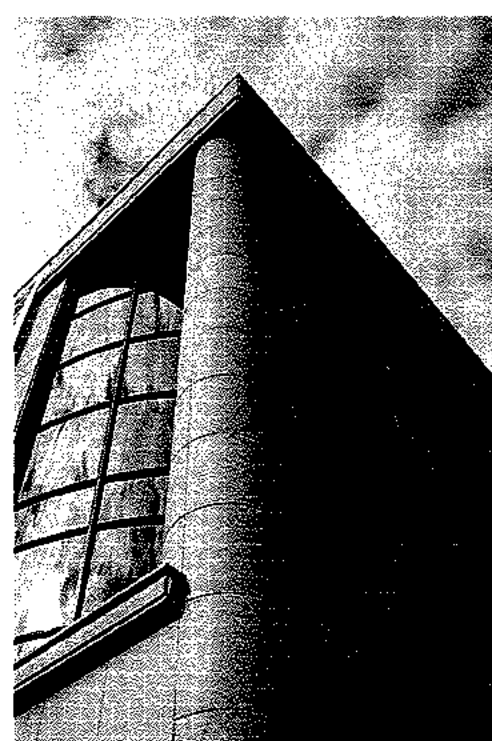
품질보증
 본상품은 품질시험기관 지정
 기밀인입업체에서 보관함
 한국시험연구소
 TEL: (02)634-0034

■대리점 상담문의:

02) 552-0945/ 영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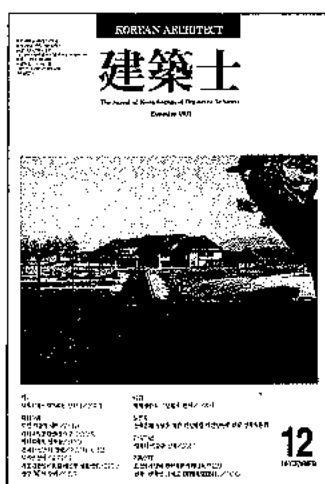


주식회사 서일건영



차례/1993년 12월호 통권 제296호

제29회 정기총회	개회사/吳雄錫	14
	치사/高炳佑	16
	축사/徐廷華	17
특별기고	건축진정-이대로는 안된다/尹赫敬	18
회원작품	부산 카톨릭 대학/姜錫元	22
	대덕과학문화센터/(주)정림건축	28
	탐라교육원 연수동/姜幸生	34
	곤지암 컨트리 클럽/李忠彦+金光燮	38
	덕진구청 청사/故 李榮洙	42
	카톨릭중앙의료원 의정부 성모병원/金宗根	46
	광주 "K"씨 주택/韓碩洙	50
계획작품	뉴 서울 플라자/朴舒弘	54
스케치	14세대를 위한 마을/朴研心+董政根	56
비평	헌법재판소-"단절과 권위"/李範宰	58
토론회	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건설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66
현상설계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전회관	86
	진도군민 종합복지회관	92
	중구 보건소 청사	98
	청주여객 자동차 터미널	100
건축기행	영국의 미술관 건축/金龍昇	104
기획연재	도심재개발의 관리처분 계획(I)/崔燦煥	110
	건축, 건축인 그리고 COMPUTER /朴贊遠	117
1993년도 "건축사"지 총목록		124
통계	1993년 10월분 전국도서신고 현황	126
협회소식		128



표지사진: 곤지암 컨트리 클럽
(설계/이충언+김광섭)

發行人: 吳雄錫

編輯企劃: 編纂委員會

委員長: 李鍾寬

委員: 金文圭, 金仁喆, 吳元根,
金相景, 金偉孜, 姜健熙

編輯·取材: 弘報部/梁元錫, 鄭孝相,
李洪植, 趙漢國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0

電話: 代表 (02)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 (02)586-8823

登錄番號: 서울 라-26(月刊)

登錄: 1967年 3月 23日

U. D. C.: 69/72(054-2): 0612(519)

印刷人: 李鳳秀/正文社

Publisher: Oh, Woong-Suk

Editor: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Lee, Chong-Kwan

Member: Kim, Moon-Kyu / Kim, In-Cheol
Oh, Won-Keun / Kim, Sang-Kyeong
Kim, Kyeong-Ja / Kang, Keon-Hee

Assistant Editor: Public Relations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 581-5712~4

FAX: (02)586-8823

Registered Number: Seoul Ra-26

Registered Date: March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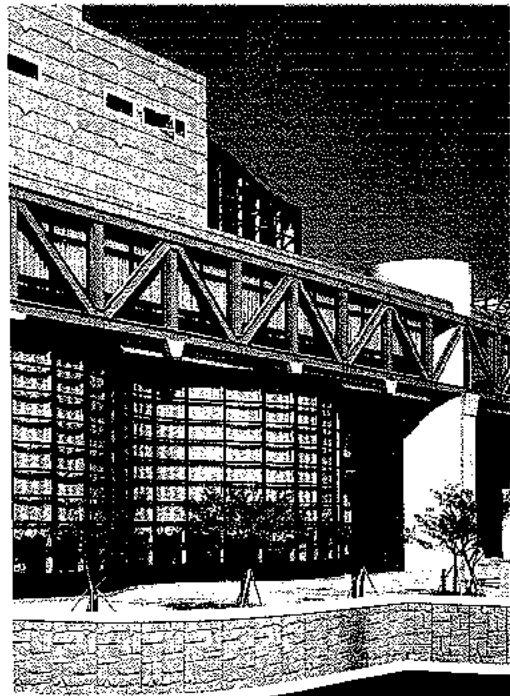
U. D. C.: 69/72(054-2): 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CONTENTS VOL. 296, DECEMBER 1993

10th KIRA General Assembly

	Opening Address / Oh, Woong-Suk	14
	Appreciate Address / Ko, Byung-Woo	16
	Congratulatory Address / Suh, Cheong-Hwa	17
FEATURE	A Petition of Architecture Administration-It is an open trouble / Yoon, Hyuk-Kyung	18
WORKS	Pusan Catholic University / Kang, Suk-Won	22
	Taedeuk Science Culture Center / Junglim Architecture & Engineers	28
	Tanra Educational Institution Training Hall / Kang, Haeng-Saeng	34
	Kongiam Country Club / Lee, Chung-Eon & Kim, Kwang-Sub	38
	Dukjin-gu Government Buildings / The Late Lee, Yeong-Soo	42
	Catholic Medical Center, Uijeongbu St. Mary's Hospital / Kim, Jong-Keun	46
	Kwangju K's Residence / Han, Jin-Su	50
PROCESS WORKS	New Seoul Plaza / Park, Seo-Hong	54
SKETCH	A Village for 14th Generation / Park, Yeon-Shim & Dong, Cheong-Geun	56
CRITICISM	The Constitutional Court-It's Severance and Dignity / Lee, Peom-Jae	58
FORUM	A Seminar for Better Construction Conditions	66
COMPETITION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Taejeon Branch	86
	Chin-do Inhabitants Culture Center	92
	Chung-gu Preservation of Health Office Government Buildings	98
	Cheongju Express Terminal Complex	100
ARCHITECTURE	Art Museum Architecture of the United Kingdom / Kim, Yong-Seung	104
TRAVEL		
REPORT	Downtown Redevelopment Enterprise-It's Disposal by Management Planning / Choi, Chan-Hwan	110
	Architecture, Architect and Computer / Park, Chan-Won	117
STATISTICS		126
KIRA NEWS		128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당일 안내

■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서울특별시초구서초동1603-55, 581-5715~8. 서대문분회/서대문구연희동169-25, 333-6411. 관악분회/관악구신림동1422-17, 882-6744. 도봉분회/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영등포분회/영등포구당산3가81, 632-2143. 강동분회/강동구상대동317-4, 484-6840. 강서분회/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 성동분회/성동구구의동252-16, 446-5244. 동대문분회/동대문구신설동101-7, 929-6313. 종로분회/종로구수성동46-18, 735-0906. 마포분회/마포구상상동275-1, 336-5057. 송파분회/송파구송파50-12, 423-9158. 중구분회/중구로2가49-11, 279-1415. 용산분회/용산구원효로1가129-22, 712-7647. 서초분회/서초구서초1동1623-1, 586-7707. 은평분회/은평구북면동79-32, 352-6720. 동작분회/동작구사당동206-6, 815-3026. 강남분회/강남구논현동242-30, 511-8515. 노원분회/노원구상계1동707-4, 933-8076. 양천분회/양천구신정동1027-9, 646-7172. 중랑분회/중랑구묵동166-46, 923-6123. 성북분회/성북구상전5가110, 923-4401. 구로분회/구로구구로동36-4, 853-4048. ■ 부산직할시건축사회/부산시진구 범천동947-18, 28(061)634-4973~9. ■ 대구직할시건축사회/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7가11-8, (053)53-8990~5. ■ 인천직할시건축사회/인천직할시남동구간석1동558-1, (032)437-3381~4(FAX)437-3385. (한국종합빌딩 204호). ■ 광주직할시건축사회/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694-10, (062)521-0005~6(FAX)528-0026. ■ 대전직할시건축사회/대전직할시중구대동동487-1, (042)256-9950~4. ■ 경기도건축사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37가124-5, (0331)47-6129~30. 직할분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37가124-5, (0331)43-6662, 7072. 안양분회/안양시안양동523-5, (0343)49-2698. 부천분회/부천시중구원미동88-1, (032)664-1551. 성남분회/성남시수정구대평동3407, (0342)755-5445. 의정부분회/의정부시정부동182, (0351)876-0458. 송탄분회/송탄시서정동343-22, (0333)666-6153. 고양분회/고양구원당읍주교38로16로트, (0344)63-8902. 구미분회/구미시수택동409-2, (0346)63-2337. 이천분회/이천시인원읍종리192-1, (0336)635-0545. 광명분회/광명시월산동220-2, (02)684-5845. 안산분회/안산시고잔동536-1, (0345)80-9130. ■ 강원도건축사회/강원도춘천시북면동39-5, (0361)54-2442. 원주분회/원주시중앙동60-54, (0331)424287. 강릉분회/강릉시남대동6-14, (0391)2-2282. 속초분회/속초시동명동466-63, (0392)33-5081. 삼척분회/삼척시남양동55-43, (0397)2-3106. 영월분회/영월군영월읍영월1리960-12, (0372)43-2695. ■ 충청북도건축사회/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37가17-3, (0431)56-2752, 53-7342. 충주분회/충주시선동673-1, (0441)847-3082. 제천분회/제천시와평동8-8, (0443)43-6253. 옥천분회/옥천군옥천읍삼양리222-206, (0475)33-3502. ■ 충청남도건축사회/대전직할시중구대동동452-2, (042)256-4088. 천안분회/천안시문화동160-1, (0417)551-4551. 홍성분회/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 (0451)32-2755. 부여분회/부여군부여읍동남리703-1, (0463)12-2217. 대천분회/대천시대천동197-10, (0452)34-3367. ■ 전라북도건축사회/전라북도전주시서노들동635-5(대복빌딩 506), (0652)87-6007~8. 이라분회/이리시남동동1가77-22, (0653)52-3304. 군산분회/군산시신창동35-4, (0654)445-4060. 남원분회/남원시하장동106-2, (0671)31-1000. ■ 전라남도건축사회/광주직할시서구화정동783-23(추선회관)(062)364-7567, 33-9944. 목포분회/목포시대안동1, (0631)43-3348. 순천분회/순천시상향동51-11(0661)3-2457. 여수분회/여수시관동동441번지, (0652)64-7023. ■ 경상북도건축사회/대구직할시동구신천4동338-1, (053)742-8317~8. 포항분회/포항시북동동43-8, (0562)44-6029, 46-1664. 경주분회/경주시동천동801-4, (0561)3-4710. 구미분회/구미시송정동34-3, (0546)51-1537. 안동분회/안동시서부동157-4, (0571)54-5703. 김천분회/김천시남산동24-2, (0547)434-2541. 영주분회/영주시하장동341-12, (0572)34-3560. 함흥분회/함흥시중앙동280-3, (0581)53-6677. 상주분회/상주시남성동36-7, (0582)32-5868. 경산분회/경산시중앙동 859-5, (0531812-6721. 달성분회/달성군화원읍원내리113-3, (053)634-6336. 영천분회/영천시왕구동26-10, (0563)34-8256. ■ 경상남도건축사회/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7가47, (0551)46-4530~1. 울산분회/울산시남구신정동585-6, (0522)74-8836. 진주분회/진주시본성동7-20, (0591)41-6403. 통영분회/통영시서호동163-18, (0557)44-3232. 김해분회/김해시부안동611-1, (0525)35-5692. 밀양분회/밀양시내일동392-1, (0527)355-4348. 거창분회/거창군거창읍중앙리274-3, (0598)43-6090. 양산분회/양산군양산읍남부동467-19, (0523)84-3050. 거제분회/거제군안남읍교현리39-2, (0554)635-3432. 삼천포분회/삼천포시동문동91-6, (0563)333-9779. ■ 제주도건축사회/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 (064)22-3248. 서귀포분회/서귀포시서귀동299-6, (064)62-2233.

제28회 정기총회

開 會 辭



吳雄錫 회장

오늘 본 협회 제 28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과 대의원 여러분께 공사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시·도건축사회 정기총회에서 새롭게
건축사회 임원과 대의원으로 선출되셔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뜨거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협회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다대한 역할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전국 대의원 여러분 !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1993년은 우리에게 그
어느때보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한해로 기억됩니다.

연초부터 몰아닥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은 우리
건축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새정부가 사회개혁 차원에서 운영하는
행정쇄신위원회의 건축사 관련제도의 심의·결정
가운데 설계도서신고제도 개선과 소형건축물의
설계·감리 분리제도의 폐지 결정 등은 우리에게 많은
인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변화 속에서 협회는
특별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며 열과 성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만 회원 여러분의 기대치에 달하지
못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이런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같이
나누며 협회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도건축사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전국 대의원 여러분 !

이렇듯 지금 우리는 변화와 개혁의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를 더이상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날의 낡은 권위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는 구시대적 유물로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더이상 우리 사회에서 불법, 부조리, 부실감리라는 일들이 우리를 분노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시대적 악습과 그릇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건축사상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개혁입니다.

아울러 이제는 더이상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을 바라만 보는 관중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법령과 제도개선만으로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개혁입니다.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건전한 건축문화풍토 정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를 쇄신하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은 바로잡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우리 건축사의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새롭게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협회도 이같은 자세로 상존하는 낭비적 요소를 정돈하며 정관개정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수입된 공적기능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회원 서비스 증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이 있기까지 수많은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남다른 의지와 슬기로 극복하였던 것과 같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저력있는 협회”로 키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저변에는 회원 여러분의 크나큰 잠재력과 산경험으로 얻어낸 값비싼 자산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가 밝으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회원간의 친화력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남의 의견이나 이익을 존중할 줄 알고 반대자에게도 관대할 수 있는 관용심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나누고 화합하는 가운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매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총회는 우리 자신의 일을 협의하는 자리로서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임을 명심하고 진지한 논의와 발전적인 의견개진으로 유익한 성과를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시종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성어린 성원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나라 건축문화 창조라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건축사입니다.

여러분의 투철한 사명과 열정이 살아 있는 한, 우리들의 앞날은 밝고 보람된 영광이 반드시 있음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의원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 11. 26.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吳 雄 錫



건설부장관치사를
대독하는 홍철치관보

致 辭

오늘 대한건축사협회 제28회 정기총회에 즈음하여 오웅석 회장님을 비롯한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과 귀빈 여러분을 모시고 치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대한건축사협회는 창립된지 4반세기를 지나는 동안 4천여 명의 회원을 가진 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창달에 중추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오신 회원 여러분과 임직원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은 그 시대의 문화와 정신을 담은 예술과 기술의 종합체로서 현재의 생활공간이자 후세에 넘겨줄 귀중한 유산이며, 역사의 그릇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건축계를 뒤돌아볼 때 지금까지 양적인 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고 하겠습니까만, 건축물의 질적인 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여 건축물의 질적 향상에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각종 시책을 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부실시공의 방지를 위한 감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관련제도를 고쳤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축사 여러분!

본인은 오늘 전국에서 모이신 전국의 건축사 대의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평소 건축문화창달과 건축물의 건설화 방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新한국창조』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대변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 보다도 국민모두의 성숙된 의식과 단합된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분야에서도 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시대변화에 부응한 참신한 건축사상을 정립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상존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건축사들은 국가로부터 건축의 설계와 시공을 감리하는 공인의 입장에서 정부와 함께 건전한 건축풍토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건축문화를 책임진 고도의 전문직업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건축사의 품위와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는 겸허한 자기 성찰과 자기 혁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새 시대의 건축문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건축사상 정립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건축사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방화·국제화 물결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세계로, 미래로』라는 목표는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과제인 것입니다.

직금의 세계경제는 급격한 속도로 변화·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제통합과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한 세계 경제의 변혁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중 시장개방에 따른 건축설계 분야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제도의 개선은 급선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부로서도 건축사 여러분의 발전적인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정책개발에 반영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협회를 중심으로 한 건축사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총회가 새 시대에 부응하는 건축전문 직능단체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대한건축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993. 11. 26

건설부장관 高 炳 佑

祝 辭

서정화
국회건설위원장

오늘 대한건축사협회 제28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오용석 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건축사 여러분과 건축계 인사 그리고 많은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행사를 마련한 대한건축사협회는 창립되지 28년만에 4천여 회원을 포용하게 되고, 건축계의 대표적 직능단체로 발전한 모습을 볼 때, 그동안 귀 협회의 임직원과 회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건축사 여러분!

건축물은 바로 인간생활을 담는 그릇인 동시에 우리 시대의 거울로서,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재는 척도의 하나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역사적, 문화적 유산으로서 후손에게 길이 전승되는 문화재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전국에 세워지는 크고작은 건축물들이 여러분의 손에 의하여 하나하나 창조되는 것임을 생각하면 건축사의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역할과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에 있어 창의성과 전문성의 발휘가 바로 국가경제 발전은 물론, 국민생활의 질적향상과 민족문화 창달이 이루어진다는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건축사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분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야말로 국가적으로 볼 때 사회개혁과 경제부흥을 위한 중대한 민족사적 전환기로서 우리 모두에게 배전의 노력과 가일층의 분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시대가 변하고 국제화되는 사회 속에서 소승적 이익보다는 대승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공감대를 조성하며, 공공부분에 대해 실천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선진화된 조직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변화란 안정을 위협하지만 그 대응여하에 따라서는 새로운 도약을 가능케하는 도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의 여러분의 업적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의 도약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국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건축행정의 기초가 민주화, 자율화, 지방화 그리고 국제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건축사 여러분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현행 건축법령과 건축사법령의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일선 행정기관의 관행도 국민 편의위주로 전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이 총회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의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신뢰가 한층 더 높아짐은 물론 여러분의 권익이 크게 신장되고 건축계가 도약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대한건축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축사 여러분의 앞날에 끝없는 번영과 행운이 늘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 11. 26

국회건설위원회 위원장 徐 廷 華

건축진정—이대로는 안된다

A Petition of Architecture Administration—It is an open trouble

尹赫敬/서울시 송파구청 건축과장

by Yoon, Hyuk-Kyung

I

집터를 잘 골라야하는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명당을 찾아 헤메던 조상의 슬기가 어쩔 부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이 복잡한 도시에 명당이 과연 있는가. 좌청룡 우백호 따져 좋은 터 잡기는 어려울 터. 그러나 필자는 명당이 있다고 믿는 사람중의 하나이다. 좋은 이웃이 있는 곳, 그 곳이 바로 명당인 것이다. 좋은 이웃을 “이웃사촌”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사회는 과연 이웃사촌이 존재하는가. 소주한잔 나누고, 떡 한조각 나누 이웃이 있는가. 슬플 때 나누어 슬퍼할 줄 알고, 기쁠 때 함께 할 이웃은 있는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제일 먼저 반응을 나타내는게 진정사태이다. 얼마나 억울하기에 얼마나 한이 맺히길래, 그동안 억눌러왔던 답답한 가슴을 어디에라도 호소할길 없었길래 이토록 난리가 나야만 하는가.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아흔아홉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마리의 양이 중요하듯이 이들 억울한 심정을 풀어헤쳐 속 시원히 해 주는 것도 새로운 정부가 해야 할 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마리의 양과 아흔아홉마리의 양들은 모두 보호해 주어야만 하는 어린 양인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조건적인 보호가 최선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진정이라는게 무엇인가. 세계백과 대사전에는 “공적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식만이 아니라 비공식으로도 요청하고 운동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힘없는 서민이 기댈 곳은 그래도 행정기관이다. 그 내용이 민사적이든, 형사적이든 또는 개인의 어려운 사정이든, 공적인 일이든, 억울해하고 답답해 하는 모든 것들이 어려운 법절차 따지기전에 행정기관에게 해결해 달랄 수 밖에 없는게 또한 우리 서민들이다.

행정기관이 전지전능하나 하면 그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정인은 행정기관이 만능이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지 아니할 때는 지탄과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행정기관이요, 그에 소속된 공무원일 수 밖에 없다.

공무원은 동네북인가. 진정인에게 터지고 그 상대방에 터지고, 상급자에게 눈치보이며 무능하지 않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진정해결사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는 부끄러운 오늘, 여기에 건축사 또한 진정해결을 위해 등분서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못할 경우 무능한

건축사, 위법건축사로 행정조치를 당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법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하겠지. 만약 법대로 집행한다면 진정할 것은 하나도 없게 된다. 위법한 그 행위를 사법기관에 처벌만 요구하면 될 것이고, 각종 피해사항 등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럼 민사적인 문제를 공무원이 어떻게 해결하라는 말인가. 엄연히 민법이 존재하고 있는 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면 될 것을. 그것을 몰라서 공무원이 욕먹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요령껏 요리를 잘 하느냐,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다같이 만족할 중개안을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만들어 내는게 유능한(?) 공무원일 수 밖에 없는 부끄러운 오늘.

진정 1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는 노력은 건축 인·허가 처리의 20배 이상이 필요하다. 그만큼 공무원은 힘이 들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II

진정,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그 많은 진정중 건축에 관계된 진정은 각 구별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일선행정기관에 접수된 총 진정건수의 60~80%가 넘는다.

진정은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만큼 사람들이 영악해져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경험에 의하면 사회가 호경기일 때는 진정이 줄어드나 불경기일 때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그 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

[표 1] 건축허가건수와 진정건수의 비교 (서울A구)

구 분	'89	'90	'91	'92	'93
허가건수	1944	2144	1335	1387	895
진정건수	490	634	639	461	445
대비 (%)	25.2	29.5	47.8	33.2	49.7

건축허가 건수와 대비할 때 89년에 25.2%이던 것이 91년, 93년에는 47.8%와 49.7%로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진정내용을 살펴보면 대개 사생활침해, 일조권저축, 소정거리 위반 등 주거환경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등이 있으며, 이명규씨의 “건축민원처리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1989)”에서

다음표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 2] 건축민원의 지역별 유형별 현황

지역별 민원유형별	계		종로구		서대문구		송파구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계	892	100	256	100	232	100	404	100
주거환경 침해 시정	361	40.5	71	27.7	85	36.6	205	50.7
위반건축물의 시정요구	174	19.5	63	24.6	47	20.3	64	15.9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요구	206	23.1	70	27.4	60	25.9	76	18.8
기 타	151	16.9	52	20.3	40	17.2	59	14.6

지역의 여건에 따라 그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주거환경 침해사항의 시정요구가 40.5%,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요구가 23.1%이며, 위반건축물의
시정요구는 19.5%에 해당될 뿐이다.

이들 진정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서울시 22개구청중
16개구청의 건축직 공무원 190명에게 진정발생 사유를
물었더니 금품을 목적으로 한 진정이 56.3%(107명)라고
답하였으며, 과거 진정에 의한 보복진정이 18.4%(35명),
무고에 의한 진정이 2.7%(5명)라고 응답한 반면, 직접적인
피해에 의한 정당한 진정이라고 답한 경우는 22.6%인
43명이었다. 물론 이 통계는 사실적인 내용과 건축직
공무원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반드시 같다고만은 할 수
없다.

III

그러나 같은 설문내용인 다음표를 보면 진정이 어떻게
처리되어 지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이
금전으로 해결되어 진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응답자의
6.7%만 금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었다고 답하였다.

[표 3] 금전으로 해결되어진 민원의 양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20% 이상	전혀없음
23.3%	32.2%	22.2%	15.6%	6.7%

돈을 목적으로 한 진정은 진정한 진정이랄 수 없다.
언제부터인가 진정=돈으로 해결하는 풍조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사회는 돈이면 안되는게 없어졌다.

1980년 국보위가 설치되고 민원(진정)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정책을 세웠다. 국민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도록 유도(?) 하였고,
공무원들에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게끔
강제하였다.

공무원들은, 특히 건축직 공무원들은 쏟아져 들어오는
진정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돌아올 불이익이
두려워 건축주에게 갖은 압력을 가하여 진정이 해결되게끔
하다보니 돈으로 해결되어지는게 가장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진정인들 역시 진정만 하면 얼마간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으로 굳어버린 이제, 어느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여기서 건축주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소리는 손뼉을 마주쳐야만 나니까 말이다.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무자격 시공자에게 덤핑으로 공사를 맡기고 시공자는
이익을 위해 인접지의 피해에는 아랑곳없이 허가대로
공사를 하겠다는 생각뿐이고, 안전조치나 인접지 불편에
대해 아무 대책도 없고, 또한 건축주는 옆집들의 사생활
침해가 되건말건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할뿐 조금도 양보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진 편이다. 건축직
공무원들에게 '진정서 처리에 대한 간부들의 생각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법과 규정에 의거 정당하게 처리하게
하는 경우가 72.4%(134명)이었고, 무조건 진정인 편에서만
처리하도록 하며, 진정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무능하게 보려
하는 경우도 26.5%(49명)라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진정인보다 건축주를 배려하도록 하는 경우도 1.1%(2명)나
된 걸 보면 문민시대의 변화를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건축주나 시공자가 있는 한 진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

돈으로 해결되어지는 민원.

점점 더 고액화 되어지는 민원.

우리사회는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

위의 같은 설문에서 금전으로 해결한 민원중 최고로
많았던 금액을 물었더니 1억원 이상으로 해결한 경우가
17.1%이었으며, 5천만원 이상이 18.4%, 3천만원 이상이
24.7%, 1천만원 이상이 31%이었으며, 5백만원 이상으로

해결한 경우는 88%에 불과하다고 답하였다.

두렵고, 한편으로는 한심한 일이다.

공무원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진정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는 무능한 공무원의 말로는 정계의 대상이 될 뿐, 어디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을 곳은 없다.

유능한 공무원은 진정을 잘 해결하는 공무원이다. 그러나 그들 공무원은 항상 죄의식과 불만속에서 스트레스는 날로 쌓여만 간다. 진정인은 진정인대로, 피진정인은 피진정인대로 담당공무원을 의심하고, 비난을 하는 과정속에서 둘다 만족하지 못한 중재안이라도 만들려고 몇 시간씩, 며칠씩 아침 일찍 또는 밤늦게 뛰어다녀야 하는 서글픈 운명에, 이렇게까지 공무원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회의를 가질 때가 한두번이 아닌 것을 어느 누가 아는가.

N

또다른 유형이 과거 보복형 진정이다. 진정 많기로 유명한 D구청에서 있었던 일이다. 골조공사가 끝날 때까지 있다가 발코니가 늘었다며 진정을 하여 철거를 당한 후 갖은 고통속에서 겨우 준공을 받은 어느 할머니가 그 진정인이 1년후 건축을 하자 보란듯이 집요하게 진정을 하여 고발도 당하고, 전기, 전화, 수도의 공급도 중단시키고, 공사중지를 당하는 등 최대한의 보복을 하는 경우를 보았다. 그들은 영원히 건널수 없는 강을 건너 사이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M구청에서는 17년전 장독대를 짓다가 옆집에서 신고를 하는 바람에 철거를 당한 양잠음을 17년이 지난후 건축할 때를 기다려 진정을 하는 경우도 보았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다. 혼이 나도 싸다는 생각이다. 어떻게 내 잘못은 보이지 않고 남의 잘못만 크게 보인다는 말인가. 이중적인 내면구조를 가진게 인간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금만 참고 이해하면 될 것을, 내게는 관용하면서 이웃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갖는 우리의 이웃이 있는 한 명당은 결코 찾을 수 없으리라.

재산에 대한 욕심은 눈물겹도록 집요하기 그지 없다. 친구도 형제도 재산앞에서는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아왔을 것이다.

10년을 넘게 한동네 옆집에서 친구로 지내왔건만 건축으로 인한 진정앞에서는 완전 남남일 수 밖에 없었던 경우를 당한 필자는 정말 냉혹한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같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었다.

집을 지으면 동네잔치를 베풀던 우리네 옛 정은 모두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가. 품앗이로 노력동원도 하고 그럴 여유가 없으면 막걸리 한사발에 점심 한끼라도 제공하던 아름다운 풍속은 모두 어디로 사라지고 사돈이 논을 사면 배아픈 관계로만 변하고 말았는가. 자기보다 좋은 집, 자기보다 높은 집, 오늘의 우리 사회는 배가 많이 아픈 사람들뿐인가 보다.

진정, 정말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V

진정의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중 하나가 관련법규의 모순에서 찾을 수 있다. 제일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것은 저층 주택지에 3~4층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을 들 수 있다. 주택 200만호의 계획을 정치권에서 세우고, 법은 나중에 만들어 놓고, 일선기관에서는 진정에 시달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저층 주택지에 4층 다세대주택을 허가해 주는 것이 옳으나, 반려처분하는 것이 옳은가, 설계한 건축사가 나쁘냐, 설계를 요청한 건축주가 나쁘냐, 아니면 진정하는 이웃이 나쁘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질문이다.

일조권 규정도 그 중의 하나다. 건축법은 수치법으로서 1cm가 틀려도, 1m가 틀려도 똑같이 틀린 것이다. 정북방향으로 떨어진 거리의 측정방법과 그 수치개념이 과연 현실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꽃이라도 한송이 키워야할 남쪽은 50cm만 떨어지고, 그늘진 북쪽은 2~3m 이상이 떨어져야 하는 주택이 과연 일조권 확보라는 명목으로 계속 건축되어져야 하는 것인지 냉정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동쪽에 짓는 경우도 일조권, 북쪽에 짓는 경우도 일조권을 요구하는 진정인에게 일조권은 정북방향으로만 적용된다고 설명한다면 과연 이해를 하겠는가.

지하층의 노출도 문제다. 지하층의 설치목적은 민방위 대피호 개념에서 출발하였다면 주거용의 경우는 지층의 1/2이 노출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되는지, 아니라면 이 지하층 규정을 없애든지 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93.8.9자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반영이 되었지만 이 지하노출로 인한 위법과 진정은 홍수를 이룰만큼 많았다.

옥탑의 경우도, 높이와 층수, 면적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점을 악용해서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전세를 두도록 건축하는 경우도 진정내용의 주요한 하나이다.

사용검사후 뻔히 위법할 줄 알면서도 사용검사를 해주지 않을 수 없고 또 건축주는 이웃집이 위법했으니 자신도 해야겠다는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는 한 이러한 위법과 진정은 끝날 길이 없을 것이다.

창문의 설치에 대한 민원도 많은 편이다.

한번은 집단진정이 들어와서 구청장을 변남하면서 창을 설치하지 말고 건물의 방향을 바꾸어 달라는 것이었다. 말도 안되는 이런 민원도 공무원이 어찌 거절해 버릴 수 있겠는가. 겨우 건축주를 설득해서 방향을 바꿀테니 진정을 하는 주민들간에 협의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더니 방향이 바뀔 때 피해를 입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엔 허가사항대로 건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남은 것이라곤 진정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공무원과 주민들만 있을 뿐.

그동안에 공무원이 당해야 했던 수모는 누가 보상해 주려는가. '일마를 먹고 건축주를 봐 주었는가.' '건축주는 어떤 뻘을 갖고 있길래 허가를 해 주었느냐'는 등.....

A구 C동에서의 일이다. 2층 주택지에 3층 다세대 주택의 건축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진정하는 일대의 전소유자가 영원히 3층으로 건축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만약 진정인중 누구라도 3층으로 건축시에는 피진정인이 3층으로 건축할 모든 건축비를 부담하겠다는 공증각서를 써주면 2층으로 건축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더니 한명도 온하지 않았다. 결국엔 건축주는 3층으로 건축을 한 사례도 있었다.

VI

D구청에서 있었던 일이다. 3m 도로 건너편의 2층 주택건립을 진정인 집보다 높게 된다고 집요하고 악착스럽게 진정을 하였다. 필자는 공무원 생활중 그렇게 이유없는 수모를 당하기는 처음이었다. 약사인 오십대 부인이었는데 참을忍을 마음속으로 백번을 외며 진정인을 상대할만큼 지독한 분이였다. 어느날 갑자기 진정취하와 법원의 소송까지도 자진 취하를 하였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충격으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또다른 사건도 있다. 진정으로 700만원을 받아 그 돈으로

차를 구입해서 여행을 떠났다가 영원한 여행을 떠난 경우도 들었다.

붕괴되어가는 이 사회, 진정으로 말미암아 더욱 가속화의 길로 가고 있다. 3차 대전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다. 아마겟돈전쟁이 지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 지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끌고 있는 것은 못난 우리 인간들, 친척도, 친구도, 이웃도 재산앞에서는 서슴없이 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인간들 자신인 것이다.

진정이 없는 사회.

한발만 물러서면 되는데, 한번만 참으면 되는데 한치앞을 못보는 우리 인간의 속성은 정말 구제불능인가. 건축주도 진정인도 서로 상대방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필자는 상담시 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꼭 전해준다.

“진정을 하셔야 한다면 오늘 하루를 꼼꼼히 생각해 보신 후 그래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면 다음날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또 훗날 건축을 할 때는 오늘 진정한 것의 수십배에 달하는 보복이 있다”는 것을, 부질없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법대로 하자.

법은 스스로 지키는 자만을 보호한다.

법 이외의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 한다면 당장은 이익일 수 있으나 그 방법으로 피해를 입을 다음순서는 바로 그 자신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진정처리에 있어서 공무원은 행정벌이나 형사벌만 조치를 하게 하고, 민사적인 문제는 당연히 민사소송에 의하여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본다. 정당한 방법이 아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억지로라도 진정을 잘 해결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사회는 인간심성을 파괴하고, 황폐한 사회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VII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VIII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부산 카톨릭 대학

Pusan Catholic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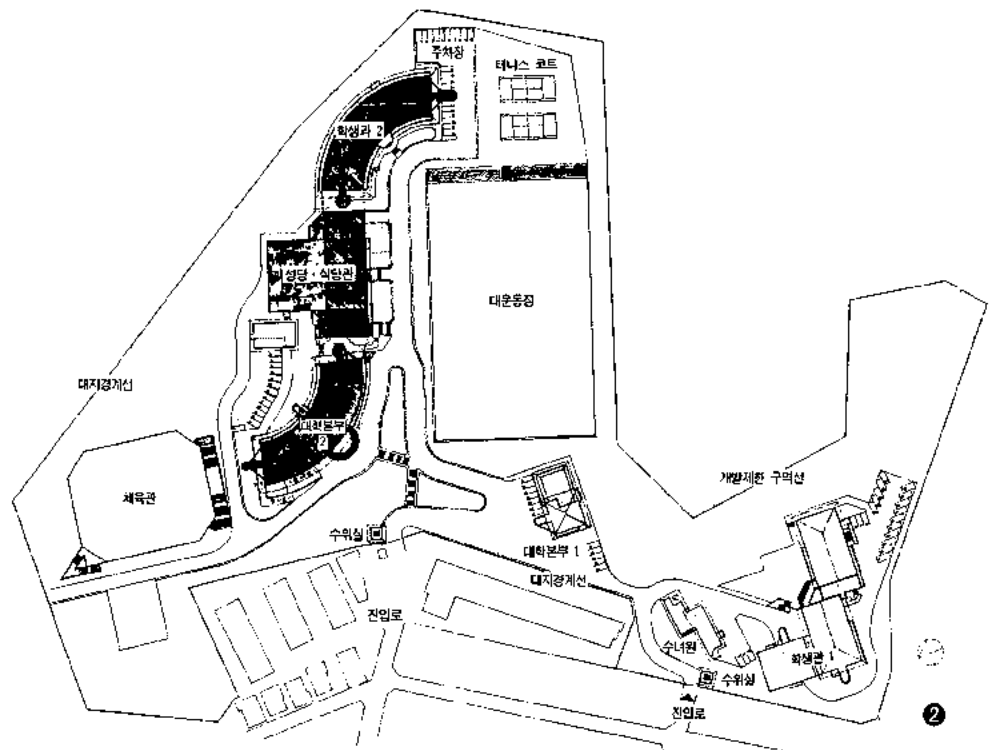
姜錫元/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가

Designed by Kang, Suk-Won



1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도곡동 산 13-24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구
 대지면적 / 62,798㎡
 건축면적 / 7,211.03㎡
 연면적 / 25,811.38㎡
 건폐율 / 11.48%
 용적률 / 33.82%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일부 철골조
 외부미감 / 벽·적벽돌 차장쌓기
 지붕·아스팔트 평판



2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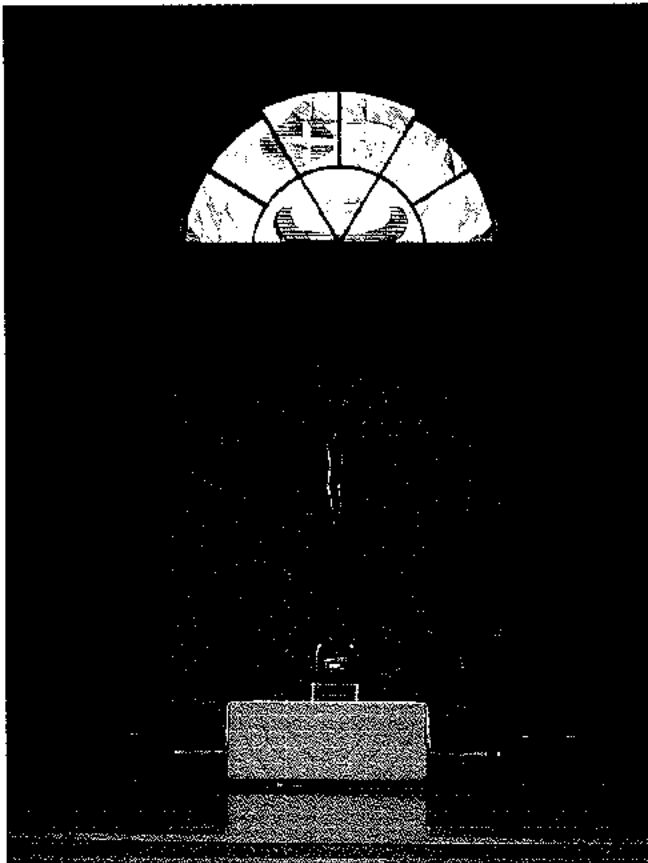


- ① 학생관 제2관 전경 및 성당·식당관
- ② 배치도
- ③ 성당·식당관 전경
- ④ 성당 출입에서 본 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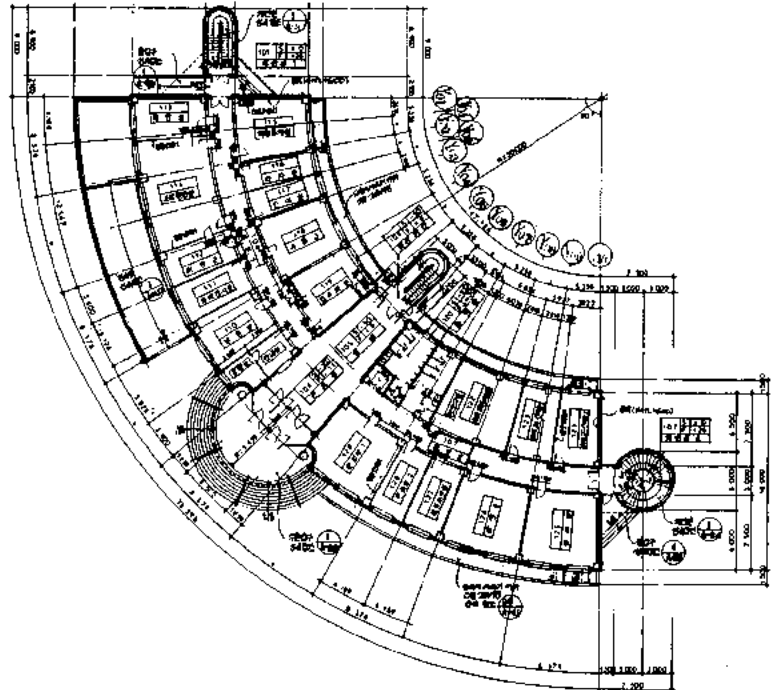
④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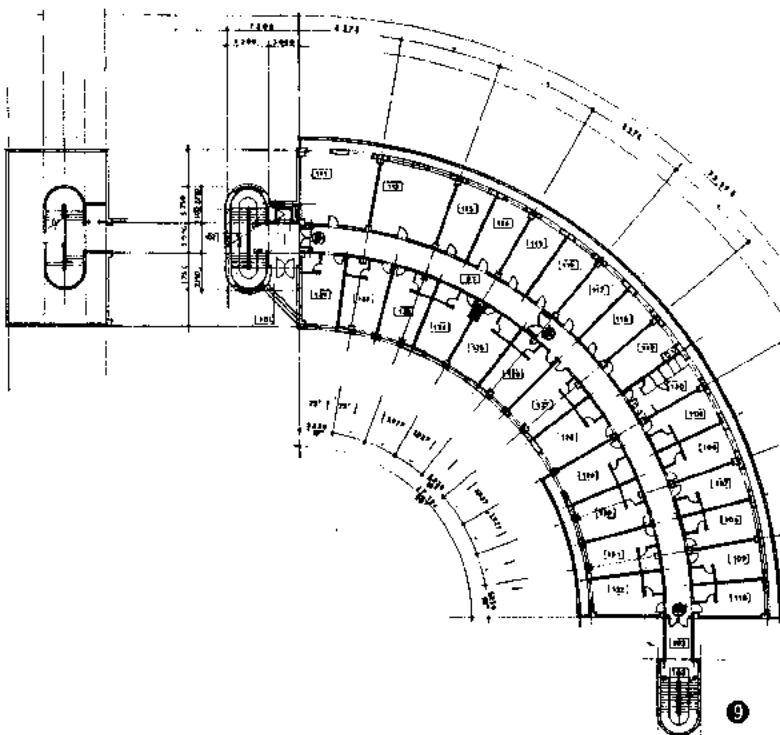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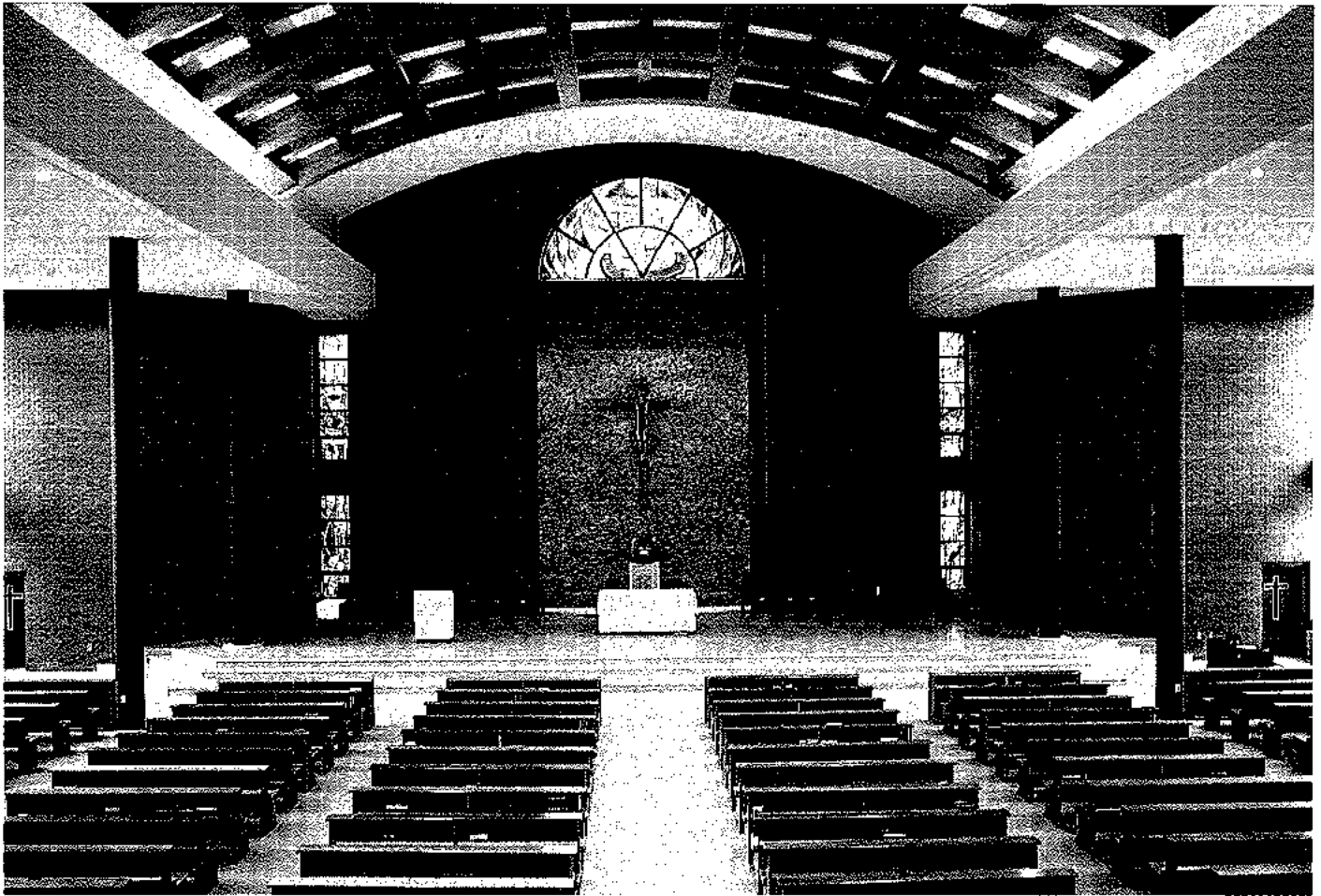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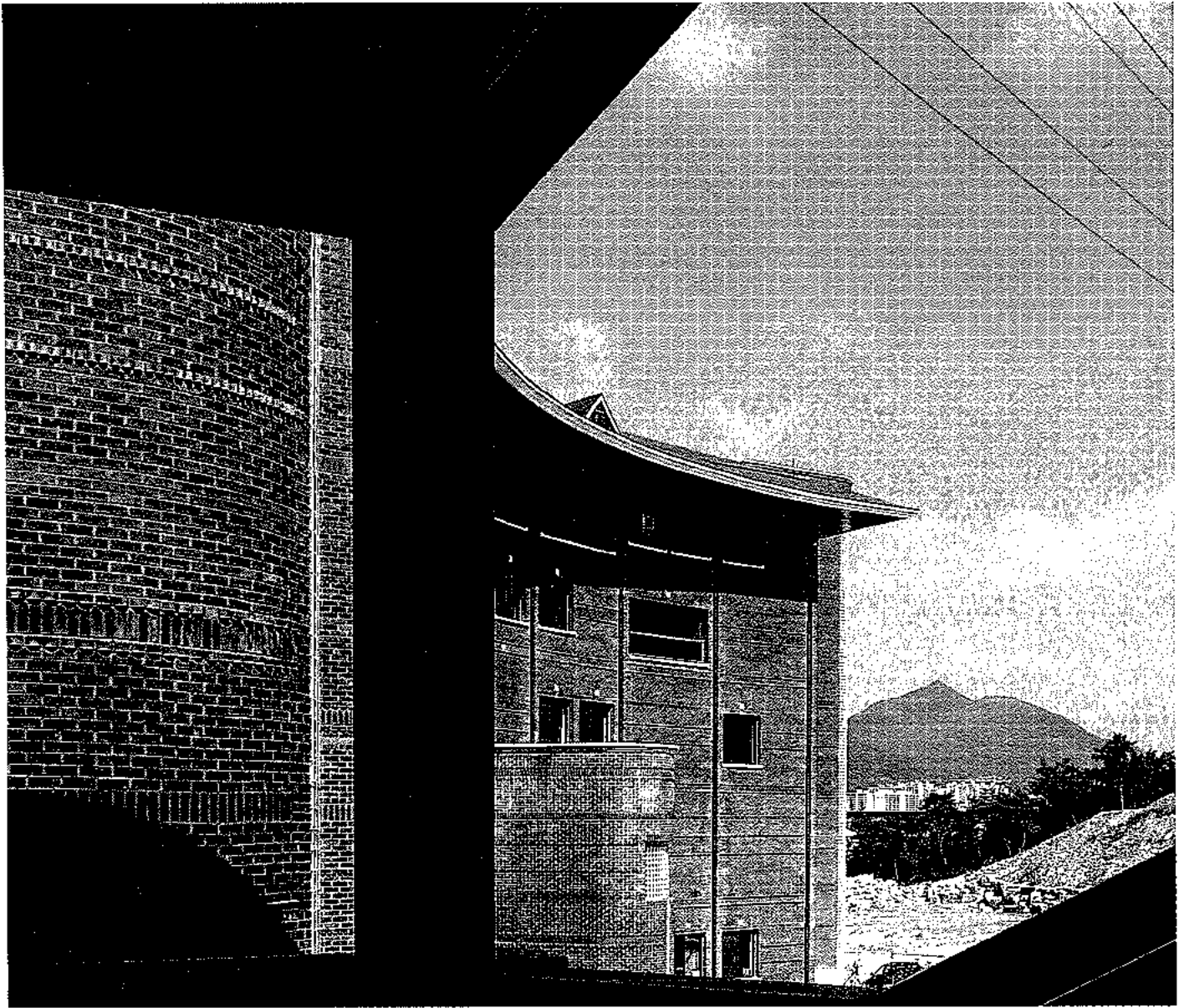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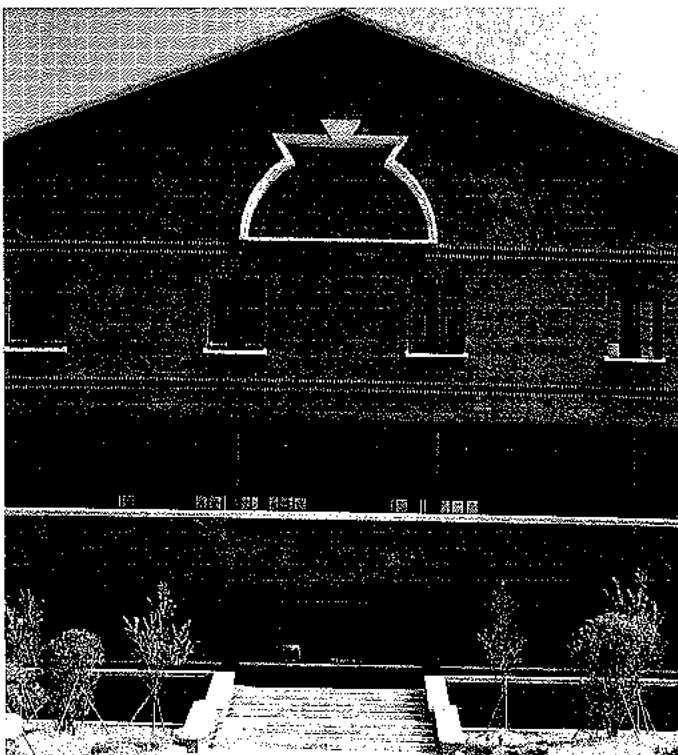
- ⑤ 성당·식당관 및 대학본부 제2관 전경
- ⑥ 성당의 제단
- ⑦ 대학본부 제2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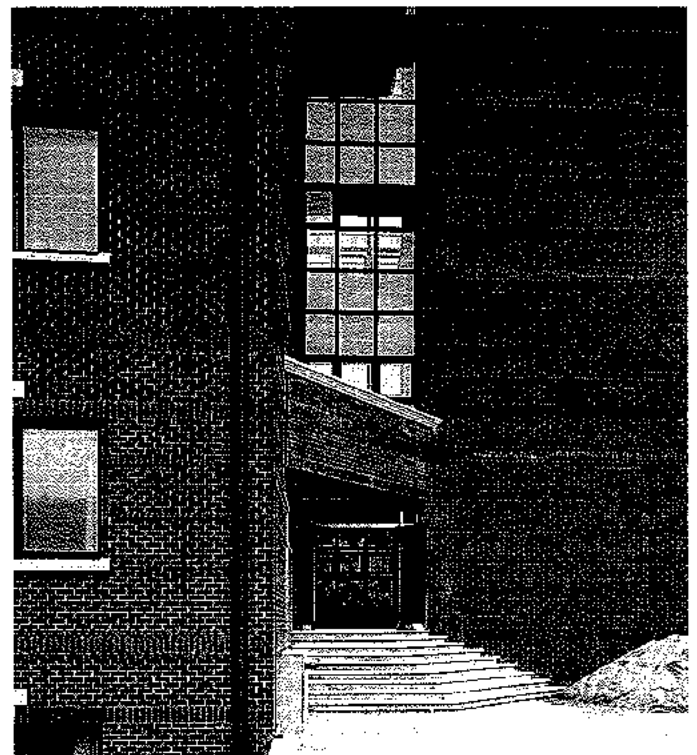
- ⑧ 성당내부 전경
- ⑨ 학생관 제2관 1층 평면도
- ⑩ 성당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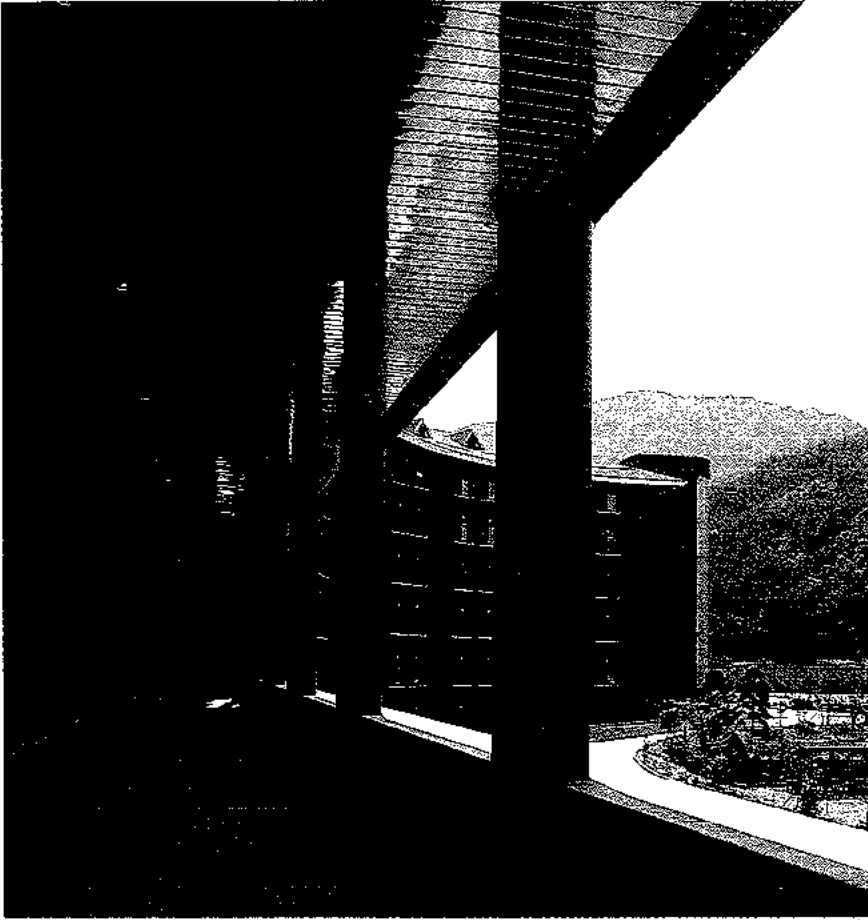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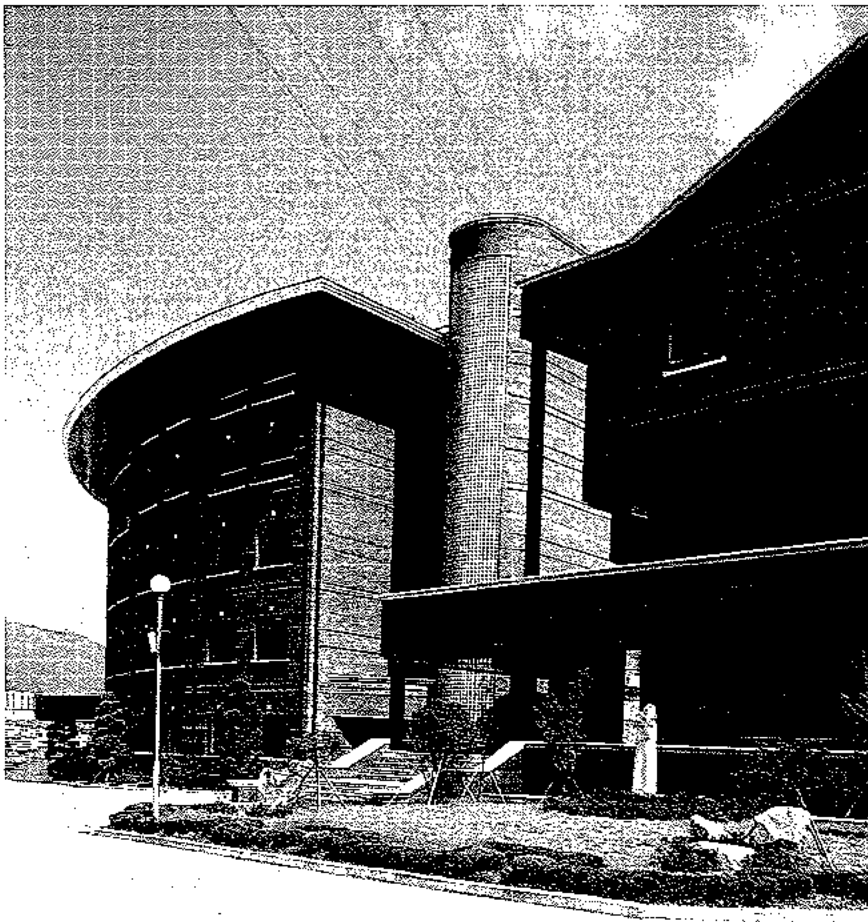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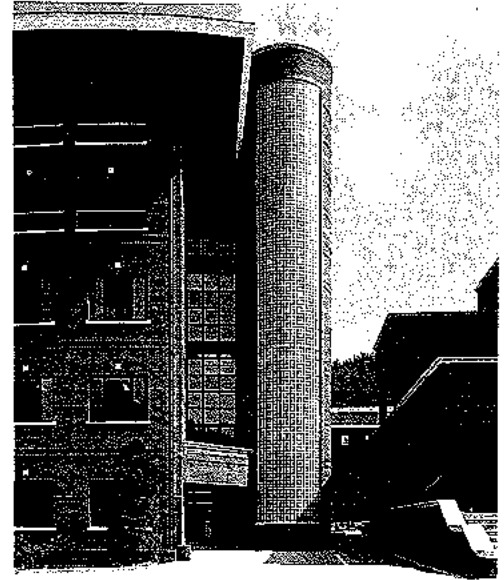
13



17



1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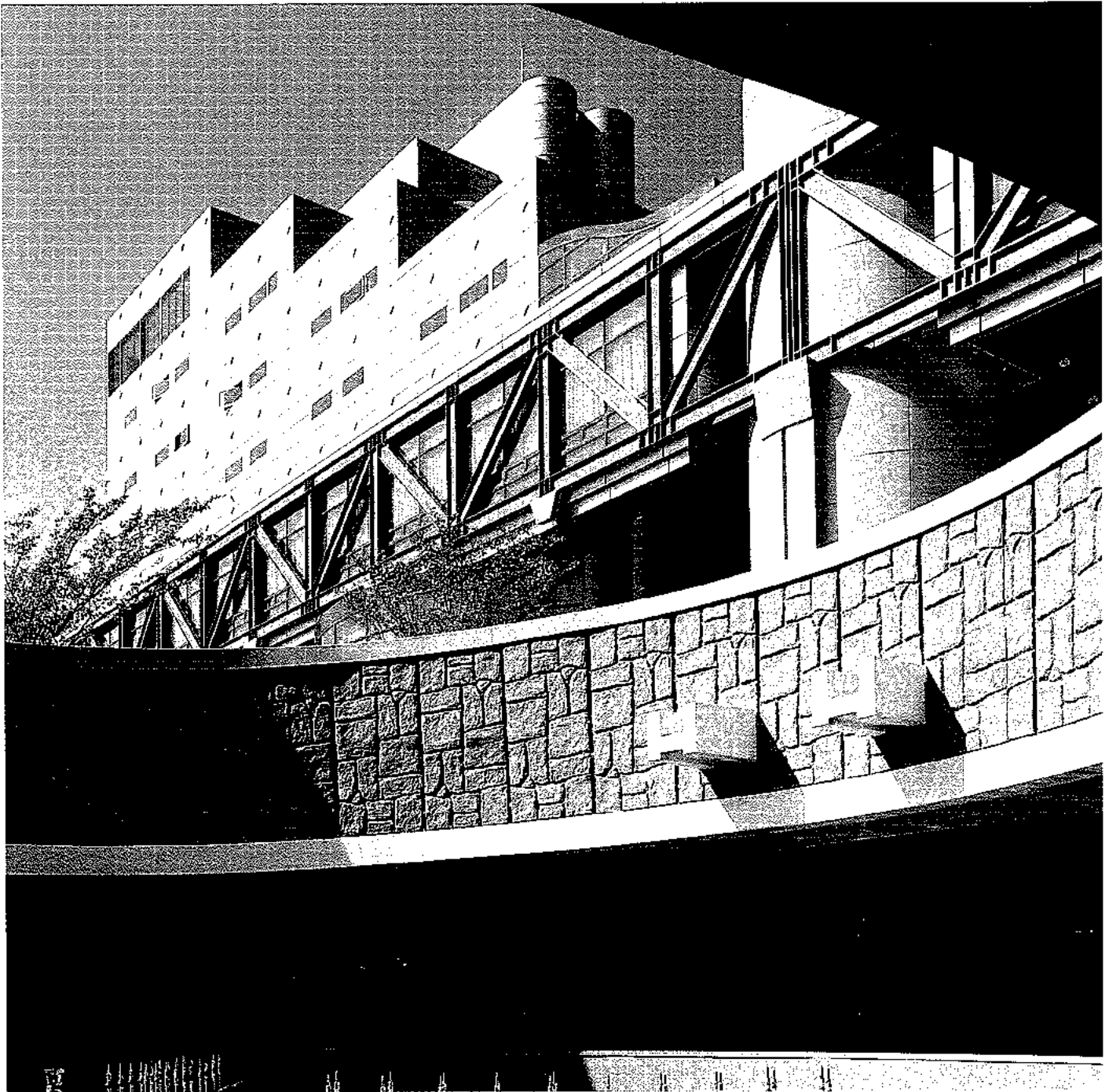
- ⑪ 학생관 제2관 외부상세
- ⑫ 성당·식당관 전면 주출입구측 상세
- ⑬ 학생관 출입구측 상세
- ⑭ 식당관 복도
- ⑮ 대학본부 제2관 성당·식당관 외부상세
- ⑯ 대학본부 출입구측 상세

Taeduk Science Cultural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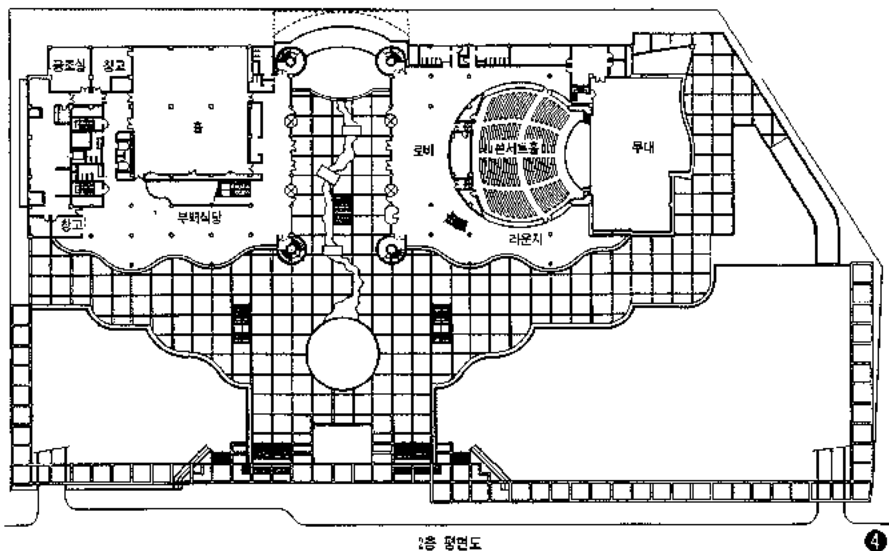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ure & Engineers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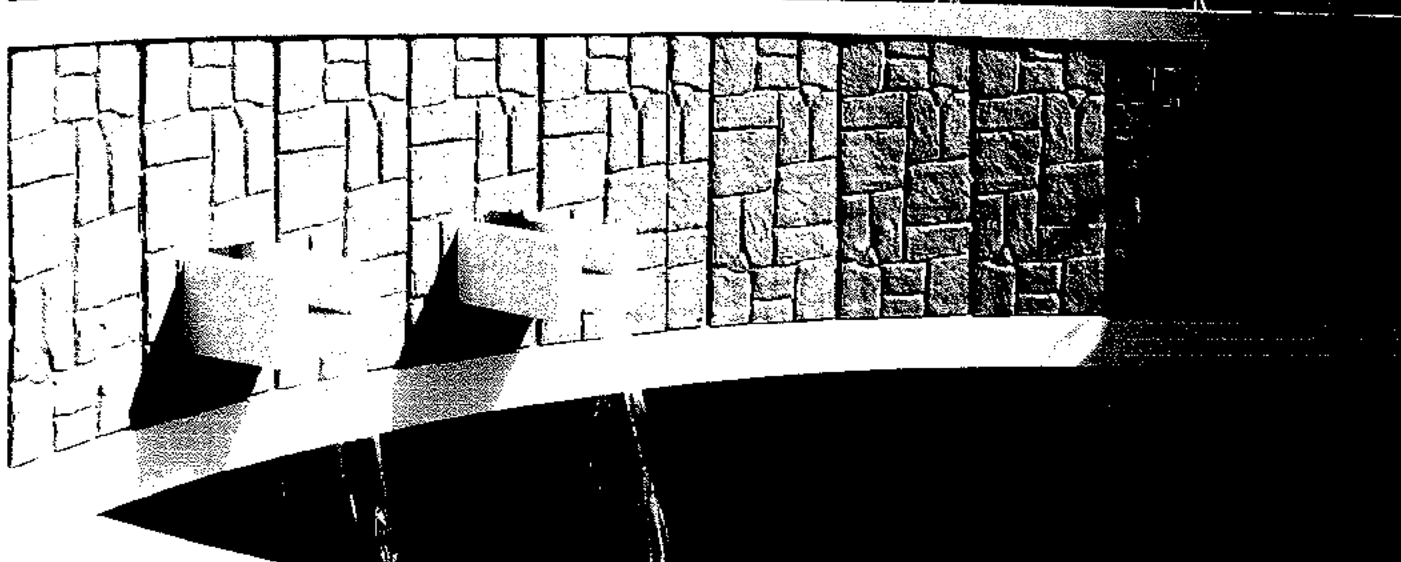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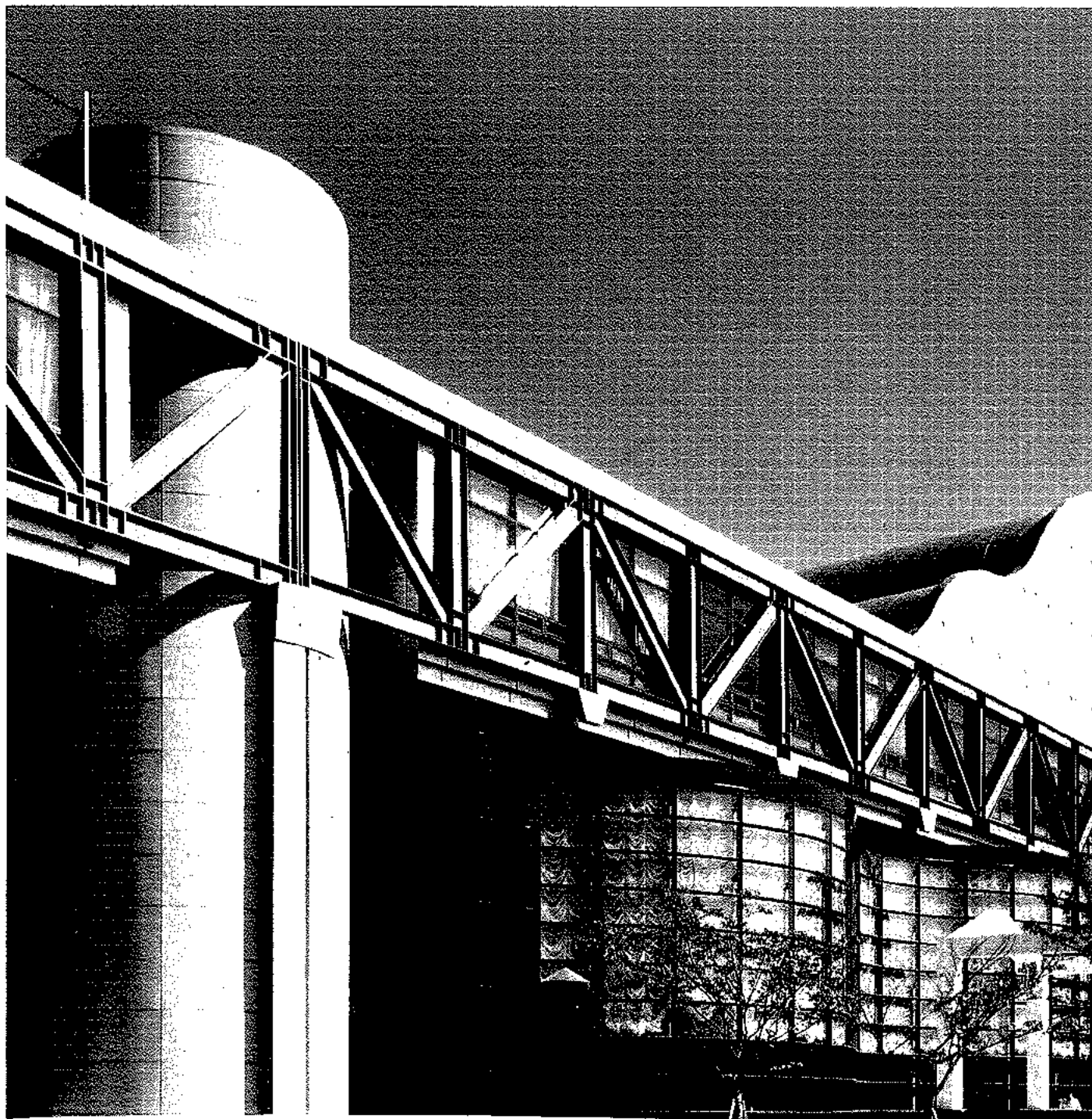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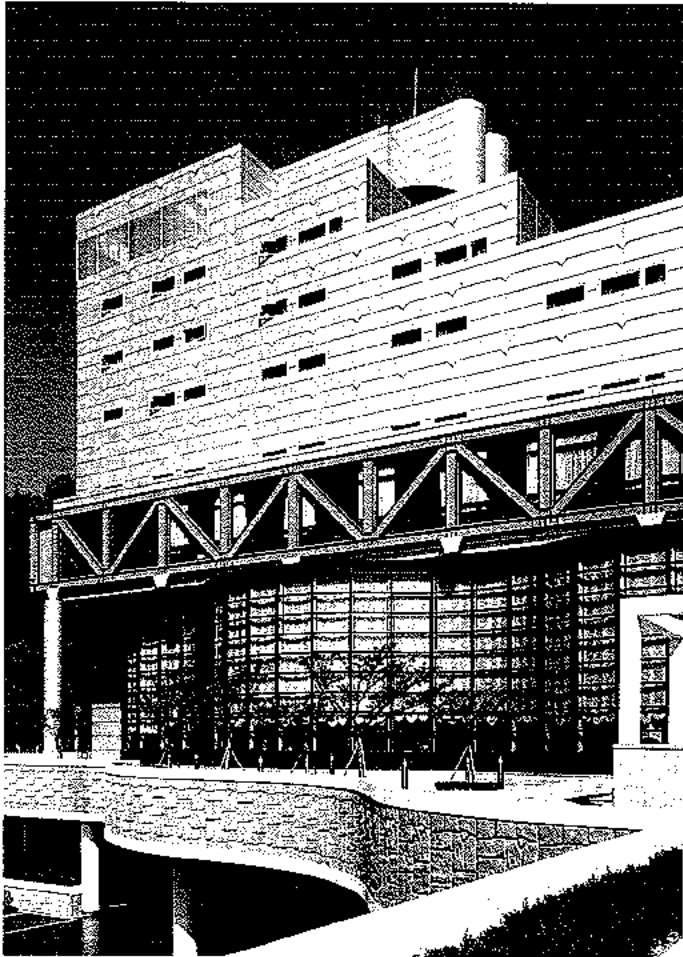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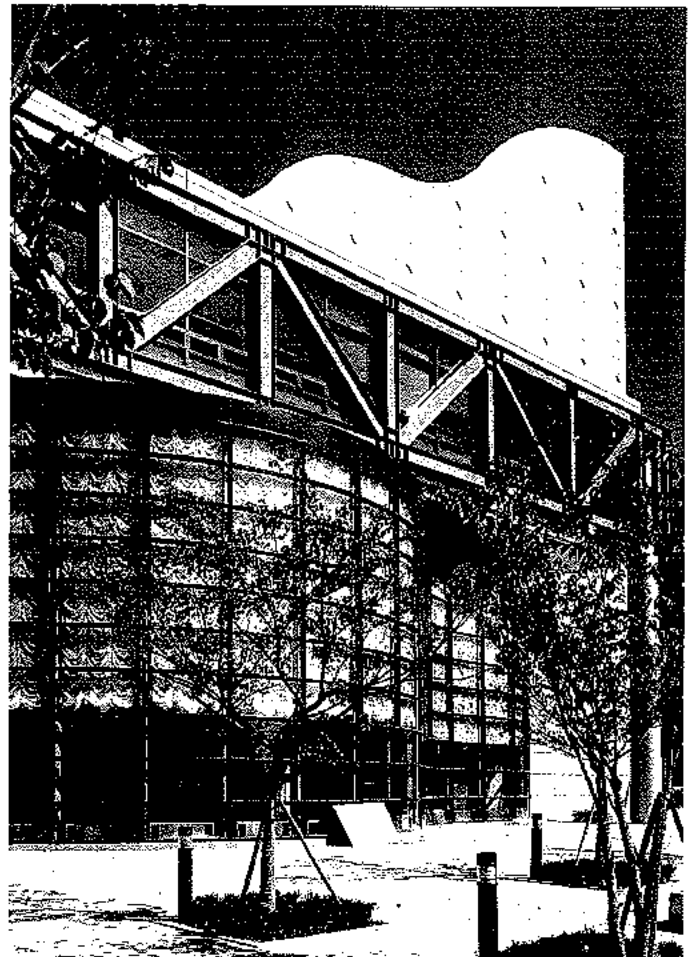
④

- ① 남측전경
뒷산이 가지는 자연의 기(氣)와 인공적 도시와의 완충적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1층 평면도
- ③④⑤ 과학의 냉철한 이미지를 은유하는 직선, 구, 트러스 등 정형의 요소들을 자유로운 곡선, 유리의 투명성 등 비정형의 건축요소들로 엮어 내면서 하이테크의 차가운 이미지를 인간적 감성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낸다.
- ④ 2층 평면도





6



7

대덕과학문화센터의 대지는 35m의 주진입도로에 의한 도심축과 지세에 의한 자연축이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으며 전면의 동서로 연결되는 25m 순환도로 축에 의하여 결절점을 이루고 있어 강한 위계와 시각적 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건물의 배치가 되는 산세가 도시의 가로축과 만나면서 강한 장소성을 가진다.

이러한 대지가 갖는 강한 도시적 성격해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도시의 중추적 문화교류 기능을 수행하게 될 대덕과학문화센터의 디자인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건축계획의 기본개념

- 과학문화센터의 이미지 부각—건물의 형태를 생동감이 넘치도록 구성함으로써 단순 기하의

과학적 이미지에 친근하고 인간적인 이미지를 부합하여 현재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하였다.

- 진입도로에서의 접근성 강화—경사진 대지의 Level차를 이용하여 Deck Plaza를 설치하여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을 분리하고 주진입방향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 정면성의 강조—전면의 Deck Plaza는 수평적인 안정감을 주며 게스트하우스+커뮤니티센터와 콘서트 홀의 양기능을 트러스를 사용한 들로서 엮으며 그 사이에 반외부적 공간인 중정을 형성하여 정면성을 강조하고 중앙부에는 수정시설을 설치하여 친근감이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배치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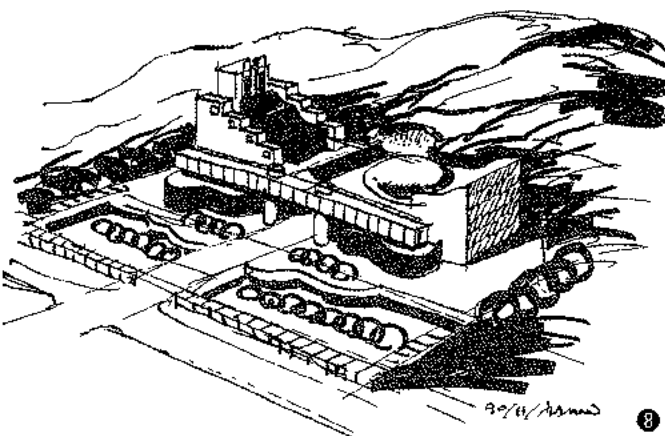
과학연구단지의 중심문화시설로서의 상징성부각을 전제로 한 배치개념은 첫째 축의 설정이다. 대지 전면의 35m 진입도로의 축은 정면성과 장소에 대한 인식도가 강조되며, 자연지세의 축과 일치하므로 배치의 주축으로 삼게 되었다. 둘째 지형의 흐름과의 조화를 들 수 있겠다. 대지내에서의 다양한 시각과 지형의 발달방향을 고려하고 건물의 형태가 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건축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함이다. 셋째 Deck의 설정이다. 역시 대지의 고저차를 적절히 활용하여 복잡한 시설물간의 유기적 연결을 도모하고 다수의 이용자에 대비한 여유있는 전면광장의 확보에 노력하였다.

조형 및 입면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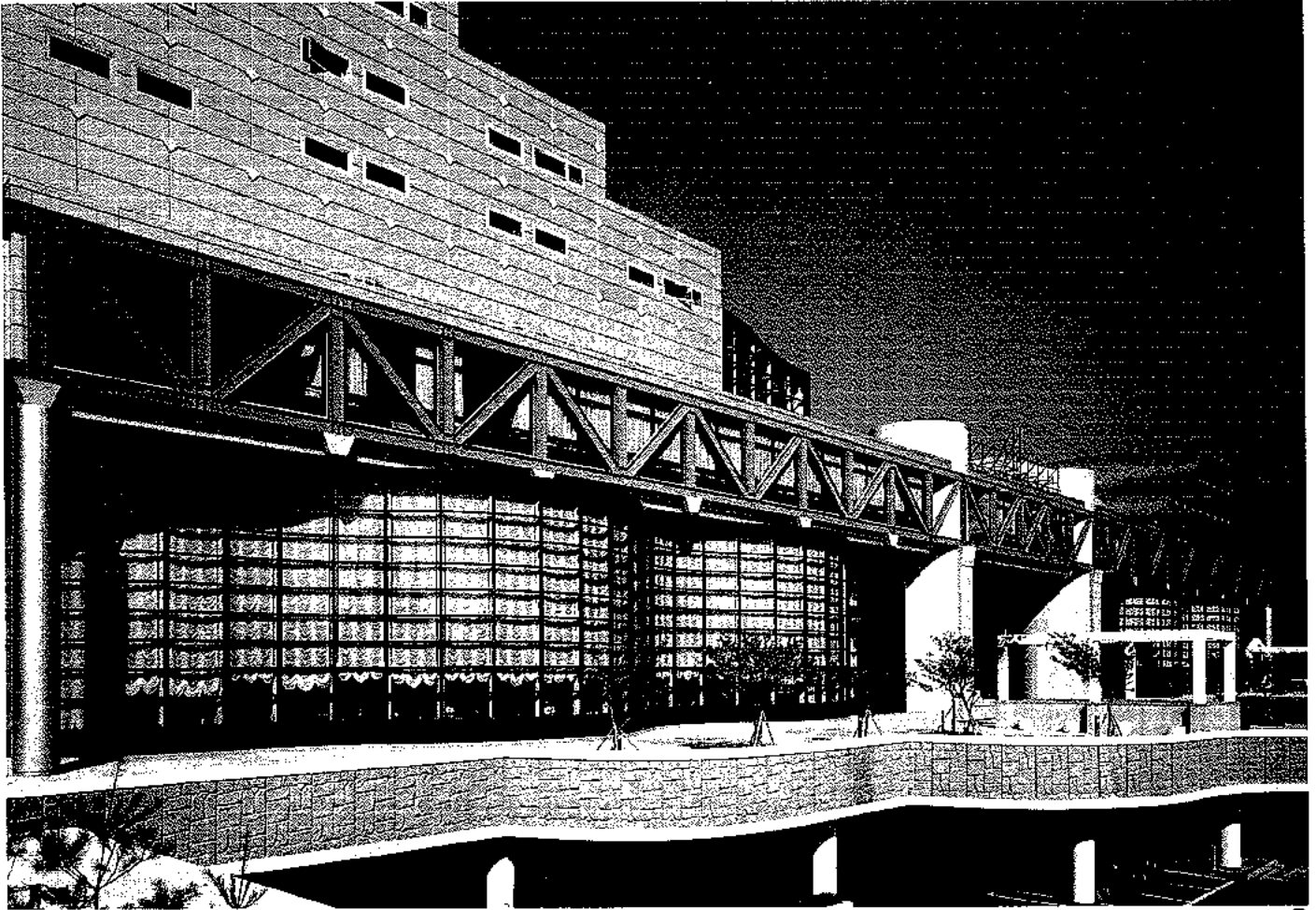
강한 기하학적 형태의 역동성을 통하여 문화시설이 갖는 기념적 표현성을 창출함을 전제로 하였다.

정사각과 구, 직선과 트러스는 과학의 은유이며 아트리움과 무대부분의 곡선은 산과 오솔길, 구름과 물결을 상징하며 자연과 인간의 은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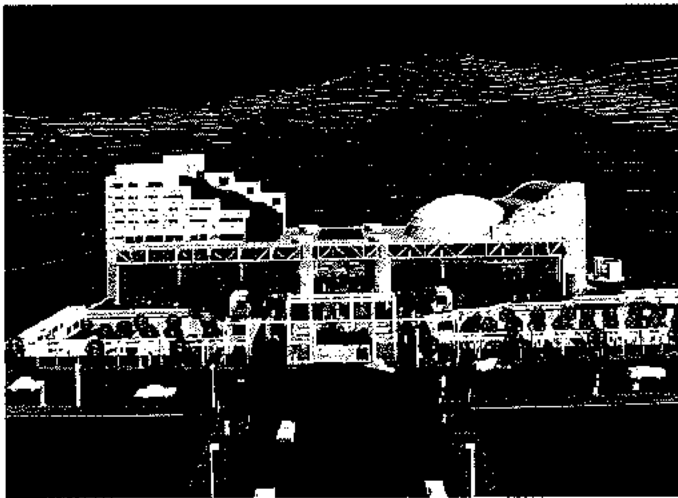
과학문화센터로서의 이미지 무각을 위해 하이테크한 알루미늄쉬트, 철골트러스를 사용하면서 저층부의 넓은 투명유리는 친근감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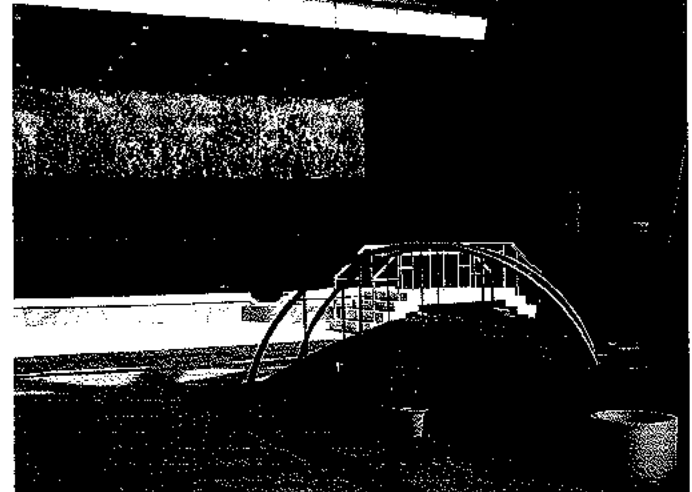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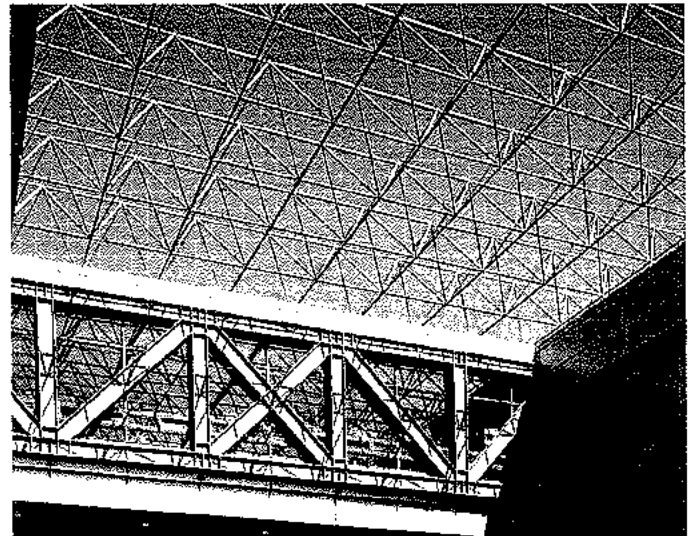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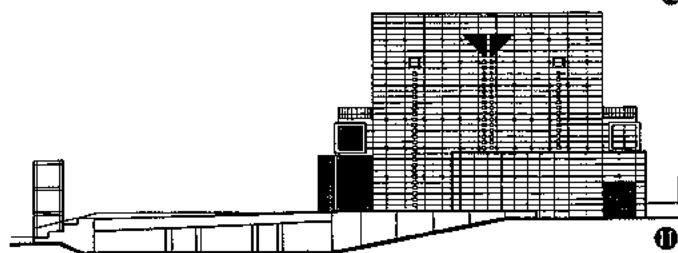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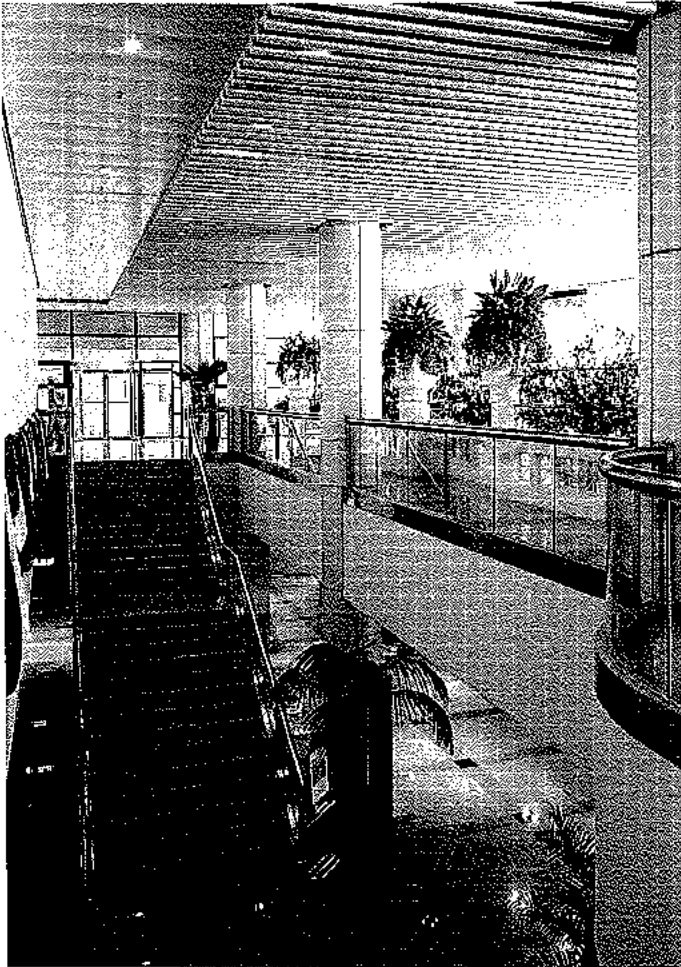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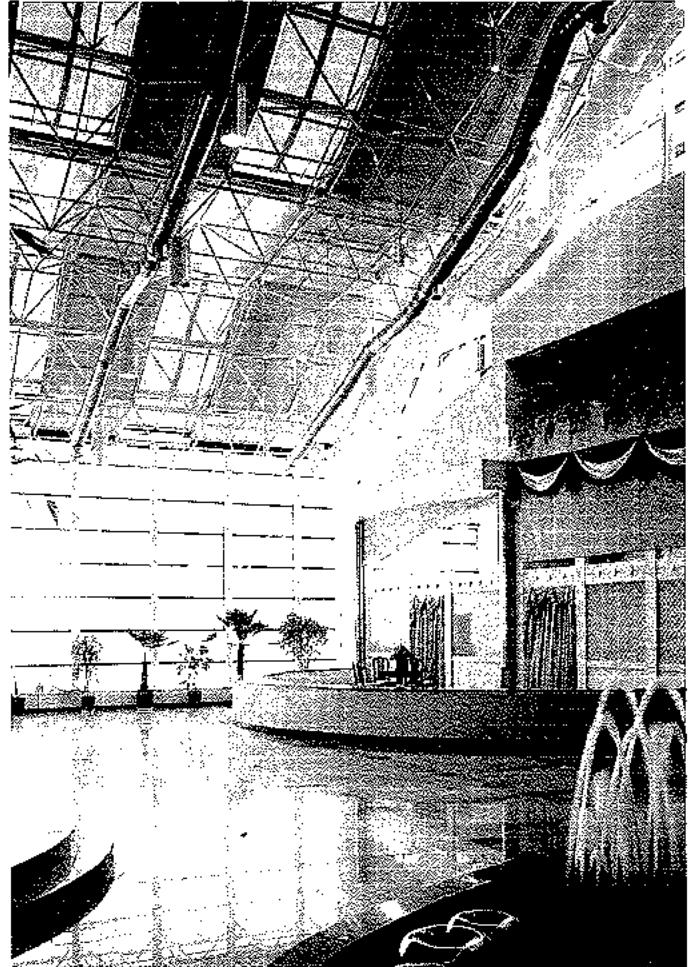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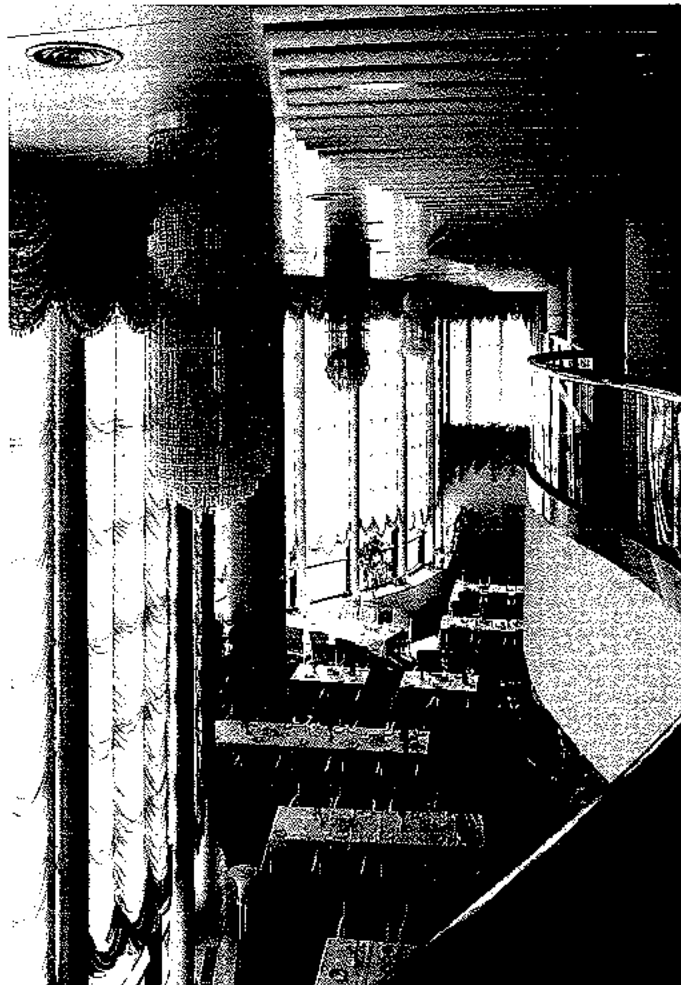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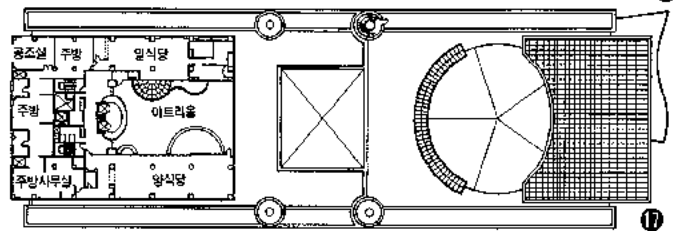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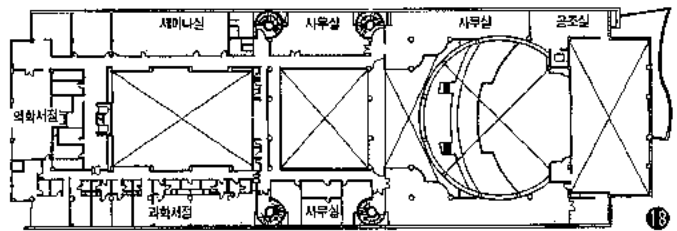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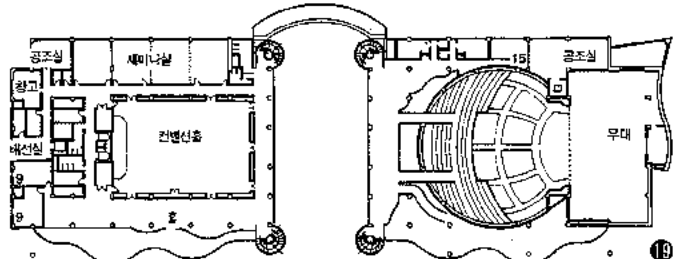
16



17



18



19

⑨ 입면 스케치

⑩ 역동적 Mass의 변화에 안정감을 부여하는 트러스의 수평적 요소

⑪ 단순 기하학적 형태의 역동성을 표현하는 정면 모형

⑫ 동측 입면도

⑬ 북측 입면도

⑭ 건물 중앙의 앞뒤가 트인 중정

성격의 외부 공간

⑮ 1층 게스트 하우스 로비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내부계단 전경

⑯ 5층 아트리움 전경

⑰ 부페식당

⑱ 5층 평면도

⑲ 4층 평면도

⑳ 3층 평면도

탐라 교육원 연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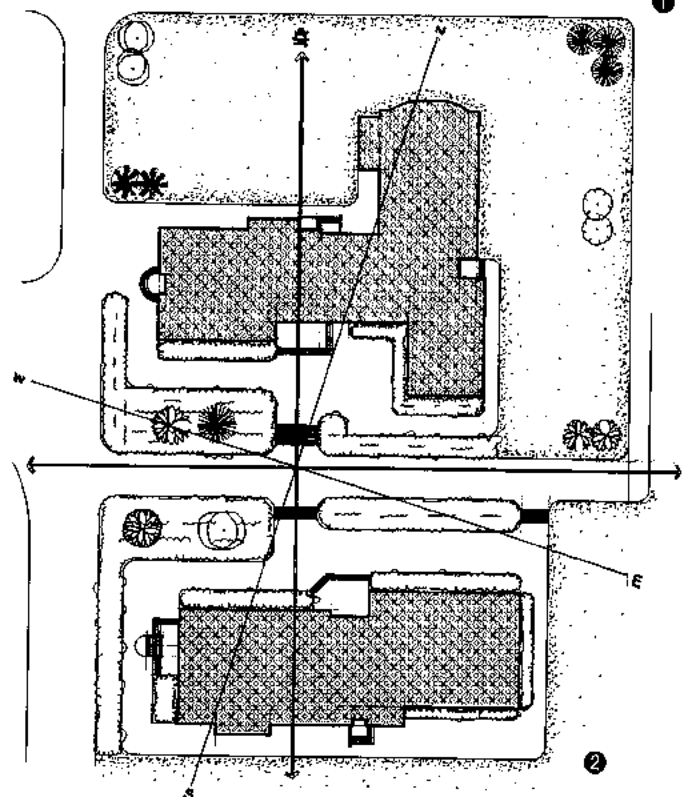
Tamra Educational Institution Training Hall

姜幸生/강행생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ang, Haeng-Saeng



위치 / 제주시 오리동 산 100번지
 지역, 지구 / 경기지역, 지구외
 대지면적 / 330,000㎡
 건축면적 / 1,027.85㎡
 건폐율 / 1.59%
 연면적 / 1,510.70㎡
 용적률 / 2.17%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방식 / 철근 콘크리트조
 주요 외장재 / 제주산 석재, 송이, 화강석 비너구이





3

교육연수자의 요구와 생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목적에 적합한 공간을 유도하였다. 따라서, 각 공간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외관을 처리하였다.

계획의 지침이 되었던 것은 소박하고도 품위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으며, 방향성을 고려한 축의 설정, 이에 의한 수평·수직 및 완만한 경사에 의한 비례감을 형성하여 교육원 연수자의 정서를 도모함과 함께 계주도가 가지고 있는 향토적인 색채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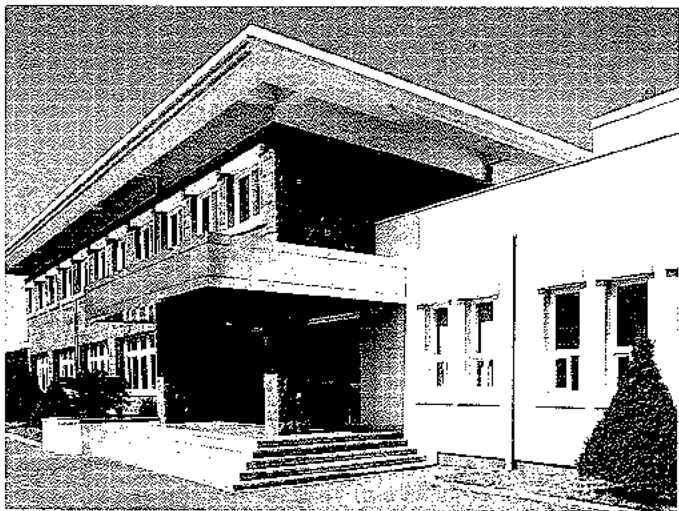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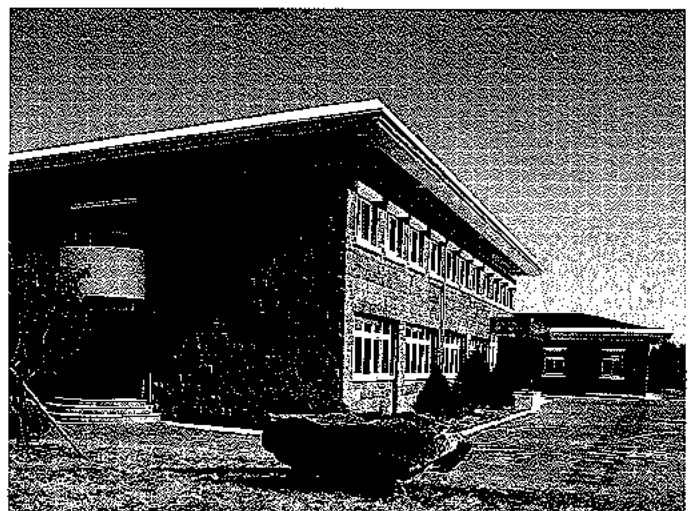
- ① 남측전경
- ② 배치도
- ③ 동측에서 바라본 주출입구측 전경
- ④ 부출입구 상세



9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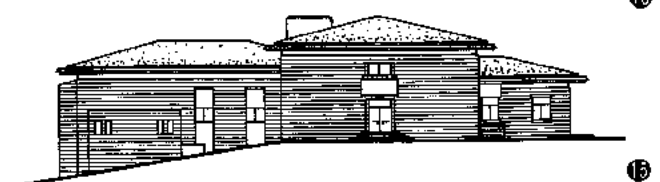
12



13



14



15

곤지암 컨트리 클럽

Kongiam Country Club

李忠彦+金光燮/(주)원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Chung-Eon & Kim, Kwang-Sub



1

대지위치 /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운흥리

대지면적 / 16,521.35㎡

건축면적 / 4,47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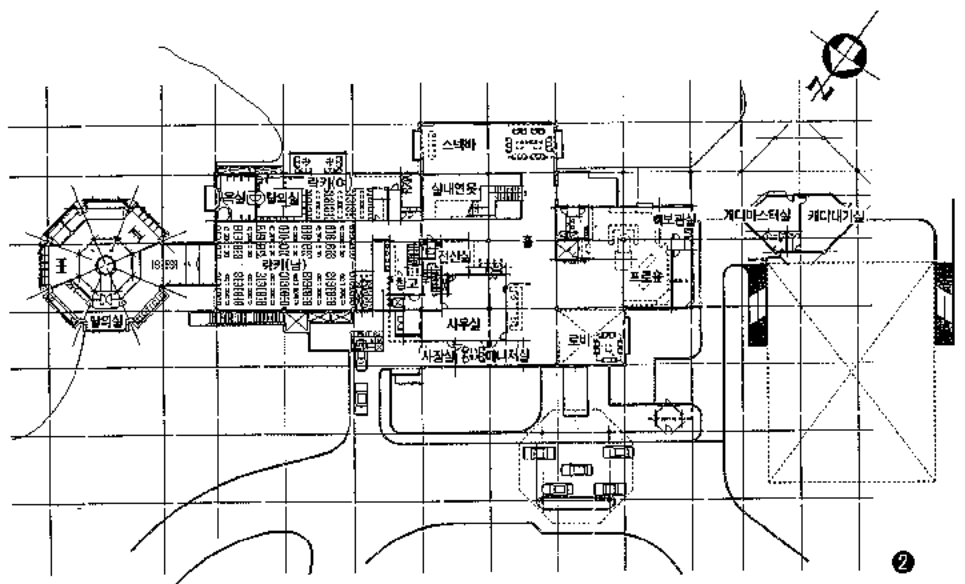
연면적 / 7,940.18㎡

건폐율 / 49.32%

용적률 / 69.14%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 SRC

외부마감 / 자기질 타일, 동판철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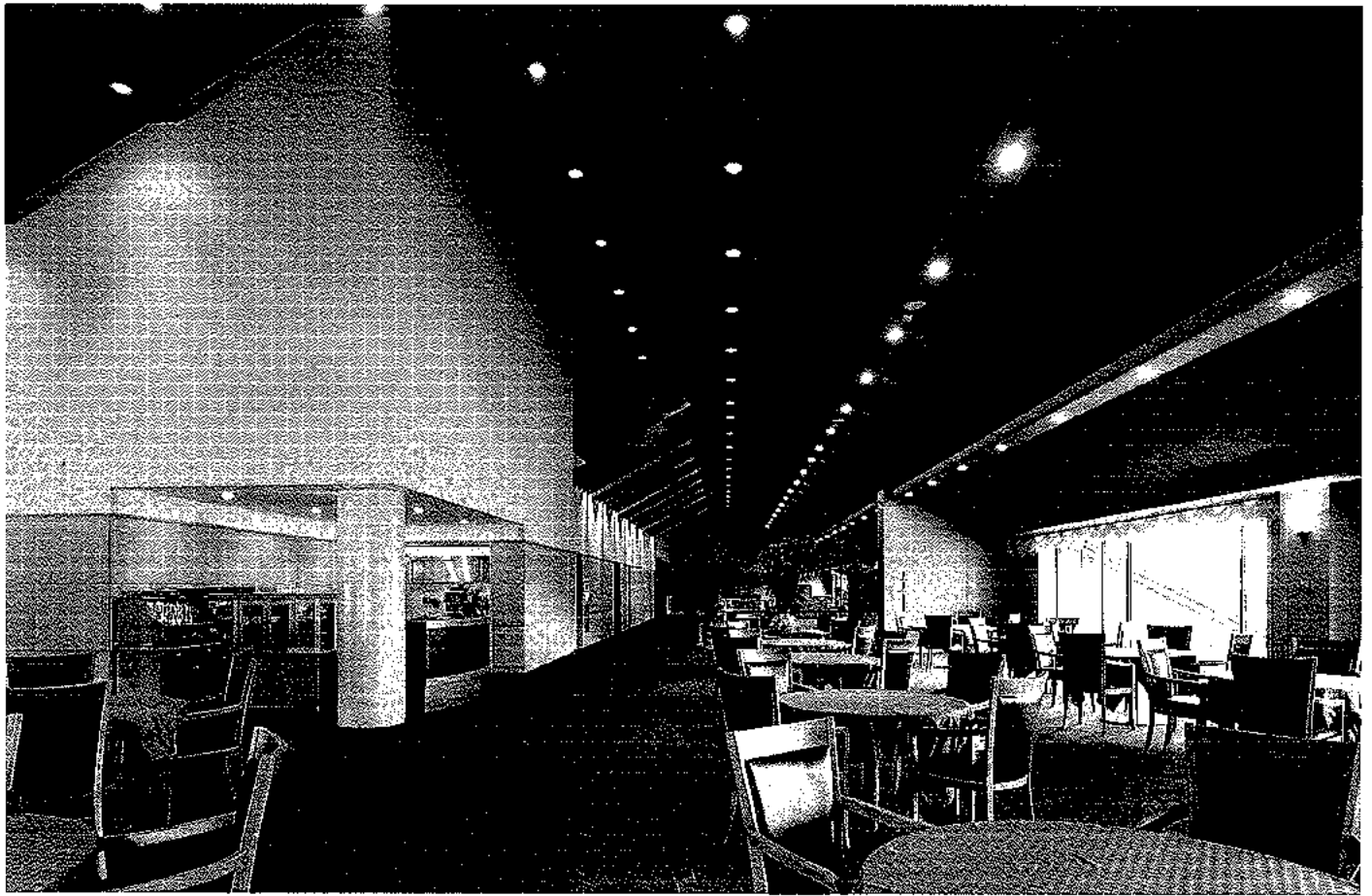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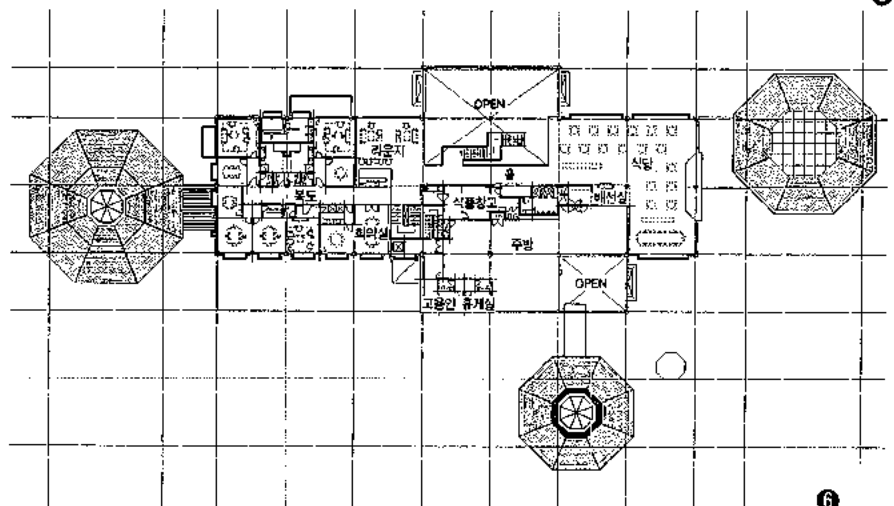
4

- ① 크립하우스 전경
- ② 1층 평면도
- ③ 북서측 전경
- ④ 스넥바 및 실내연못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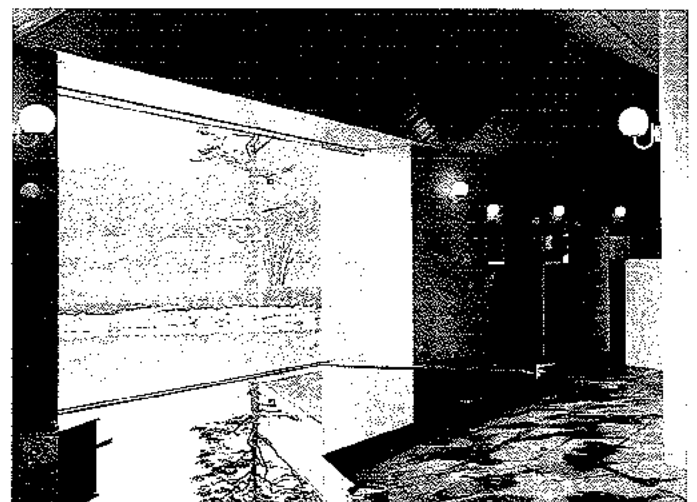
- ① 식당 전경
- ② 2층 평면도
- ③ 클럽하우스 샤워실 I
- ④ 클럽하우스 샤워실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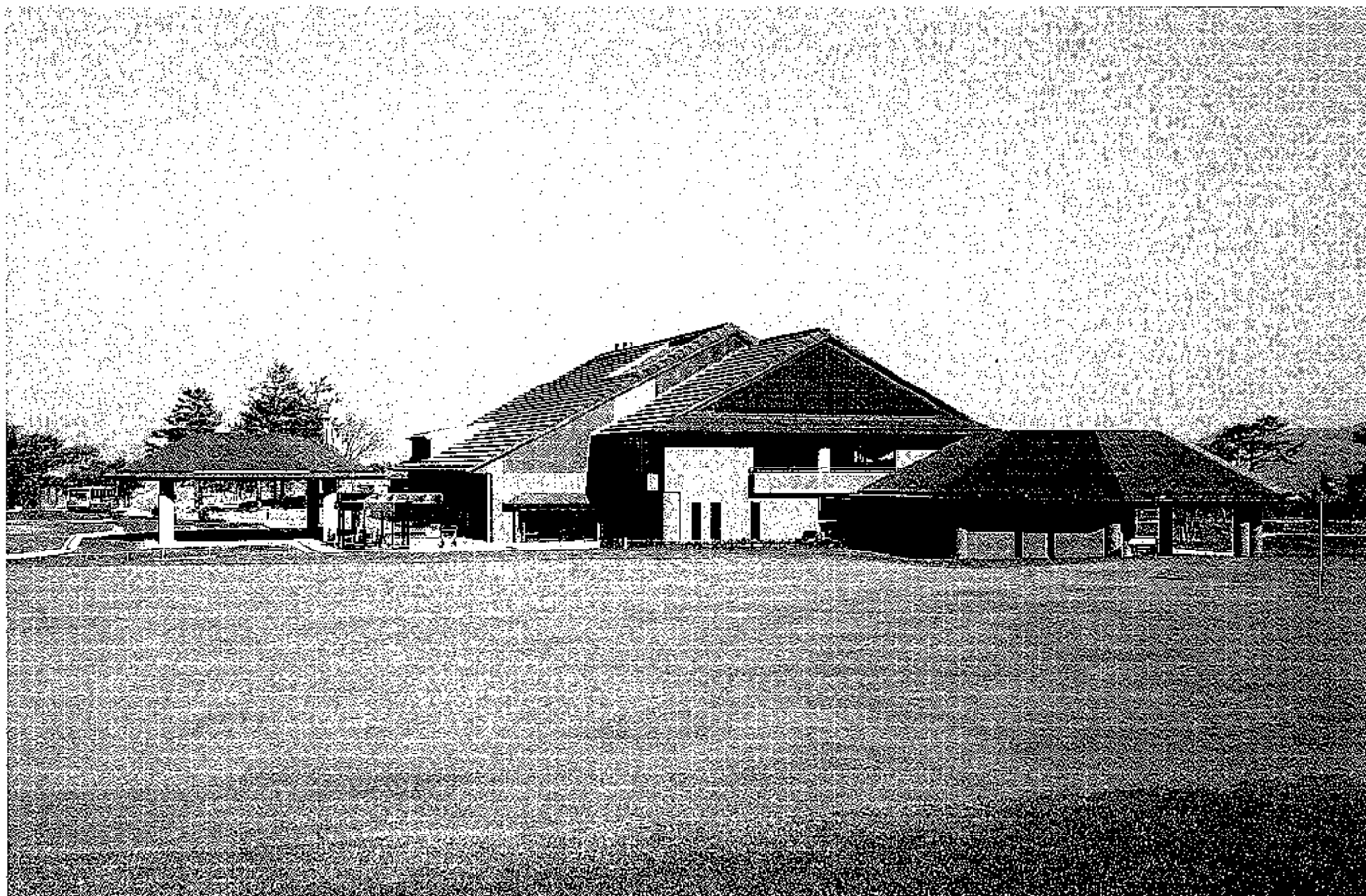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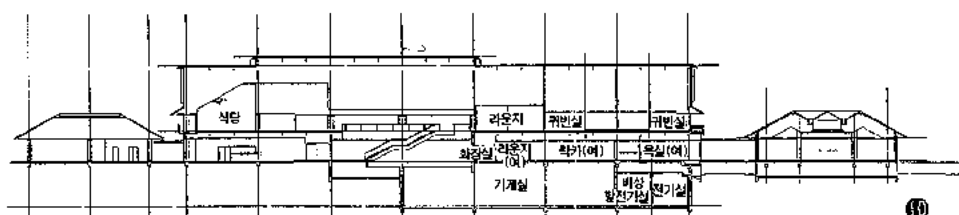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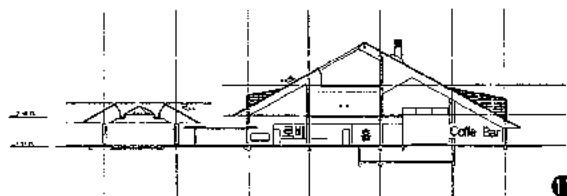


9



10

- ① 서측 전경
- ② 횡단면도
- ③ 종단면도
- ④ 남자 탈의실
- ⑤ 라운지에서 본 레스토랑



11



12



13

덕진구청 청사

Dujin Government Buildings

故 李榮洙/종합건축사사무소 부민·공간·수도
Designed by The Late Lee, Yeong-Soo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
번지

지역·지구 / 주거지역

대지면적 / 8,264.5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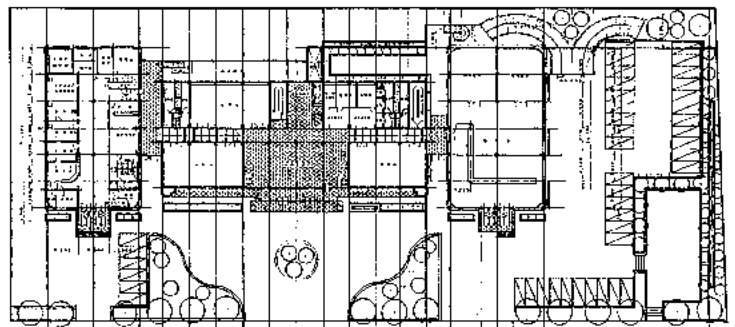
건축면적 / 2,339.5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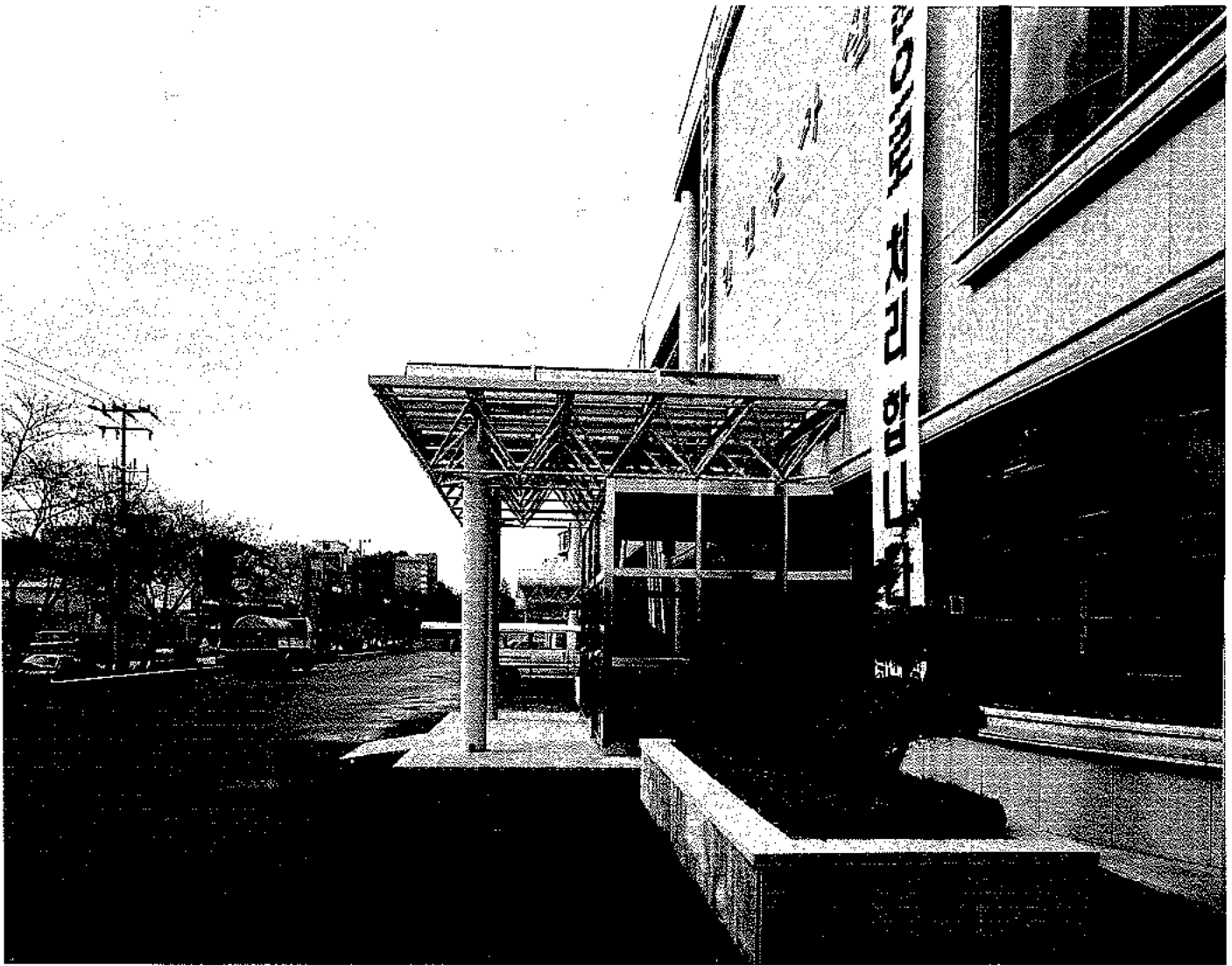
연면적 / 12,558.16m²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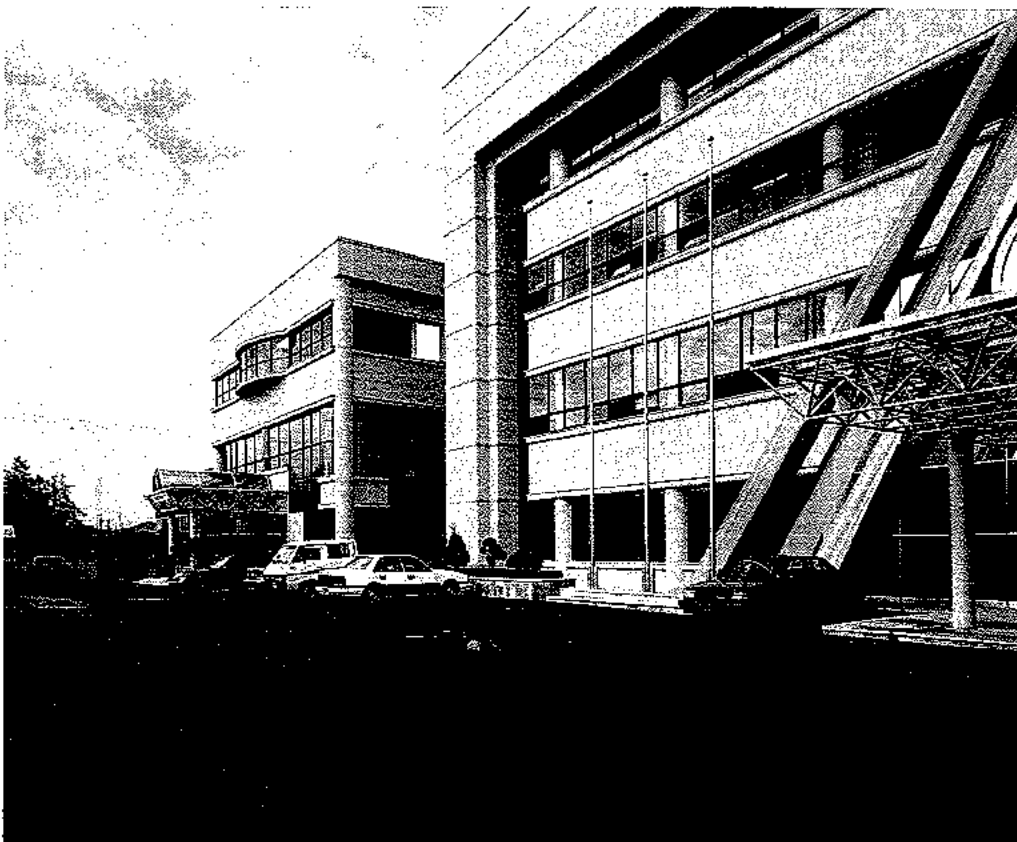
외장 / 화강석(황등석)버너구이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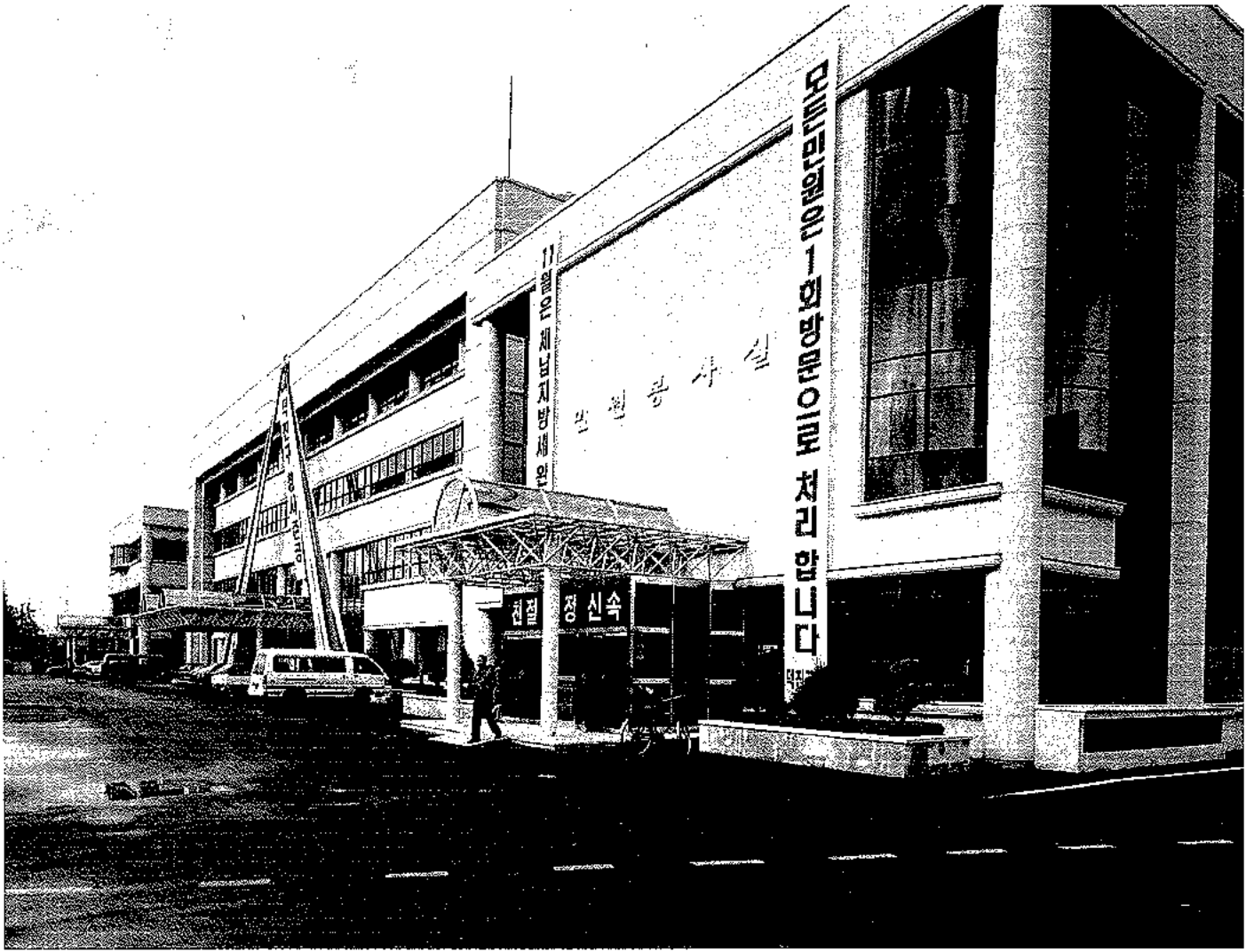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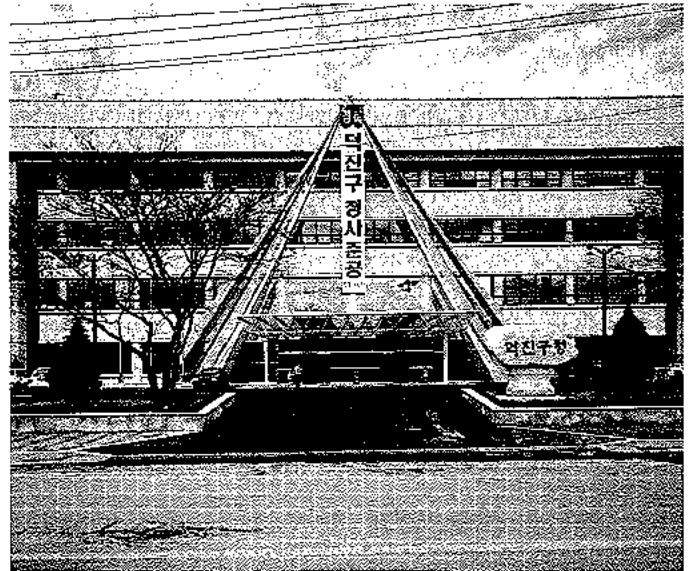
- ① 전경
- ② 1층 평면도
- ③ 민원실 주출입구 철골트러스
- ④ 민원실 주출입구에서 본 사무동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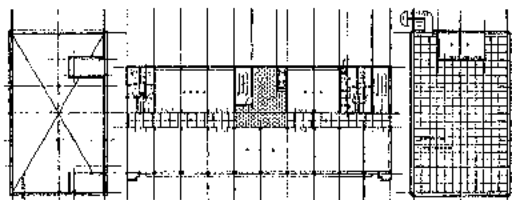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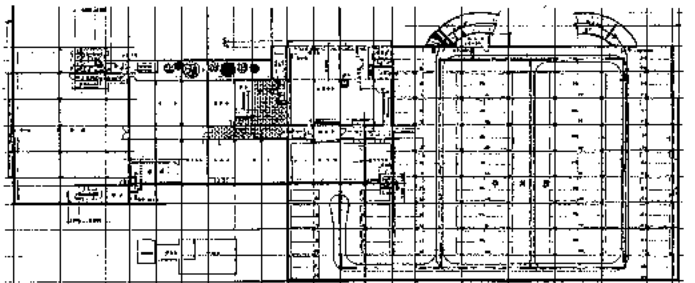
6



7



8



9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위치한 청사는 지방자치제도에 부흥할 수 있는 시설 확보 차원과 덕진구 행정의 요람으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민원실과 보건소등을 주요행정업무동에서 분류배치하여 편리한 행정업무와 시민의 보건향상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가 진행되었다.

본 계획의 배치는 남측을 전면으로 협소한 부지의 최대활용과 지하 및 지상의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등 지상의 시민휴식공간을 등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과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진입로에서 중앙부분에 업무동을 양측에 동선을 분리하여 보건소동과 민원실동을 두어 정면성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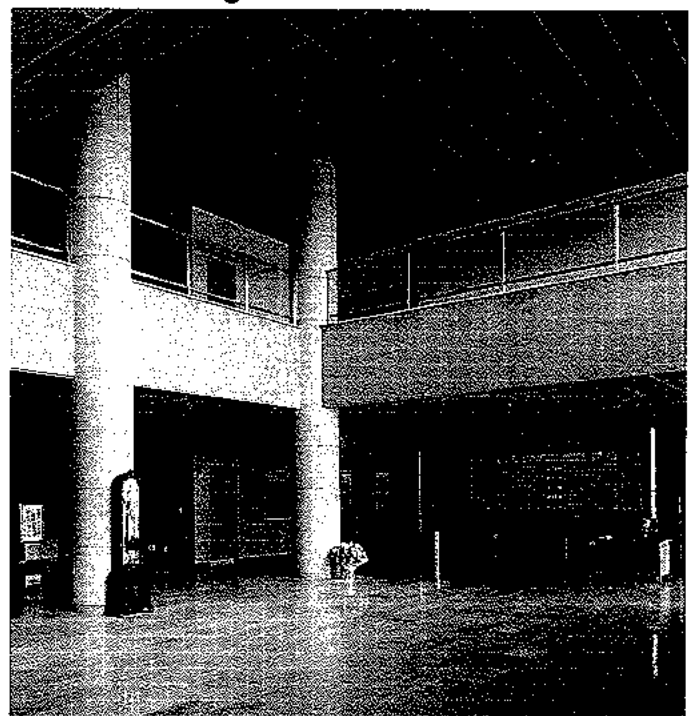
또한 주변에 수십년된 뽕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어 이를 최대한 살려 자연상태를 유지시키려고 하였으며 외장재는 이 지역에서 채취되고 있는 황등석을 사용 지역특성을 살리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지상의 외부 편익시설이 부족하고 차후 증축을 고려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다는 것이 무척 아쉬운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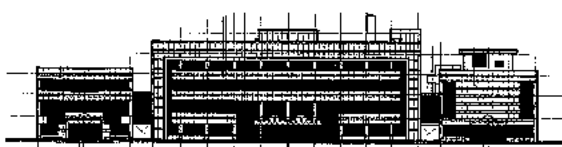
그리고 본 청사를 마지막 작품으로 타개한故 이영수 건축사의 작품이 영원히 보존되고 빛나길 기원해 본다.



11



12



13

- ① 민원동 및 사무동 주출입구
- ② 민원 봉사실 주출입구측 상세
- ③ 전면 상세
- ④ 2층 평면도
- ⑤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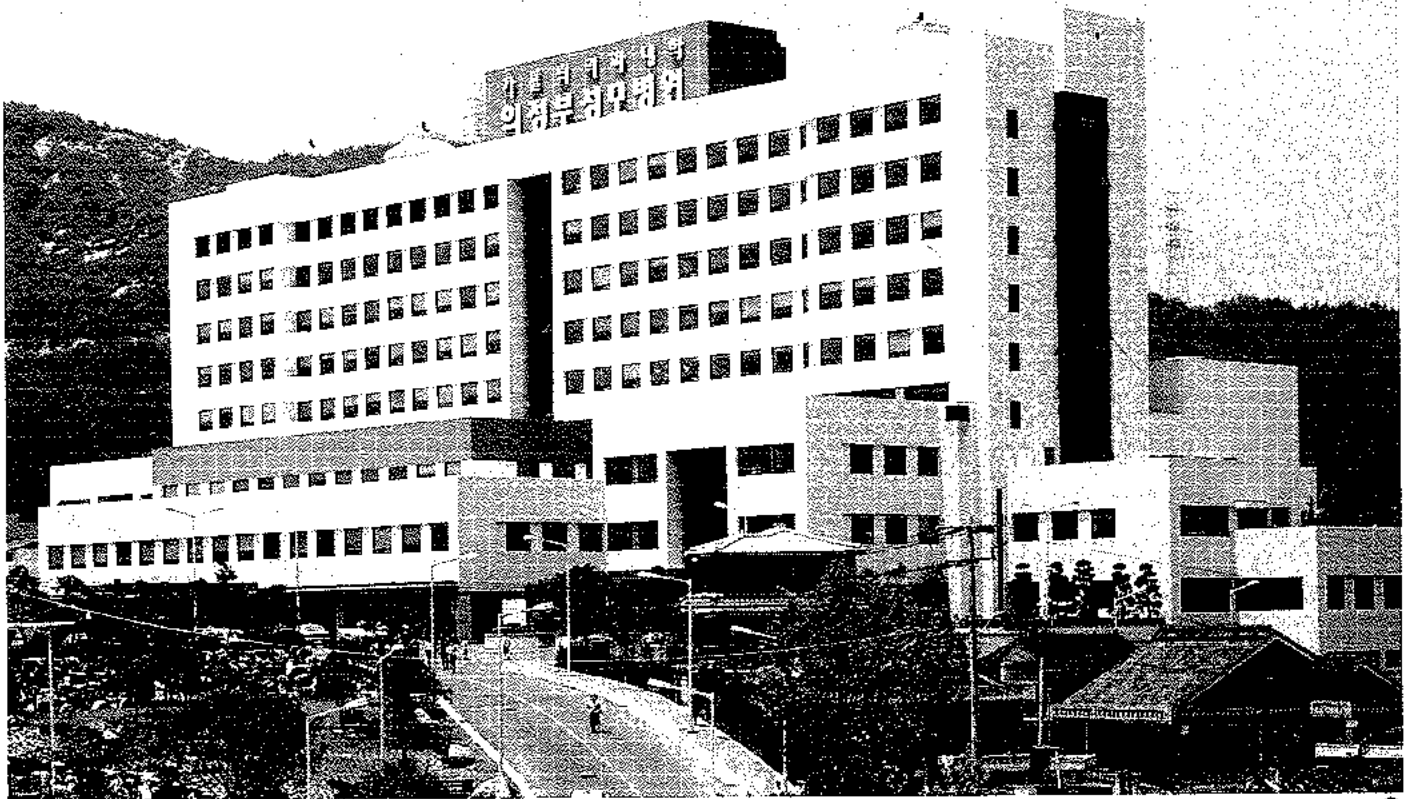
- ⑥ 올라다 본 외부상세
- ⑦ 민원 봉사실 내부 전경
- ⑧ 1층 로비
- ⑨ 정면도

가톨릭중앙의료원 의정부성모병원

Catholic Medical Center, Uijeongbu St. Mary's Hospital

金宗根/(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아건축

Designed by Kim, Jong-Keun



1

대지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65-1외 7필지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20,422.00m²

건축면적 / 5,520.81m²

연면적 / 35,244.84m²

건폐율 / 27.03%

용적률 / 127.27%

병상수 / 정규병상 507 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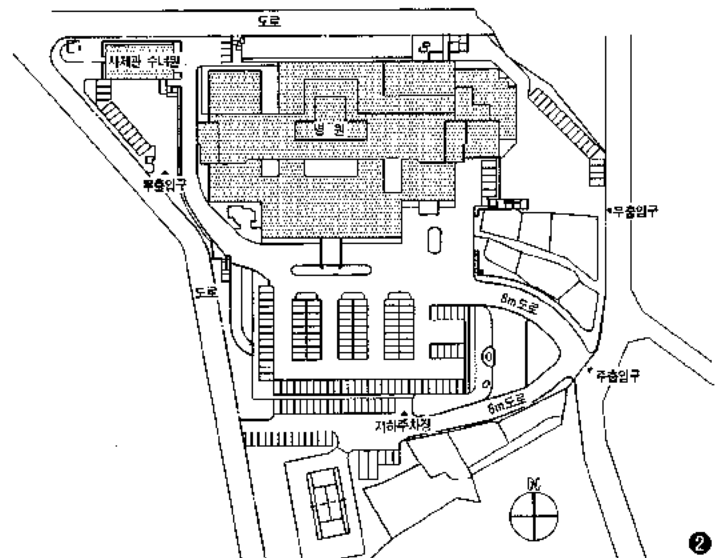
보조병상 100 병상

규모 / 지하 1층, 지상 9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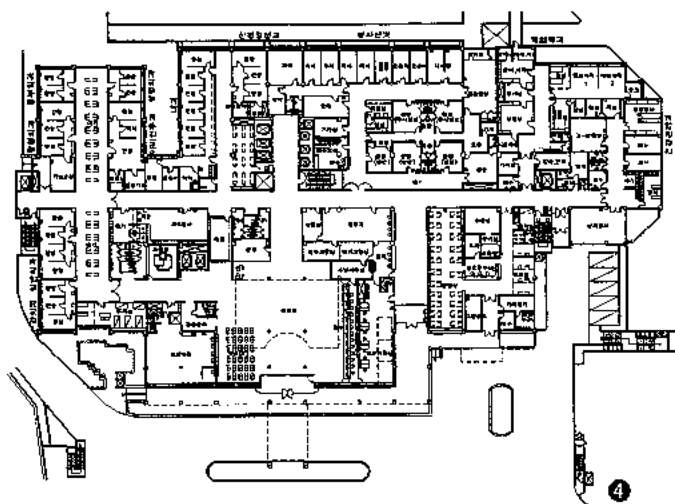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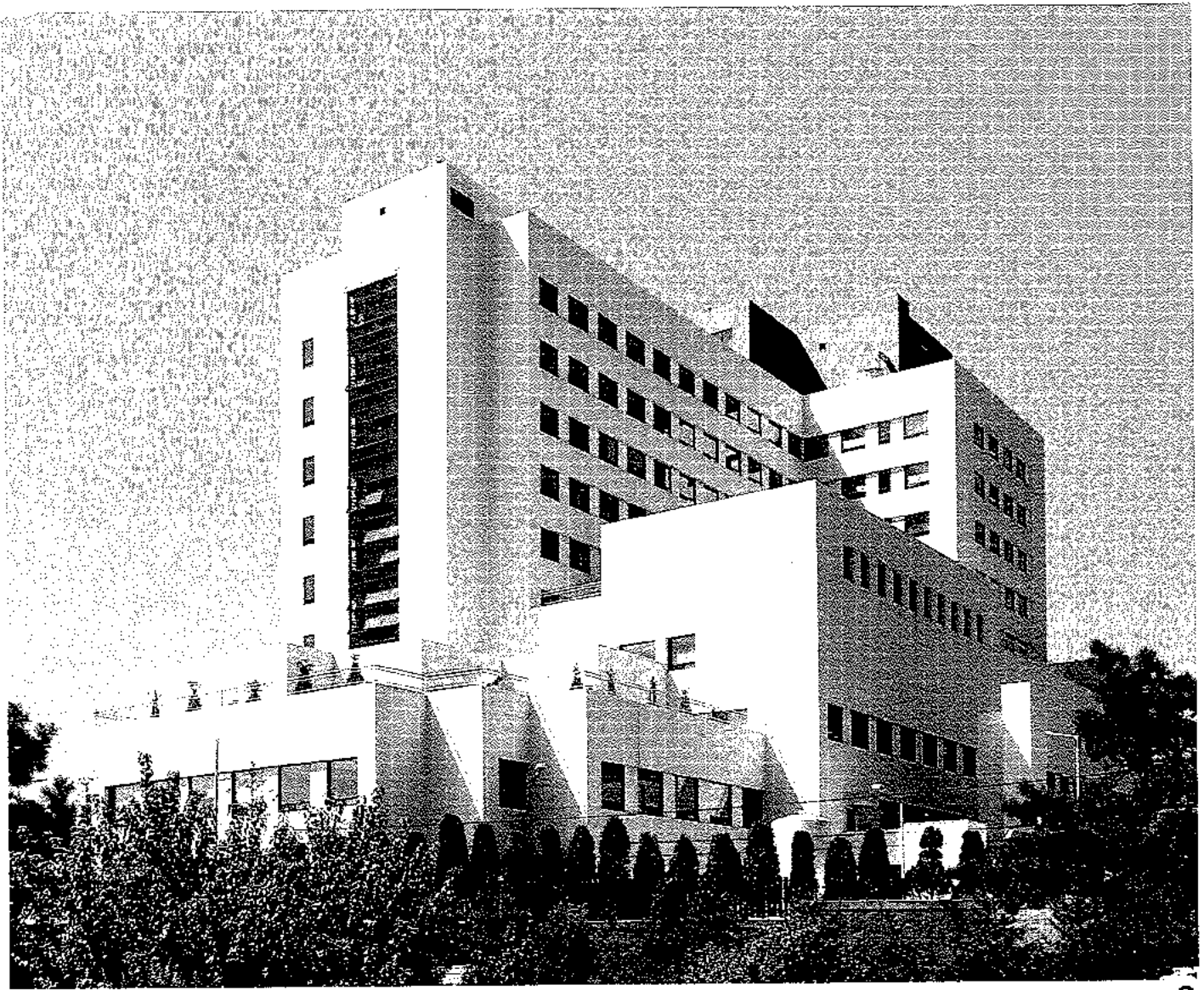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P.C.페넬워 A.Q.타일

주차대수 / 298대



2



- ① 남서측 전경
- ② 배치도
- ③ 북동측 전경
- ④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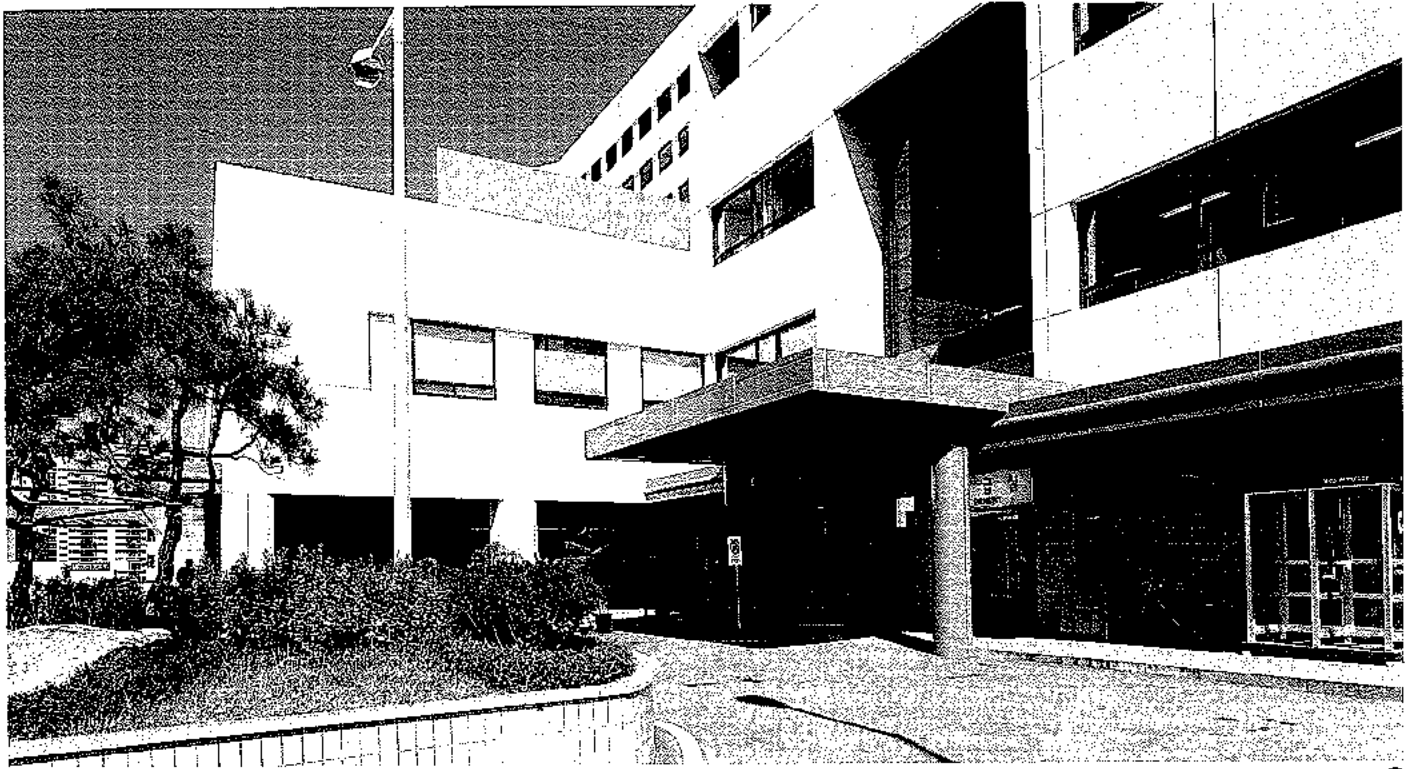
의정부성모병원은 자선과 의료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보건증진과 병원사목 활동 등을 목적으로 1957년 5월 개원한 후 86년 150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승격되었으나 급격히 변화하는 주변환경과 의료시설의 한계로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져 병원을 부득이 이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본 계획은 의정부시의 외곽으로 확장, 이전하는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최초의 대규모 대학부속 종합병원 계획으로 그 규모와 시설면에서 큰 기대를 충분히 성취할 수 있도록 병원의 제기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서로 다른 기능들의 관련정도를 분석, 종합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능률적이고 충실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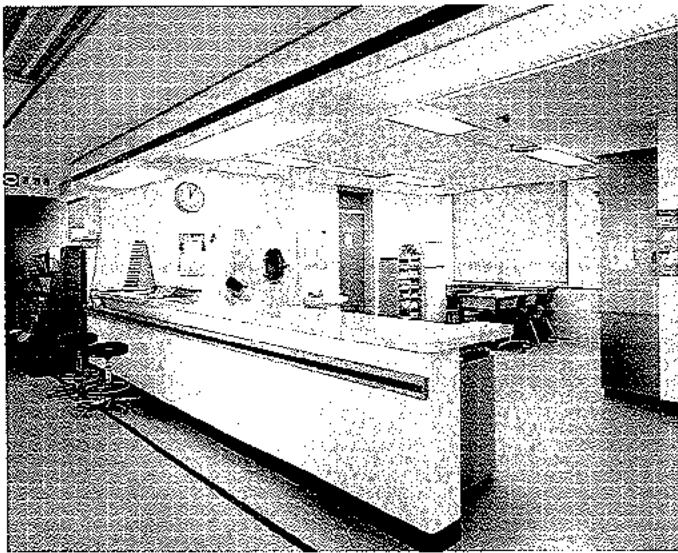
배치계획

중양부분이 좁은 대지형상 및 지질상황을 고려하여 대지 북쪽에 건물을 배치함으로써 전면에 충분한 여유공지를 마련하고 주차장 면적을 충분히 확보함은 물론 주 진입로 경사를 최대한 완만하게 하여 환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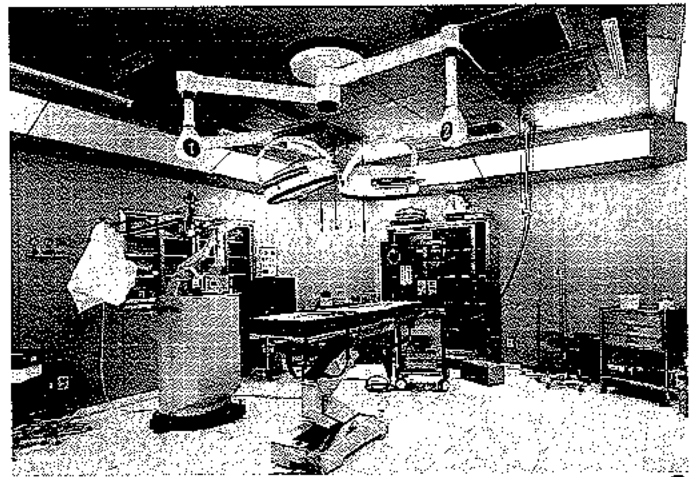
병동부는 일자로 배치함으로써 단순, 명쾌한 처리를 하여 동선을 단축시켰고 전면에 균일하고 양호한 일조 및 전망을 제공하였으며, 불필요한 공간의 낭비를 없앴고 병동의 뒤쪽에 외곽을 배치하여 환자의 동선과 격리된 조용한 공간을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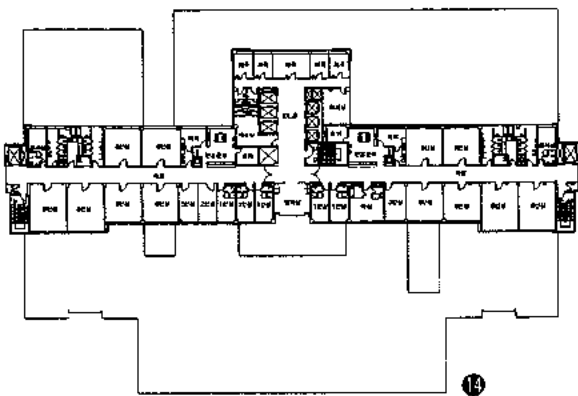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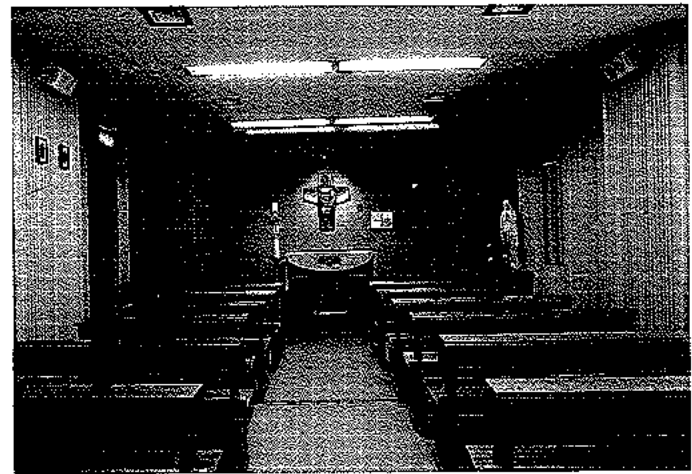
11



12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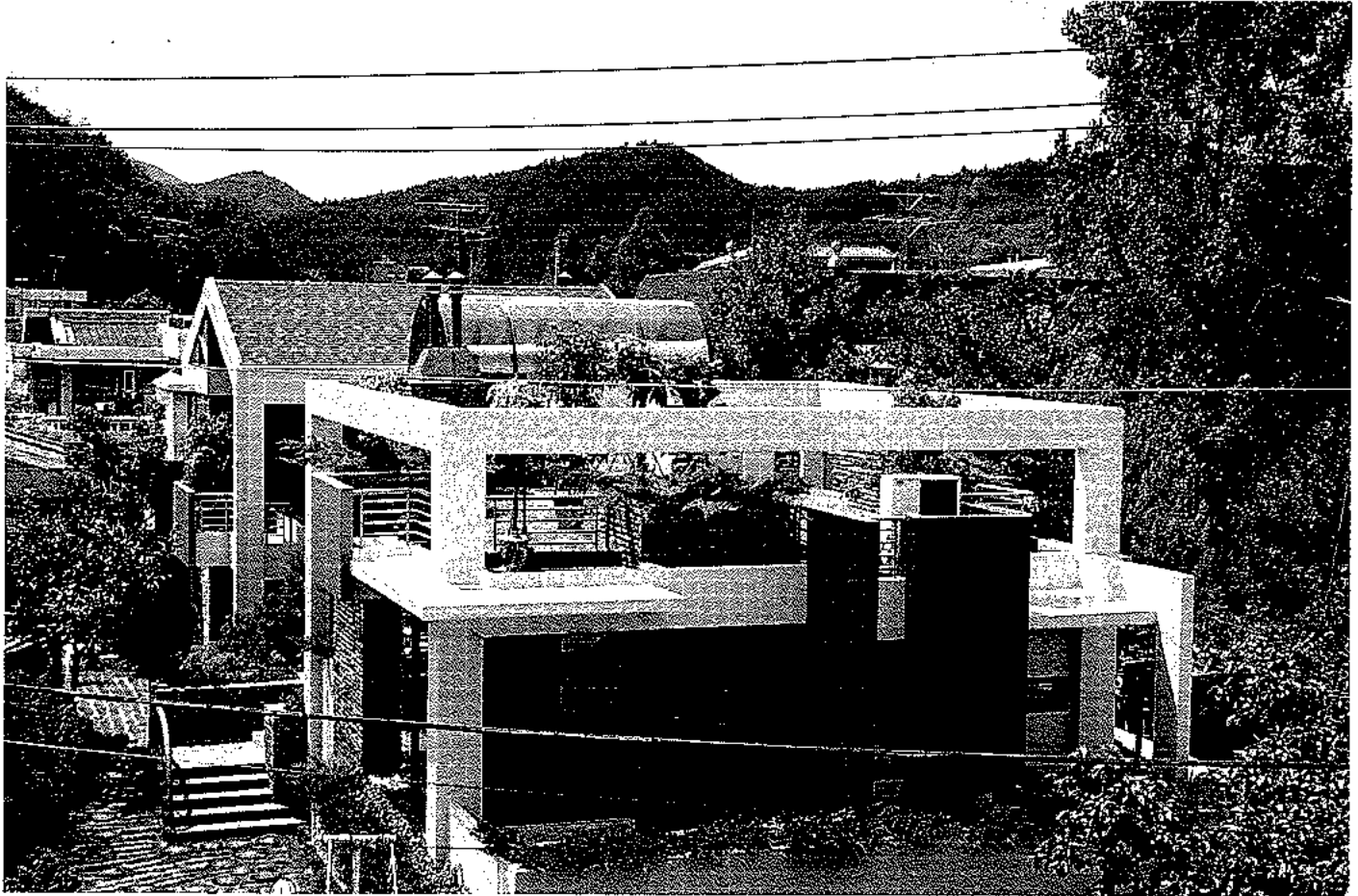
- | | |
|----------|------------|
| ⑤ 남측 전경 | ⑬ 응접실 입구상세 |
| ⑥ 현관 캐노피 | ⑭ 간호근무실 |
| ⑦ 외래 홀 | ⑮ 수술실 |
| ⑧ 단면도 | ⑯ 경당 |
| ⑨ 2층 평면도 | ⑰ 7층 평면도 |

광주 "K"씨 주택

Kwang Ju K's Residence

韓瑛洙/건축사 사무소 토방

Designed by Han, Jin-Su



1

대지위치 / 광주직할시 동구 소태동

지역,지구 / 일반 주거지역

대지면적 / 464.40㎡

건축면적 / 137.22㎡

연면적 / 27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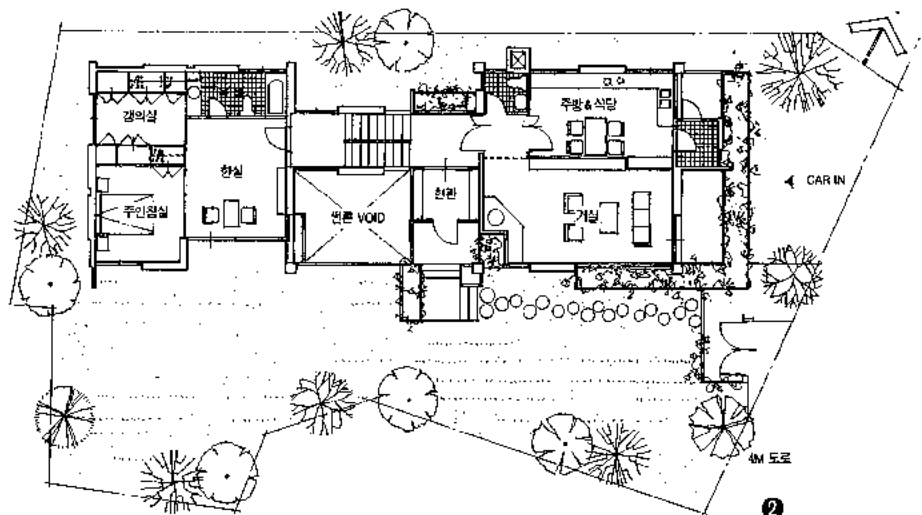
건폐율 / 29.54%

용적률 / 40.06%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 조적조

외부미감 / 온양석 치장 쌓기, 예폭시 분타일 스프레이



2

① 전경

② 배치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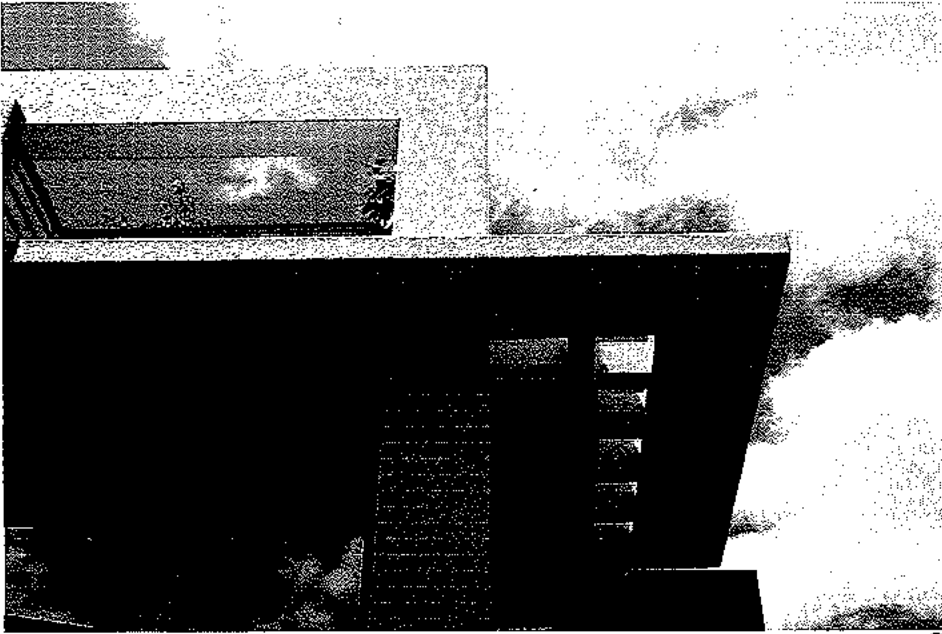
③ 거실처마 상세

④ 계단실 상세

⑤ 거실

⑥ 욕상 조경

⑦ 외부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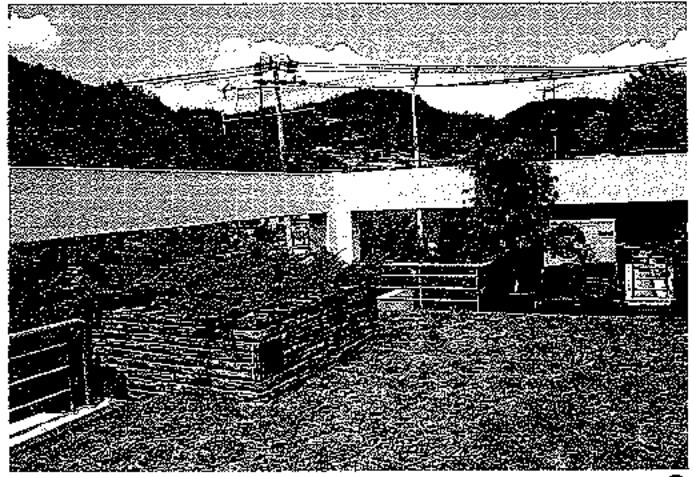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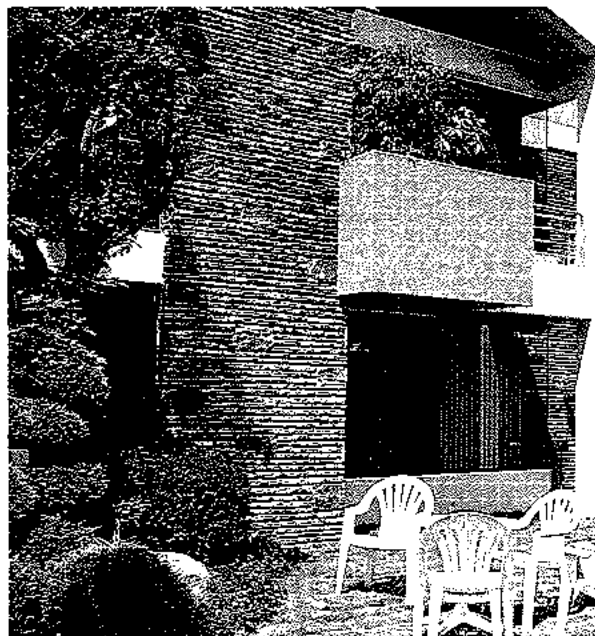
6

무등산 자락 계곡의 물줄기 따라 중심사 가는 도로변에 다소 좁은 4m의 진입도로와 불균형대의 대지에 비슷 비슷한 주택들이 인접해 있는 아직은 환경 오염이 덜된 주택가이다.

본 설계의 주안점은 일상 생활에서 발견되는 인간과 자연이 지닌 직접적인 원리, 또한 젊은 건축주이므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변화등을 어떻게 기하학적 형태로 치환할 것인가였다.

크게 주생활 공간인 거실 및 주방과 수면의 공간을 분리시켜 라멘조로 하여 7.2m의 사각형 평면에 내부 벽체를 경량으로 함으로써 생활의 변화에 따른 가변성을 고려 하였으며, 거실 전면의 인접 대지에 2층 주택이 있어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면에서 다소 이격시키고 어프로치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하부에 차고를 두어 주차를 용이하게 하였다. 현관에 톨나이트를 두어 빛을 유도하고 상부에 켄을 이용, 우천시에는 가사 공간으로 활용할수 있으며 스킵 프로어 형식의 계단으로 원활한 동선을 기하고 가족실에 켄을시켜 시각적 개방감과 정적인 요소를 부여 하고져 하였다.

형태를 분리시켜 대지가 가지고 있는 병목 현상과 어프로치 과정에서 느낄수 있는 시야를



7

개방 시켜주고 인접 가옥과의 위압감을 줄이고져 하였으며, 정원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상에 조경을 하여 휴식 공간으로의 활용을 유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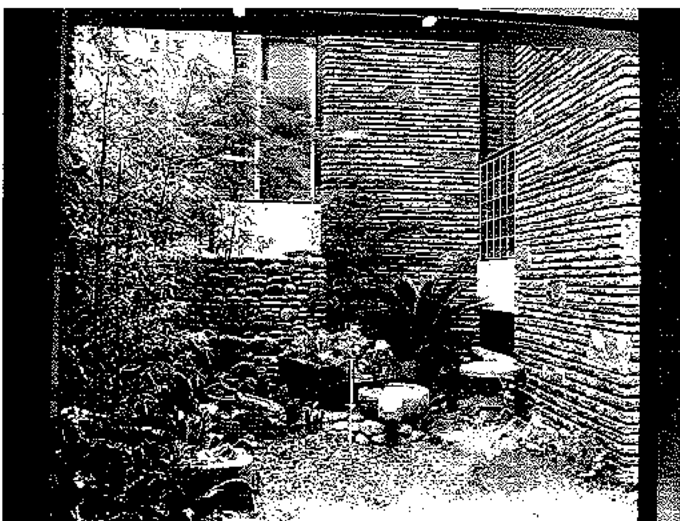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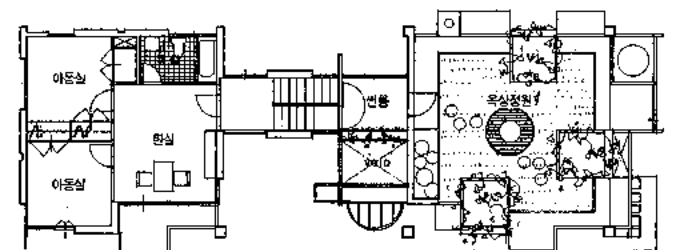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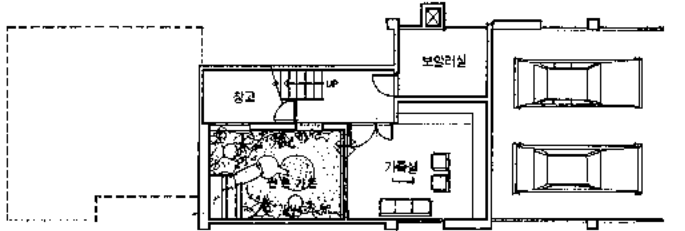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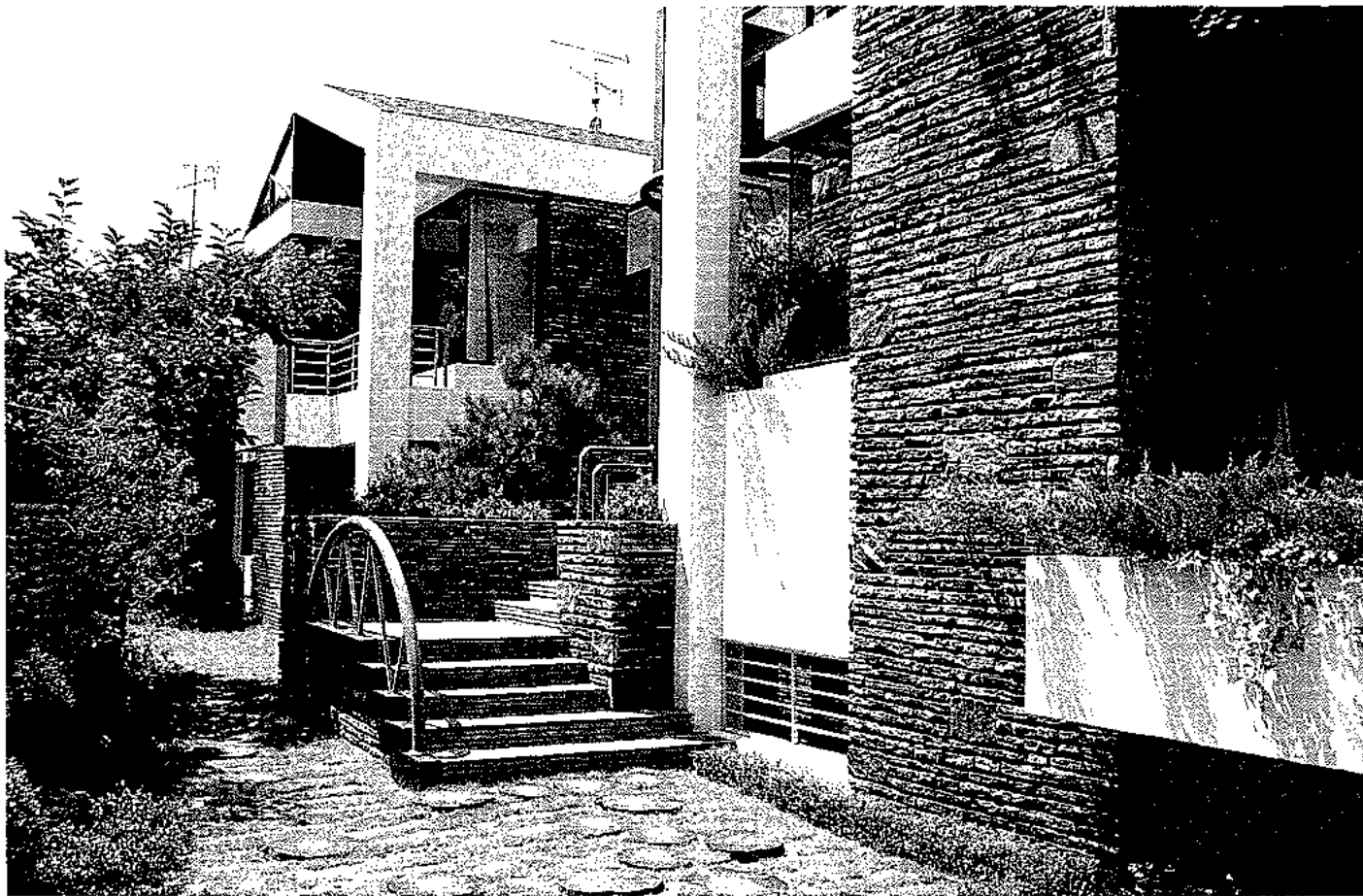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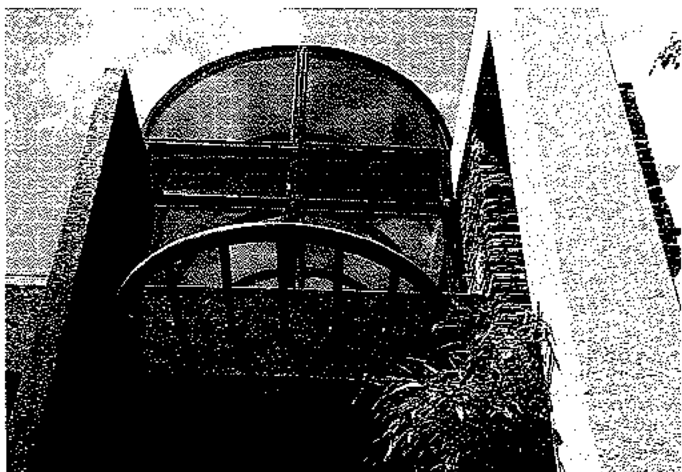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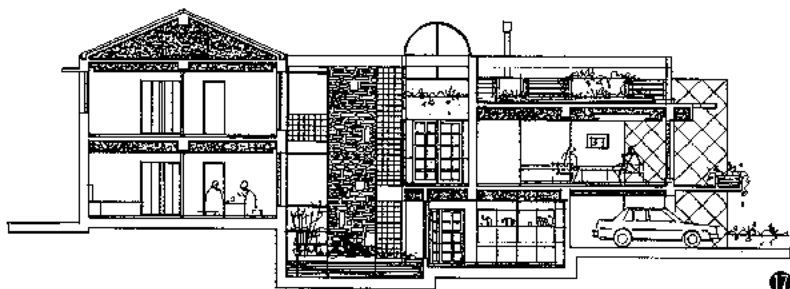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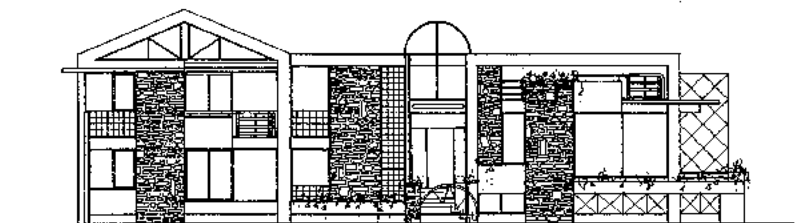
15



16



1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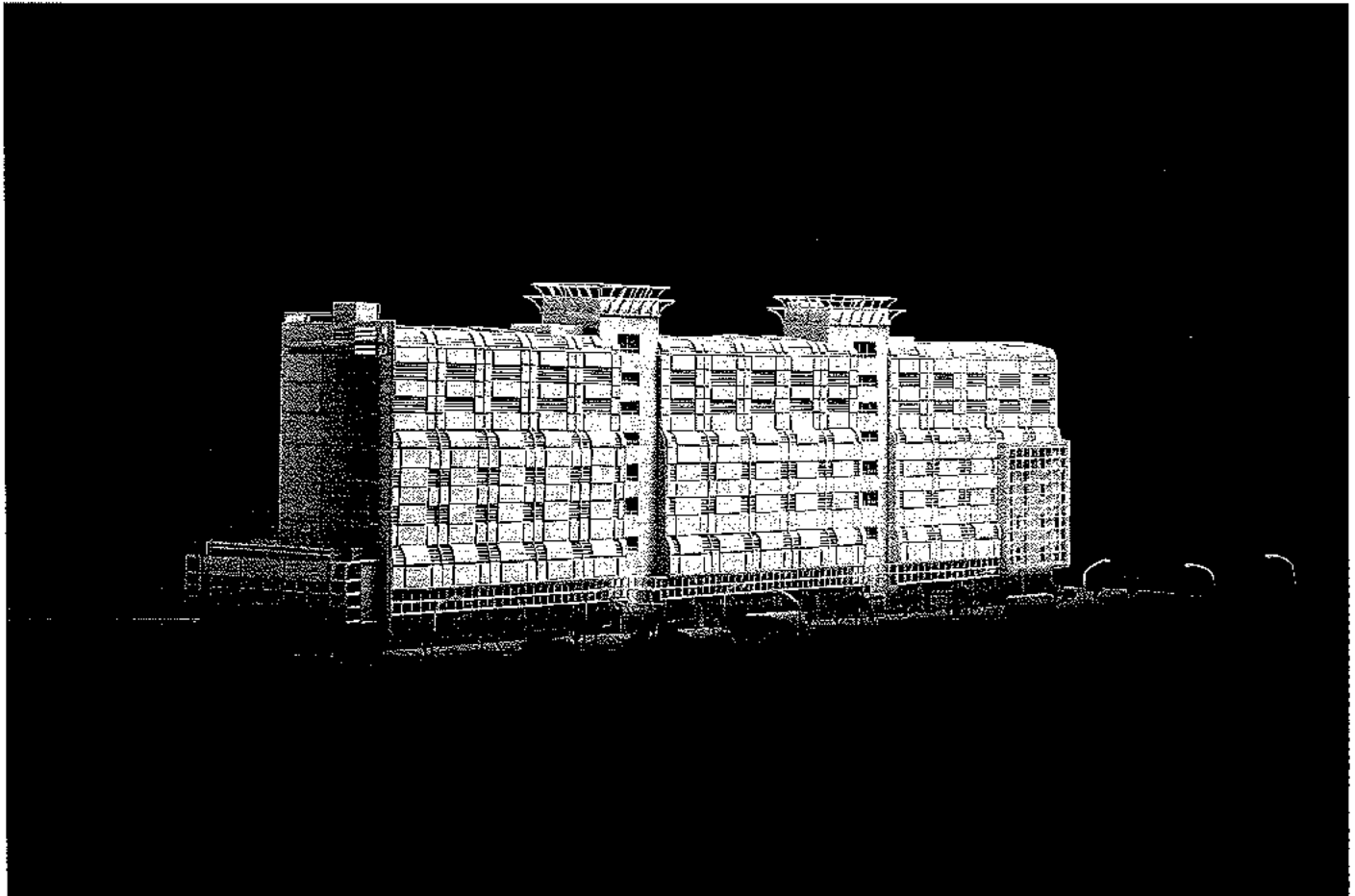
- ⑧ 거실
- ⑨ 주방 및 식당
- ⑩ 지하 가족실에서 본 선 큰
- ⑪ 지하 선 큰기둥
- ⑫ 2층 평면도
- ⑬ 지하층 평면도
- ⑭ 진입로에서 본 전경
- ⑮ 현관상부 상세
- ⑯ 현관 롤라이트
- ⑰ 단면도
- ⑱ 정면도

뉴 서울 플라자

New Seoul Plaza

朴舒弘/단 · 회산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Park, Suh-Hong



모형도

대지위치 / 서울시 중구 중림동 355외 2필지

대지면적 / 4,964.9㎡

건축면적 / 3,115.37㎡

연면적 / 24,868.5㎡

용도 / 도매시장, 근린생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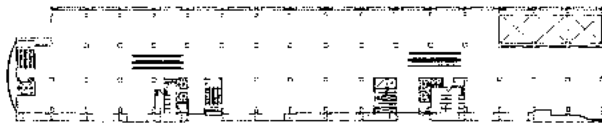
규모 / 지하1층, 지상8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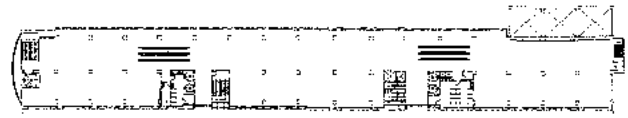
외부미감 / 알루미늄 복합패널, 세라믹 패널

내부 공간의 상업적인 요구를 전제로 한 것이긴 해도
수요계층의 분화에 의한 나이트 타임 존으로의 시간의 확장을
디자인 요소로 삼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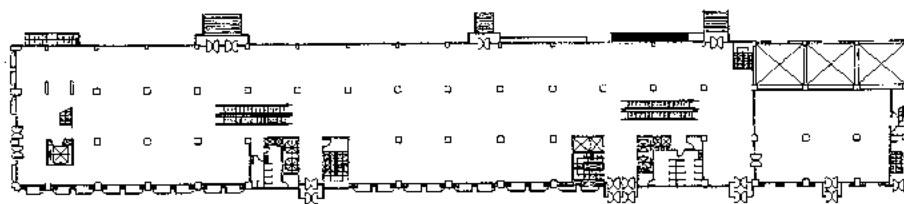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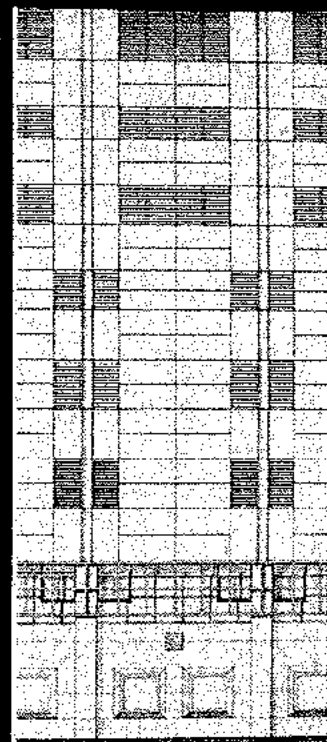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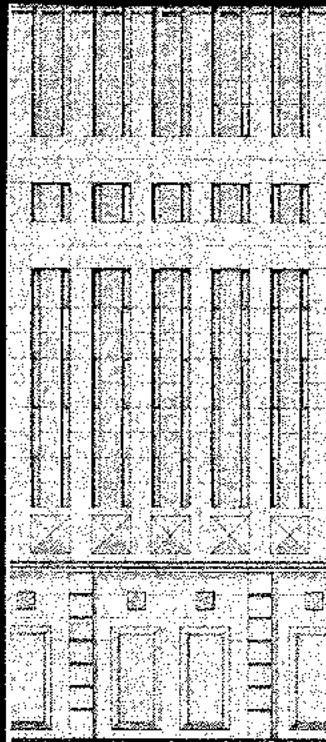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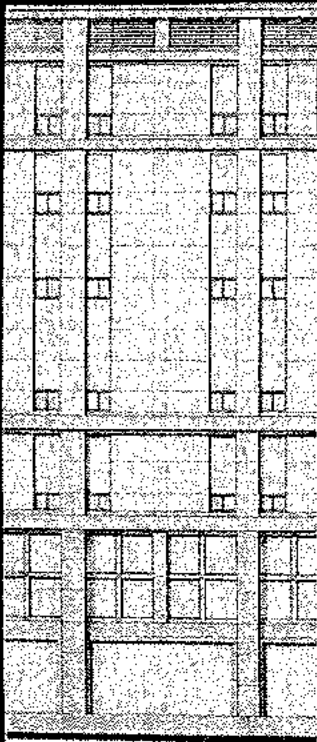
나아가 기계적 유추에 의한 이미지 전달이 다양한 외관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밀바탕에 깔려 있는 한 시지각에 의한
신뢰는 보다 넓어질 수 있으리라.



3층 평면도



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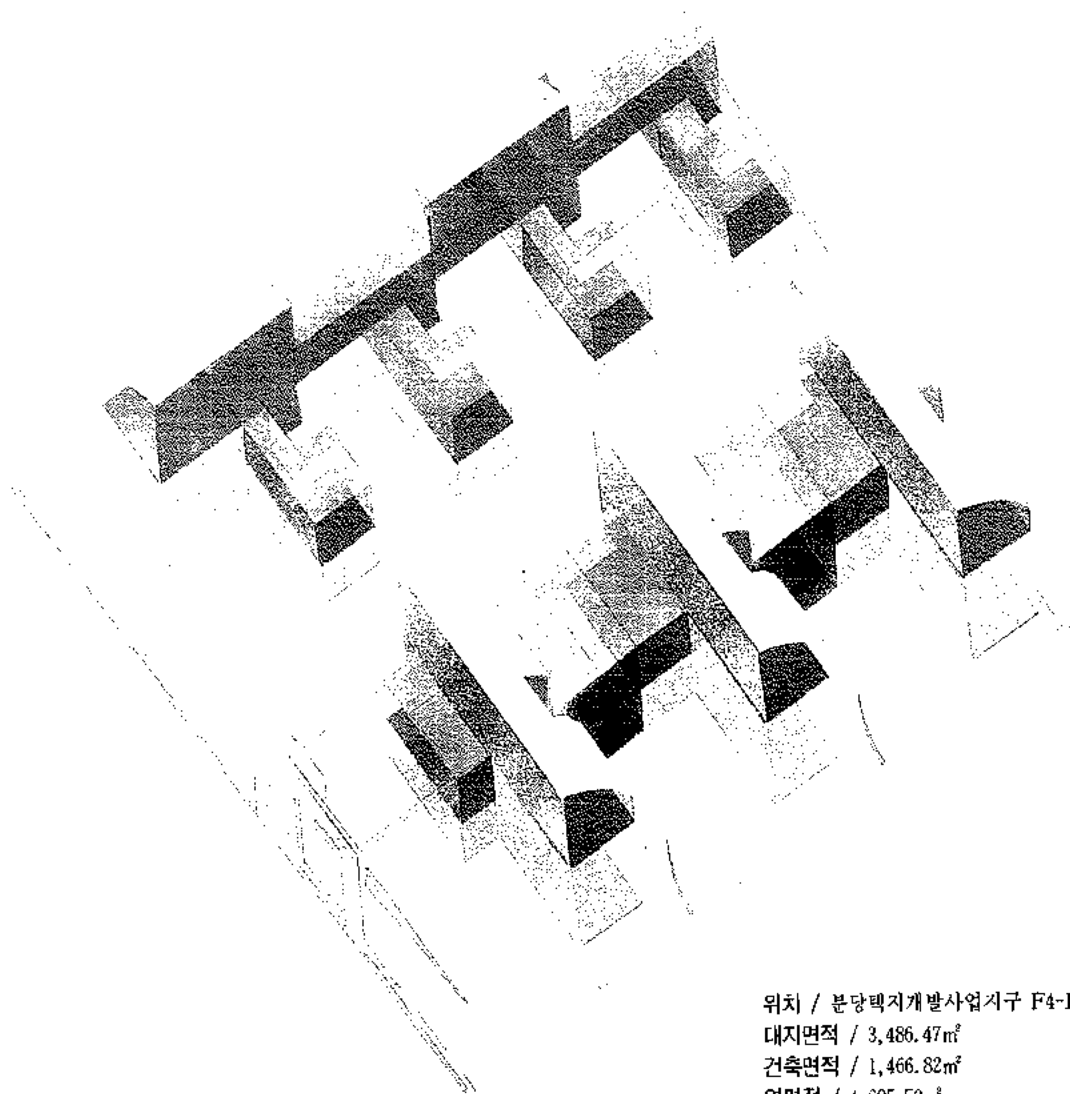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14세대를 위한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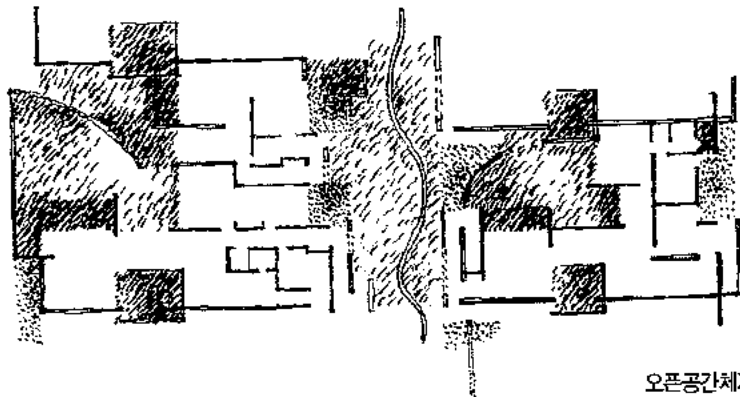
A Village for 14th Generation

朴研心+董政根/건축사사무소 장원

Designed by Park, Yeon-Shim & Dong, Cheong-Geun



타입별공간조직도



오픈공간체계

위치 / 분당택지개발사업지구 F4-14-2

대지면적 / 3,486.47㎡

건축면적 / 1,466.82㎡

연면적 / 4,605.50㎡

건폐율 / 42.08%

용적률 / 88.89%

구조 / 철근 CONC. 및 AL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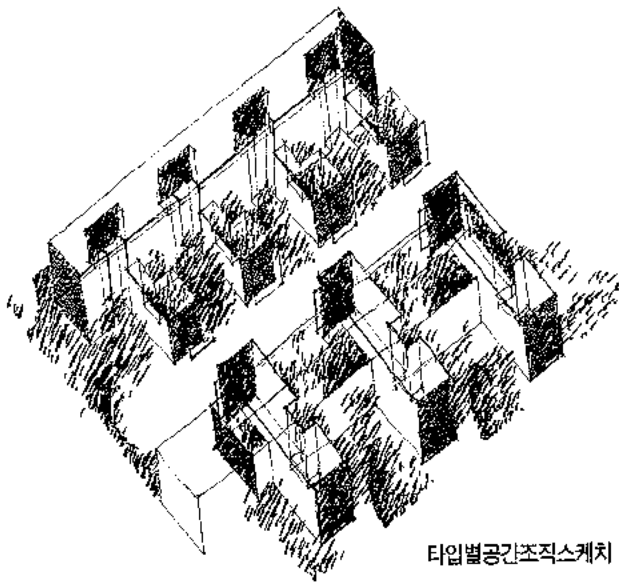
주요외장재 / 붉은 벽돌 및 실리카 스테코

주차대수 / 옥내 45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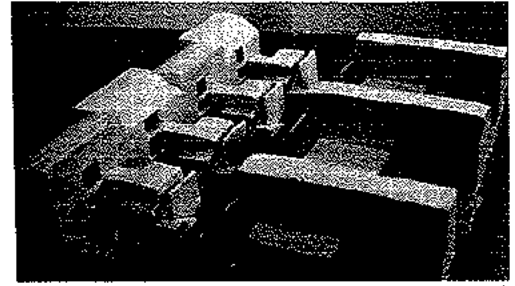
세대별 면적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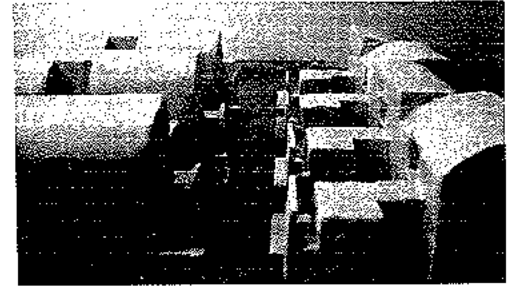
등별	구분	면적			비고
		전용면적	주차장 / 관리실	분양면적	
1동	AL	198.12	96.38	294.48	4세대
	AU	193.67	94.19	287.86	4세대
2동	BL	195.51	95.09	290.60	2세대
	BU	199.90	97.22	297.12	2세대
	CL	187.95	91.41	279.36	1세대
	CU	193.83	94.27	288.1	1세대
	D	179.37	87.24	266.61	2세대
계		1,348.35	655.78	2,004.13	16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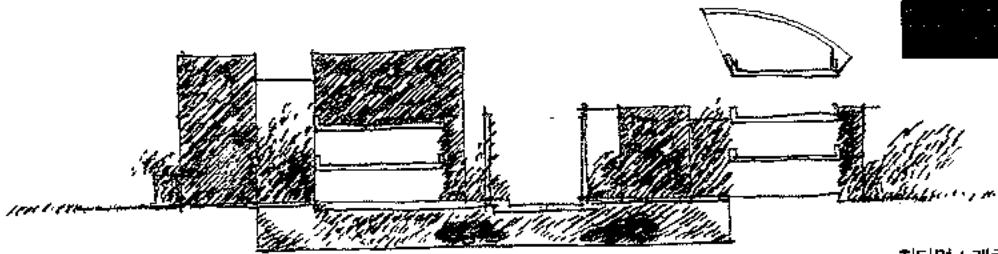
타입별공간조직스케치



모형도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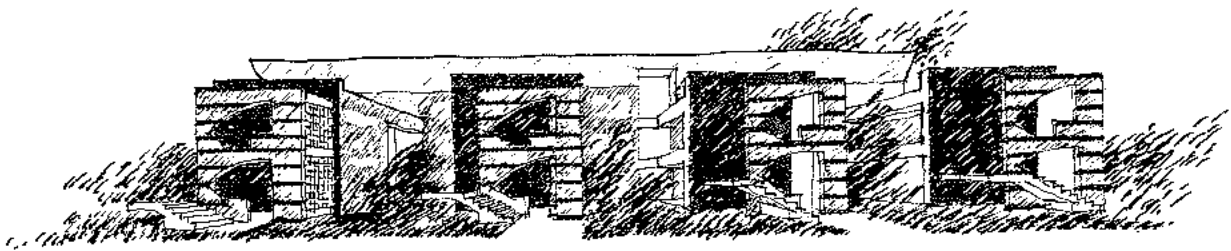


모형도 II



횡단면스케치

분·당·지·역·의·저·밀·도·연·립·주·택·단·지·이·다·공·지·의·
 여·유·는·각·세·대·별·프·라·이·버·시·와·공·동·의·장·이·될·
 수·있·는·길·로·나·뉘·어·진·다·모·든·세·대·의·입·구·는·길·
 에·서·열·리·며·균·질·성·을·갖·게·되·고·각·각·의·고·유·성·
 을·표·출·할·수·있·다·길·에·서·열·린·각·현·관·에·는·우·편·
 물·수·취·함·이·나·각·종·배·달·물·들·문·패·등·이·자·유·롭·
 게·주·인·의·개·성·을·살·리·는·모·양·들·을·갖·추·게·될·것·
 이·다



남측입면스케치



북측입면스케치

헌법재판소—“단절과 권위”

—유서깊은 거리와의 끊어짐—

The Constitutional Court—Severance and Dignity

李範宰/단국대 교수

by Lee, Peom-Jae

이 건물은 서울 종로 옛 창덕여고 자리에 새로 지워진 것이다. 대지가 5,084평에 연면적이 5,800여평으로서 석재를 가지고 외벽을 마감하였다. 이 건물이 위치한 재동 일대는 북쪽의 가회동과 더불어 서울의 옛날 유서깊은 북촌일대이다. 이런곳에 어떠한 건축물이 서있던간에 역사적으로 오랜 정서와 서울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다. 더욱이 옛날 창덕여고는 우리나라에서 몇몇 안가는 역사깊은 학교였고, 붉은벽돌을 사용한 단아하고도 친근감있는 장소였다는 것을 어느정도 나이먹은 사람이면 다 기억하고 있다. 이 일대는 경복궁과 창덕궁, 비원, 휘문고등학교, 주위의 한옥들로 둘러싸여진 서울에서도 얼마 남지않은 옛모습을 간직한 장소중의 하나이다. 십여년전에 휘문고등학교가 헐리면서 그 자리에 현대사옥이 들어서므로 해서 거리의 이미지가 깨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곳은 교통량이 증가하고 유동인구가 많아지므로 해서 옛 서울의 정적이고 품위있는 거리의 이미지가 상실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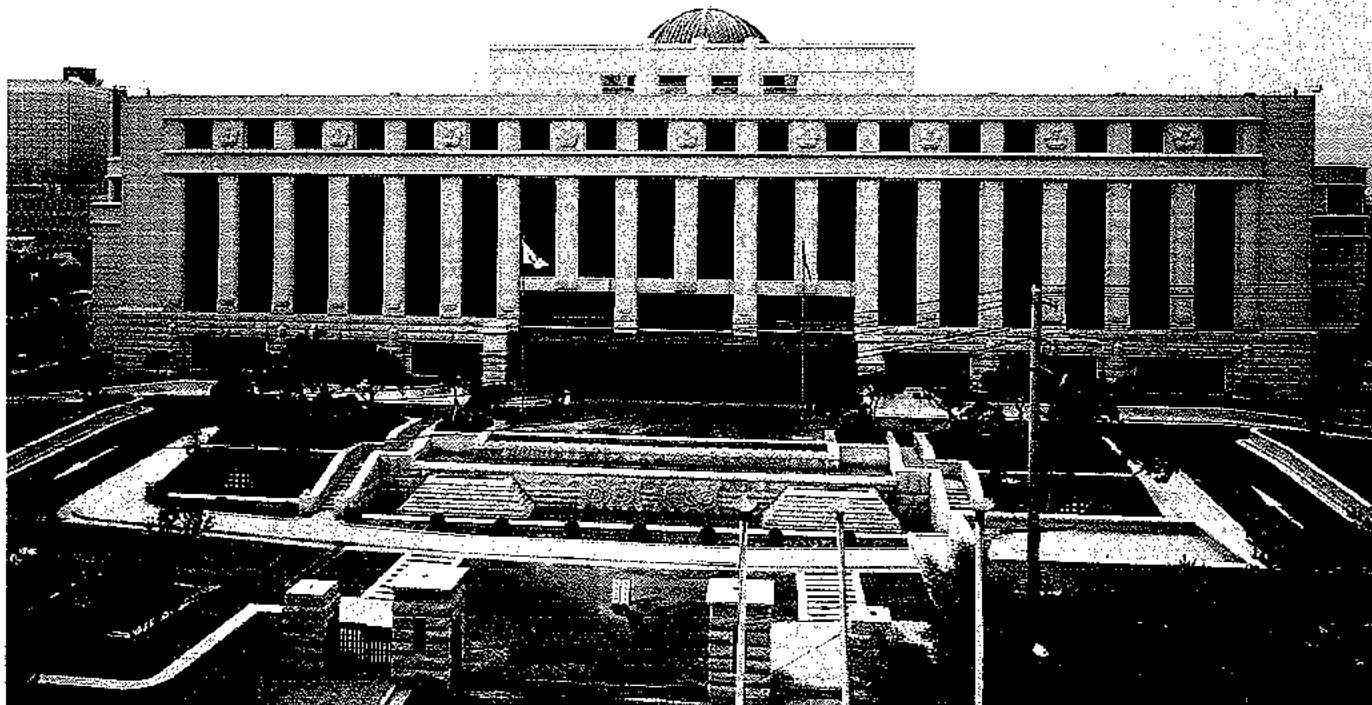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지역 어느곳에서 건축을 하더라도 옛 서울의 도시의 골격을 인식하고, 이 지역에서 갖는 옛 서울의 정서를 복원시켜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건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의 맥락을 그 근본적인 계획의 기본으로 이해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 지역에 들어설 건물은 이러한 의미에서 엄격하고 세심하게 선정되어야만 했다.

헌법재판소가 과연 지금의 이 자리에 세워져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어쩔 수없이 대지가 이 곳 하나밖에는 선택할 수가 없게 되었다면 할말은 없지만 여러 대지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이 유서깊은 자리에 소위 그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장소에 헌법재판소라는 기능이 꼭 위치할 당위성이 과연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가는 바이다. 더구나 그 대지속에 이미 많은 나무와 특히 천연기념물인 백송이 있으므로 해서 주위의 고궁과 연결되는 좋은 녹색지대를

없애면서까지 일종의 빌딩을 세울 이유가 어디있었는가?

문명시대의 헌법재판소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개방되고 친근할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기능이 일반시민들을 주 사용자로 삼지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입지 선택의 커다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1. 외부를 석재로 마감하였고, 수직의 열주가 세워져 있고, 좌우대칭으로 되어있으며, 중앙에 돔이 설치돼 있다. 건물은 도로에서부터 깊숙히 물러나 있으며 전면의 20m(장치는 30m로 확장)도로에 평행으로 위치하고 있다. 석재 마감은 화강석 흑두기를 저층부에 사용하였고, 2층, 3층, 4층은 버너마감으로 처리되었다. 전체적인 이미지가 전형적인 관청 건물로서 손색이 없다. 바꿔말하면 시대적으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기단(흑두기 한부분), 주신 도 상부구조의 세부부분으로 확고한 권위를 나타내고 있다. 각 기둥은 장식과 석재의 몰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의 1톤에 가까운 무궁화 문양이



북동측 전경

상부 구조에 부착되어 있다. 부궁화 문양은 9개가 되어 있으며, 이는 9명의 재판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주출입구 부분은 3권분립을 의미하는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좌우대칭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안정감과 권위를 보는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많은 장식물에도 불구하고 차갑고 냉정한 느낌을 준다.

과연 이 건물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3권분립, 9명의 재판관이라는 가장 단순하고 비감성적인, 숫자가 건축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또한 중앙의 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돔은 권위의 상징인가, 또는 내부공간의 어쩔 수 없는 표현인가, 돔이 있으므로 해서 일반시민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려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미 구 총독부 청사의 돔과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돔에 진저리가 난 채로 있다. 이 중앙 돔에 대한 명확한 건축적 의미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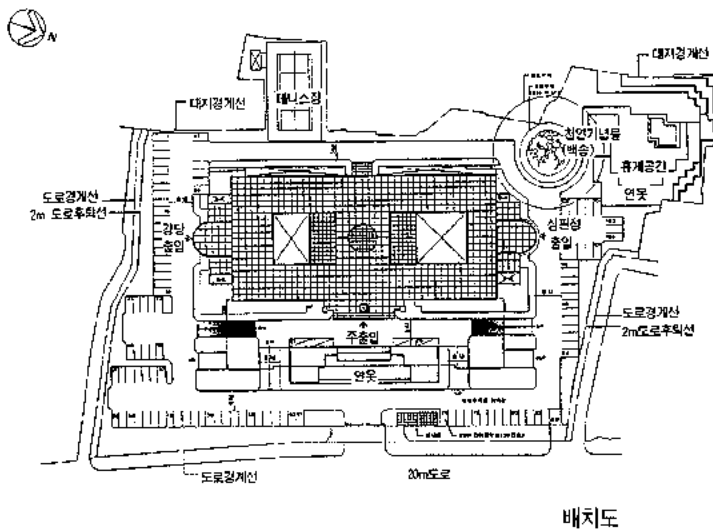
외벽자재인 돌이 택여진 이유가

무엇일까. 현대의 석재는 건물의 피부로서 이해되도록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이곳에서의 석재는 신고전주의에서의 석재와 같이 중후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곳에서 사용된 석재는 주위 환경과 어떠한 맥락적 연결을 가지며, 주변 한옥 보존지역의 이미지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가. 단순히 재판소라고 하는 의미를 엄숙함, 권위적, 상징적 위상으로서만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자재를 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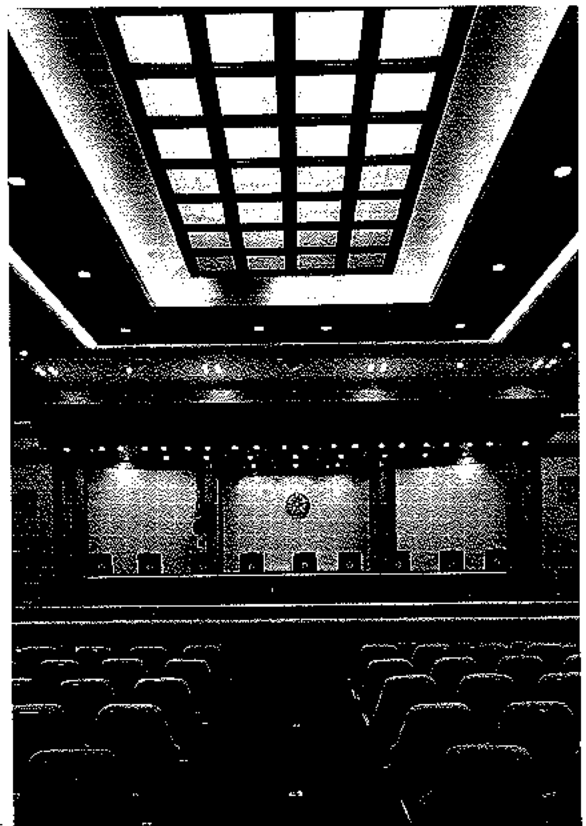
전체 건물은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좌우대칭으로 되어있고, 양쪽 단부에는 반원형으로 돌출되어 있다. 이 좌우대칭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양쪽의 둥근 돌출 부분은 이 건물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가, 돌출된 부분의 정가운데에 기둥인것 같은 벽이 서 있는데 이것이 1층부분에서는 없어져 버린다. 이것은 출입은 정방향으로 해야된다는 중심성 추구의 표현이다. 이것 역시 권위성의 표현 방법인 것이다. 이 건물의 특징중의 하나는 외부의 기둥이(특히 전면)

기둥같지 않고 또한 벽같지도 않다. 기둥이라면 기둥답게 그 수직적 비례가 확실해야 되며, 벽이면 벽답게 그 수평적 비례가 확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돌출부에 와서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데 돌출부 1층 부분(강당 출입과 심판정 출입부분)에서 중앙에 기둥을 하나 빼먹은 것이라든지 2, 3, 4층의 세개의 기둥이 원호에 따라 얇은 두께로 벽체와 같이 길게, 가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전면 기둥 상부에 코르니스와 같이 수평으로 두줄의 띠를 들었는데, 이 띠로 인해서 건축물 자체가 상하로 뚜렷이 구분되어 버린다. 이것은 건물의 상부 머리부분을 정확히 구획시켜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과연 그렇게 해야지만 할 당당한 이유가 찾아지지 않는다.

구한말 국내 최초의 현대식 종합병원이던 광혜원자라이며,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및 창덕여자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장소로서 유서깊은 이곳이 명확한 건축적 개념을 가지고 그 장소성이 되살아



배치도



대심판정 내부

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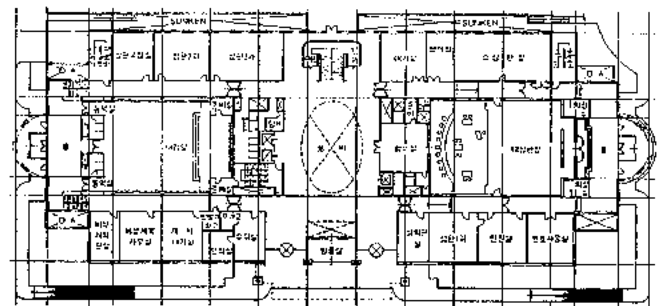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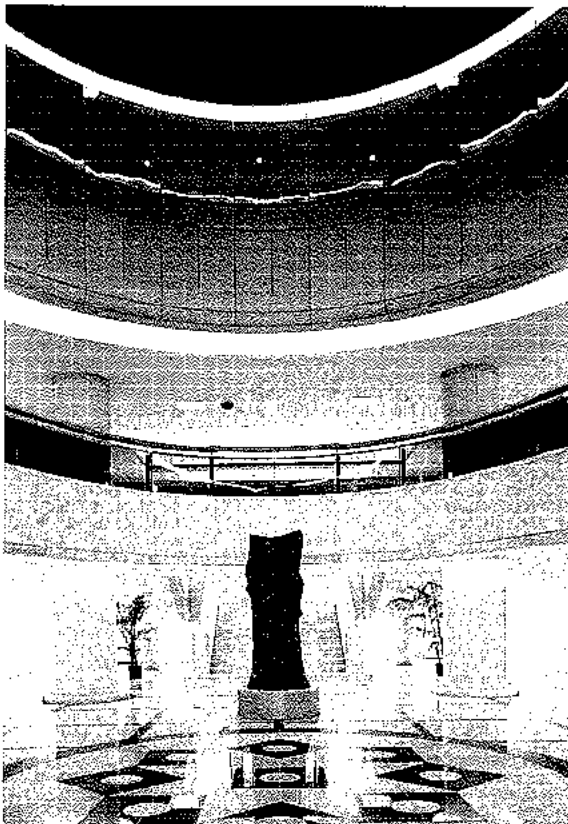
적어도 이런 유서깊은 장소적 특성과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 및 권위성이라는 속성에서부터 탈피한 보다 새로운 헌법재판소의 개념이 건축적으로 승화되어야만 된다고 생각된다. 즉 이 건물에는 새로운 건축 개념이 나타나 있길 바란다. 더욱이 현재의 시대적 정신을 찾을 수가 없다.

2 다음은 배치에 대해서 정리하기로 한다.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동쪽에 20m도로가 접해져 있고 전체 대지는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건축물 자체는 역시 남북으로 길게 놓임으로 해서 동쪽의 20m도로에서 거의 대지 한가운데를 통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왜 건물이 동쪽으로 물러나서 붙어있어야 되는가. 이는 동쪽 전면에 외부공간을 둬서 건물 전체의 모양을 잘 보여주게 하는 효과는 있다. 그러나 주 도로에서 건물의 주출입구까지 주차장과 중앙의 연못과 또는 경사로를 통하여 올라가게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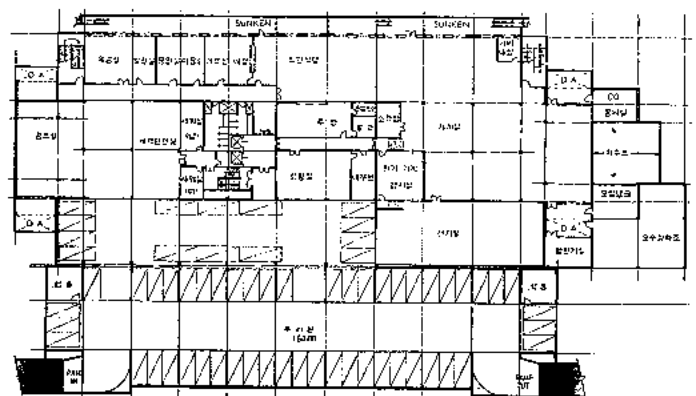
이것은 오히려 일반시민들의 접근을 심리적으로 어렵게 하고 건물의 권위를 높이는 결과가 된다. 접근하기 어려운 장벽을 또는 과정을 만든 것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대지의 고조차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은 높은 데 위치시키고 그 고조차를 극복시키기 위하여 계단과 경사로를 설치한 것이지만, 그럼으로 해서 이 주위의 어떤 건물보다도 압도적으로 건조하고 너무 당당한 배치가 되어버렸다. 주차장이 건물의 정면 또 좌우면 등 3면에 배치되어 있어 시내 도심부 다른 빌딩의 배치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자동차로 둘러싸인 거대한 성벽을 구성하였다. 이 배치로 인하여 도로쪽의 대문앞에 서면 거대한 성벽이 앞을 가로막는 듯한 답답함마저 느낀다. 도로와 건물 사이의 공간은 연못, 계단, 화단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건물내의 사용자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어 버렸다. 또한 이곳도 좌우대칭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어느 한구석 인간에게 따뜻한 느낌을

주거나 의미있는 장소로서 값어치를 갖고있지 못하다. 어느 누가 이런 허전한 공간의 연못에 가보고 싶을 것이며, 화단에 앉아있고 싶을 것인가, 또한 그 이외의 어떤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중앙계단이 없어지고, 계단을 양쪽으로 낸것이 권위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오히려 연못있는 부분이 아주 넓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을때 그 계단을 권위적으로만 느껴지진 않을 것이다. 중앙계단으로 가지 못하고 양쪽의 좁은 계단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 건물에 대한 사람의 경외감을 더 많이 주는게 아닐까 생각한다. 전체 대지에서 건물이 앉을 자리를 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옥외공간이다 라고 처리하는 방법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3 대지내의 외부공간이 서로 연관성을 갖고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 상징적이고 권위적인 정면 부분의 외부 공간으로 인하여 남측과 북측의 외부 공간이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1층 로비

단절되어 있다. 남측의 외부 공간은 건물의 배면, 즉 서측면쪽의 소로를 통하여 북쪽의 백송과 휴게공간으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그 연결 역할을 하는 소로를 정말 의미있는 공간으로서 디자인했다기보다는 건물 뒤쪽의 어쩔 수없이 나오는 통로에 불과한 느낌을 준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외부공간의 구성이 강약이 없고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건축물 자체와 전혀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건물 내부에서 볼때는 외부공간은 그저 건물밖의 공간에 불과하다.

다만 북쪽의 휴게공간의 구성은 그 스케일이나 구성방법에 있어서 아늑하고 세련되어 있는 것은 좋다고 느껴진다. 특히 바닥을 나무타일로 포장한 것이라든지, 백송을 그대로 보존한 것이라든지, 어떤 의미든 연못을 조성하는 것은 높이 평가될만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 건물은 건물, 바깥은 바깥이라는 공간의 단절은 전체땅에 대한 외부 공간 구성 개념이 아쉽게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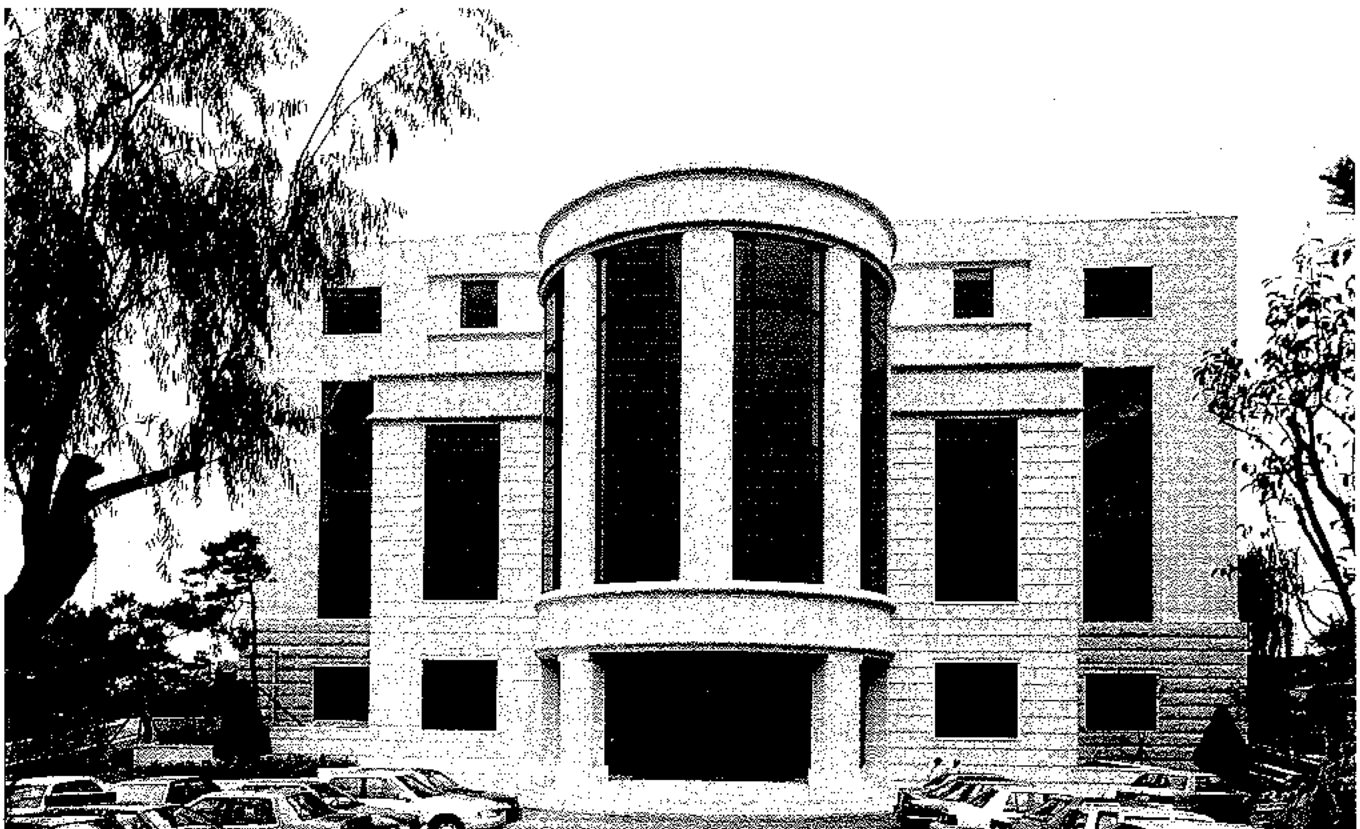
소요되는 주차의 양이 적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옥외에 설치할 경우 자동차에 의해서 조각나는 옥외공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4. 건물은 전체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日'자 형태로 되어있다. 혹간 이것은 구충독부 청사의 '日'와 같이 비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점은 여기서는 논외로 치고, 하나의 건물로 이 재판소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때문에 생겨난 형태라고 이해된다. 하나의 건축물로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 재판소에 기능성의 특성이라면 어쩔 수없는 것이지만 개념에 따라서는 서로 Bridge로 연결되는 두세개의 매스로서 외부공간과 건물의 또다른 외부공간(지급의 중정과 같은)의 공간적 연계를 이룰 수도 있지 않았을까. 현 건물의 두곳에 형성되어 있는 중정은 하나는 2층 상부부터 하나는 3층 상부부터 하늘로 뚫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중정이라기 보다는 내부공간들이 깊어져서 기능상, 채광상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여진다. 이

중정들이 좀 더 의미있게 내부 거주자들에게 활용될 수 있었다면 '日'자 형태의 평면타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시비비에 명확한 해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냥 비워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5. 건물 내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 부분은 중앙의 로툰다가 있는 둥근 돔의 공간인것 같다. 이 중앙 돔의 아래에 서면 엄청나게 높은 돔의 정상부가 까마득하게 올라다 보인다. 이것이 이 건물의 가장 의미있는 상징중의 상징으로 역점이 주어진것 같다. 그러나 왜 이런것이 필요할까. 또 다시 얘기하건대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주출입구에서 문을 열고 들어서면 2층 천장까지 뚫려있는 부분과 만나게 된다. 이곳에서 보면 정면에 2층 난간벽이 이마에 닿을듯이 좁게 뚫어져 있다. 이것은 현관의 답답함을 다소간 해소시키려는 의도이지만, 너무 좁아서 오히려 뚫지않은 것만 못하다. 이것은 Scale의 잘못된 적용인것 같다. 로툰다는



심판정 출입구 전경

2층까지는 난간벽으로만 설치되었고, 3층까지는 원형의 로툰다를 에워싸면서 유리로 막혀져있다. 돔의 정점의 바로 수직아래 부분, 즉 1층의 로비 바닥에서 올라다보면 까마득한 우물속에 잠겨있는 듯이 느껴진다. 그리고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 즉 3층이상에서는 사람이 접근할 수도 없고 시각적으로 의미를 갖는 요소가 없고 층층이 경계부분에 원주를 둘러싸는 원형 불빛의 연속일 뿐이다. 이 돔의 설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해도 그 Scale과 공간에 대한 연출은 지극히 초보적이다.

각 층의 복도는 이 돔의 공간과 그냥 연결이 될 뿐이고, 공간적인 연속성이나 공간의 동질성이나 또는 파격성을 읽을 수 없다.

이 건물의 내부 공간은 필요한 방과 또 복도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었던 중앙의 원형공간—그러나 아무런 의미도 없어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공간으로 들어와서 중앙의 원형 로비 공간을 중심으로 좌우로 공간이 갈라지고 각각 그 끝에가서 외부와 연결이 되는 출입구들로

이어지게 되는데 첫째, 이 공간의 연결이 무미건조하고 또한 입체적으로 공간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즉 이 건물은 커다란 중앙공간 하나뿐이며, 그 이외에는 내부공간을 논할 부분이 없다.

6. 이 건축물에서 놀라운점중에 하나는 인테리어 마감과 외부 마감과의 현격한 대비라고 할 수 있다. 외부에서 석재가 주는 중후하고, 권위적이고, 무거운 느낌이 실제 재판장이나 강당에 들어서면 갑자기 목재로 모든 것이 처리되어 있는 점이다. 어쩌서 외부와 내부의 마감이 전혀 다른 소재를 사용해야 하는가. 통상적으로 목재를 사용하면 따뜻한 감을 준다거나 우리의 옛 건축에서의 목제사용을 연상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친밀감을 준다거나 하는식의 설명을 하고있다. 그러나 석재도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목재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통상적이지 않은 특수한 개념을 표현할 수 있다. 문제의 초점은 어쩌서 외부와 내부가

이렇게 다른 소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 건축에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점은 외부 설계자와 내부 설계자가 전혀 별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즉 안팎이 엄청나게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점이 이 건물에서 가장 크게 사람을 당황시키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내부의 인테리어를 보면, 주로 적송을 가지고 석가래, 원형 기둥, 부연 등을 형상화해서 장식하고 있다. 그야말로 장식이다.

실내건축이라기보다는 실내 장식한다고 하는 이른바 실내장식의 개념이다. 외부의 이미지—권위, 상징 등—와는 전혀 별개로 목재를 사용해서 장식적 이미지—소위 따뜻함, 자연스러움 등—를 서로 대비시켰다. 과연 합당한 것일까. 왜 외부의 이미지는 석재로서 표현되는가. 왜 내부의 이미지는 목재로서 표현해야 되는가. 외부와 내부가 그 이미지 표현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는 것은 외부와



복합 전경

내부를 각각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서 처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건물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인가. 외부의 이미지가 너무 딱딱해서 내부의 자연스러운 소재로 바뀌어야만 한다면 외부와 내부사이에 사람들로 하여금 단절되지않고 연속적으로 연결된 어떤 중간적 의미를 갖는 구분이 있었으면 한다. 이 건물에서는 그것이 빠져 있다. 마치 환한 바깥에서 갑자기 컴컴한 터널로 들어온 것같은 반대로 캄캄한 곳에서 갑자기 밝은 곳으로 뛰쳐나오는 것과 같은 단절을 맛보게 된다.

설사 내부의 목재의 사용이 시공에 최선을 다한 세심함이 엿보이고, 정성을 다한 의지가 보인다해도 이러한 점에서 외부나 내부 양쪽다 그 순수한 개념이 빛을 상실하고 말았다.

7. 이 건물에는 곳곳에서 이른바 '우리것'에 대한 애타는 집착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우리것'에 대한 표현방법이 완자무늬나 석가래, 부연,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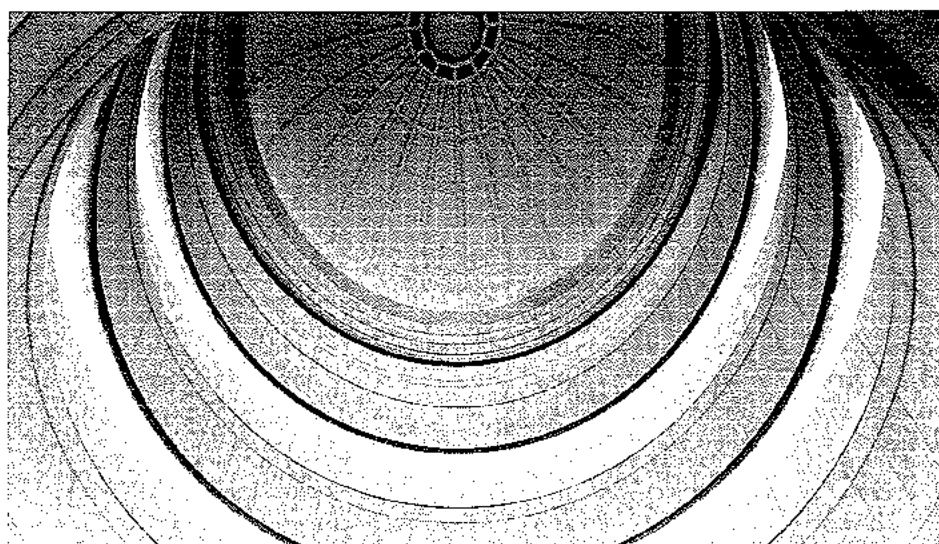
등의 형상에 대한 개해석을 짓고 등등의 형태를 요소요소에 적용시킨다고 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러한 것들이 재판소가 그 내부에 주춧돌 위에 세워진 기둥들이 나열돼 있거나 재판관들이 앉아있는 좌석위에 석가래가 천장에 붙어있거나 해야한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목재의 마감이 너무 매끈해서 정말 '우리것'이라는 친근감을 주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 너무 잘 정리가 되어서 '우리것'에서 나타나는 어딘가 거칠은 것같은면서 소박한 느낌을 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것의 한 부분 부분이 여기저기에 붙어 있거나 널려져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어떠한 개념을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장식적인 요소로서만 느껴지게 된다. 대 심판정의 좌석이 놓여있는 부분, 즉 심판정 내부는 분명히 내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깥 마당에서 심판을 받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또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 불가사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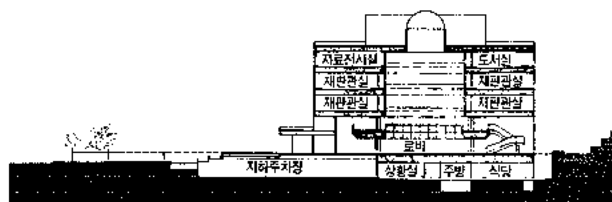
'우리것'에 대한 원천적인 개념은 이 건물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의 집합으로서 표현되면 된다는 것이 원래의 생각이었던가. 이 '우리것'에 대한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것이 이 건물에 중요하다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또한 외부의 이미지 형성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물의 이미지는 전혀 '우리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은 왜 '우리것'을 이 건물에 그토록 직설적으로 적용해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결여이기 때문이다.

8. 이상과 같이 여러가지 점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첫째, 이 건물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건축의 주제가 무엇인지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차가운 석재의 상징성인지, 이 지역의 유서깊은 이미지를 도시적 맥락에서 나타내려고 하였던 것인지, 또는 그 어떠한 것이었는지 하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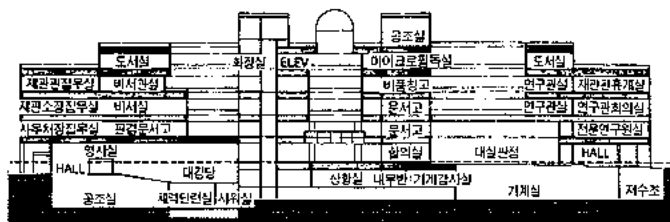
둘째, 왜 이 장소를 택해서 이러한 건물이 세워져야 했는가 하는 점이다.



1층 로비에서 올려다 본 천장



종단면도



횡단면도

셋째, 이 건물의 내부에서 공간적으로 감흥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인지 하는 점이다.

넷째, 외부와 내부의 마감이 전혀 다름으로 해서 그 연속성이 단절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이 건물은 건축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인 건축적 '감동'이 없다. 감동을 줄 수 있는 얼굴이 없다. 감동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미지가 없다. 감동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 없다.

이 건축은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와 거리는 전면의 계단과 연못 등에 의해서 단절되어 있고, 조경은 하나하나의 화단으로 단절되어 있고, 주차장에 의해서 인간은 단절되어 있고, 대지 가운데에 건물이 서므로해서 건물과 대지가 단절되어 있고, 동에 의해서 건물이 양분되어 있고, 복도에 의해서 각 실들이 단절되어 있고, 3층의 내부 정점에 의해서 내부의 공간이 떨어져 있다. 외부의 이미지와 실내의 이미지가 역시 분리되어

있다. 이점이 가장 큰 아쉬운 점이다.

9. 이 건물의 시공은 상당히 수준높다고 생각된다. 시공성은 정교하고 부분부분 물리적인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인다.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건축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그 필요성이 나타나야 됴에도 불구하고 시공성의 제고만이 너무 강조된 것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공의 질에 대해서는 높은 의미를 부여하는 바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설계의 개념 내지는 건축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다.

참고로 작품 설명서에 나와있는 작품의 설명을 인용하면서 글을 맺기로한다. 과연 헌법재판소 청사의 기본 개념이 이것으로서 충분할것인가.

작품설명서

한양도읍 60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헌법재판소청사가 건립된 이곳은 (종로구 재동 83번지) 근세사, 격동의 개화기 구한말 고종 22년(1885년) 국내 최초의 현대식 종합병원(광혜원)이 있던 자리이며(1922~1947),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현:경기여고) 및 창덕여자고등학교(1949~1989년)까지 현대 여성교육의 장으로 수많은 여성인재를 배출한 곳이다.

이제 유서깊은 이곳은 우리민족의 새로운 민주역사의 장으로 헌법수호와 국민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 역할과 기능을 건축적 재탄생으로 그 맥을 잇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청사 신축설계의 기본개념은 건국이후 최초로 건립되는 역사적 의미의 상징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위상과 권위성을 국민정서와 조화를 이루고 건축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충족함에 있다.

기본목표로는 2000년대 헌법기관의



소심판정 내부

기능과 역할에 수행함에 적합한 규모와
첨단과학 정보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현대적 설비시설과 민원업무 편의도모와
복지시설을 갖춘 청사건립에 있다.

설계개념에 있어서

- 배치 및 공간계획은 남북도시축과 주변
한옥보존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저층
장방형의 건물을 남북으로 배치하고
건물중앙 전면부와 전면도로(20m)
사이에는 진입 광장과 넓은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양질의 시각성, 공간성을
갖도록 하고 평소 일반시민의 휴게 녹지
공간으로 개방, 활용토록하여 국민의
헌법재판소로 정착되도록 하였다.

- 평면계획은 기능별, 구조별, 설비별
조닝을 통하여 기능충족 및 동선의
효율성과 단순성을 도모하고 중앙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구조의 평면 형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특수기능(대심판정,
대강당)에 대한 독자적 운용 및 일반공개
시설대여 등을 고려하여 남, 북으로 별도
출입동선을 마련하였고 향후

건물유지관리의 경제성을 고려한 기본
모듈(8m×8m)을 적용 설계하였다.

- 입면, 단면계획에 있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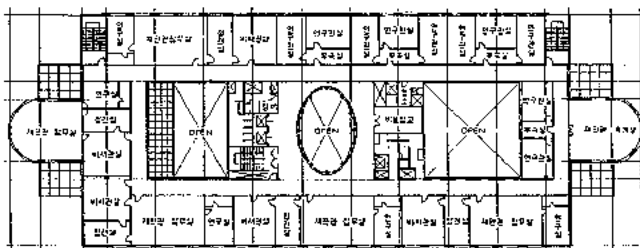
헌법재판소의 상징성과 도시적 조화성을
고려하여 현대적 감각과 고전적 양식의
석조건축으로 중후한 외관을 갖도록 건물을
기단부, 중앙부, 상단부로 구분하여 수평적
디자인 요소와 수직적 패턴을 절충하였고
전면디자인에 있어서 중앙 현관 부분의
상단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리를 의미하며,
수직기둥 및 수직창문의 배열은 헌법수호와
국민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수행을 의미하는 위상과 엄숙함을
상징하며, 건물상부의 9개의 상징조형물인
무궁화는 국화(國花)로서 국가적,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존립과 헌법수호의 의미로
헌법재판소의 무궁한 발전을 상징토록
하였다.

단면계획은 인접 한옥 보존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상 5층 지층 구조를
채택함에 있어 각 기능간의 유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구조별, 기능별로
그룹핑하여 층고를 최적으로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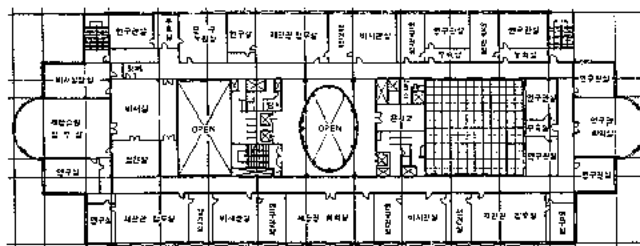
일반사무기능과 특수기능(심판정, 강당)은
구분 배치하였으며, 건물 내부동선 및 공간
중심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1층
로비(로툰다 홀)상부를 오픈하고 최상부에
돔을 설치하였다.

- 설비설계는 최적의 업무환경 조성
에너지 절감 및 건물 유지관리 편의,
경제성을 반영하였으며,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무자동화와 빌딩관리시스템의
첨단화에 따른 현대적 설비로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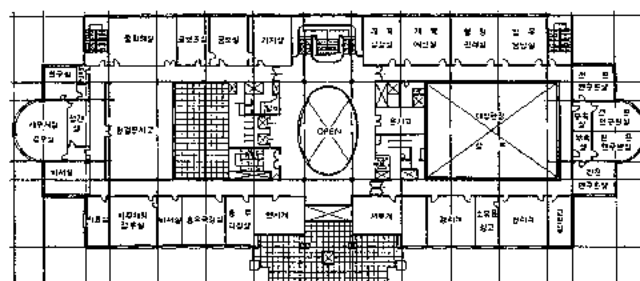
(작품설명 : 김성동/현신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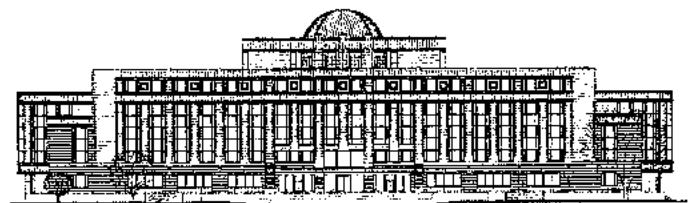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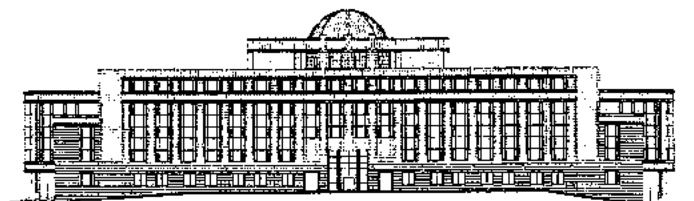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동측면도



서측면도

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건설환경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A Seminar for Better Construction Conditions



- 사회자 : 오창희
(한양대 교수)
- 발표자 : 이명호
(중앙대 교수)
- 토론자 : 김영수
(서울건축사회 회장)
윤석웅
(제일경제신문 편집국장)
홍성관
(선경건설 전무)
최찬환
(서울시립대 교수)
이향렬
(건설부 건설경제국장)

한국건설정책연구원(원장 김호일)이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1월23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건설환경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건축업계가 짧은 역사속에서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팽창에 치우쳐 적지않은 역기능적 요소의 해결과제를 안고 있고, 건축설계도 기술축적이 미약한 우리의 건축문화가 세계 경제의 국제화, 개방화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며 설계분야와 건설업계 모두가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명호 중앙대 교수는 종합건설업 면허제도와 관련, 그 도입에 앞서 예상되는 혼란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건설기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성숙된 턴키제도의 운영과 정착을 통해 설

계기술 및 공사 관리 기법을 향상시켜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그 모임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고 하고, 정보화 시대를 맞아 건축관련 주체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당면과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협의기구 발족을 제의하였으며,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협회의 문호를 개방, 연구, 봉사하는 체제구축과 함께 시급한 체질개선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건축업계, 건설업계, 학계에서 각기 입장 표명의 양상을 띠며 진행된 이날 토론회의 토론자는 아래와 같다.

본 지에서는 이번 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건설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문 전문과 토론자의 발표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이명호
중앙대 교수

건축문화창단을 위한 건설환경 개선방안

제1장 서론

우리 건축계의 현실을 살펴보면 비교적 짧은 현대 건축의 역사 속에서 외래 문화의 무분별한 수용과 모방에 급급했던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에 따라 그동안 급속한 경제개발에 의한 양적 성장에 치중하여 질적인 측면이 등한시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건축설계도 건축론적 이론이 정립되지 못한 채 기술 축적이 미약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전통과 특성에 뿌리내린 한국적 건축문화가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방화·국제화의 거센 물결을 맞이하고 있는 전환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

한편,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도 불구하고 이의 중요성은 간과되어 왔으며, 노동집약적 수주산업 정도로 치부되어 왔다. 이미 단순시공에서 조차 국가간의 임금경쟁력을 상실한 국내 건설업체들이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보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엔지니어링 및 설계 등의 용역업에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업체의 자기 변신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수요확대,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고도의 산업시설물의 요구 증가, 산업화에 따른 환경사업의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프로젝트의 개발에 의한 미래 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1993년의 이 시점은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내건 새 문민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 건설관련 업계도 경닝 새롭게 태어나야 할 때라고 믿는 바, 다가오는 21세기의 선진 문화국가로의 진입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 건설업계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설계분야와 건설업계 모두가 건축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건축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건설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건설관련 업계의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건축문화 창달과 건설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 건축계의 다각적인 대응방안 모색에 앞서, 건축문화가 지닌 근본적인 의미를 제2장의 “건축문화의 좌표”를 통해 음미해봄으로써 현안문제의 해결과 건축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동안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내년으로 다가온 시장개방의 현안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마련을 위하여 국내 건설관련 업계의 현황을 살펴본다. 아울러 일괄입찰제도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건설산업에 종합건설업 면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기대 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검토, 고찰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2, 3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건축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건축계가 나아갈 바를 주제별로 검토하고, 건설관련제도의 보완점을 개괄하고자 한다.

제5장의 결론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축약하며 건설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들을 정리해 본다.

제2장 건축문화의 좌표

1. 건축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

1) 건축의 필요성과 목적

건축은 우리 인간생활의 3대 요소인 의·식·주 가운데 한가지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안전하고 불안하며 행복한 주생활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이란 “인간 또는 그들의 모든 활동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능적, 구조적, 미적 공간을 만들어 주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이란 인간 생활을 위한 “공간의 구성체”라든가, “비호 시설물”이 건축이며 이것은 기능과 구조와 미를 만족시켜주는 예술과 기술의 총합이다. 첫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환경요소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사회적 가치 혹은 의식구조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환경의 끊임없는 개발이 바로 건축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즉 이것은 건축의 사회봉사 역할을 의미한다.

둘째, 건축의 목적은 인류의 문화창조에 있다. 엄밀히 따진다면 건축문화는 창조되는 것이다. 창조란 무에서 유가 되는 현상이다. 건축환경이란 개선하고 개량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그래서 이와같이 연속된 환경창출을 모아놓은 것이 건축문화이며, 곧 그 시대 그 사회의 역사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건축문화는 항상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가치는 고전적 가치와 전통적 가치 그리고 신흥 개발적 문화가치를 내포하게 된다. 건축의 문화적 가치는 그 지역의 대중문화를 수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중심문화도 함께 수렴해야 한다. 그러므로 문화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고건축에서 전해지는 교유한 고전적 가치와 그 속에서 현재의 문화개념과 그에 따른 변화의 의미를 수렴할 수 있는 전통적 가치, 그리고 새로운 개발문화 가치를 충족해야 하는 것이다.

올바른 건축문화에 대한 가치 평가를 위해서 역사를 똑바로 보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2) 건축의 학문적 위치

건축의 본질은 인류문화의 창조와 인류사회에 대한 봉사에 있다. 학문적 입장에서 접근할 때 건축은 과학기술과 예술성의 조화가 강조되는 학문이다.

또한, 건축은 응용과학적 측면에서 볼 때 실용성이 매우 강한 실천과학에 속한다. 즉 건축물을 지어서 실제로 우리 인간이 사용해 봄으로써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실천적 학문인 것이다. 또한, 건축은 문화의 상징이자 인간생활의 전부를 담고 있는 용기라는 관점에서 일부의 공학을 포함해서 기술, 그리고 예술과 인문과학, 사회과학의 일부를 포함하는 종합학문이다.

건축은 형태와 공간을 구성하는 계획이고, 기술은 이러한 계획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며, 건축의 핵심적 행위는 기능, 구조, 미라는 건축의 삼대요소를 총합하여 형태화하는 것이므로 건축은 본질적으로 조형예술적 창의력과 총합능력을 요구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건축은 공학기술적 수단을 구사하여 예술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건축은 기술보다는 문화의 결실을 목표로 하는 기술과 과학의 과도

기적 위치에 있는 학문이다.

2. 건축문화와 건축사의 역할

1) 건축산업과 건축설계

건축설계의 목적은 건축사가 자신의 건축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으로 투철한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건축주 혹은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설계를 구상하여 그것에 의해서 시공이 가능하게 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건축의 목적이 정해지면 그것을 원만히 달성하기 위한 기능적이고 물리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또 그 계획의 내용과 방침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설계가 진행되며, 이 설계에 의해서 시공과 건설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결정본인 건축물이 탄생된다. 그런데 사공과 건설은 계획방침과 설계안에 의해서 그대로 실행되는 것 뿐이므로 건축의 모든 목적과 가치는 건축설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또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은 종합하는 학문으로서 종합하는 방법이 바로 설계하는 일이다.

건축설계론적 관점에서 볼 때 구조체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는 하나의 필수요소가 되고 있지만, 건축이 형태를 취급하는 학문이라는 본래의 뜻에서 볼 때 그 중요성은 오히려 심미성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건축설계작품을 평가할 때 구조의 역학적 해석이 틀린 것은 처음부터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그 작품이 “잘 되었는가” 또는 “잘 되었으면 얼마만큼 훌륭한가”하는 등의 문제, 즉 건축설계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대개는 건축미를 포함한 그 형태, 배치 등의 종합적인 공간구성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건축사의 창조적인 예술의지가 건축설계에 충분히 반영되고 역사성과 전통성이 보장된 훌륭한 창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건축설계를 소비성이 짙은 다량생산적 공산품의 설계와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취급할 수가 없는 것이다.

2)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

건축사는 예술적이고, 매혹적이며 효율적인 건물을 창조하는 단순한 설계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의 보다 큰 역할은 그 시대의 역사와 인간의 본질과 환경세계를 건축 작품속에 묘사하고 규정짓으며 반영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림이나 조각작품은 그것을 감상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여지지만 건축작품은 상구한 세월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이용되고 보여지는 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건축사는 그의 작품을 통해서 시대상과 역사를 대변하고 문화의 전통과 미래관을 접목시키는 역할을 갖는 것이다.

또한, 건축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예술이자 사회적 표현이며 미래에 전개될 사회상을 제시하는 등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행위이므로 건축사는 사회봉사의 일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건축사는 의사나 성직자 못지 않게 정직과 신념을 갖고 사회를 올바르게 해석하여 사회변영의 길잡이가 되고 병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발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건축사는 개인적 이익을 초월해서 건축행위에 몰두하여야 하며 생활행태의 규범과 인간의 삶에 대한 개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Eugene Raskin은 건축사와 논리와 도덕에 대해서 “건축사는 대지의 소유자나 중개인, 또는 건설회사나 재료회사

등의 투자자 자격으로 건설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건축사의 판단, 건축주에 대한 조언, 그리고 건설기술자에 대한 지시 등이 건축사 자신의 이익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즉, 건축사의 공정은 신성하게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건축사는 기업가로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민문화의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신뢰와 보람을 얻게 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권위를 견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1963년 건축사법이 제정되고, 1965년 대한건축사협회가 창립된 이래 오늘에 이르는 25여년동안 건축사들은 국가건설의 근대화 사업에 조형창작예술인으로서 건축문화 창달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지난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93 엑스포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통의 건축문화와 현대화된 건축기술을 세계만방에 소개함으로써, 선진조국의 국위선양에 일조하였던 것이 건축사들의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93년 9월 현재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는 4천여명이고, 단독건축사사무소 1천 9백, 종합건축사사무소 6백여개사이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감리전문회사가 90여개사로 괄목할만한 전문기술용역단체로 성장, 발전하여 왔다.

과거 25여년 동안 건축사협회의 각 회원사무소에서 정부정책의 지원이나 보조없는 열악한 조건을 무릅쓰고, 수많은 전문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수련, 육성시킴으로써 제2의 산학교육기관 역할을 해왔고, 여기서 배출된 인재들이 국내 건설업계는 물론 7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는 해외건설 수출정책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건설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다.

3. 건축의 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의 광의의 목적은 “문화창조와 사회봉사” 등 크게 두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예술, 기술, 인문, 사회 등의 대상을 종합함으로써 훌륭한 환경을 창출해 내는 일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으로 인한 급속한 환경오염, 과학기술의 첨단, 도시산업사회가 각종 공해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또한, 건물의 공간 기능이 복합화 내지는 다양화되고, 또 대형화되고, 고층화되며 단지화됨으로써 건물 상호간에 주고받는 물리적 심리적 제 환경 요소들이 엄청나게 발생하게 되었고 또 기능위주의 건축이 수행되다 보니까 생태, 행태, 심리 등 우리 인간을 위한 진정한 인간적 요소들을 망각해 버린 한낱 물리적 개발에 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간을 위한 환경개발이라고 하는 건축 본래의 목적과 대상이 실추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그러므로 건물을 계획하고 설계함에 있어서도 대상건물 하나만을 만족시키는 조건설정은 안되며 이웃과 더불어, 주변과 더불어 만족할 수 있는 환경개발의 차원에서 건축이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을 문명화라고 간단히 정의한다면 문명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노동효율을 높여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생산과정에서 좀더 적은 정신적, 육체적 노동력으로 똑같은 생산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사회관리제도의 개발은 그 사회를 “물질적으로 문명화”시키는 목적으로서는 바람

직하다.

그러나 물질적 문명화, 즉 물질적 풍요만 염두에 두고 사회생활 전반에 대하여 오직 능률적인 행위에만 지고의 가치를 두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인간이 목표로 하는 물질적 문명화에 도달하는 데에도 스스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성숙된 물질적 문명화는 이에 상응하는 정신적 문명화, 즉 정신문화의 향상이 병행되어야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물리적 욕구의 독주는 스스로 물질문명 사회적 병리현상(물질탐욕으로 인한 각종범죄, 대기 및 수질의 환경공해, 나아가서 소음 및 건축환경의 시각적 공해 등)을 안고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 오직 경제적 능률성에만 가치를 두려는 것은 좀 더 향상된 정신문화의 관점에서 여러가지 물질문명적 병리현상에 대한 사전대비에 염두를 두어진 연후가 아니면 맹목적이고 위험한 의지로 보여질 수 밖에 없다.

건축행위에 있어 미, 즉 예술성의 추구는 바로 이 향상된 정신문화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물리적 이익(능률성)과 무관하며 물리적 욕구의 독주(과다한 건축공간의 확보 욕구)로부터 오는 시각적 공해에 외견상 절제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예술행위를 경제선행위의 시각에서만 보려고 하고 또 건축문제를 경제원리로 풀어가려고 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국가가 처하고 있는 사회전반의 경제적 딜레마조차도 경제적인 시각으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은 그래서 분명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에 임하는 사람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노동으로 인하여 획득할 수 있는 물질의 상대적 양적 우월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예측에서도 비롯될 수 있는 다양한 정신가치적 문화가 노동 현장에 배양된 풍토속에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다양한 정신가치적 문화의 창달이 역으로 노동 효율성 향상에 불가결한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의 삶이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관을 확립화 하여 한 방향으로만 강조했을 때 스스로 한계와 부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정책이나 가치관도 다원적 시각을 가져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주택업자나 건설업자, 나아가서는 우리의 대중의 인식까지도 건축예술의 문화적 가치를 좀 더 많이 이해한다면 건축사는 더욱 더 심오한 창작행위에 몰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다양한 가치와 여기에서 비롯되는 가치관이 사회에서 같이 숨 쉴 여유조차 없이 한 곳으로 매진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물질문명 향상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경제건설 지상주의와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정신문화적 가치들 즉, 도덕성, 철학, 예술정신 등이 사회의 한편에서 대중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로 전환이 시도되지 않은 한 경제문화를 비롯한 여러 문명사회적 병리가 근본적으로 치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건축설계와 시공은 대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균형있는 발전과 성장이 건설산업발달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과 함께 건설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건설회사들은 급성장해 왔으나, 설계사무소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계분야를 건설회사에서 흡수하

게 되면 그나마 약한 기반이 송두리채 흔들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건설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축적해 온 Know-how를 좀 더 발전시켜 설계사무소의 기반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서간적, 제도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기술능력과 설계능력을 고려해 볼 때 건설업체만을 대형화하는 것만이 급선무는 아니다. 작지만 우리의 국력에 적합한 기업구조로 발전시키는 것이 오히려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예는 이웃 대만의 경제가 주로 중소기업들을 주축으로 하여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제3장 국내 건설산업의 현황

1. 건설산업과 환경의 변화

건설산업은 주택 및 산업시설의 구축에서부터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국토개발에 이르기까지 실물투자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서비스 산업이다. 또한 타산업에 비하여 생산, 고용, 부가가치 등의 유발효과가 높기 때문에 경기 조정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1950년대 후반의 전후 복구사업과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으로 건설수요의 증가와 70년대 중반이후 해외건설 수출의 급신장에 의하여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건설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대 GNP생산비중이 70년대초 6%선에서 70년대 후반에는 아파트와 해외건설 및 경제성장에 따른 신규 건설공사의 증가로 7%로 확대되었다. 특히 83년에는 국내외의 건설경기가 폭발하여 8.5%까지 상승하였고, 84년 이후에는 해외 건설경기의 침체와 국내경기의 둔화로 7%선까지 떨어졌으나 88년에는 주택 200만호 건설에 힘입어 다시 7.8%로 상승, 타산업보다 성장 기여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설업은 건설환경의 질적 변화에 순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등한시하고 정부차원에서 우리나라 성장 주도산업으로서의 건설업의 진흥 육성정책의 미흡으로 건설업은 아직도 60년대, 70년대의 노동집약적인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건설업의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기술수준이 낮은 인력을 대량 투입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생산성이 낮아지고 낮은 생산성에 따라 저임금이 유발되어 노동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나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인상하게 되어 경영여건이 악화될 수 밖에 없었다. 오늘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생산성은 일본의 약 50%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노임은 동남아시아개발도상국노임의 3~4배 수준이다. 따라서 후발개도국과의 기술격차는 축소되면서 과거 경쟁수단의 하나로 이용되던 인건비는 더 이상 경쟁수단일 수 없게 되었다.

기술수준에 있어서는 시공능력이나 공사관리능력 면에서 이제 선진형 기술도입의 초기단계에 있으며, 해외진출 경험에 있는 몇개사를 제외하고는 단순 토목, 건축공사 위주로 하고 있을 뿐이며, 대형 상위 업체를 기준으로 해도 시공기술면이나 관리기술면에서 국제경쟁력을 생각할 때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가 상위 18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경쟁력 비교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32개 공종 중 외국업체와 비교하여 자신있다고 답한 공종은 아스팔트 포장

한개 뿐이며 경쟁력이 비슷하다고 답한 공종은 댐, 콘크리트 고층구조물, 배관, 아파트건설 등 12개 공종에 불과하다. 나머지 19개 공종 중 해상 구조물, 현수교, 플랜트, 공사의 자동화, 각종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응용 등의 고기술, 기술집약형, 공사관리 분야 등은 경쟁력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시공분야도 국제경쟁력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실정이다. 게다가 엔지니어링 및 설계분야는 더욱 경쟁력이 없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이 국내 건설관련 산업계의 현실이다.

한편, 건설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수주에 의한 주문생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물의 표준화와 규격화가 어렵고 이러한 특성상 수동적인 생산활동에만 치중하게 되어 건설 수요구조의 질적인 변화에 대한 적응보다는 양적 수주물량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향상, 고령화 등의 추세에 따라 소프트웨어에서의 충실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정보화 및 산업발달에 따라 무인공상화, 인텔리전트빌딩 등과 같은 구조물 기능의 시스템화와 시설기능 수준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건설투자 중 유지보수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수요구조 또한 선진화되어 가고 있다.

건설수요의 다양화, 고도화는 건설업체의 독특한 기술과 노하우를 요구하며, 특히 복수기술 프로젝트, 국제적 대형 자본 필요공사 등은 가격보다 기술, 신용, 자본조달능력 등 비가격 경쟁력의 역할을 중요한 변수로 만들고 있다.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로는 건설시장의 개방을 들 수 있다.

건설시장의 개방에 대한 논의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민간건설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협상과 공공건설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조달협상에서 이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무역시장을 독점하여 오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으로 상품판매에 한계를 느끼면서 이의 대체효과를 노려 아직도 비교우위에 있는 각종 서비스를 저개발국에 수출하여 무역수지를 개선해 보겠다고 벌이는 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협상의 배경이다.

당초 미국이 이 협상을 제청하였으나 각국의 호응을 얻지 못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세계 각료들이 모여 서비스협상의 개시를 합의 선언함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 즉, 다자간 서비스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 때부터 우리나라에도 이 낯선 단어가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건설산업계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나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것이 그간의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 공업국과 기타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유럽공동체와 같은 선진국들의 쌍무협상에 의한 시장개방압력, 301조를 동원한 무역보복조치 발동위협 등으로 어차피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면 100여국이 벌이는 UR의 다자간협상에 참여하여 잃는 것도 있지만 얻을 것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속에서 마지 못해 참가하게 되어 빠른 속도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건설은 다양한 관련 서비스를 포괄하기 때문에 개방일정은 분야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내건설시장은 결국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시장의 개방은 국내 관련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선, 건설업체들은 국내시장에서도

해외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국내 건설시장은 선진국 건설업체들과의 경쟁에 노출되지 않고 보호되어 왔으며 국내 건설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기존 건설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 건설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기업환경은 크게 변모하고 있다. 시장개방과 이에 따른 규제완화는 경쟁을 촉진시킬 것이며,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국제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하여 국내 건설업체는 이제까지의 안이하였던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자기혁신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한편, 시장개방을 외부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어차피 개방이 세계적인 추세라면 이 계기를 잘 활용하여 개방의 실보다는 득을 크게 할 수 있는 오기로 삼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개방이라는 국제적인 흐름을 제도권의 보호속에서 피해보려는 안일한 사고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협상에서 계속 용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각국의 고유한 제도의 수렴방향은 바로 국제 상관행이 될 것이며, 국제 상관행에서 벗어나는 제도 또는 규제는 계속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건설산업이 개방의 파고를 넘어 재도약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외형 위주의 성장보다는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건설업체와 일괄입찰 제도

신행주대교 붕괴사고 직후 건설부는 국내 건설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 면허의 도입, 특수건설업 면허의 폐지, 전문건설업 면허의 개편, 소규모 건설업의 등록제 신설 등 면허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중 종합건설업 면허란 프로젝트의 기획, 다당성 조사, 설계, 감리, 시공, 시운전, 인도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건설서비스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과정을 하나의 면허로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을 놓고 관련업계의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방향설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제도로서 종합건설업 면허제도와 맥을 같이 하는 일괄입찰 제도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건설산업에 종합건설업 면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기대 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일괄입찰 제도의 취지

건설공사의 전통적인 수주방식인 현행 설계 시공 분리발주 제도는 국내건설업체에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입찰업체가 기존 공법의 가격경쟁에 의한 저가입찰에 치중하고 건설공사의 설계단계에 시공자의 참여가 제한되었다. 따라서 대형공사의 건설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통한 엔지니어링 기술과 경험의 축적에 따르는 국제경쟁력 육성에 제도적인 장애가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비하여 외국의 건설산업은 그동안 신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를 활성화하고 건설공사의 관리를 제도적으로 효율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입찰 및 계약제도를 연구, 제안하고 공사의 특성별로 적용하여 그 효과에 대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하게 되어 엔지니어링 및 공사관리 기술에 있어서 국내 업체와 비교하여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시공과 관련된 국내 업체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이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건설공사 발주방식을 국내 건설시장에 도입하여 국내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체계를 기술경쟁 위주로 개편할 필요성은 당위성을 가진다.

정부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기술경쟁 여건을 정착시킴으로써 국내 건설업체의 엔지니어링 기술의 향상과 기술경쟁력 향상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국내 건설시장에 일괄입찰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시행결과로 보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 일괄입찰 제도의 실적 분석

1975년 4월 7일 대통령령으로 대형공사 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이 마련된 이후 이 제도에 의한 발주 실적은 표 3-1과 같다.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 17년간의 실적을 보면 '80년대까지는 1982년과 1984년에 각각 11건과 29건으로 약간의 실적이 있을 뿐이다. '90년대에 들어와서도 1992년에 26건으로 전년에 비하여 5배이상 늘었으나 전체 대상공사에서 보면 5.3%에 불과한 저조한 수준이다.

이렇듯 본래의 시행 취지에 부응하지 못한 저조한 실적으로 보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종합건설업 면허제도에 있어 본래의 시행 취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미비한 실적의 구체적인 원인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지난 92년 4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일괄입찰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일괄입찰 방식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다음의 표에서 밝히고 있다.

일괄입찰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의견	응답건수 (건)	비율 (%)
저가 입찰자에게 유리	6	8.2
국내업체의 기술력 부족	16	21.9
입찰자의 과중한 설계비 부담	7	9.6
건설업체의 설계불허	9	12.3
현행 국내 일괄입찰제도의 불합리	19	26.0
발주자의 일괄입찰공사 기피	16	21.9
총 계	73	100.0

의견 중에서 종합건설업 면허제도와 직접 관련있는 항목으로 고려할 수 있는 「국내업체의 기술력 부족」, 「건설업체의 설계불허」가 각각 21.9%, 1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괄입찰 방식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중에서 「국내업체의 기술력 부족」이 「건설업체의 설계불허」의 두 배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아 아직은 국내 건설업체의 기술력이 EC화를 수용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의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행 국내 일괄입찰 제도의 불합리」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이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리라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본래의 턴키제도가 가지는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제도로 그 명칭이 바뀌면서 내용적으로 변화되어 제도화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턴키제도는 공사의 특별한 계약으로서 일괄입찰 공사의 도급자가 건설공사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도급자가 설계와 시공, 시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 후 시설물을 완전한 상태로 발주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턴키제도에 의하여 공사를 수행할 경우 예상되는 일반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하나의 주계약에 의하여 공사가 발주됨으로써 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한계가 명확해진다.

② 신규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공사계획의 내용(공사금액 등)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③ 공사수행의 각 단계 사이에 발주자의 개입이 최소화되어 발주자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다.

④ 시공자의 설계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 파다설계 지양 등으로 공사진행에 위한 설계와 시공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⑤ 설계와 시공의 조직이 동일하여 공사기간 중 신공법 및 적용 또는 공법 변경 등이 용이하다.

⑥ Fast-track을 이용하면 실시설계 완료이전에 착공함으로써 공사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한편, 일괄입찰 제도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들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불합리성, 심의 대상공사의 과다, 일괄입찰 방식 채택기준의 불분명, 입찰참여업체의 설계비 부담 과중, 설계기간의 부족, 평가기준의 불합리성, 낙찰자 선정과정 부적절, 발주절차의 번잡성 및 발주 소요기간의 장기화, 실시설계완료 이전에 조기착공 불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건설기업들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기인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은 정부 각 기관과 건설업체들 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또한 그러한 신뢰가 가능한 풍토가 조성되어야 만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업체의 기술력이 발주기관에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큼 향상되고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신용확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을 만큼 향상되고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신용확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을 만큼 업계의 질적 수준이 제고된 후에야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시장개방을 앞두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 효과의 긍정적인 면을 감안하여 추구되고 있을 뿐, 발주자 개입의 최소화 및 Fast-track을 통한 공기단축 기능성 제고와 같은 장점은 추구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건설업체의 기술과 신용 위주의 경쟁이 정착되지 못한 설정에서 기인되었다고 생각되면,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괄입찰 방식의 단점이 존재하고 있다.

①시공 중에 신공법 적용 및 공법변경 등이 용이한 것이 턴키의 원론적인 장점이나 일괄입찰 방식에서는 계약금을 증액시킬 수 없다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규정이 있어 일식도급 금액내에서의 변경만이 가능할 뿐이다.

②Fast-track을 통해 공기의 단축이 가능한 것은 고사하고 실시설계까지 완성되어야만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계약방식의 공사에 비하여 오히려 공사완료에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형편이다.

③도급자와의 책임의 전적인 위임으로 인해 발주처의 개입과 인력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선진국에서의 턴키방식의 장점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입찰만을 사용하여 입찰업체가 제안한 설계내용 및 시공방법에 대해 그 타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막대하게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인력소요도 오히려 증가하는 실정이다.

④참여업체들의 입장에서 대규모의 설계변경이 가능하므로 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입찰가 증액으로 나타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턴키제도의 장점들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발주처가 확고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수준 높은 기술력, 그리고 탄탄한 신용을 보유한 업체의 육성이 그 전제조건이다. 왜냐 하면 턴키방식의 단점들은 전문기술과 소명의식을 결여한, 즉 전문가 정신을 보유했지 못한 업체들이 참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턴키방식이란 선진국에서와 같이 정의롭고 윤리적인 건설업 풍토하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대발주처의 신뢰를 경쟁우위 확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는 업체들이 다수 존재할 경우 꽃피울 수 있는 계약형태이다.

향후 이러한 정부주도의 일괄입찰 제도는 기술과 신용을 보유한 업체가 다수 출현하게 되고, 따라서 발주자가 믿을 수 있는 턴키업체들이 등장하게 된다면 턴키 본연의 장점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종합건설업 면허제도의 시행은 건설업체의 엔지니어링 능력을 촉진하는 공식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면허제도의 시안(이규방, 김일중)과 같이 면허요건과 발주규모 등에 의하여 시장의 인위적인 분할에 치중한다면 EC화로 가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특정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또는 그들 업체간의 과당경쟁을 유발할 가능성마저도 있다. 지금까지 정부에 의하여 추진되어 온 일괄입찰 공사의 확대발주에서 그것이 제도 위주로 시행될 경우 그 제도의 효과보다는 부작용 측면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와 같은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3) 기술력 향상을 위한 턴키정책의 기본방향

건설기술 개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턴키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술개발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공중부문
- 기술개발의 부가가치가 큰 공중부문
- 시장개방후 선진국 선도기업들이 진입했을 때 목표로 삼는 공중부문
- 턴키의 장점 중의 하나인 Fast-track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중부문

기술집약적 공중부문이라 함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술들을 요하거나 부가가치가 큰 고급기술을 요하는 공중이다. 아에는 교량, 댐, 지하철, 터널 각종 플랜트, 쓰레기 소각장, 항만, 공항, 고속철도 등이 포함되며, 지속적인 물량증가가 예상되는 고층아파트건축도 이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선진국 선도기업들이 목표로 하는 대형 또는 복합형 프로젝트와 기술집약형 프로젝트에 대하여 우리 건설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중부문에 대한 우리 건설업체들의 기술축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Fast-track을 통한 공기단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중부문에 대해서도 대도시의 심각한 교통난에 비추어 볼 때 지하철, 교량 등을 그 대상공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중부문을 턴키로 발주하여 설계기술과 시공기술의 접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3. 국내 건설설계사무소 및 선진국 Design Firm의 현황

국제 경쟁시대를 맞이하면서 국내 설계사무소의 현주소와 선진국인 일본의 설계업자 현황을 비교해 보면서 국내 설계사무소의 현재 상태가 얼마나 영세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국내 건축사 사무소 현황('93년 9월 현재)

(1) 건축사의 실태

①회원수 : 서울-1,985(48%)

지방-2,164명(52%) (면허소지자는 5,300여명)

총 4,149명

②학력별 분류 : 대졸-2,949명(71%),

전문대졸-446명(11%)

< 표 3 > 지역별 건축사 회원현황 ('93.9.30 현재)

구분	회원				건축사보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율		
합계	4,088	61	4,149	100%	10,962	25
서울	1,971	14	1,985	47.8	5,404	13
부산	442	2	444	6.7	838	1
대구	277	2	279	6.7	810	0
인천	140	1	141	3.4	342	1
광주	123	1	124	3.0	289	0
대전	125	3	128	3.1	229	5
경기	336	13	349	8.4	1,263	0
강원	59	2	61	1.5	191	0
충북	80	3	83	2.0	225	0
충남	60	5	65	3.0	152	2
전북	78	5	83	2.0	235	2
전남	46	5	51	1.2	126	0
경북	97	4	101	2.4	235	0
경남	209	1	210	5.1	499	1
제주	45	0	45	1.1	124	0

고졸-550명(13%),
대학원졸-468명(11%)
중졸-6명(0.1%), 기타-9명(0.2%)

③연령별 분류 : 20대-5명, 60대-356명,
30대-1,364명, 70대-156명,
40대-1,291명, 80대-5명
50대-972명(평균연령 46세)

(2) 사무소 실태

①전국 등록사무소 :

서울-1,127개(43%)
지방-1,471개(56.6%)
총 2,598개(회원수 4,149명)

②형태별 현황 : 단독-1,946개소(74.9%)

종합- 638개소(24.6%)

융역- 14개소(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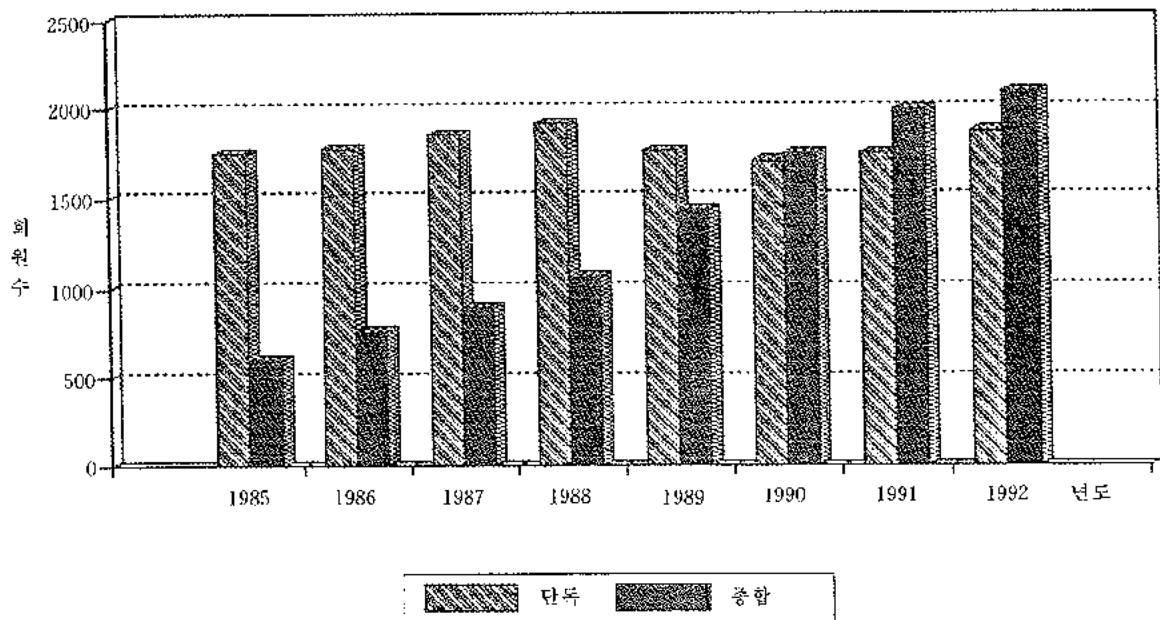
< 표 4 > 건축사사무소 형태별 회원현황 ('93.9.30 현재)

구분	형태별	단독 사무소	종합 사무소	융역 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2,021	2,111	17	4,149	
비율		48.7%	50.9%	0.4%	100%	
사무소수		1,946	638	14	2,598	
비율		74.9%	24.6%	0.5%	100%	

< 표 5 > 용도별 설계도서신고 현황 (1985년~1992년)

(연면적 단위 : m²)

용도	85년도	86년도	87년도	88년도	89년도	90년도	91년도	92년도	총합
단독주택	6,897,816	5,095,513	8,307,466	10,800,482	11,440,686	15,733,614	12,286,512	10,872,139	81,434,228
다세대	869,106	4,228,487	1,270,504	2,912,290	4,274,186	7,275,769	7,480,963	34,99,791	31,802,106
연립주택	3,040,485	1,427,954	1,190,737	1,528,398	18,055,499	2,272,276	2,781,740	1,113,456	15,160,545
아파트	8,185,397	10,988,781	10,394,017	14,928,073	29,225,997	56,562,273	56,241,526	48,486,775	235,012,839
주택소계	18,992,804	21,740,735	21,162,724	30,169,243	46,746,378	61,843,952	78,790,741	6,396,3161	363,409,718
종교시설	542,679	554,941	666,401	656,732	812,373	929,160	944,401	959,781	6,060,468
공장	4,467,586	7,387,811	8,341,605	10,629,605	10,933,449	12,864,447	13,287,518	10,682,420	79,094,441
숙박시설	1,285,783	1,439,259	1,631,691	2,004,435	2,944,064	1,715,037	983,188	823,850	12,827,307
교육연구	1,303,304	1,806,023	2,089,323	1,929,518	2,257,146	2,718,087	3,554,684	4,424,917	20,083,002
근린생활	7,116,153	7,636,228	10,525,575	13,064,886	18,514,750	23,865,084	21,620,503	18,177,200	121,080,379
의료시설	287,245	348,901	313,527	335,762	263,709	343,077	701,587	758,512	3,352,320
업무시설	1,890,948	2,363,780	2,367,556	3,274,782	8,524,390	7,500,422	7,459,501	59,68,946	39,350,325
기타	3,832,879	4,276,972	4,358,803	4,951,805	6,443,794	7,864,555	8,955,464	10,273,390	50,957,682
총계	39,719,381	47,554,650	51,957,205	67,550,768	97,440,053	139,663,801	136,297,607	116,032,177	696,215,642



< 그림 5 > 건축사사무소 연도별 회원변동상황 (1985~1992년)

위의 내용과 다음의 <표3>, <표4>,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현실은,

첫째, 국내 건축사무소 2,598개소 중 단독사무소가 1,946개소로 전체 국내설계사무소의 약 75%가 10인이하의 직원

을 가진 소규모 사무소임을 뜻하며,

둘째, 종합사무소는 638개소로 전체의 약 25%의 비율을 보여 다소 긍정적으로 보이나, 대다수의 종합사무소가 건축사 개개인이 소수의 직원으로 개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의 건축설계사무소가 영세함을 알려주는 것이며, 국제화 시대의 기술력 및 경제력에서 선진 외국과의 경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축사사무소 형태별 회원변동상황을 단독사무소와 종합사무소로 나누어 연도별로 분류해 보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에 의하면 1985년부터 1992년에 이르기까지 단독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의 숫자는 약간 줄어들거나 거의 변동이 없는데 반해, 종합건축사사무소에 종사하는 건축사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건축사사무소들이 점차 대형화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건축사협회의 신고된 1985년 이후의 설계도서 현황은 표 3-5와 같다.

표 3-5에 나타난 용도별 설계도서신고 현황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3-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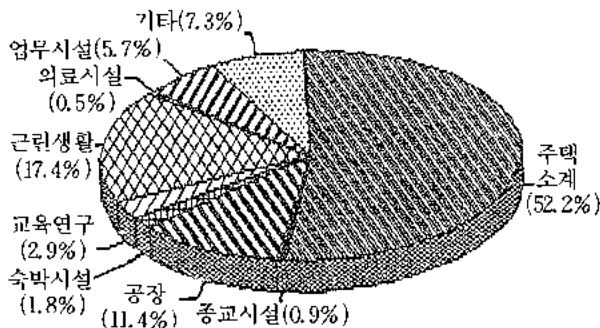


그림 3-2 용도별 설계도서 신고현황(1985~1992년 합계)

그림 3-2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설계물량 중 주택설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64.7%이며, 이는 전체의 33.8%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2) 일본 건축설계분야 현황

(1) 일본과 우리나라의 건축사 및 사무소 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7 건축사 및 사무소 현황 비교

항목	면허소지자	현업종사자 (회원수)	건설관련 기관종사자	설계 사무소수	비고
한국	약 1,700명	3,000명	1,000명	2,258개소	90년 말 통계
일본(11월)	217,000명	127,516명	90,000명	68,066개소	89년 말 통계

(2) 일본 건축설계사무소 및 건설회사 설계부문 상위 30위까지의 건축설계 직원현황을 살펴보면 표 3-8과 같다.

표 3-8 일본 상위 30위 건축설계 직원 현황 (1990년)

企業別 職員數	建築設計事務所	建設會社	備考
技術系職員 一般建築士	8,172名 4,066名	10,903名 5,788名	상위 30위 까지누계
建築設計部門 技術系職員數	1,000名以上 7個所 300-600名 20個所 100-299名	900名以上 300-600名 100-299名	5個所 4個所 16個所
一般建築士數	500名以上 100-299名 50-99名	500名以上 100-399名 50-99名	5個所 14個所 7個所

일본의 설계사무소들은 건물용도별 수수료율로 볼 때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일건설계의 경우, 사무소 설계가 전체설계의 43%를 차지하고 있고, 4. 일립 건설설계의 경우에는 전체설계의 절반인 50%를 생산시설 설계로 하고 있으며, 21. 관광기획설계사의 경우는 전적으로 상업시설만을 설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건설산업은 건축 설계사무소의 대형화, 건설회사의 설계업 가능, 다수의 인재육성 및 축적된 첨단 기술력 등과 같은 이유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기업 자체가 구축한 기업에 대한 신뢰성이 오늘날 일본 건설산업의 막대한 저력이라 하겠다.

4. 국내의 연구소 현황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이 임박하고, 건설시장 개방이 현실로 다가오는 등 국내외의 건설산업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업체에서도 이의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건설산업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건설부는 "92년 12월 건설기술 연구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 건설기술 개발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내 건설연구의 위치를 점검하는 작업은 그 의미가 크나 하겠다.

1) 연구 주체별 역할분담

건설부분의 기술집약화 경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학술적, 이론적 연구와 실무와의 연계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부각되고 있으나 산학연관의 연구주체별로 연구개발분야가 전문화, 세분화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연구 협조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건축기술에 관한 연구는 공공기관으로서 주택공사의 주택연구소와 건설기술연구원의 건축연구실 정도인데 이들 연구부서는 기능이나 조직상으로 보아 그 활동영역이 극히 제한적이고 아직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반 건설업체의 경우에도 몇몇 대규모 업체를 제외하고는 자체운영의 연구개발조직이 미약하기 때문에 법정 연구개발 투자비 조차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건설부에 기술관리실이 있지만 건축분야의 기술개발관리 업무를 능률적으로 관장하기에는 그 조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개발 결과를 통합적으로 수용하고 보급하는 추진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 공동 연구체제 구축

현행 제도상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 법인, 단체, 대학의 건설기술연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공동연구개발 체제에 대한 제도운영의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기술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설기술연구기관협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그 구성원은 건설부산하 연구기관 및 4개 산하 공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학계 및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3) 국내 건설기술관련 연구기관

건설기술에 관한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83년 민간종합기술 연구기관으로 출범했으나 건설기술의 특성과 연구원에 대한 지원부족으로 그 발전에 한계가 있어 88년 1월부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국책연구기관으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설이나 재정의 부족으로 건설기술 관련 종합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건설기술의 개방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대규모 실험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아직 최소한의 시설확보에 대한 계획도 정립되지 못하고 있어, 타분야의 국책연구기관 이상의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건설기술연구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건설부산하 공사의 연구소는 공사법과 세규정에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근거를 명시하는 조항이 미약하여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택공사의 부설연구소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부설연구소로서 당면하는 문제해결에 많은 연구노력의 투입이 요구되며, 따라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연구프로젝트를 개발하여 패키지 연구개발비를 책정하는 제도의 시행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 연구소는 산업현장에 매우 근접하여 있다는 특성을 살려 현장문제대응형 연구, 학계 등에서 얻어진 개개의 연구성과들을 이용하여 고도의 종합성을 요구하는 실용화 연구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건설업체 연구소는 연구시설의 확충단계에 있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의 검토, 기술도입과 기술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띠고 기술개발에 대한 반대급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건설기술의 특성 때문에 건설분야의 기술개발활동과 투자는 타업종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나 그동안 시공위주로 발전되어 온 국내 건설업체는 이와 같은 현상이 특히 심해 기업부설연구소가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기업주의 연구개발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키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제도의 현실화와 개발기술의 보호 및 활용방안에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부설 연구소는 자체 연구시설의 부족, 실험기자재 미비 및 전문 연구요원 확보난 등으로 충실한 연구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대학내 기초연구활동은 실무에 대한 응용연구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서 건설기술 개발의 기초가 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산업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제4장 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건축계의 대응

건축산업은 오랫동안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사회의 욕구를 건축물이라는 시설로 제공해 왔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시설이 완성되면 그로부터 몇 십년간 때로는 그 이상의 세월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그 결과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활방식, 가치관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건축산업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의 창조와 계승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건축산업이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한 업종으로 출발하였

지만 사회적 역할은 그 만큼 크고 중요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연간 건설투자액이 GNP의 10%선을 훨씬 웃돌고 있어 단일 산업으로는 최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설산업에 대한 사회 인식이 결코 좋지 않은 것은 부실공사, 부조리 등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전체가 구조적으로 부실과 부조리를 유도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건축관련 산업계에서도 반성과 함께 새로운 인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국제 경제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제 건설관련 산업계에서도 건설산업의 사회적, 경제적 중차대한 역할을 인식하고 문화창달의 주역임에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개방화, 정보화 국제화의 경제흐름에 맞추어 더 넓은 세계시장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진출자세를 가다듬고 기업역량을 결집시켜 국제경쟁에 대응할 전략수립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건축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건축계가 나아갈 바를 관련주체별로 검토하고, 건설관련 제도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건설업체의 대응

우리 건설업은 이제 막 노동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으로 탈바꿈하려는 전환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중동건설의 붐으로 수많은 해외공사를 경험하였지만 해외건설 퇴조와 함께 붙어 닳친 경기침체 기간동안 경영난으로 체중감량에 급급하여 그동안의 기술을 축적하지 못하고 고급기술자가 기업에서 이탈한 사례가 많았다. 아직도 기술축적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건설업체는 지금까지 관주도의 제도에 얽매어서 따라가는 운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보니 기술위주로 기술의 바탕위에 서야 할 건설업이 기술개발은 둘째가 되고 발주처의 향방에 따라 우선 수주를 위한 기회포착 위주의 운명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제는 이러한 관행들을 타파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건설업은 수주라는 독특한 영업형태에 주문생산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여 왔다.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와는 달리 판매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따라서 수주에만 전력하여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생산성의 향상, 경영 합리화, 기술력 제고 등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즉, 가격에 따르는 위험을 기술력에 의해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어떤 부분은 고객에게, 또 어떤 부분은 하청업체에게 떠 넘기는 형태로 하여 위험부담을 회피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시대적으로 의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 대부분의 건설활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이나 산업활동을 위한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격, 품질 및 환경면에서 건설업체에게 공공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도 종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영업을 전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사회와 밀착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종의 문화활동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업의 부가가치의 증가요인을 분석할 때 기여도가 작은 노동력에 의존하는 비율이 크다. 이에 반해 부가가치를 크게 신장시킬 수 있는 기술의 기여도는 제조업에 비하여 크게 낮은 실정이다. 국내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이 건설업의 생산성을 노동

집약적인 형태에서 하루속히 기술집약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건설에 관련된 모든 업무가 하나의 종합건설업적 체제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소득수준과 의식수준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건설업계로서는 고객이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도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건설업계에 대한 불신이 어떤 다른 업종 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설업계의 위상으로 보나 사회전체의 의식수준으로 보나 아직은 EC가 제도로써 자리잡기는 이르다고 본다.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공 외에도 건설업계에 의한 설계와 감리를 허용하여 왔으며, 특히 민간부분에서의 이러한 실무는 더욱 활발하다. 특히 건축주 입장에서 이러한 실무방식에 의하여 공사비 관리, 생산관리, 유지관리 등의 서비스에서 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관념이 일반화되고 있다. 건설업계에 의한 설계와 시공의 이러한 동시 수행은 건축주와 건설업계간에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어 온 상호신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대내외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업계는 신기술, 연구능력 및 CIC(Computer Integrated Construction) System을 갖추고, 대내외의 정확한 추세판단으로 장기적인 수주정보까지 획득하여 충분한 물량확보로 경영수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종합건설업 면허제도와 EC화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될 성질의 것임을 감안할 때, EC화를 지향하는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 면허제도에 연연해 할 것이 아니라 일반 건축사 사무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특수공법 적용의 새로운 프로젝트(예 : 해양도시개발, 대체에너지 발전소, Clean Room 등)들을 개발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신기술을 연구개발하여 Know How를 축적해 나감으로써 국내외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는데 대응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기술개발의 축진이 기업의 중요한 당면과제인 바, 현실적으로 투자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대기업이 그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며, 장차 증가될 대형 프로젝트의 개발 및 발주에 대비하여 개발추진비 및 입찰 추진비의 부담이 크게 증폭될 것을 예상할 때 기업의 전문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설계사무소의 대응

국내의 건축사사무소의 75%가 직원 10명 내외의 단독사무소이고 그 나머지가 종합사무소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개별적인 사무소 운영을 하고 있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일반건축물 이외에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복잡하고 대형화된 프로젝트의 수행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향후 우리의 설계업계도 보다 전문화되고 대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우수한 설계를 통한 건축문화의 창달에 그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현대 문명사회의 추세는 모든 분야에서 날로 전문성의 향상이 요망되고 있다. 앞으로 21세기는 고기술 뿐만 아니라 예술문화의 가치창출 경쟁시대로서 창조적 전문가의 역할이 국가이익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향후 세계적 추세는 건축사 본연의 임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며, 우리의 건축분야 정책에 있어 건축사의 중심적 역할을 어느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지를 알려주고 있다. 건축을 문화적 소산으로서 그 중요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국가나 대기업에서는 건축가에 대한 신뢰보다 선진외국 건축가들을 선호하는 풍토 속에 이제 국제 개방화 시대까지 맞아 외국의 기술과 건축디자인팀이 우리의 연약한 건축계를 여지없이 잠식할 것이고, 따라서 건축사들의 설 자리가 어려워질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속에 건축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실력을 배양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이 급선무이며, 사회로부터 이해와 신뢰를 받지 못한 건축에 대한 문화의식을 개선하며 높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무소 및 협회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개별 건축사사무소는 전문영역의 확보와 함께 그 영역에 대한 Know-How를 쌓아서 국제 경쟁력을 길러가야 할 것이다. 주변환경의 변화추세를 감안하여 사무소의 유형, 규모 및 특성에 적절한 사무소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사무소의 전문화 추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 건물 용도별 전문화 : 일반건물인 사무소, 주거시설 등을 제외한 호텔, 병원, 레저시설, 실험타운시설 등
- 설계의 업무 분야별 전문화 : 건축계획 전문, 인테리어 전문,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컴퓨터 그래픽 전문 등
- 건축물의 기능별 전문화 : 특수생산시설, 하이텍 시설, 인텔리전트빌딩 시설 등

이와 같이 전문분야에 집중함으로써 그 분야의 전문성의 개발과 기술축적으로 동업 타사와의 경쟁력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하게 되고 동시에 인재양성도 전문분야에 인력의 집중투입이 가능하므로 개인의 기술력 향상에 효율적이며, 또한 스태프들의 자기개발과 업무의 성취감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건축사협회도 건축문화 창달의 주역으로서 그 소명의식에 대한 절실한 깨달음으로, 개별 건축사의 건축행위가 전체 건축사의 위상이 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건축문화를 구성한다는 대승적 차원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협회의 권익옹호에 치중한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협회 스스로가 건축사의 도덕, 윤리규범을 강화하고 건축사의 건축행위에 대한 감사 통제기능을 가져 설계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화를 개방하여 학계, 관계, 연구소 등에 종사하고 있는 건축사면허 소지자를 협회의 구성원으로 흡수하여 기술축적을 위한 자체 연구활동을 재고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해 있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사들도 의식개혁에 의한 자기혁신에 노력함으로써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 및 체질개선을 통한 업무혁신을 이루어 실추된 건축사의 위상을 되찾고 동시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할 것이다.

3. 건설관련 제도의 보완

1) 연구개발 및 기술관리 기구도의 강화

도시개발, 건축의 대형화·고급화, 주택의 양산화, 그리고 환경 에너지문제 등 고급화된 건축의 설계 및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복지에 다가온 개방화 시대를 맞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축기술의 상대적 우위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유도, 촉진시키고 건축관련 연구기구 및 기술관리기구의 체질개선과 재편성이 긴급한 당면과제라고 생각한다.

건축의 연구개발은 그 특성상 관, 산, 학, 연 등 연구개발 주체의 역할분담과 추진능력이 수직수평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조화로운 협동체제가 형성될 때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내실있는 연구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이는 연구개발 주체 모두가 상호보완적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자체 조직력 및 수행능력상의 체질적 허약성이 크게 노출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관은 신기술의 연구개발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연구개발 정책추진과 산, 학, 연의 연구활동에 미치는 저해요인을 척결함과 동시에 국가 기반기술 개발정책, 장·단기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국내외 기술정책자료의 종합관리 등을 주도함으로써 고차적인 연구개발의 외곽 지원 환경을 튼튼하게 구축,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술개발투자의 회수기간이 장기간 요하는 기반기술 연구나 기술정책지원 연구를 위시하여 대형 목표기술 연구 및 대형 과일릿(pilot)연구사업의 시행 등 국가경제와 건축문화 장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설계 기술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나라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설립, 운영하고 있는 국책 전문연구기관의 성격, 즉 국립건축연구소의 출범이 결실하게 요구된다.

현재 주택공사의 주택연구소나 건설기술연구원의 건축연구실과 같은 지역적이고 왜소한 조직기능으로는 첨단 과학기술 시대를 맞아 앞으로 밀려올 다종다양한 국책 연구과제를 소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간에 대한 지원 연구는 물론이려니와 건축기술의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산업체는 연구투자비의 확대와 전문연구인력의 확보로 기업자체의 독창적인 기술개발능력을 축적함과 동시에 기초연구의 지원을 겸한 산학협동적 연구를 유도하는데 능동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개발능력의 신장과 산학협동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간의 인적교류 및 기술정보 교류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협조체제를 도입하고 기초연구결과와 실용화를 위한 후속연구체제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계는 기초연구나 응용연구의 결과가 실용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동인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체 주도의 협동연구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아 연구결과와 실용화가 부진한 것은 학술연구결과를 실용기술로 변환, 가공하여 실용화 연구단위로 연계시키는 활동매체, 즉 연구결과와 실용화 추진기구의 부재와 깊은 관계가 있다.

또한 연구개발의 첫 관문은 국내외에 걸친 정보검색에 의한 전문적인 기술정보체제의 고도화인데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주관하는 제도적 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즉, 연구 단계 각각이 자체의 정보관리 체제를 마련하고 연구단체 상호간 교류체제를 확립하여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정보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및 기술 Data Base 체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업과 건축의 축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신공법, 신부품 및 신소재 등 새로운 연구개발품에 대한 성능인정체도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를 주관할 만한 적절한 기구 역시 현재로는 없는 실정이다. 이들 성능의 심사와 판정에는 부품의 생산과정조사, 시공 현장조사연구, 시공후 성능상태조사 등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기초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고도의 전문지식이 투입된 정밀한 종합심사가 따르게 되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연

구결과와 실용화 추진기능, 종합기술정보 관리기능 및 성능인정기능 등은 업무의 연관성이 긴밀하므로 이들 세가지 기능을 전담할 기술관리가구(예: 일본의 건축센터, 프랑스의 C.S.T.B)의 신설이 있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당면한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적정한 기술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폭적인 연구관련기구의 재편성과 고차적인 기술관리체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감리제도

법규상의 감리규정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민간부분에 적용되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과 공공부분에 적용되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그것이다.

건축법 및 건축사법상의 감리규정은 건축물이 도시 또는 불려내 건물군의 한 개체로서 제반 법령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도록 하기위해 행하는 감리의 성격이 강하다. 여기에 서의 감리규정은 설계감리의 성격에서 출발하였으나 시간의 적정감리요율의 결정 등의 대책을 강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실제 적용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정상으로만 설계감리에 시공감리를 합친 성격으로 강화되었으므로 감리업무의 범위 및 감리자의 책임 등에 대한 관련분야의 해석이나 의견은 제각기 다른 상황이며,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감리자에게 책임만 지우려는 경향이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규정은 『공사감리 + 품질관리』의 양면성을 띄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설계감리의 성격은 거의 배제되어 있거나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감리업무는 본질적으로 설계감리와 시공감리로 구분하여 시행되어야 하는 이원성을 내포하고 있다.

건축물은 예술과 과학기술의 조직적 결합에 따라 문화적 가치를 표출하는 작품이므로 감리과정에서 기술 및 공법의 감리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설계자는 건축주의 요구를 소화하면서 최종적으로 건축물이 완성될 때까지 설계의도가 목표에 도달되도록 건축을 주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설계자와 설계감리자는 원칙적으로 분산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계감리는 자기의 작품이 설계의도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할 뿐만 아니라 공사진척에 따라 설계상의 미비점 또는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이와 같은 현상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 건축설계의 속성임) 이를 수정,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설계감리는 사실상 설계와 연장선상에서 행하는 설계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건축공사의 감리가 기술위주로 접근하는 토목공사의 감리와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건축의 공사감리는 설계의 보완 및 구체화 기능을 수행하는 설계감리와 품질확보와 기술지도 기능을 수행하는 시공감리를 합친 성격의 감리방식이나 양자 중 설계감리의 성격이 강한 반면, 토목의 공사감리는 사실상 설계감리를 배제한 채 시공감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공사감리규정을 건축에 맥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자양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저작권이 보장되는 건축에서 설계자가 감리자를 겸하는 한 시공감리의 업무대상 중 품질관리에 해당하는 감리부분은 공사감리대상에 제외시켜 별도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품질관리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책정하여 품질관리팀을 건축감리의 하부조직으로 운영토록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감리제도를 도입 운영한 역사가 일천하고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되기까지에는 다수의 기관과 업체가 관여 또는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감리자의 역할 영역 주변에서 참여자와의 접촉이 그만큼 복잡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접촉 경계면에서 각각의 역할 간에 중복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적 흐름의 귀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애매모호한 중복기능을 순리적으로 조절·정리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극소화하여 양질의 완성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리자를 중심으로 한 협의 기구를 활성화하는 감리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더 나아가 시공자의 기술지도 프로그램 및 적절한 감리기법의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감리업무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감리제도의 정착과 Know-How 축적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감리자의 위상을 높여 나갈 뿐만 아니라 감리행위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감리제도하에서도 안정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었으나 점차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 고유의 감리제도를 확립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상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외국의 건축공사 감리제도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하여 국제적 감각에 부응하는 감리기법을 창출하도록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3) 일괄입찰 제도

던키방식으로 기술혁신을 유발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때 현행 일괄입찰 제도의 낙찰자 선정방식, 총공사비를 설계점수로 나눈 수치가 최하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설계점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혁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보아 높은 설계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가산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종합건설업 면허제도

종합건설업 면허제도는 해외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술능력을 촉진하는 방안으로서 정부와 일부 대형 건설업체들에 의하여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허제도에 관한 논의에 앞서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면허취득 자체로 종합건설업을 위한 기술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EC화의 성패는 건설업체에게 다 변화되는 엔지니어링 사업수행을 위한 노하우의 축적과 사업수행 능력의 개발에 달려 있으며, 이와 같은 기술개발은 단시간 내에 달성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EC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의 체득, 그리고 도덕규범이 전제되어야 한다.

종합건설업은 행정, 또는 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보다는 관련업체 스스로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제도 자체가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 기대할 수 있다. 건설회사가 건축사 인원만 확보했다고 해서 종합건설업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를 통한 외부의 힘에 의하여 종합화가 이루어질 경우 갑작스러운 기구확대로 경영악화를 야기하는 등 갖가지 곤란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설계, 시공의 수직결합 또는 복합결합으로 판매공동효과, 조업공동효과, 투자공동효과, 즉 기술적 의존도에서 파생되는 원가절감 효과가 크리라는 예상은 공장생산 제품이

나 건축의 P.C 시스템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건축고유의 전문영역과는 거리가 멀다. 즉, 정신적 유산인 건축작품을 소비성 상품과 같이 취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설계와 시공이 통합될 경우, 전체 공사비에서 설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설계과정이나 의사결정단계에서 설계가 시공에 예측되기 쉬우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설계비가 공사수주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결국 설계가 저질화될 우려가 있다. 업무영역별 전문화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 설계, 시공, 감리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이유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측면 이외에 각 부분의 다른 존재가 상호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재시켜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완성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대응적 효과를 얻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번에 건설기술관리법을 대폭 개정하여 감리기능을 크게 보완한 취지도 이러한 연유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건설관련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종합면허 제도의 도입은 제도상 상호 상충하는 문제점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건설업관련 면허 등록에 16가지의 법률이 적용되어 이의 단순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 종합건설업 면허까지 가세된다면 건설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지고 복잡해질 것이다. 상위 극소수업체의 종합면허발급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업무영역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건설회사, 엔지니어링업체, 건축사사무소 등 건설 관련업체는 전문인력의 이동과 그에 따른 기업의 이합집산, 경영체질의 변화, 막대한 자본의 투자 등 크고 작은 충격이 발생하여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종합건설업체와 일반건설업체 사이의 물량확보 다툼이 첨예화되거나, 현재의 일반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의 하청자로 전락하고, 전문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의 재하청자가 되어 중층하청에 의한 부작용이 야기될 우려가 따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정보비용과 비효율성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종합건설업 면허제도를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이와 같은 혼란과 충격을 흡수하고 EC의 경쟁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EC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EC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은 관련업체 모두가 전문성과 Know-How를 충분히 확보하고 상호신뢰를 조성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이 같은 업무영역 속에서 경쟁자로서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협력자로서의 공동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외형만 갖추고 내실을 기하지 못한 제도 운영은 그 제도의 장점보다 단점을 크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제도든 정책이든 그것을 수립하는 그 자체보다 수립된 제도를 얼마나 부작용없이 잘 수행해 나가느냐 하는 과정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국제적인 흐름이나 국내 관련업체의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종합면허체제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우리의 건설관련 업계의 수준이나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에 비추어 아직은 이 체제가 가진 장점을 살리기 어려워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건설에 관련된 모든 업무가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기술수

준, 소득수준 및 의식수준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건설업계에 대한 불신이 어떤 다른 업종 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설 관련업계의 기술력 향상과 도덕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 결 론

개방화, 국제화의 거센 물결을 맞이하고 있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건축문화의 창달과 건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들을 정리해 본다.

예술행위를 경제적 행위의 시각에서만 보려고 하고, 또한 건축문제를 경제원리로 풀어가려고 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국가가 처하고 있는 사회 전반의 딜레마조차도 경제적인 시각으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은 분명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건설 지상주의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정신문화적 가치들, 즉 도덕성, 철학, 예술정신 등이 사회의 한편에서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로의 전환이 시도되지 않는 한 경제문화를 비롯한 여러 문명사회적 병리가 근본적으로 치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개방화, 국제화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건축문화의 창달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축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설계사무소, 기술용역업체, 건설회사는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그 본래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기 독립된 영역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공조체제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축사사무소는 지금까지와 같이 건설업을 설계 종속적인 시공업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설계와 시공이 국가적으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을 형성하는 동반자라는 개념하에서 건설업의 규모에 걸맞게 엔지니어링 기술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무소의 전문화와 대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건축설계의 조형 및 예술성에 관한 건축사의 확고한 직업의식이 필요하며 이와 아울러 건축의 예술성에 관한 일반의 인식도 제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도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문화를 개방하고 연구, 봉사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2) 건축사의 창조적인 예술의지가 건축설계에 충분히 반영되고 역사성과 전통성이 보장된 훌륭한 창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창조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건축물에 예술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첨단과학의 발달로 일반 건축사가 다룰 수 없는 프로젝트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전문 엔지니어와의 공조체제를 조직함으로써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따라서 EC화를 지향하는 기업체는 일반 건축사사무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특수공법 적용의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개발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신기술을 연구개발하여 Know-How를 축적해 나감으로써 국내외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는데 대응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건축물은 예술과 과학기술의 조직적 결합에 따라 문화적 가치를 표출하는 작품이므로 적정품질 확보를 위한 시공관리만으로는 부족하며, 따라서 시공과정에서 설계의도를 완

벽하게 전달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작품행위의 연장으로서 설계자의 설계감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건축공사의 감리는 기술위주로 접근하는 토목공사의 감리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의 감리규정은 토목위주로 되어 있으므로 건축문화의 창달을 위해서는 건축공사를 위한 별도의 감리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EC화를 겨냥하여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의 육성이 중요한 당면과제인 바,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건설공사 발주방식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Turnkey 방식의 낙찰자 선정에 있어서는 기술경쟁 우위체제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5) EC화는 국제적인 추세이므로 EC화에 대한 전략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EC화와 종합건설업 면허제도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 면허제도는 현 단계에서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종합건설업 면허제도는 그 도입에 앞서 예상되는 혼란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우선 건설기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성숙된 Turnkey 제도의 운영과 정착을 통해 설계기술 및 공사관리 기법을 향상시켜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는 과정을 거친 연후에 그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6) 현재의 시점에서 보아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더라도 그 제도 주위에는 명암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과거와 현재의 시점에서 장·단점을 면밀히 평가하고 미래에 도래할 효과의 양부를 다각도로 투시할 것이며, 이해당사자 간에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수요계층의 의견을 취합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특히 제한된 사람, 또는 특정 계층의 의사에 의지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는 제도일수록 그 주요 의사결정은 경제적 척도로서 보다는 문화적 가치척도에 의해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 성공한 제도라고 해서 우리도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의식수준, 경제수준, 도덕수준에 걸맞는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인내력을 가지고 대처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7) GNP 6~8%에 육박하는 건축분야의 정책책임자가 부국강급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독립된 국제 건축연구소도 없고 외국기술 내지 재래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형태에서 참다운 건축문화 창달과 국제경쟁력 강화는 하나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므로 선진형 제도 도입에 앞서 행정기구 및 연구체제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단계에 있는 설계, 소재, 소프트웨어 등 기반기술과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지원을 대폭적으로 보강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8) 정보화 사회에서는 고도의 학술정보가 곧 생명이므로 건축관계 주체들은 학술연구 및 학술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학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관련 주체 간에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당면하는 과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협의기구를 발족시켜야 할 것이다.

토론 내용



김영수
서울건축사회 회장

토론에 앞서 먼저 이명호 교수님의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창달을 위한 건설관련 업계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동감을 한다.

특히 설계용역분야와 건설시공업체는 상호보완적이면서도 각기 독립된 영역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대형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건설업체와 설계사무소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대치 해야한다는 지적은 현실을 감안할 때 그야말로 옳은 지적이라 생각한다.

오늘의 주제에 관한 토론을 주제발표자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에, 저는 지회 건축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종합건설업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사실 오늘의 토론회가 그동안 몇차례 있었던 토론회보다는 종합건설업 사항에서는 진일보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오늘의 주제가 건축문화발전과 건설환경개선이든 보다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논제이긴 하지만, 종합건설업체에 연연하는 건설업체의 끈질긴 논쟁에 대해 그 해답을 주지 않았나 생각되기 때문이다.

지난 9월10일 이 자리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그리고 작년 7월22일 국토개발연구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언제나 UR개방과 국제경쟁력을 앞세워 재네콘(General Contractors)과 ECX(Engineering Construction)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건설공사 발주방식과 신기술개발의 차원이라야지 어떻게 동병상련의 건축사 전체업역을 통제 가져가야만 된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다.

다행히 오늘의 주제발표에서는 아직도 소득수준, 외식수준이 낮고 건설업체의 도덕성과 기술력이 부족한 현실하에 종합건설업체제는 시기성조라고 완곡히 표현하셨습디만, 관습과 문화, 법과 세도가 엄존해야 할 민주주의의 질서하에서 먼훗날이라도 설계업에 대한 인수와 사수가 벌어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으로 본다.

종합건설업을 주장하는 어느 분의 논문에 「건축사 자체의 업역이 축소 잠식된다는 표현은 옳지가 않다」고 논지를 펴고 있었습디만 축소 잠식이 문제가 아니라 더욱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망각하고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놓자 내가 짓는 주인과 남의 집에 팔려가서 농사지어주는 미슴과를 혼동하고서는 논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설계는 공사의 기본이 되고 설계없이는 시공이 태어날 수 없다면, 분명 설계는 시공의 어머니와도 같은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표현은 차치하고라도 경제적인 측면만 생각해봐도 설계때문에 시공이 유자되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설계를 혼들어 놓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며 잔납득이 가질 않는다.

알고계시겠지만 꼬리를 감추고 대형건설업의 이윤을 앞세워 학자와 정객입안자를 부추기는 그 행수가 5년이나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제화, 개방화라는 그럴듯한 구호를 내세워 설계비 몇 푼 줄일려고 건축사를 통제로 사버리겠다는 그 양두구육의 마음씨는 이미 노출된지 오래지 않은가?

설계때문에 시공해서 대형화 되었으면 환원해야지 이렇게 자기네 설계사무소를 별도로까지 차려서 전체 건축사를 육되게 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이러한 일은 지금도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

학자와 정치인은 종합건설업이 이러한 치부를 정상화하

는 도구로는 너무나 안정맞춤 일수도 있겠지만 정부당국자는 충분히 이 실상을 읽고 계실줄로 믿는다.

정부의 재벌정책이 선량한 국민의 이익과 배치되고 건축사와 같은 전문인들을 제물로 삼는 정책의 어리석음은 물론 법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보며, 꼭 그렇게 되리라고 본다.

그럼 얼마남지 않은 저의 시간을 할애해서 종합건설업체도 도입에 따른 반대이유와 앞으로 건축사들의 대응방법에 관해 요약해 보고자 한다.

먼저 종합건설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건축사는 조형창작 예술인의 긍지를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은 바로 그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시공자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속되거나 종속되지 않고 건축사 개인의 예술성 창작성을 마음껏 발휘해야 하는 문화행위인 동시에 저작권이 부여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어느 자유직종 전문인보다도 개인의 아이디어와 경험 그리고 의사결정이 중요한 만큼 그 누구의 간섭도 배제되는 특성을 지닌 직업이다.

반면에 건설업은 자본, 인력과 기술을 앞세워 기업이익과 이윤추구를 극대화하는 조직으로서 예산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해서는 작품성과 예술성은 기업이익의 도구화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건축문화는 경제원리에 밀려 퇴장하고 말것이다.

직업적 이기주의나 기득권보호 차원에서가 아니라 건축문화 창달의 진정한 선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건축사는 종합건설업을 결사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설계자와 공사업자 즉 건축사와 건설업체는 상호보완적이며 상호견제적인 기능을 수행해야만 하나, 공사과정에서 설계의도를 적극 반영하고 시공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필요로 할 때나, 감리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사항이나 부설공사를 사전예방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해진다 할 수 있겠다.

종합건설업 체제속에서는 설계와 감리는 시공에 종속되고 결국 시공을 위해서는 하청보다도 더욱 심한 순기능만을 해야 하는 엄청난 모순과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발주자나 건축주를 보호해야할 중간개개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더욱 엄청난 피해와 보상과 다름이 없을 것은 쉽게 예상되는 일이다.

따라서 감리기능 보다도 새로운 감독기능을 유발시키는 옥상옥의 건설체제가 동업자간의 혼란을 더욱 야기시켜 또 다른 역기능을 동반하게 될것으로 보며, 억지체제가 무리한 통합은 엄청난 시행착오만 겪을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말 것이다.

소수 몇십개 업체의 이익을 위해 건축문화와 건축사를 담보잡아 매도하는 정책은 문민정부가 해서는 안될 것으로 확실히 믿고 싶다.

다음은 국내의 건설환경에 대응하고 종합건설업 구상에 대처하는 방안중에서도 건축사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주제발표에서 발표자께서도 설계사무소의 대응방안으로, 대형프로젝트의 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해 보다 전문화되고 대형화 되어야 한다는 방향제시가 있었지만 덧붙쳐 건축사협회의 활동방향에도 일침을 가하신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건축사의 위상을 정립하고 건설분야와 건축활동의 확고한 주역으로 우뚝서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앞선다.

아직도 토목기술 위주의 건설체계를 바꾸어 놓지 못한 책임도 통감하며, 건설부의 정책과정에서 언제나 건축이 뒤로 밀려버린 예가 바로 건축계의 암적 존재인 건설기술관리법인것 또한 사실이다.

건기법의 층격이 채 가지기도 전인 1989년 12월 13일, 종합건설업 면허제 도입에 따른 공청회가 있었고 협회의 항의에 따라 철회약속도 있었건만 작년과 금년에도 토론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정책당국도 대형건설업체도 건축사에 비하면 권력과 금력에서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이제 세상은 틀림없이 달라지고 있다.

재벌보다는 중소기업들, 대형사무소 보다는 소형사무소를, 토목보다는 건축을, 그리고 국제쪽보다는 국내쪽에 더욱 정책적 배려가 주어져야만 한다.

건축사와 건축사협회도 호소와 설득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바로 우리내부에서 해결되어야할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나 많다.

설계 및 감리보수요율의 현실화와 외국 설계사무소의 기

술도입 및 제휴작업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내 사무소간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해외 진출시에는 정부지원과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종합건설업이란 제도문제는 현행 법체계 즉 건축사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예산 회계법과도 전혀 맞지 않는 학문적 연구과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독과점을 초극대화하는 약육강식의 일대 혼란상은 건축사사무소 뿐만아니라 엔지니어링업체, 일반건설업체간에 수주경쟁과 합병 등 이합집산의 격전장을 방불케 할 것이다.

가득이나 모자라는 기술인력을 두고 벌어지는 나전투구의 양상은 과연 어떠하겠는가?

국제화, 개방화의 과제는 대형화만으로 풀 것이 아니라 보다 전문화, 분업화로 끌고 가야할 것이다.

권력과 금력의 구시대적 사고는 전문과 기술이라는 신한국적 발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경제논리가 문화논리를 짓밟는 일은 국민 모두의 경제대상이다.

정책당국의 깊은 배려와 이해를 바란다.



윤석웅
제일경제신문 편집국장

개방화, 국제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이 전환기적 상황속에서 건설산업 또한 많은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 외국인이 100% 투자한 건설업체에 대해 건설업 면허를 발급하여 영압법위를 국내업체와 동등하게 내우해 주고, 오는 96년부터는 외국업체에 직접 건설업 면허를 내준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건설업계는 자본력과 기술력이 뛰어난 외국업체와 국내시장에서 싸워야하는 실로 엄청난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환경이 변화하면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많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토론회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보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야 한다는 쪽과 설계와 시공을 하나로 해야한다는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다.



홍성관
선경건설 전무

종합건설업 면허와 맥을 같이하는 일괄입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긍정적 효과 6가지 측면이 제시 된것은 전적으로 동감이며 주지의 사안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장점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장애가 되는 문제점들도 10가지와 또 그 문제점으로 인하여 노출되는 단점도 4가지 제시되었다. 발표자의 견해로는 그 근본원인이 수준높은 기술력 및 신용을 보유한 업체가 없어서 발주처(즉 정부)가 확고한 신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또 건설업체들의 도덕성 확보와 의식수준의 제고가 요구되는 기술개발의 촉진과 투자력이 큰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 일괄입찰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배경 설명을 위하여 92년도에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의 연구

다시말해 예술논리와 경제논리가 맞서고 있는 것이다.

저는 양자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지나친 예술논리로 우리의 경제가 어려운 입장에 서게 된다면 이에 동의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건설업이 GNP에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이라는 부가가치 면에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금 지나치게 표현하면 양업체가 자기영역 교수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기영역 수장에서 탈피하여 양업체가 공존하는 입장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쪽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양쪽의 주장 가운데서 서서 엉거주춤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공청회를 통해 도출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단안을 내리는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제도의 변화에는 언제나 작던 크던간에 마찰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이 국익과 양업체의 공존을 위하는데 최선의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보고 설문조사 결과도 예시되어 현행 국내 일괄입찰제도의 불합리 26.0%, 발주자의 일괄입찰공사 기피 21.9%, 국내업체의 기술력 부족 21.9%, 건설업체의 설계 불허 제도 12.3%, 여기에서 국내건설 업체의 기술력 부족 21.9%에 비하여 발주자의 제도, 운영, 관리의 불합리 및 자세에 대한 문항이 60% 이상이 되는 것을 보면, 즉 건설업체에서 몸을 담아온 한 기술 관리자로서 본 발표 논제를 중심으로 보는 시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일괄입찰제도는 긍정적인 효과와 EC화와 더불어 국제경쟁을 키우기 위하여 가야할 길이다. 둘째 그러나 장애가 되는 문제점과 그 단점의 노출을 보고 국내업체의 기술력 수준 제고와 사회 도덕 규범의 신용 분위기가 있을때까지는 시기상조이다.

저는 그 두번째 의견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첫째 장애요인과 단점의 항목들을 보면 일괄입찰제도 본래의 문제거나 수업을 받는 건설업체의 기술력 문제이기 이전에 발주자의 기술관리 능력의 미비를 들 수 있다. 둘째 평가실력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관 주도형으로 운영하려는 의지와 자세이다. 이는 결국 부실과 부조리와 각 참여자의 책임 한계만 모호하게 할 뿐이며, 이는 한국건설기술 연구소에서 보고한 설문 보고서에도 편린을 볼 수 있다.

다음은 건축 설계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건축은 원활한 기능, 안전한 구조, 심미의 추구라는 세 기둥을 가진 예술과 과학의 총합체로서 역사적, 문화적 책임을 져야 하는 단순 물질이 아님은 공감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요구되는 다변화로 한 건축가의 개인조직으로 담당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해 있다고 보며, Conceptual Design 혹은 Schematic Design이라고 하는 Design Stage 의미와 Design Development라는 Engineering Production Stage의 의미가 어디가 먼저랄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기술자들로 일관된 조직체계가 아니면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발표자가 보고하신 우리나라 건축사들의 현황이나 외국, 특히 일본기업이나 설계사부소들의 설계조직현황은 그 결과까지 유추해 볼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시인, 소설가, 화가에게 면허를 주지 않아도 예술은 살아 있다. 일본이 유명한 건축가를 한국보다 많이 배출한 것은 건축사법이 우리나라와 같아서가 아니다. 세계적인 건축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누구나 조직력, 기술력, 정보력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위에 자질있는 Lead Architect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국책 연구기관, 공공 및 건설업체 연구소의 현재의 취약성, 조직 미흡에 대한 제도적 보완, 통합 조절 기능 기구 설립등이 제안되어 있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을 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고취 보다는, 보다 가시적으로 인센티브(Incentive System) 제도를 활성화하여 기술개발, 동기부여를 보다 확실하게 하는 것이며, 즉, 기술개발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돈으로의 보상 Reward System이 정착되어야 하며, 개발기술의 향유 그 VE에 대한 보상이 적극적으로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 토목, 플랜트 공사 감리제도에 있어서는 확실히 감리제도 보다는 각 특성 차이를 인정하여, 설계의도를 보완 구체화 기능을 수행하는 설계감리와 품질 확보 및 기술지도 기능을 수행하는 시공감리의 의미를 별도로 어떻게 관리조합 하는가의 운영방법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찬동하는 바이다.

설계·시공·감리의 각 부분의 상호 견제와 감시기능의 사회적 명분과 논리가 설득력 있고 그에 따른 개별분야별 의무와 책임이 구별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분야 공히 그 행위로 인한 결과에 비해서 책임에는 각자 한계가 있으며 모호한 것이 사실이며, 용역비에 비하여 설계 잘못을 어디까지 책임을 지울것이며, 감리소홀 책임을 어디까지 책임 지을 것이며, 모든 상품이 그러하듯이 상품기획해서 만들

고 시장에 내놓아 사후 관리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할 수밖에 없는 수요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만든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 확실하며 상식이 되어 있다.

KS 규격제도, 품질인증제도 등도 마찬가지로 건설산업에서도 ISO 9000 인증제도, ASME 등 Quality Management (일명 QM제도)가 돋보이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불신 분위기의 사태라 해서 실력과 소신이 없는 사람끼리 서로 감시와 견제로 인한 비효율과 책임 소재 불분명에 의한 책임회피성의 "害惡"은 악순환을 초래할 뿐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최후 심판은 판도, 법도 아니고 수요자 즉, 국민대중 그 자체의 평가라는 점에 지금 법 제정중에 있는 건설기술 관리법의 감리제도도 토목·건축 분야 영역에 한하고 있으며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국제, 국내 Plant 공사에 있어서 Turnkey 계약제도 혹은 건축주, 시공자 공히 Risk를 줄이기 위한 Consulting 도입제도가 무리없이 정착되고 있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건설관련 서비스는 하나로 일관되게 통합되는 체계가 어떤 형태로든 당위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끝으로 본 토론자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8%)에도 불구하고 이제 준비 없이 대내적 환경변화로 노동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으로 요구되고 대외환경으로는 건설시장 개방화, 국제화 요구를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국제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제도가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닥친 환경변화를 피할 수는 없으리라 본다. 우리 모두가 바람막이에 막아셔야 하며, 이제 준비안된 기술인력, 관리위주의 관주도 행정에 익숙한 행정부 혼자서 국제경쟁력을 막아서라고 할 수도 없으며, 어떤 이유로든 산업현장에 유리되어 있고 인력과 시설부족에 허덕이는 학교와 연구소에 발등에 불을 끄라고 하는 것도 무리이다. 아직도 영세하다는 이유로 국내의 용역시장 범주내에서 집단 이기주의에 허덕이는 건축사 혹은 용역업체들에게 갑자기 국제시장 경쟁을 떠 맡기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수준이 부족하더라도 해외건설시장의 경험과 기술인력, 조직력, 자금력, 국제정보력이라 분야보다 우수한 건설업체의 발목을 잡아야겠는가?

지금도 국제경쟁 입찰자격 심사서 P.Q가 통과되고, 일괄도급계약 수주가 되는 분야는 건설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사회적 정서라는 이유로 기술수준을 못 믿겠다는 이유로 설계는 안된다. 감리도 안된다. 기다려 보자고 해야 합니까?

종합건설업 면허로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며, 건설서비스의 특성상 전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일관된 체계를 그 활동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어떤 명분으로라도 그래야만 국제경쟁력과 기술력 수준을 제고하는 데 첨경이며, 누구나 제 전문분야 개척에 자유로워야 더 좋은 건설회사, 더 훌륭한 건축가, 더 좋은 학교와 연구소가 개발, 발전되리라 확신하며, 시기상조가 아니라 너무 늦은 감이 있으며 서둘러야 할 줄로 생각한다.

점을 생각하면서 말씀드릴까 한다.

먼저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문제 삼지 말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기 반성을 해야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모든 일에 적용되는 금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두는것



최찬환
서울시립대 교수

지는 학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 발표자의 주제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오늘 주제중에서 먼저 토론해 주신 설계사부소의 입장과 건설회사의 입장을 대변해 주신 분이 종합건설업면허제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를 피력해 주셨는데 저는 각 분야별로 애로점이 있고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도 중요하다고 보며 종합건설업 면허 또는 종합화라는 것은 건설업체가 시공이외에 별도의 설계 업무를 맡겠다는 것이며 그것이 건설업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이고 설계사무소에서는 대자본을 가진 건설업이 기존 설계업무를 잠식하게 되어 질서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는 상호 이해 관계의 대립현상으로 보이게 된다. 건축사가 담당하는 설계업무와 건설회사가 맡는 시공업무는 그 업역이나 성격이 뚜렷하게 다르다고 본다.

설계의 특성은 창의성과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하는 창작 활동이 추가되는 디자인 지향적(Design-oriented)인데 비해 시공은 기술을 중시하고 경제적 이익을 우선(Economy-oriented)하는 속성이 강하다.

설계와 시공 전체 건설과정에서 수행되어지는 선후과정에서 연관된 체계를 가지면서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가지지만 상호경쟁적 상대가 아닌 동반자로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설계사무소는 영세 소규모로 난립되어 있고 자본이 취약하고 조직체계가 미흡하여 위반 건축물의 감리 등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건설회사는 치열한 수주경쟁과 덤핑낙찰 그것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등 서로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건축계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건축계가 저년 많은 문제점은 자기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으로 개선해야만 하며 상대방에게 그 원인이 있는것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비난하고 미루어 버리는 무책임이 있어서는 곤란하고 또 상대와 취약점을 이용해서도 안된다. 설계와 시공은 선후의 과정에 있으면서 동반자적 협조자로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상호간의 불신이 깊은 것도 사실이다.

종합건설업면허 또는 종합화는 턴키제도 등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해야하는 여건변화에 따라 필요하다는 대형건설회사의 주장과 자본지향적이고 기술을 위주로 한 풍토위에서 참된 문화예술성을 가지지 못하며 대자본이 중소규모의 고유업역인 설계영역을 크게 잠식하게 되고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대의견이 첨예화되어 있다.

그런데 건설업체가 개방화와 국제화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설계권을 가지겠다는 의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건설업체가 본연의 업인 시공자체의 기술개발도 벅찬 실정임에도 별도의 설계업무까지도 추가로 가지겠다는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 자유화와 개방화 경쟁논리와 적자생존의 질서가 있지만 공동이익과 공동선(共同善)이라는 지고의 목표가 있으며, 이를 저해하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돌출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 한편 사회전반이 전문화 분업화 협조체제 등 업무영역을 나누면서 각자 맡은 전문영역을 새롭게 개척하고 기술개발에 전념해야 하며 한 분야가 다른 전문영역까지를 손에넣고 독점내지는 지배하겠다는 것은 국제화 시대, 기술경쟁시대에 역행하는 처사가 될 수 있다.

설계와 시공은 엄연히 다른 고유한 업역이라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고 있는데 건설회사가 설계업을 하게되면 설계는

시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시공을 위한 사전적 과정으로 격하시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으며 창작예술로서의 설계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재 해석되고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치열한 수주경쟁에서 덤핑을 다반사로 하는 국내 건설풍토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중요한 설계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설계의 고유영역을 자본지향적인 건설에 예속될 경우 건축문화 창달이라는 목표에서는 멀어질 것이 분명하다.

또 전문화 시대에서 설계사무소의 설계영역도 전문화될 것이 확실하며 건축사가 모든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도 기술축적과 Know-How를 가지고 각자의 전문성을 구축해야 경쟁에서 살아갈 수 있다.

예를 들면 병원, 호텔, 학교, 아파트, 백화점, 문화시설 등 일반 건축물이라도 전문설계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건설회사가 자체적으로 설계팀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와같은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외부전문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 설계하청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자체설계팀은 설계과제를 관리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될것이며 이와같은 사례는 쉽게 예견될 수 있다.

이때 하청받은 설계사무소는 독자적이고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디자인개발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회사가 주문한 경제성 원리에 맞추어 주는 등 극히 불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행 설계·감리·시공의 성격구분과 역할 분담을 분명히하고 이와같은 각자의 고유업역이 분야별 기술개발을 전담하면서 상호협력하며 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 개방화와 국제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기술경쟁시대에는 전문화·분업화·협력체제로서 내부가 단합되고 건설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필요시 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가 콘소시엄, 파트너쉽 등 상호협력체제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각자의 기술개발에 대한 정보는 상호 교환하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 건축될 세계최고높이의 건물을 건설업체인 삼성과 극동이 공조하여 수주한 예는 기존 인력 자원과 기술 조직 등의 다양한 결합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지금까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설계로서 시공분야에 어려운 과제를 던지고 새로운 시공기술로서 문제를 해결한 바람직한 사례를 수없이 볼 수 있다.

상대방의 고유업역을 인정하고 자기영역의 전문성을 가지도록 기술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여 특수공종 등 설계사무소가 설계하기가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분야는 적임자가 설계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플랜트 설계 등은 전문기술이나 Know-how가 축적된 엔지니어링 사무소 등에서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원칙은 가장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업역의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하고 배양하여야 한다.

신부에서, 소방설비공사업은 내무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시공업은 환경처에서, 문화재수리업은 문화부에서 각각 맡고 있어 다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예산회계법시행령 등으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시 동일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용역업과 시공업의 제도상 분리로 건설업의 종합적기능 수행 저해로 국제경쟁력이



이향렬
건설부 건설경제국장

현재 우리 건설업계의 현황은 크게 용역업과 시공업으로 양분되어 있다. 다시 용역업은 기술용역업(토목)과 건축사업(건축)으로, 시공업은 건설업, 주택 건설사업,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폐기물처리시설사업, 문화재수리업 등으로 세분된다.

또한 시공업에 대한 관리는 건설업과 주택건설사업은 건설부에서, 전기공사업은 동자부에서, 전기통신공사업은 체

미흡하며, 둘째, 시공업에 대한 면허, 등록 등 관리의 다기화로 효율적인 공사수행 및 시공관리가 곤란하며, 셋째, 설계, 시공을 분리하고 있는 현행 입찰제도상으로는 종합건설업 육성이 불가능한 점이 제기되고 있다.

종합건설업도입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87년 건설공사제도개선 및 부실 대책에서 기술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엔지니어링 육성방향으로 건설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종합건설업면허제 도입이 건의되었고, 88년 말에는 건설업면허체계개편 공청회를 개최한 바, 건축사협회, 기술용역협회, 전기공사협회 등 다수의견이 종합건설업면허도입을 반대함으로써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작년에 전환기의 건설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다수의견이 종합건설업면허도입을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설계·감리의 독자성을 저해하며(과기처, 용역협회, 건축사협회), 전기, 전기통신, 소방설비 등의 전문화를 저해하며(관련부처 및 협회), 종합건설업체와 일반건

설업체간의 업역문제의 발생, 개별법에 의한 면허와 등록 등 인허가권의 의제에 대한 관계부처 반발, 당분간의 기술인력 부족으로 면허기준 충족 곤란 등을 들고 있다.

반면에 한편으로는 설계·감리 등의 소프트웨어 강화로 건설기술부문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설계·시공의 연결로 기술의 축적이 불가능하며, 건설 관련행정을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 행정집행이 가능하고, 경영의 다각화를 통한 수주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찬성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설계와 시공을 동일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사전자격 심사제도(PQ)를 도입하여 가격과 기술경쟁을 동시에 도모함은 물론 설계시공의 일괄입찰(Turn-Key Base)을 확대 실시하는 등 건설업체가 기획,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수직적기능과 토목, 건축, 전기, 통신 등의 수평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입찰계약제도를 개선한 후 종합건설업면허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강기세
종합건축사사무소
(주)법건축 대표

저는 종합건설업제도에 대해서 이명호교수께서 상세히 논리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정서적인면에서 어느 제도이던 그 나라 환경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다. 또한 좋은 제도라 하여도 공평하고 공명한가의 문제점이 야기된다.

국가 경제 발전을 방자로운 독재정치를 국민이 배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며 국가는 평등하게 발전하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경제활동을 하여야만 건전한 사회가 발전한다고 본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건설 Project하면 토목이던, 환경이던, Plant이던 일반건축물이든, 특수건축물이든 동일시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어떠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건설분야의 역사적인 배경과 국민의식 경영인들의 경영철학·공존사상 등이 고려되어 시기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건설시장은 본래 설계와 기술 등 Soft Ware가 먼저 발전 하였고 종사자들도 고급인력이 설계분야로 유입되었으며, 시공분야는 Hard Ware 기능공위주로 시작되었다가 용역분야에 시공이 첨가되면서 EC화가 이루어졌던 것이며 그리하여 제도가 없어도 일괄도급이 가능하였고 EC회사에서도 창작과 조형분야에 대하여서는 별로 염두에 두지않고 있다.

일본도 건설회사가 전문화된 기능과 시공기술만을 연구 발전하고 신뢰를 얻은후 설계분야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국민성, 경영인의 철학등이 건축설계의 조형성과 분야별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콘소시엄과 파트너십에 의한 건설형태가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판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 발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설분야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시

공업체가 시공기술을 많이 연구하였다던가 전문건설업체를 육성하고 양성하였다던가 양질의 시공을 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었다던가 하는 사례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동안 담쟁을 일삼았고, 싹쓸이 경영, 원맨쇼의 경영형태, 스카웃 위주의 인사정책 등의 사례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고도화되고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제도를 시도하려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되고, 우리 설계분야 특히 건축설계분야는 그동안 적은 설계비, 감리비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 자라왔다.

이제 1994년부터 설계비, 감리비 등이 현실화되려고 한다. 이러한 기회를 틈타 자본과 힘으로서 아직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건설업체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사회 정의로 볼때 공평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끝으로 시공회사는 현재 주어진 권한과 의무 즉 현장관리·기술관리·공정관리·자재관리·안전관리라고 철저히 하면서 시공분야의 기본인 Shopdrawing 만이라도 정착시키면서 공법과 기술 개발에 전념한 후 이 문제를 재론하였으면 한다.

본래 의사, 변호사, 건축사들은 전문가 아닌 집단에 지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세계적인 공론을 감안하더라도 일괄도급방법은 Project 성격에 따라 선택되어야 하고, 시기를 선택하여야 하며, 콘소시엄과 파트너십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대외경쟁력과 건설시장의 보다 나은 발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당분간 설계분야나 시공분야가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하여 성과를 얻은 후 제도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된다고 생각되고 UR에 대비하여 시공업체가 기존 설계사무소를 투자하고 후원하여 대처하는 길만이 현실을 타개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유경철
(주)종합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정권 교체 때마다 건축사 관계법이 무리하게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건축계의 장래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김호일, 의원님께 외람되게 질의하고자 한다.

오늘의 현실이 있기까지 과거에 대하여 그리고 미래에 전개될 우려에 대하여 말씀 드리하고자 한다. 30년전 5.16 군사혁명후 이 나라의 건축사 제도는 지금처럼 일본의 제도를

모방하느라고 1~2급 제도와 경력 7년이라는 응시 제한의 장벽에 걸려 아직까지 360여명의 부상자만 남긴채 2급 응시 제도는 실종되고 말았다.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인력수급면에서 지금도 학계와 정계 그리고 건축계에서 이 문제에 많이 부심하고 있는줄 안다.

그런 와중에서도 건설업의 중동 붐을 타고 설계 사무소는

제2의 교육연수의 장으로 많은 건축사보를 양성한 과거를 갖고 있다.

그후 광주 민주화 의거를 진압하는 “국보위”의 연장선상에서 동서고금에도 없는 단독과 종합이라는 사무실 형태를 강제시켰고, 설계의 선진화, 전문화에 매진하여야 할 건축사를 단지 설계 수주의 방편으로 이합집산을 유인시켰다고도 보여진다.

가령, 의사나 변호사로 치면 3인 이상이 아니면 큰 수술이나 사건을 처리할 수 없고 1인으로서도 상처나 치료하고 상담이나 하라는 격인데 종합 예술과 과학의 조정역할에 어찌 사무실 면적이나 인원수를 자격의 척도로 삼는지가 개탄스럽고, 외국처럼 시장경제에 맞추어 다양한 건축물의 주인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의사를 존중해줘야 할 것이다. 판주주의 확립화가 무슨 뜻인지가 납득하기 곤란하다.

게다가 5공말 6.29 선언에 의한 사회의 혼돈스러운 때에 국민의 성금으로 건립중인 독립기념관의 화재를 빌미로 이 나라 건축계에서 태어나선 안될 소위 “건설 기술관리법”이라는 기형아를 구령이 담 넘어가듯 탄생시키고 말았다.

분명히 설계감리자와 시공자 그리고 감독관의 책무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시공회사의 시공미숙과 관리소홀로 판정돼 재시공되고 아직도 그 후유증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관련 부처의 인사적체의 한 방편으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이라고 해서 남의 설계 감리를 가로채서 “전문감리”하는 민간회사가 어떻게 한시적이나마 공무원 역할이 부여되고 또 방탄막이가 되어 그뒤에 공무원이 안주할 수 있는 지가 씁쓸할 뿐이다.

평생을 국민의 공복으로서 임하는 공무원이라면 외국처럼 국민을 대신한 주인으로서 당당히 앞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는 판주주의가 아니고 마땅히 국민에 대한 책무가 막중하기 때문이다.

설혹, 전기법의 당위성이 있다면 왜 팔당교에 이어 신행주대교의 붕괴 그리고 200만호 주택 건설공사에서 노출된 크고작은 부실 시공이 왜 끝없이 발생되어야 하는가 묻고 싶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도 “구포철도 참사”등 왜 국민의 생

명과 국가의 재산이 낭비되어야 하는지...

진적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부실과 부도덕성에 기인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각성하고 국민의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하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일괄입찰 제도에 의한 설계 시공의 수직적 방법이라면 누가 동의할 것인가 의심스럽다.

EC와 UR개방이다 하고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본연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지금도 대형 건설업체가 거의 설계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 있었던 “영종도 신국제 공항 경기 설계”에서처럼 정부가 UR방식 의거, 외국 설계사와 합작하여 다수업체가 참여했고 국제 심사위원의 결과는 국내 건축사들의 합작한 작품이 당선되었다. 또한 많은 외화만 지출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와같은 시기에 중국에서도 사상 최대 최고의 84층 건물을 국제 경기설계에 부쳤는데 우리의 젊은 류춘수 건축사가 당당히 따왔고 외화가득률 100%라는 성과를 올렸다. 그런데 조금전 토론자는 우리나라 설계 수준이 30층도 못한다는 무식을 내세우며 시공회사에서 설계를 해야한다는 논리를 세우니 여러분의 상식에 맡기겠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작년 우리나라 건설시장의 총매출 규모가 약36조원에 이릅니다. 이중에 정부와 투자기관이 12조원이고, 이에 2배에 달하는 24조원이 민간의 몫이 민간의 건설은 사주 또는 사원가족이 철저한 주인의식을 갖고 설계, 감리, 시공을 분리하여 외국에 내놔도 손색없는 건축물을 일구워 놓았다. 이에 비하여 국가의 건물은 주인의식이 증발된 가운데 오로지 전기법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대형 건설업자는 정권 교체기를 이용하여 이런 허술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로비와 피변을 나열하고 오로지 이윤추구에 전력을 다하는 인상만 풍겨주고 있다.

일괄입찰제도의 활성화가 그러럼 당면 사항이라면 우선 외국에서처럼 민간공사부문부터 기업윤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검증을 제의한다.

모처럼 다양화, 전문화로 자리잡혀가는 건축계의 질서를 뒤엎는 우는 더이상 범해서도 안될 것이며, 우리를 비롯하여 국민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김호일
국회건설위원

먼저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건축계는 그동안 짧은 역사속에서도 급속한 경제발전에 힘입어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부조리를 안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제도 또한 바뀔으로써 업계에 많은 혼란을 준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므로써 그러한 과거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코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 실현되어 가고 있다. 우리 건축계도 이러한 변화의 시대조류에 역행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건축관련 제도가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건설정책연구원을 발족시켰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반영을 목적으로 오늘과 같은 정책토론회를 여섯 차례에 걸쳐 개최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 예산상 많은 어려움도 뒤따르기도 하지만, 건축계 발전에 일조한다는 일념으로 계속 추진할 생각이다.

또한, 저희 연구원은 현재 국회 건설위원 3명을 비롯하여 경제과학위원 1명, 재무위원 1명 등 현직 여·야 국회의원 4명에서 이사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책수립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치리라 믿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도 이러한 저희 연구원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전회관

조달청에서는 국민연금 대상의 확대에 따라 점증하는 국민연금 업무활동에 대비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활동 및 이미지 부각을 위한 물적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국민연금 수혜를 통한 2천년대 선진복지 한국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전회관 현상공모를 실시하였다.

지난 11월 8일 마감한 결과 총 9개 작품이 참가한 이번 현상공모에서는 인터플랜종합건축(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우수작으로는 (주)청전종합건축(안)과 시공종합건축(안)이 각각 선정되었다.



조감도

당선택

인터플랜 종합건축(안)
(대표 조대희)

대지위치 / 대전 직할시 서구 둔산
동 136-13, 14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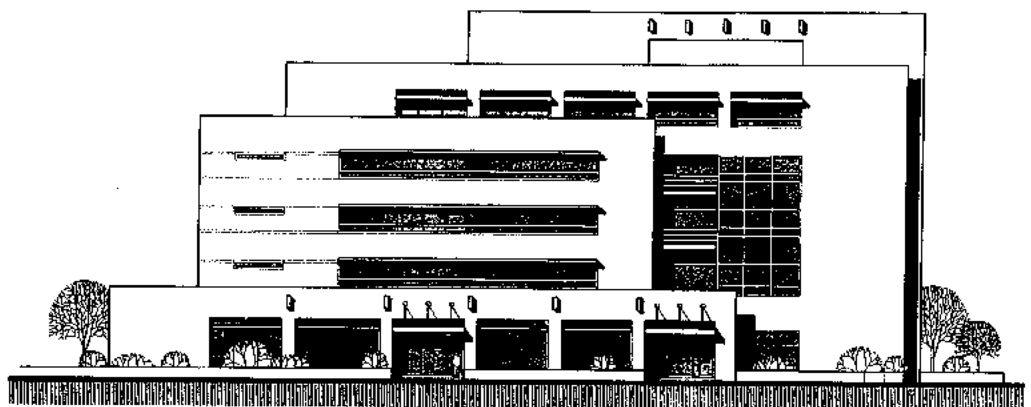
대지면적 / 2,310.43㎡

건축면적 / 1,268.1㎡

연면적 / 지상 : 5,507.5㎡

지하 : 3,402.4㎡

합계 : 9,109.9㎡



정면도

건폐율 / 54.9%

용적률 / 247.0%

규모 / 지하 2층, 지상 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일부

포스트 텐션구조)

주차대수 / 총 66대(지하 : 61대,
옥외 5대)

외부마감 / 화강석 건식취부, 불소
수지 알미늄커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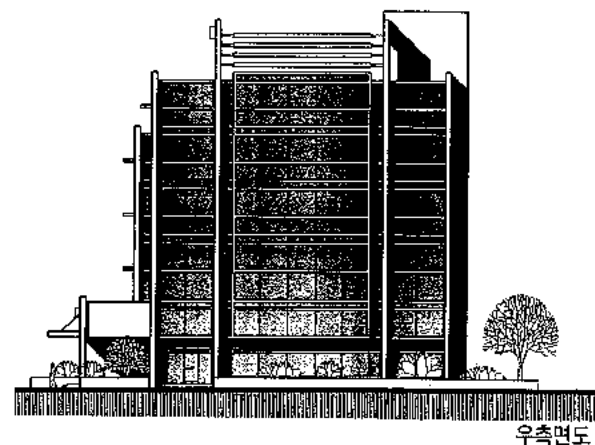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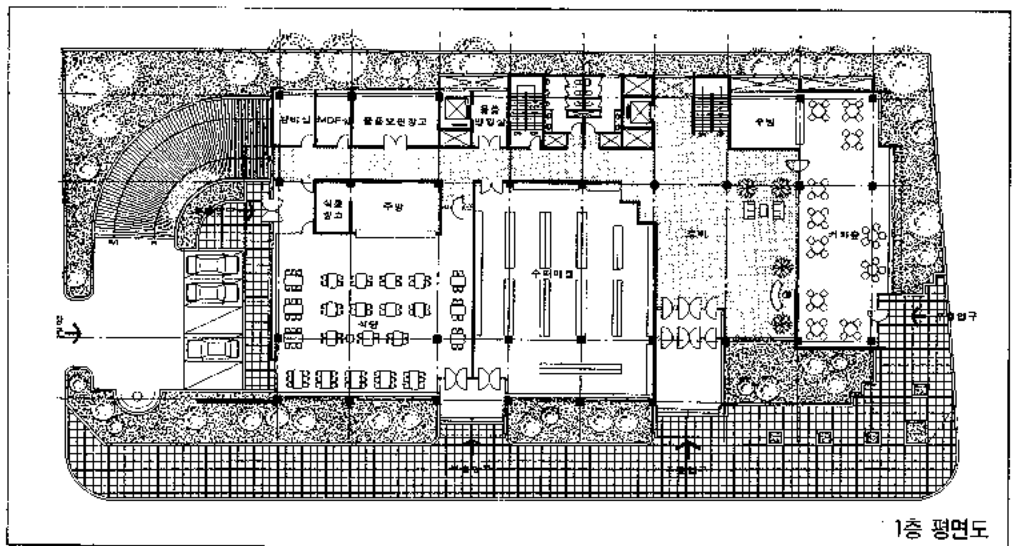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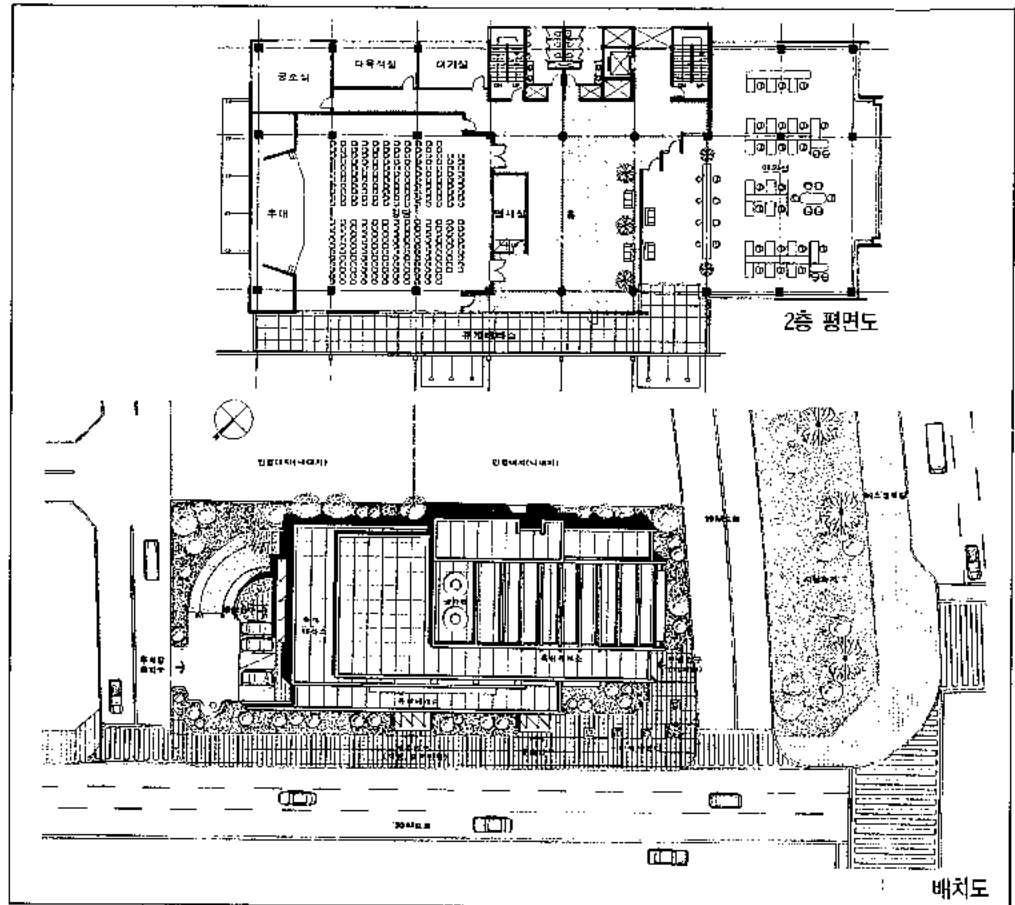
■ 계획의 기본방향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미지 부각
 - 이용자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물리적 계획
 - 현대적이며 진취적인 조형미 추구
- 토지의 효율적 이용
 - 블록 모퉁이 대지로서의 도시적 기능에 순응
 - Set-Back 부분의 조경 및 시민 휴게공간화
- 합리적 기능 구성
 -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기능 배치
 - 공간의 융통성과 쾌적성 확보
 - 구조 계획상 합리적 모듈 및 경간(Span)설정
- 원활한 동선체계 설정
 - 전면도로 및 주차장 각 방향에서의 유기적 동선 연계
 - 주변 보행동선의 부드러운 흐름 유도
 - 주차동선의 원활한 연결

■ 배치계획

토지 이용 계획

- 대지 전면에 조경 및 보행휴식공간 처리
 - 대지전면 모서리에 건물전면과 측면을 연결하는 보행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주출입구로의 부드러운 동선 흐름을 유도
- 건물을 감싸는 조경처리
 - 건물과 주차장을 조경에 의해 감싸이도록 처리하여 전원적 분위기를 조성
- 건물후면에 주차장 및 보도변에 조경처리
 - 주차장을 건물후면에 배치하고 건물 측면(보도변)에 조경처리



■ 입·단면계획

• 매스(Mass)계획 개념

- 대지가 두개의 주요도로(폭 50m 및 30m 도로)가 교차하는 모서리 임을 고려 양방향에서 전면성을 부여
- 저층부 판매기능과 상층부 사무기능이 구분되도록 매스처리,
- 4개의 매스의 결합형상으로 처리하여 건물의 지루함을 탈피하고 계단식 Sky-Line 형성

• 현대적이고 안정적인 외장계획

- 수직적 요소와 수평적 요소를 결구시키는 입면구성으로 외부ச்ச재재료의 안정감과 현대적 감각의 유리재료와의 적절한 조화.
- 루버(Louver)를 도입한 일사조절
 - 외벽창호 상부에 처마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알미늄 루버를 부착하여 하절기 오후 서측 전면 도로의 직사광을 차단할수 있도록 고려



투시도



대지위치 / 대전직할시 서구 둔산
동 36-13, 14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및 도시
설계지구

대지면적 / 2,310.43m²

건축면적 / 1,278.88m²

연면적 / 8,753.06m²

건폐율 / 5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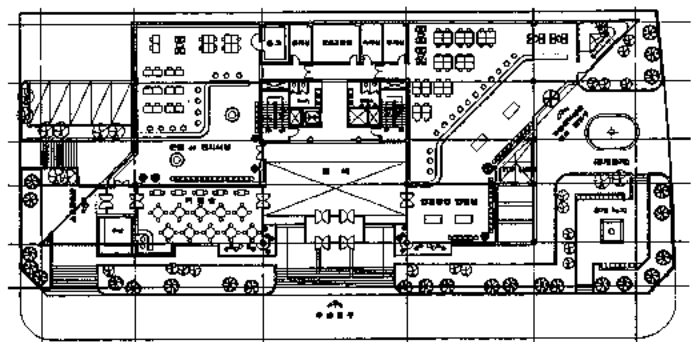
용적률 / 378.85%

규모 / 지하 2층, 지상 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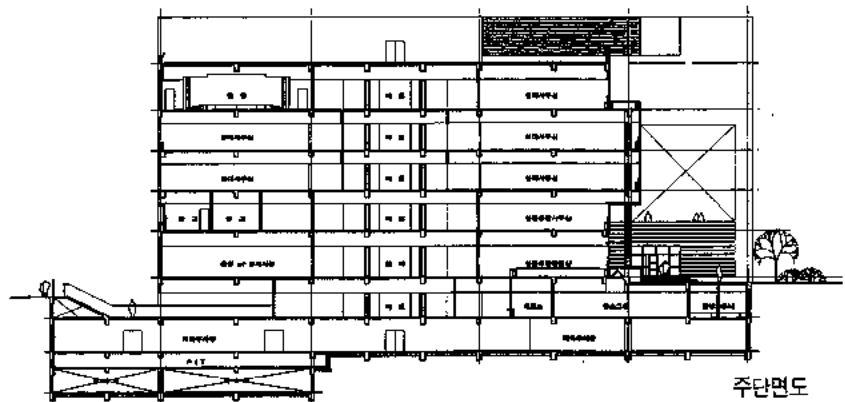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주차대수 / 7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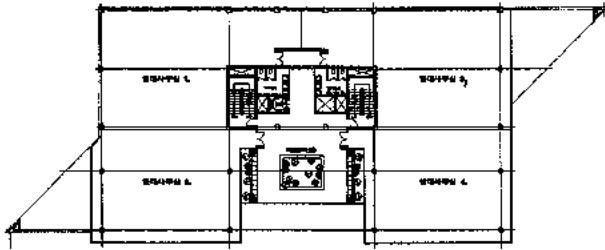
외부마감 / 화강석, 18mm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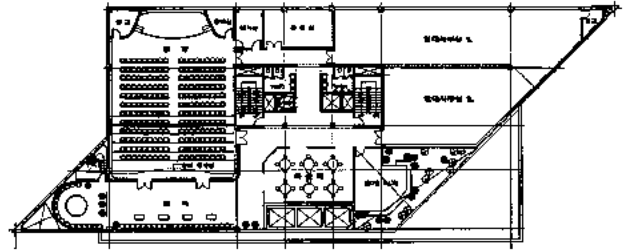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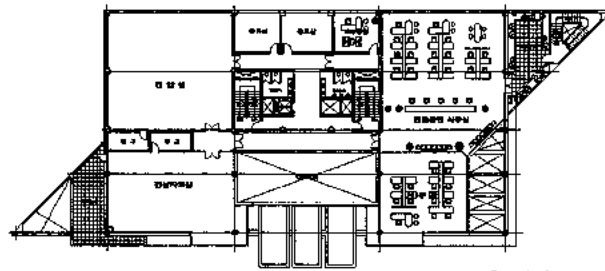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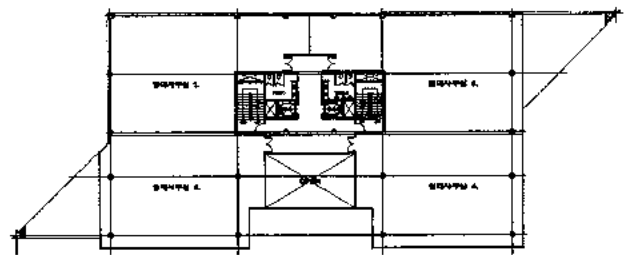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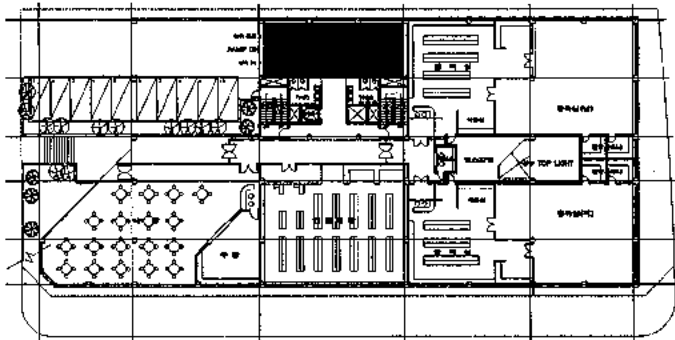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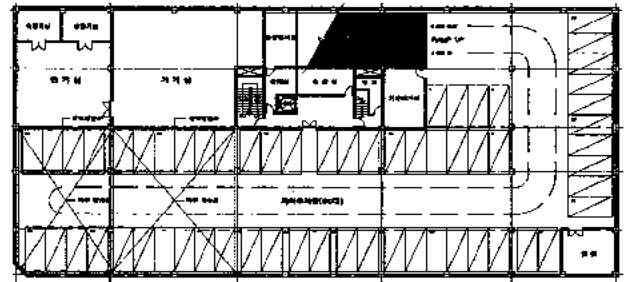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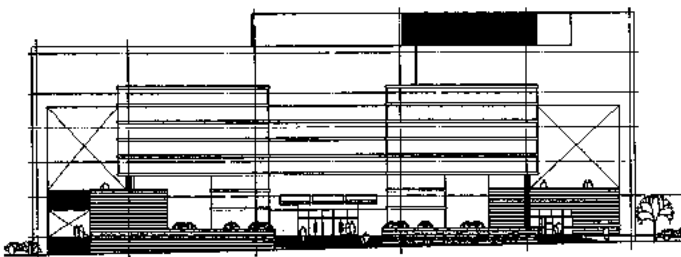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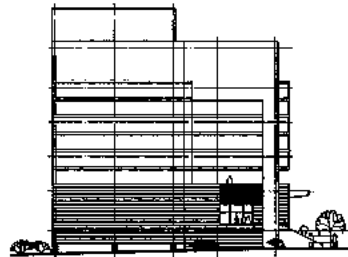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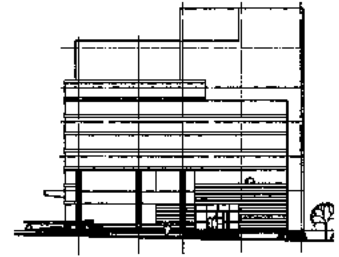
지하 2층 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 계획의 기본방향

- 인간중심의 건물
- 주변환경과의 조화
- 건물의 상징성 및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서의 이미지 부각
- 합리적 동선체계
- 사무공간의 융통성과 쾌적성
-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 건물
- 건물 유지 관리의 원활함과 안정성 추구
- 복지수요와 수익성의 충족

■ 배치계획

- 균일한 조망과 조도
- 부지의 최대 활용
- 보차분리의 원활한 동선체계
- 편안한 휴식공간(녹지공간)의 제공-기업의 공익화
- 자연 지형 및 주변 현황에 어울리는 배치

■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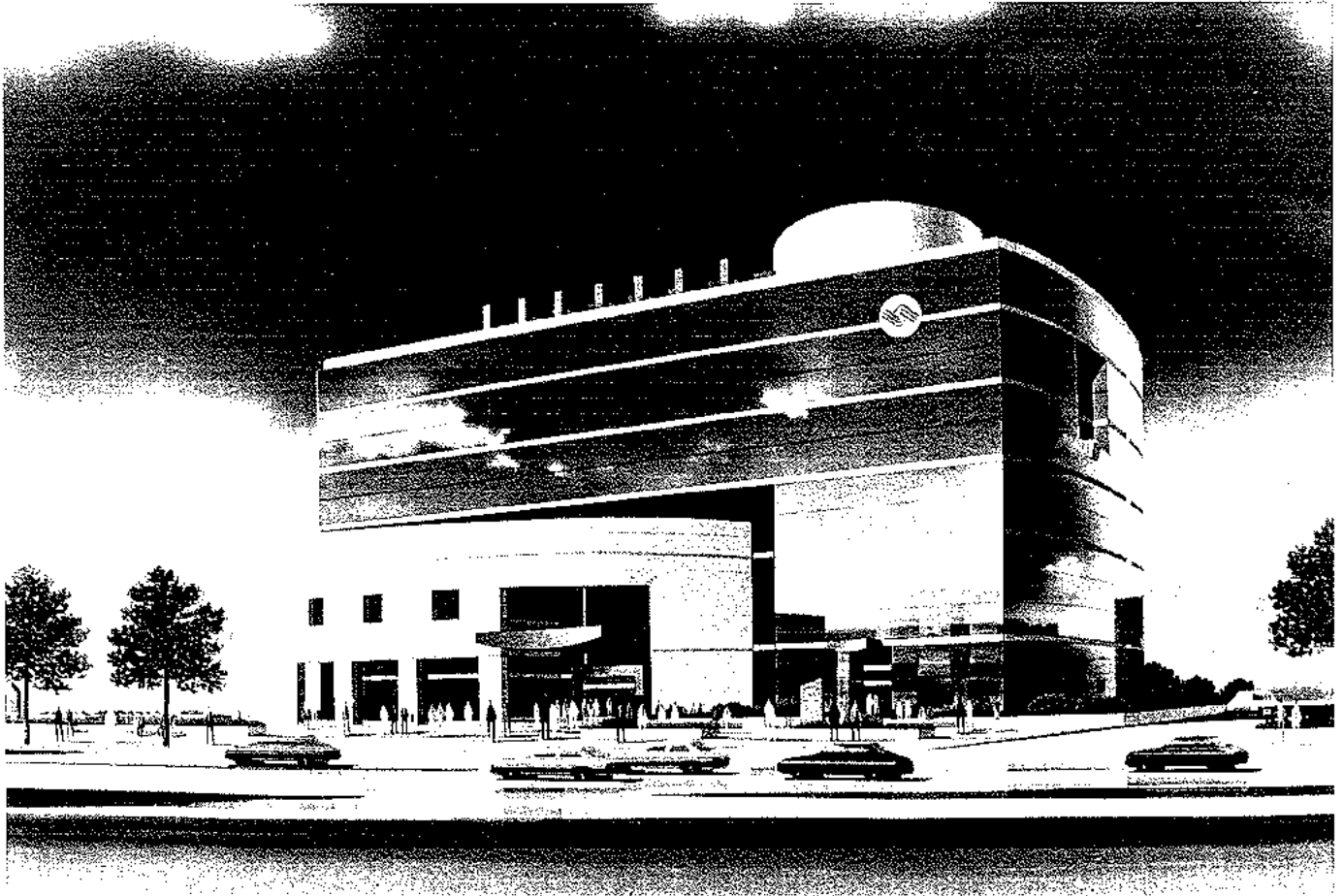
- 합리적 동선체계
- 사무공간의 융통성
- 기능의 블록화와 독립화 추구

■ 입면 및 조형계획

-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가질 수 있는 상징성과 도시 시각요소로서의 조형성 추구
- 기하학적 변화 Massing과 적절한 비례, Mass가 가져야할 안정감을 이미지화
- 레이아웃 전반에 걸쳐 사용된 기본 모듈을 바탕으로 입면의 기본모듈과 연결

■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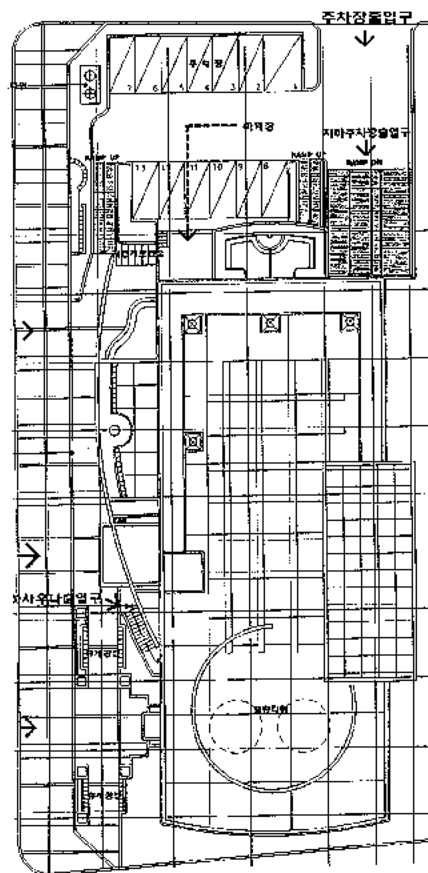
-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한 유효 적절한 층별 공간 계획
- 건물내부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아트리움 계획과 이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쾌적성 확보
- 사무공간의 쾌적성 확보, O, A기기의 활용 및 각 시설별 융통성을 감안한 적절한 층고계획
- 기능에 따른 층별 조닝을 유도할 수 있는 단면계획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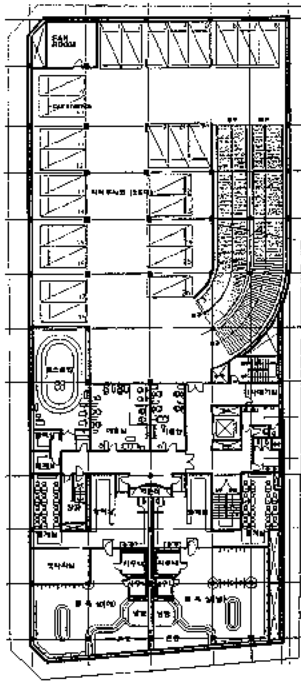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동 36-13, 14
대지면적 / 2,310.43㎡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건축면적 / 1,157.47㎡
연면적 / 8,880.41㎡
건폐율 / 50.1%
용적률 / 218.09%
용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규모 / 지하 2층, 지상 5층
주요마감 / 지붕-시트방수위 누
름콘크리트외 치장물탈
벽-18mm파스텔 복층
유리, 30mm화강석
버너구이+흑두기
바닥-차도:아스콘
포장
보도-화강석 버너
구이+인커록킹 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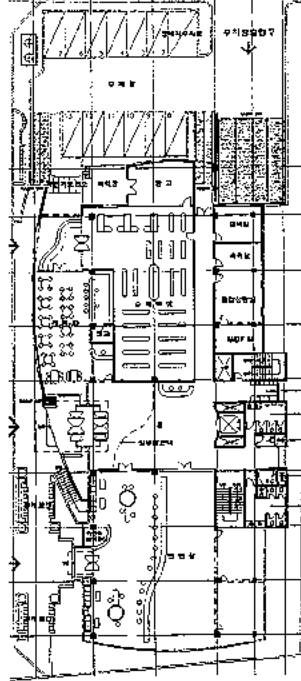
배치도

■ 계획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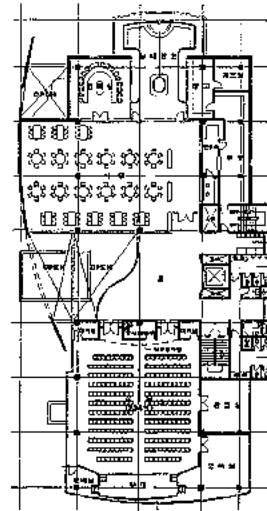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CIP계획
- 통일된 이미지 인식을 위한 Mass계획
- 에너지 절약과 공해방지를 고려한 Green Building
- 건강한 도시환경을 위한 녹지 확보
-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위한 Intelligent Building구축
- 사용자 중심의 공간 배치 및 시설계획-근무자/연금가입자
- 상업시설 이용 효율의 극대화
- Dead Space 없는 효율적인 공간 배치
- 짧고 명료한 동선계획
- 효율적인 건물관리 및 유지보수를 고려한 시설계획
- 미래 확장성을 대비한 설비계획-Flexibility & Extension
- 장애자의 이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계획-Barrier-free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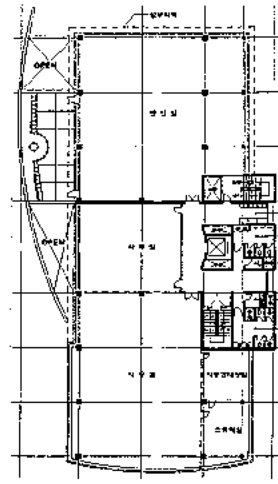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 배치계획

- 주 진입도로인 계룡로의 교통량이 빈번하고 시야가 개방, 노출됨
- 계룡로의 시설녹지를 끌어들여 통과보행자나 건물이용자들이 공개공지 개념의 휴식 공간 제공-공단의 친근한 이미지 부각
- 30m 도로에서의 진입을 고려하여 통과교통의 산만함을 차단하기 위한 완충공간 설정

■ 평면계획

- 기능적인 모듈 설정
- 다양한 기능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 확보
- 실내 쾌적성
- 효율적인 공간 구획
- 장래 확장성 고려

■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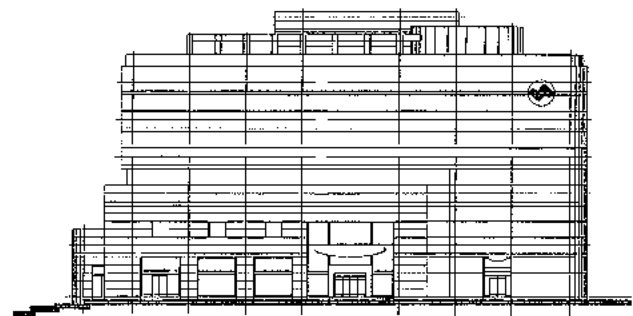
- 주변환경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형성
- 건강하고 편안한 공단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외파 및 Mass 디자인
- 대조적인 요소의 대비로 변화와 역동성 표현-화강석/유리, 직선/곡선
- 보행자와 건물이용자에게 따

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저층부를 화강석으로 곡선처리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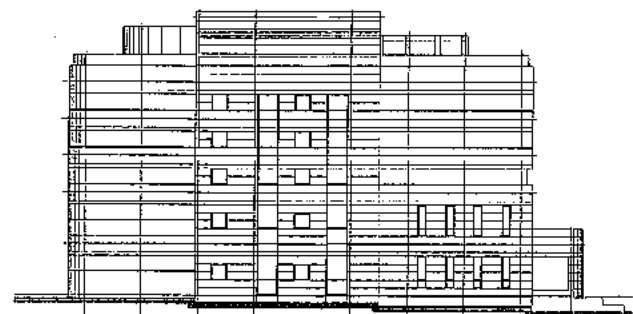
-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간업무의 이미지를 주도록 평면유리와 스텔레스 Stripe 사용
- 변화와 개성있는 Keystone울 전면부에 설치하여 Landmark적인 요소로 인식
- 계룡로쪽 입면-상징적인 Facade로 설정하여 Landmark 부여
- 주진입도로(30m도로)쪽 입면-이용자 및 통과자의 실질적인 진입을 유도하고 포용하는 이미지를 주도록 넓은 평면과 곡면을 사용

■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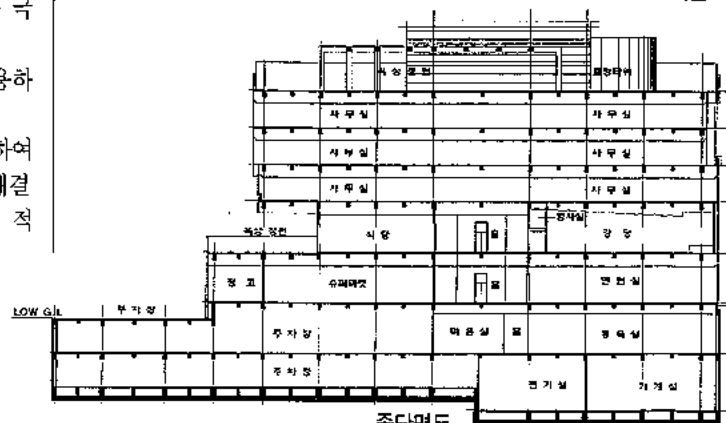
- 임대공간을 저층부와 지하층에 배치하여 상업적 효율 극대화
- 지형의 Level·차이를 이용하여 지하층 효율 제고
- 휴식시설을 지하에 배치하여 구조적, 기능적 문제점 해결
- 기능에 따르는 적정 층고 적용



정면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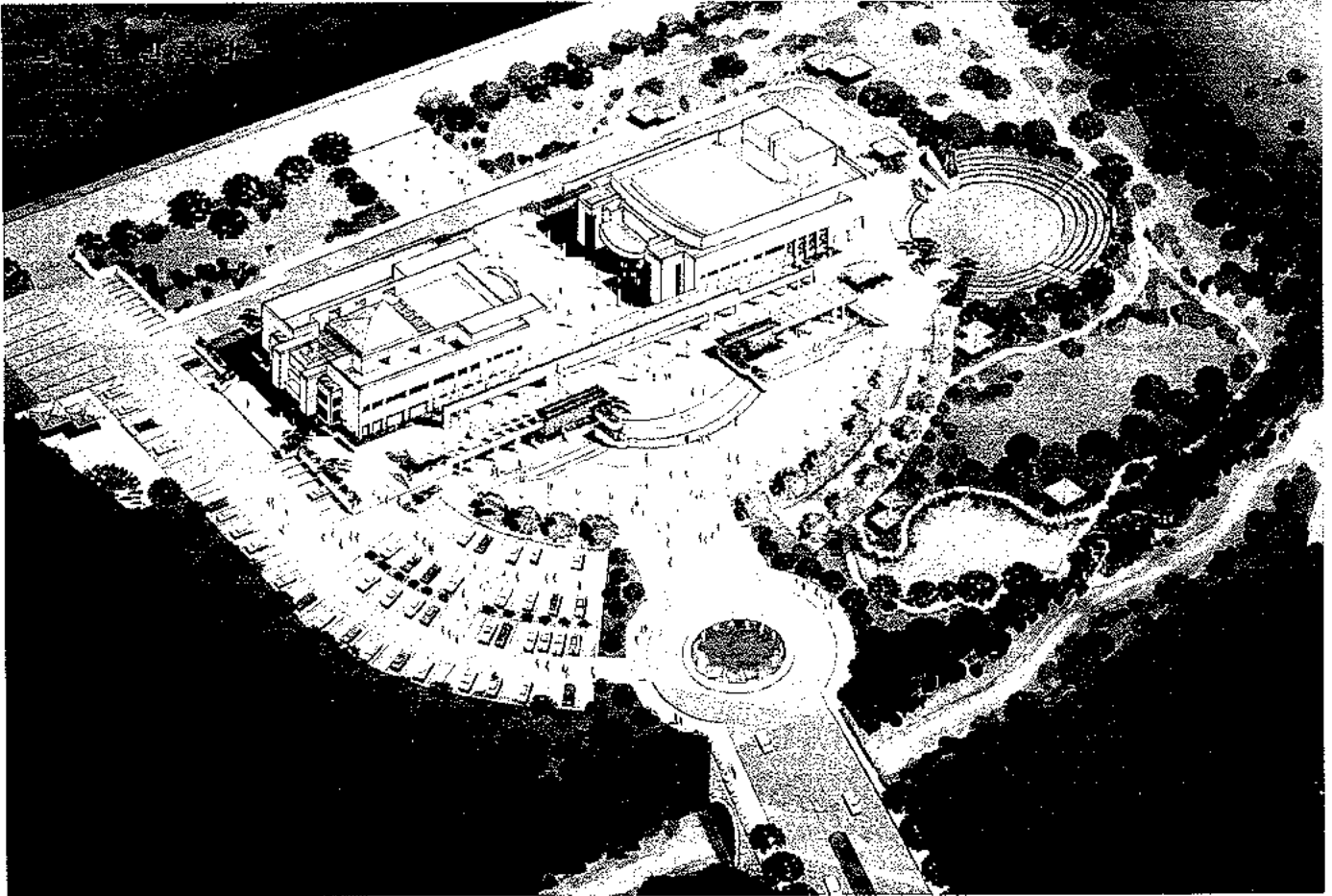


종단면도

진도군민 종합복지회관

진도군청에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남도문화권의 전진기지로서의 좋은 여건들을 충족·육성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진도군민의 문화 예술적 욕구충족 및 인재육성과 지역특산물 전시판매 등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향토적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하여 진도군민 종합복지회관 현상공모를 실시하였다.

총 16개 사무소가 참가신청을 하여 그중 10개 작품이 응모한 이번 현상공모에서는 류&함종합건축(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우수작으로는 요람종합건축(안)과 선기획종합건축(안)이 각각 선정되었다.



조감도

당선작

류&함 종합건축(안)
(대표 류연창)

대지위치 /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194-1번지 일대

지역·지구 / 생산농지지역

대지면적 / 25,949㎡

건축면적 / 3,07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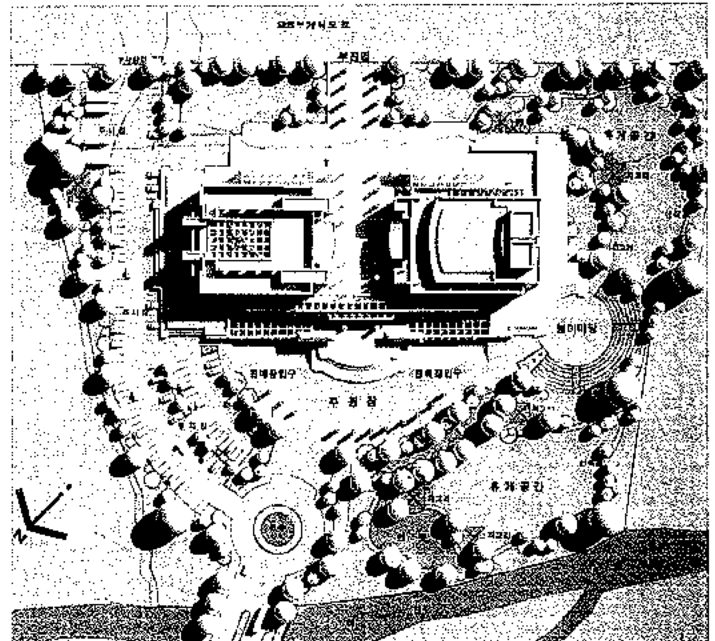
연면적 / 5,610.94㎡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방식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철골조

주요외장재 / 화강석바너구이, 물
갈기

주차대수 / 130대



모형도

■ 계획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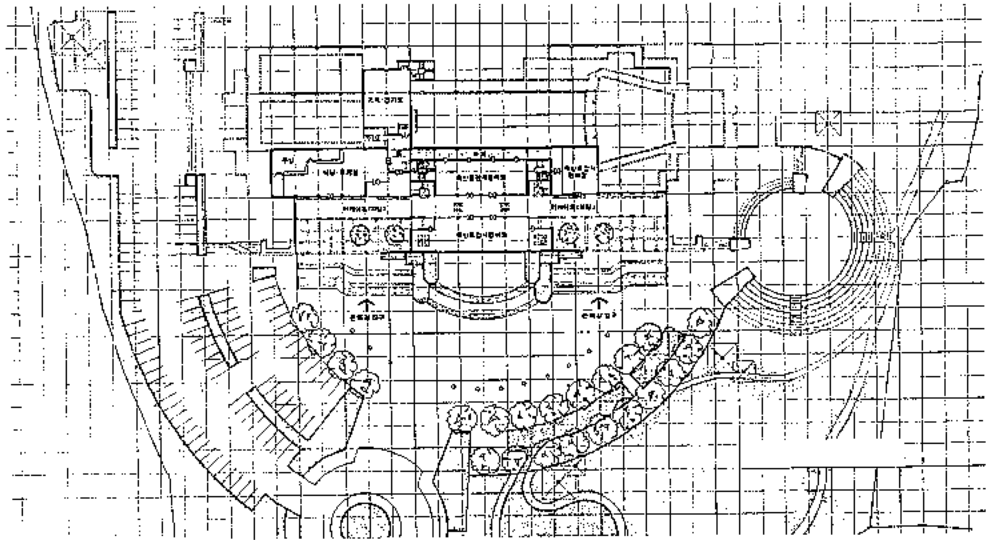
- 진도군민의 정신문화를 상징하는 예술성·지역성을 지닌 건축물의 창조
- 문화예술의 중추임을 형상화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예술적 감각의 부여
- 경직되지 않고 친근감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소 도입
- 대지 전체가 문화예술공간으로써 입지될 수 있는 토탈디자인으로써의 환경계획
- 장래 확장 기능성에 대비한 계획
- 부대설비시설의 시스템화 및 안전시설 확보

■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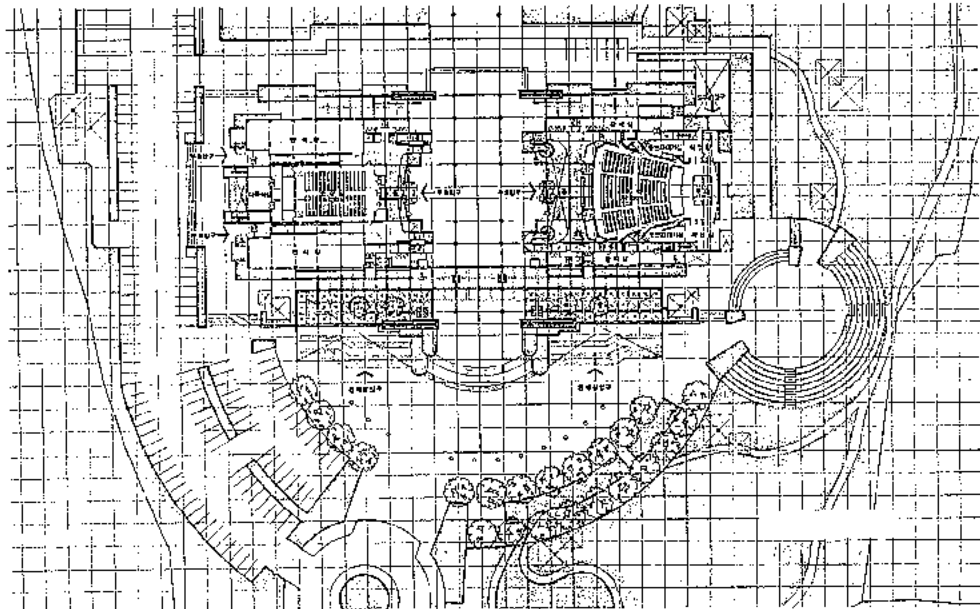
- 2개의 도로에 대한 정면성 확보를 위해 남동측 대지경계선과 근접하는 남동측 계획도로(25m)를 건물축으로 설정
- 남동측 도로축과 북서측에서 진입하는 도로축의 전이를 위해 방사형의 진입광장을 도입시키며 외부공간의 디자인요소로 채택
- 매스의 분절 및 중첩에 결합으로 건물의 일체성 확보
- 전면방사형 광장과 연계시켜 선긋치리하고 진입테크와도 연결시키며 기능에 부합되는 아케이드를 형성
- 북서측 구거와 연결시켜 진입광장과 조화되게 수공간을 도입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조화시키며 이용자에게 안락함과 쾌적함을 제공한다.
-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시킨다.
- 차후 증축에 대비한 공간확보

■ 입면계획

- 매스의 분절로 건축물에 오픈성을 주면서 전·후면의 가벽을 중첩시켜 하나의 매스로 일체감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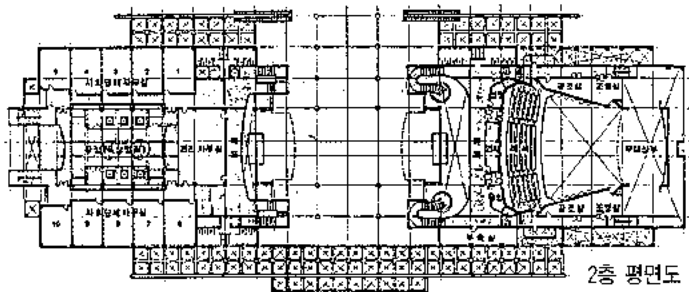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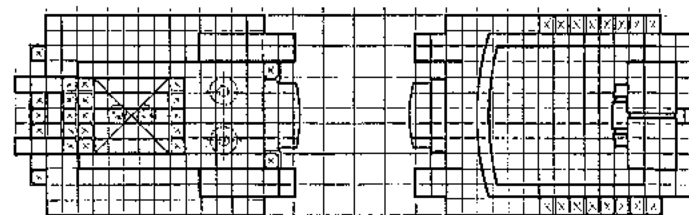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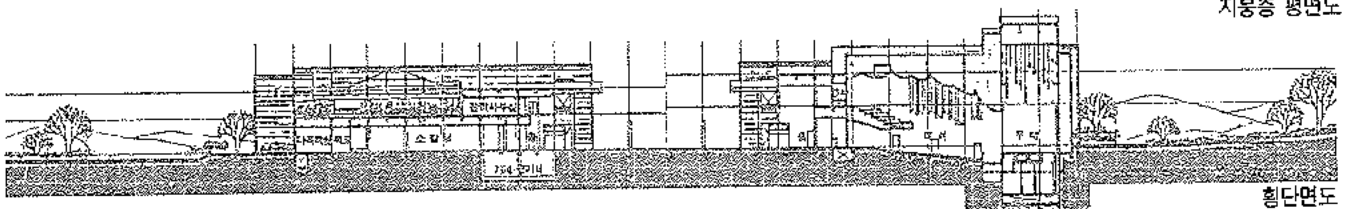
- 전·후면의 가벽에 한국전통 요소(돌담·전통문양)를 도입시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실현한다.
- 진입광장 레벨에서 테크의 선긋기를 공유함으로써 입면의 변화감과 시각적 상승감을 유도한다.
- 대청에 입각한 입면구성으로 전·후면에 대한 정면성을 실현한다.
- 건물의 성격 및 형태에 부합하는 외장재(화강석)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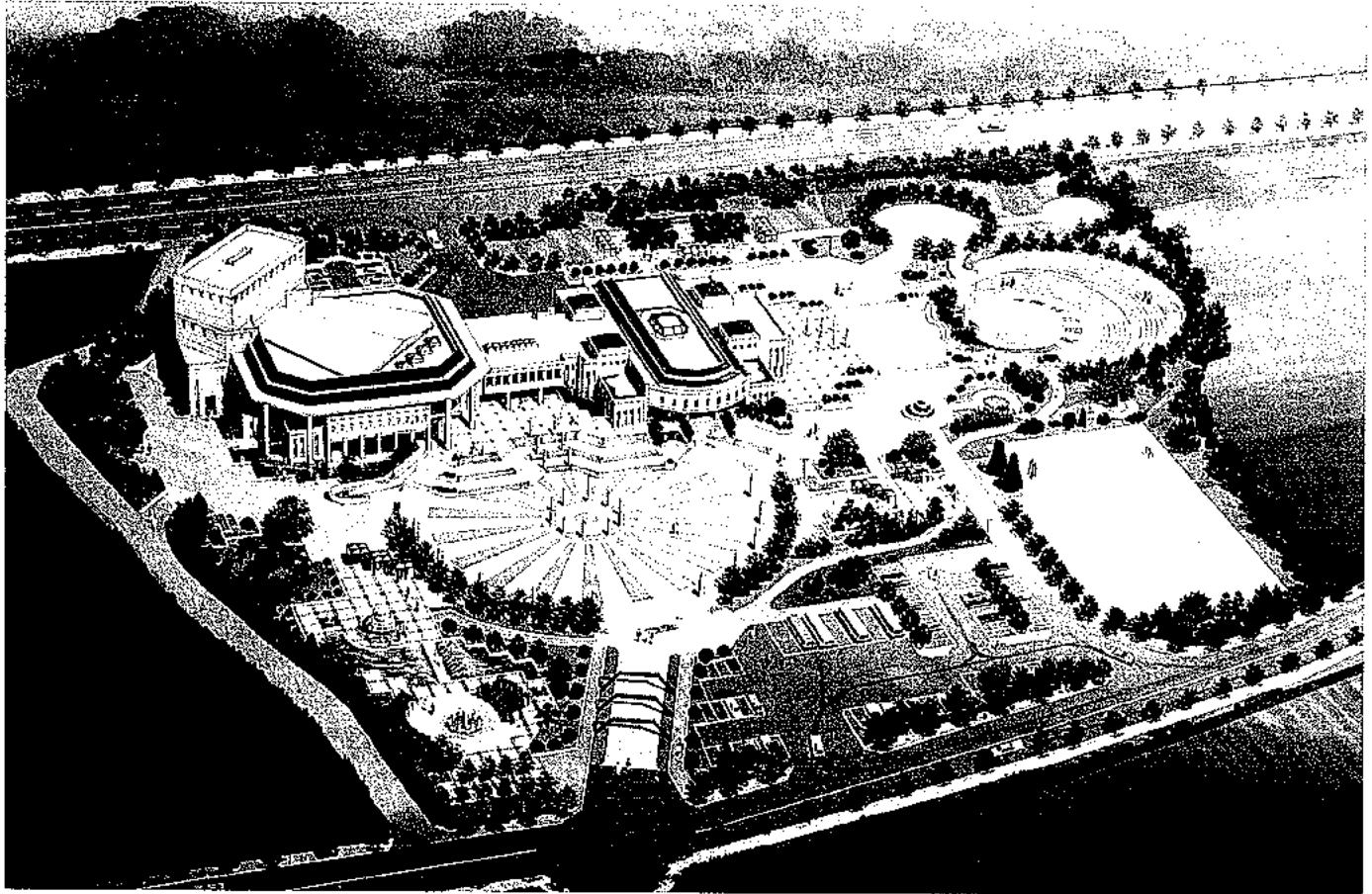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지붕층 평면도



외단면도



조감도

우수작

요람종합건축(인)
(대표: 신기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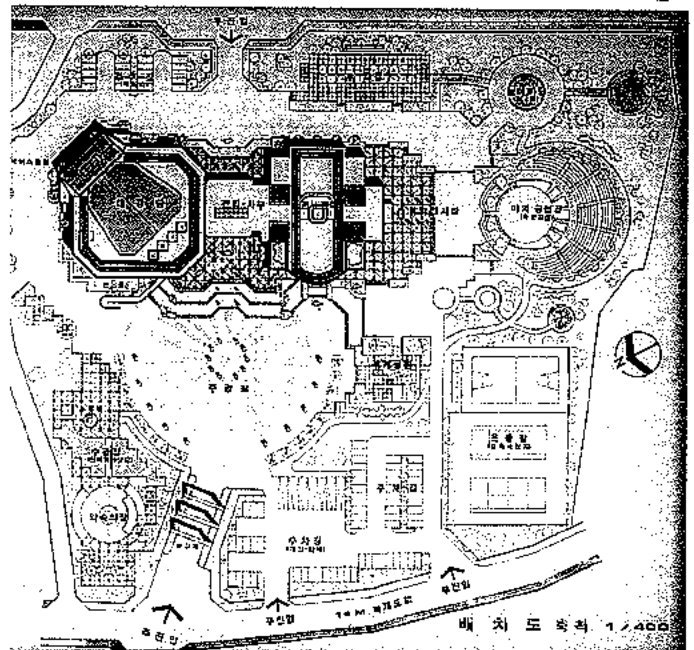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194-1번지 일대
대지면적 / 29,945m²
건축면적 / 3,396.05m²
연면적 / 5,049.70m²
건폐율 / 13.08%
용적률 / 41.6%
구조 / R.C라멘조, 철골트러스조
외부마감 / 화강석

■ 계획의 목표

-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진도군민의 예술과 문화, 그리고 일상생활 문화의 랜드마크적인 중심지로서 진도의 역사성과 민속의 현대적 표현
- 애향 진도문화의 육성과 함께 창작, 교육, 문화교류의 장소로서 서민들에게 쾌적한 장소 제공
- 단지내에서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한 배치계획과 신축성 부여
- 건물의 배치와 기능별 용도실 배치는 각각의 용도가 사장되는 곳이 없이 최대한 가용토록 하며 옥내시설과 옥외시설의 유기적 연결로 군민의 이용에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는 미래 지향적 장소를 제공한다.

■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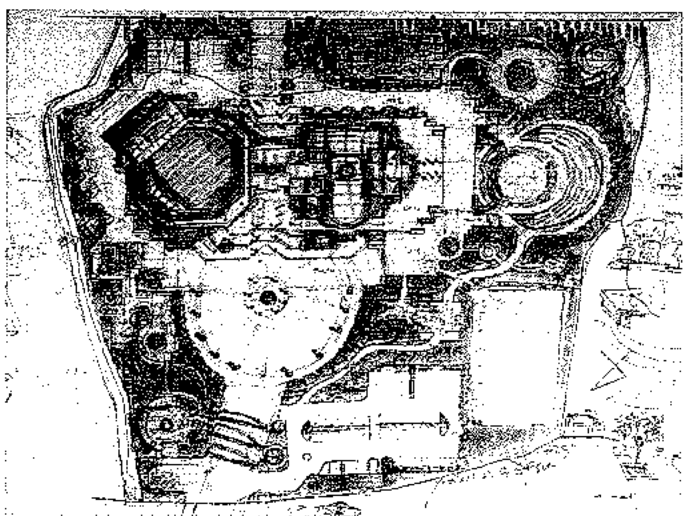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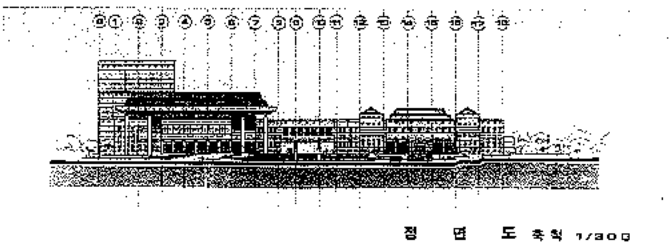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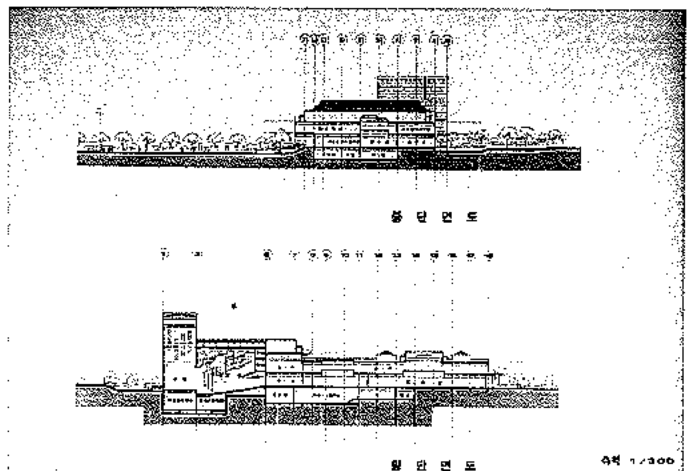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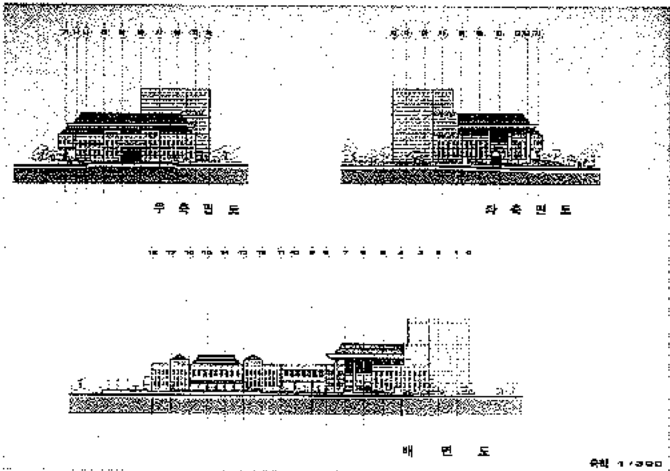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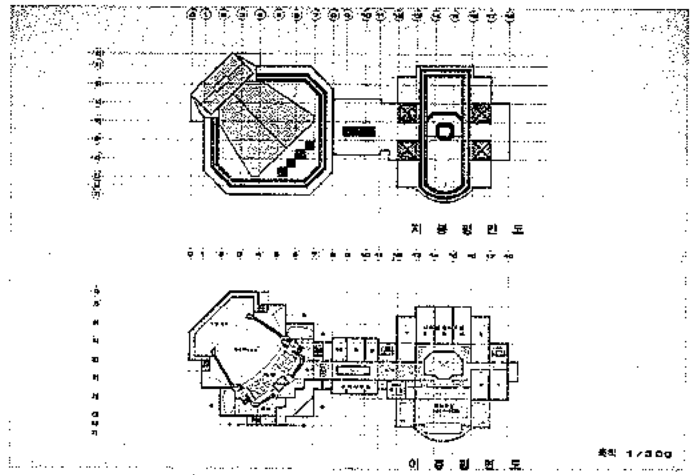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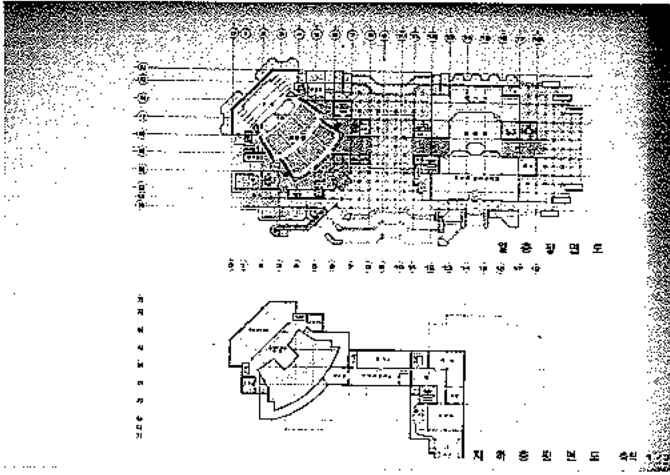
- 시가지와 근거리이며 이용빈도가 높은 시가지에서의 진입도로를 주진입도로로 하고, 장래 개설될 근접된 순환도로를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도



입면 스케치



배치개념 스케치

진입축을 정하였다.

- 건물의 정방향은 앞의 구거와 길게 뻗은 야산의 자연축에 순응토록 함
- 중앙광장은 비스듬함 주진입부를 완화시켜 동선이 효율적으로 흐르도록 함
- 옥외시설물들의 시야확보와 자연스러운 접근이 되도록 함
- 옥내외 시설의 기능이 상호 보완 작용토록 유도하여 이용자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도록 함
- 공간별 계획

■ 평면계획

- 평면형은 대지가 가지는 축에 맞추어서 진입하는 광장에서 전체적으로 파사드가 보이도록

록 건물의 주방향을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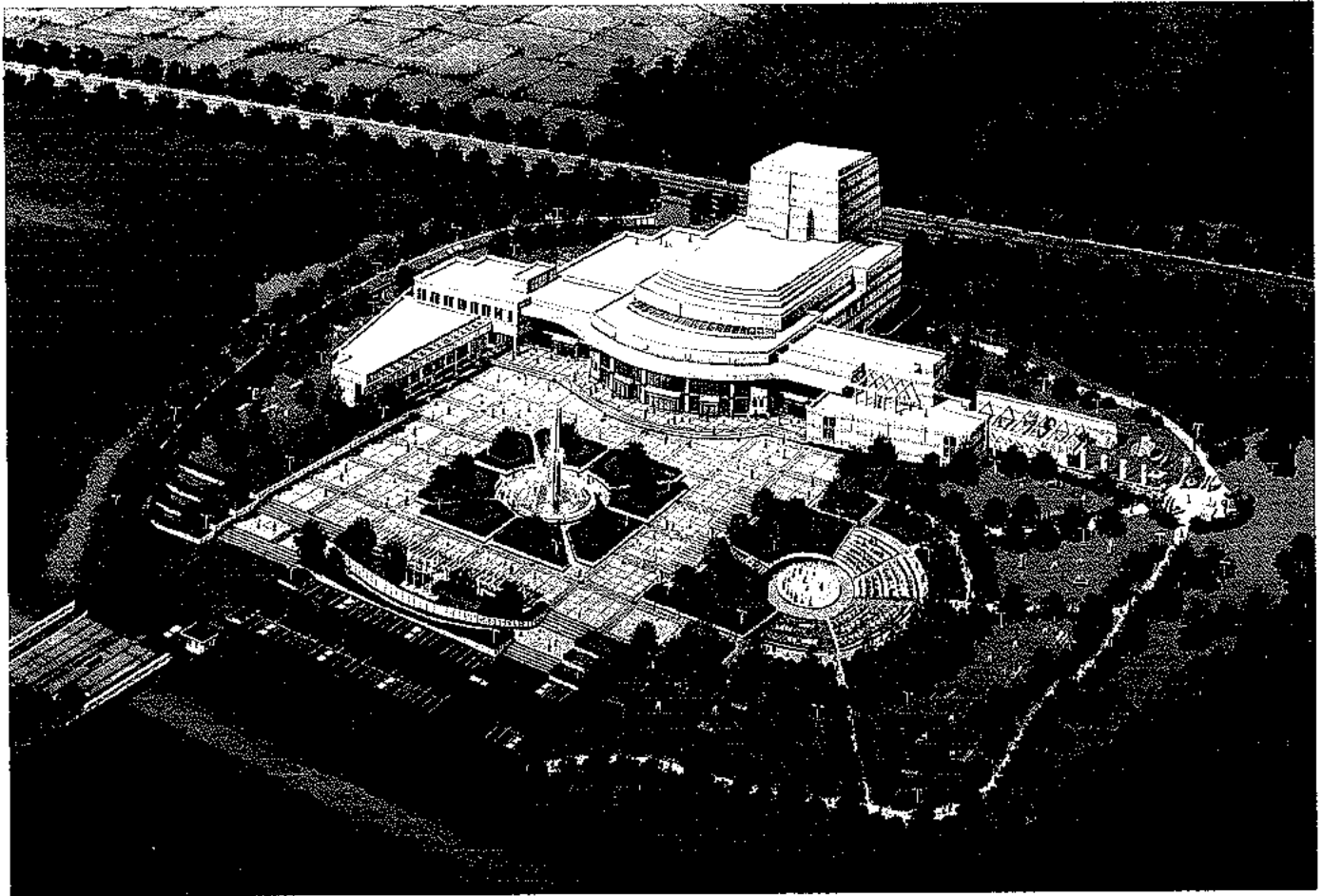
- 주진입도로에서 주광장을 거쳐서 건물내부로 이끌어지는 동선은 공연장과 전시동을 있는 필로티를 통하여 반대편의 공간으로 관통할 수 있다.
- 공연장과 전시동은 각각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가지는데 평소에 홀부분의 동선으로 통행하는 동선으로 유도한다.
- 공연장의 객석부의 형상은 음향과 가시선을 고려하여 방사형의 평면을 가지며, 방사형의 평면은 방형의 건물형안에 맞추어진다.

■ 입면계획

- 외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향토적인 분위기와 현대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연출하기 위하여 수평적인 요소와 비례감을 사용하였다.
- 다양성과 리듬을 주기 위하여 건물의 기능에 따른 메스의 분절과 분절된 요소의 대조와 긴장감을 시도하였다.
- 대강당의 전체적인 형상은 추상화된 거북선 형태로서 임진왜란중 역사적인 명량해전

을 기념하는 우리 민족과 이 지역민의 특별한 역사 의식을 표현하였다.

- 대강당의 벽면에 사용된 디자인 요소는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성분, 전통문양 등을 사용한 장중하면서도 친밀감있는 분위기를 나타내었다.
- 외장재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널리 산출되고있는 화강석을 이용하여 질감에서 오는 친숙함을 얻게 하였다.



조감도

우수작

선기원 종합건축(안)
(대표 이용선)

대지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와리 1194-1번지 일대

지역·지구 / 생산 녹지 지역

대지면적 / 25,949㎡

건축면적 / 3,769㎡

연면적 / 5,158㎡

건폐율 /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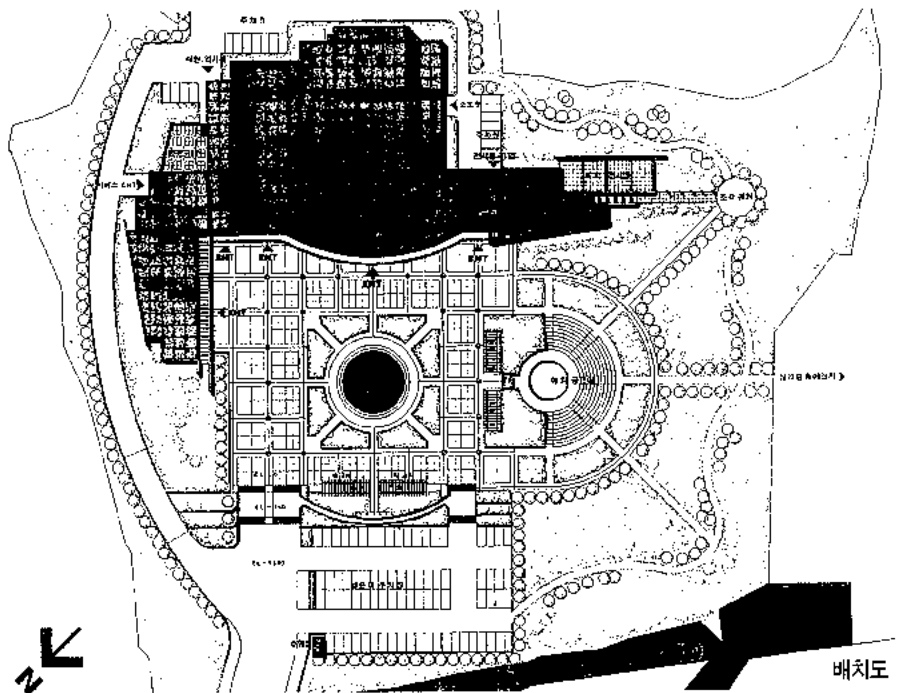
용적률 / 19.88%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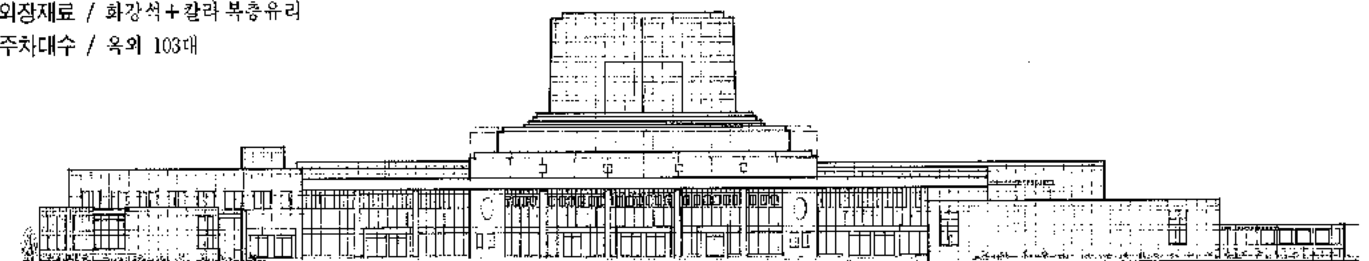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 트러스조

외장재료 / 화강석+칼라 북층유리

주차대수 / 옥외 103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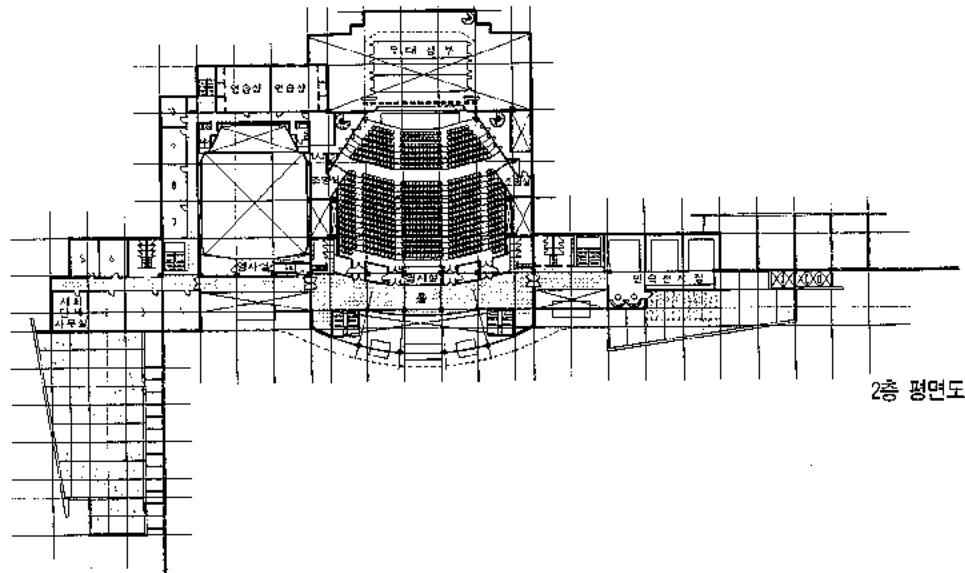
정면도

■ 배치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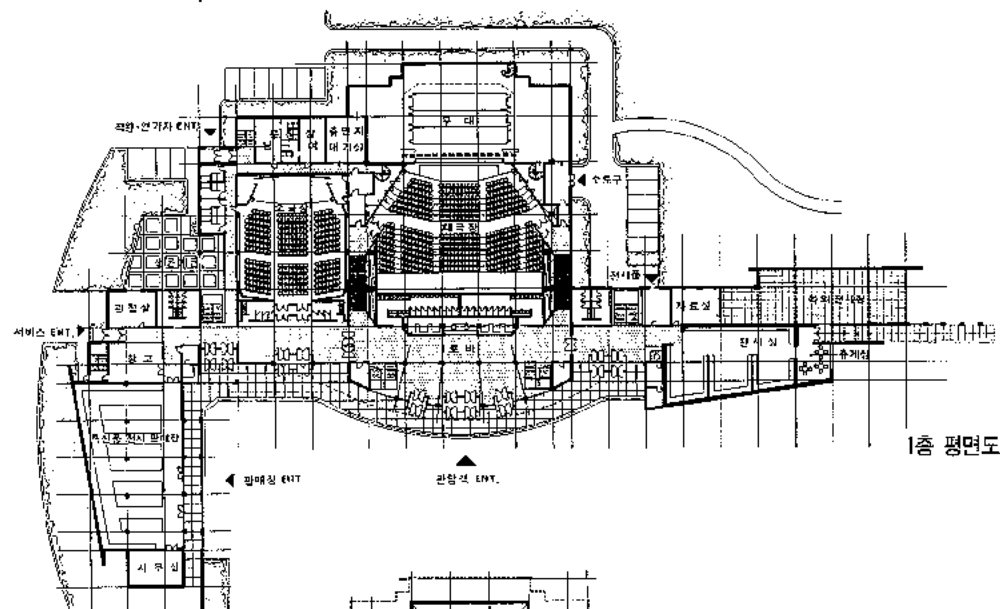
- 계획 개념에 부합되고 문화 회관의 기능적 특성에 따라, 건물 배치와 건물의 Mass를 계획한다.
- 공연장과 도심을 잇는 축선상에 분수광장을 위치시키고 우측에 야외 공연장을 배치하여 공간과 기능의 연계성을 갖고 각종 Event를 수용하게 한다.
- 광장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특산품 판매 전시장, 우측은 전시시설 및 야외 전시장 등 문화 공간을 배치하되 상호 독립적이며 공간의 전문화를 꾀한다.
- 일반 관람자를 위한 전면 주차장을 확보, 광장을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계획한다.
- 관리 및 서비스 동선은 후면으로 해결하고 서비스 주차장을 인접하여 설치한다.
- 건물의 중앙에 대공연장을 배치하므로써 건물 전체의 Mass가 주변과 순응하는 Sky Line을 갖도록 한다.

■ 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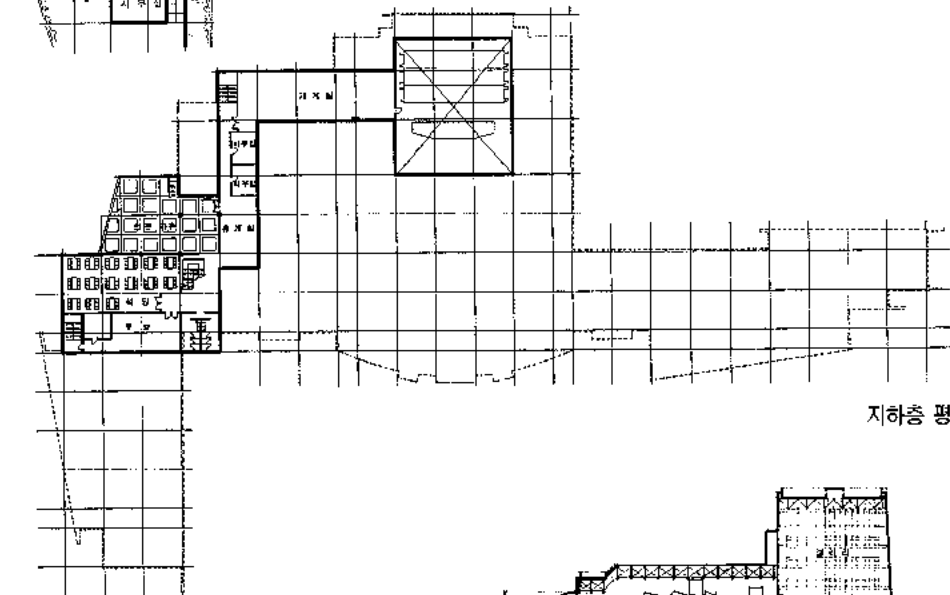
- 계획대지의 전면에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을 위치시키므로써 전면 광장에서의 차량 진입을 제한시키고, 문화 행사의 장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갖도록 한다.
- 대지 우측에 서비스 도로를 계획하되 일반 관람객과 구분된 직원, 연기자 출입 및 공연에 필요한 소도구, 전시용 작품의 반출입을 용이하게 하며 적절한 규모의 서비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 일반 관람객이 이용하는 대극장, 소극장 및 전시장은 전면 로비를 통하여 상호연계를 갖도록 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쉽게 접근이 가능토록 한다.
- 특히 전시장을 중심으로 옥외 전시장, 조각공원 기타 녹지 휴식 공간과 연계시키므로써의 독립성을 갖도록 한다.
- 특산품전시 판매장의 경우 판매장의 특성을 감안, 외부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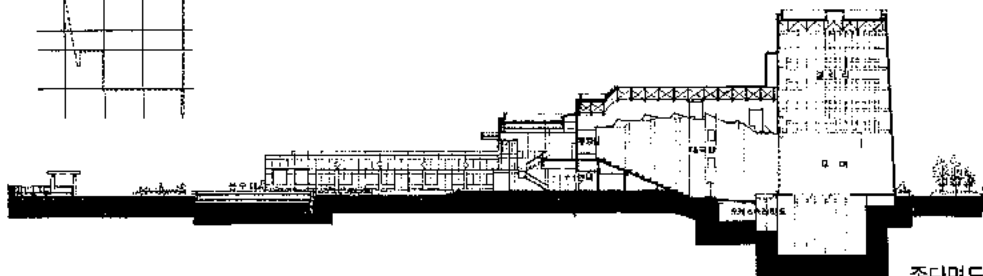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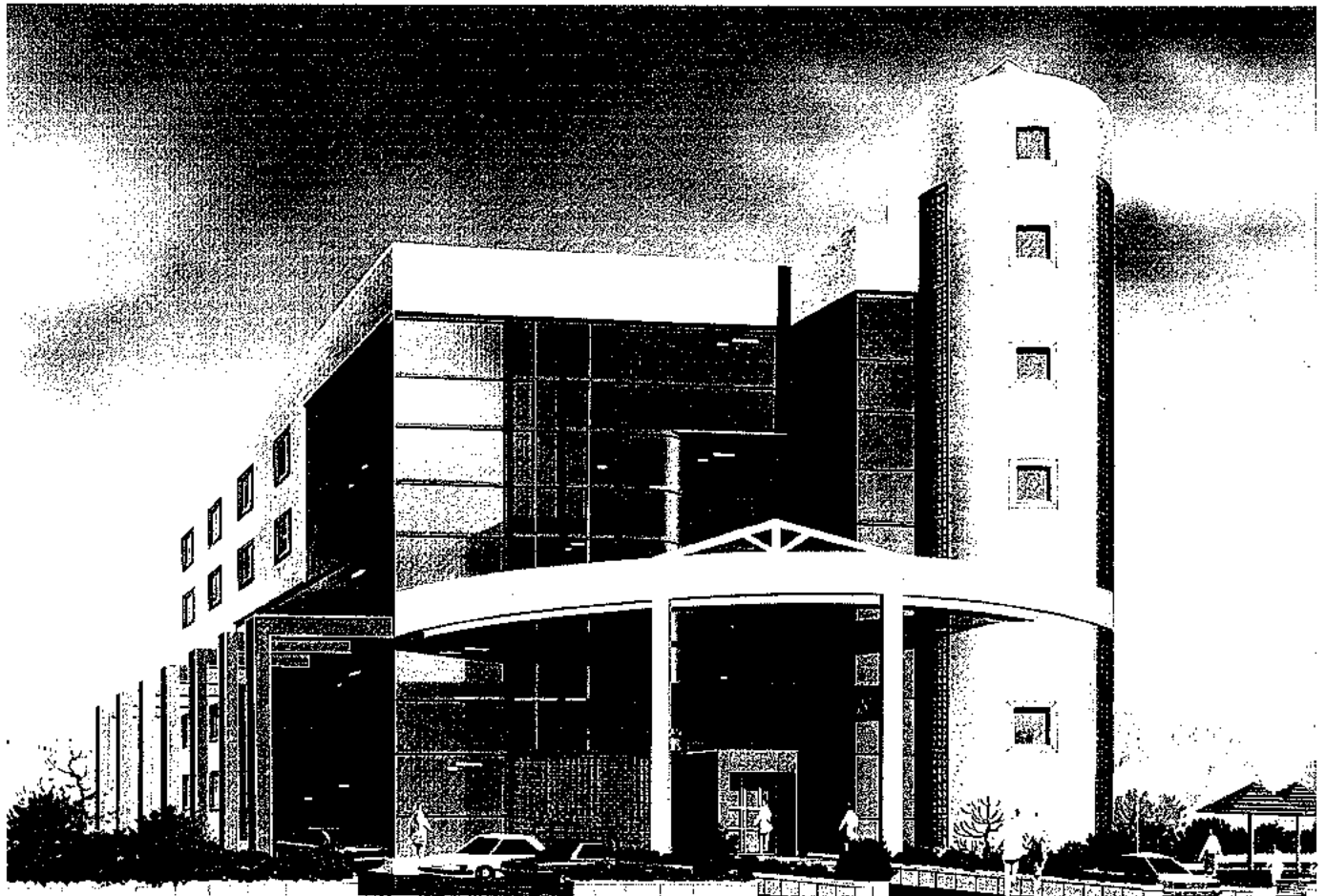


종단면도

중구 보건소 청사

서울 중구청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환경을 개선하며 경제적인 건축물을 구성함과 아울러 도시미관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건소 청사 현상공모를 실시하였다.

지난 9월 25일 응모신청을 받아 10월 20일 작품을 마감한 이번 현상공모에서는 총 7개 사무소가 참가를 하여 그중 대도종합건축(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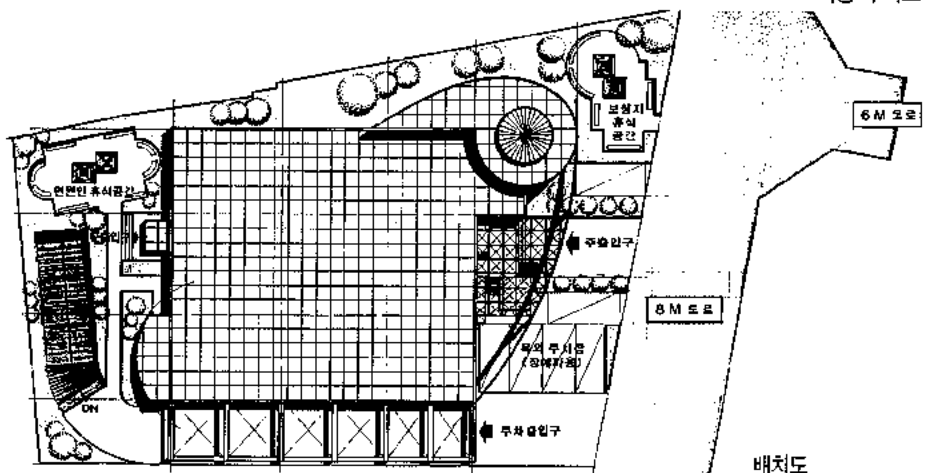


최종 투시도



대지위치 / 서울시 중구 무학동 50-5,6
지역·지구 / 일반 주거지역, 일부
근린상업 지역, 주차
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1,163.6㎡
건축면적 / 469.59㎡
연면적 / 3,562.58㎡
건폐율 / 40.36%
용적률 / 199.68%
규모 / 지하 2층, 지상 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스프레이 타일 + THK
18 와스텔 복층 유리



배치도

■ 배치 및 토지이용 계획

- 전면 8m 도로가 복잡하므로 지하 주차장으로의 출입구를 8m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게 후면쪽으로 유도함.
- 대지 전·후면의 법규에 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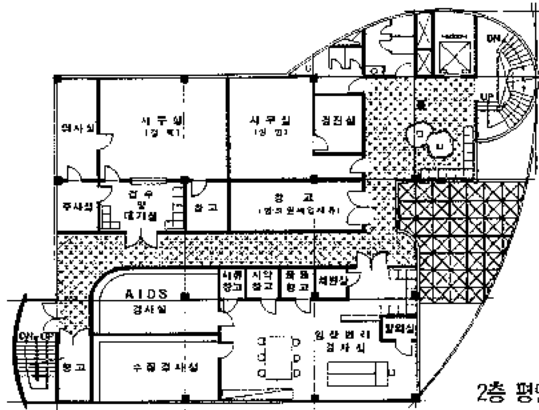
높이 제한을 받는 부분에 휴식공간 및 주차 램프를 배치함.

- 건물의 성격이 공공성을 갖는 건물이므로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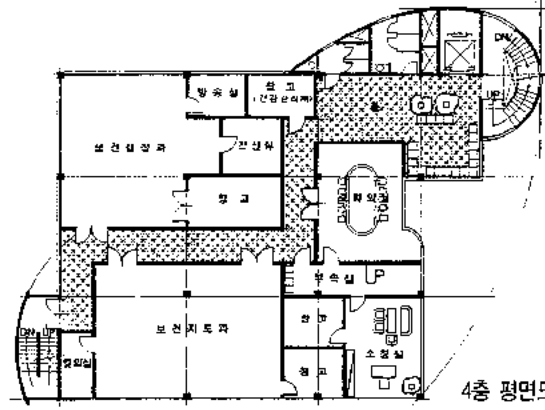
면 도로변에 할애함.

■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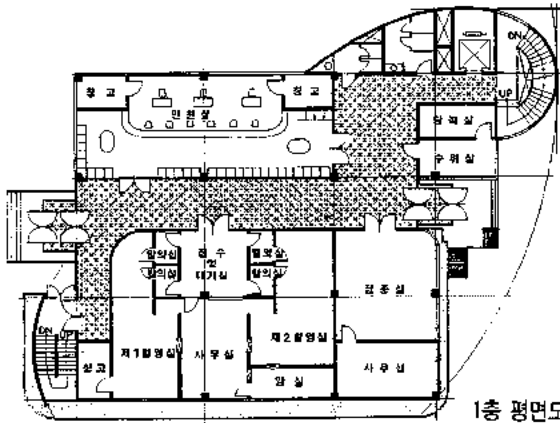
- 기능별, 이용빈도별로 각실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동선을 최소로 함.
- 노약자 및 장애자가 주이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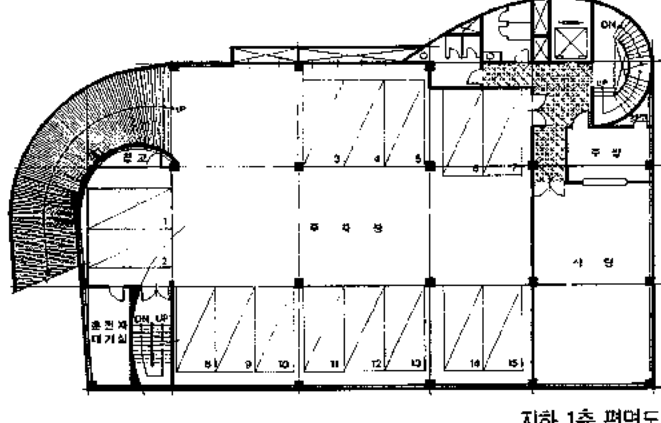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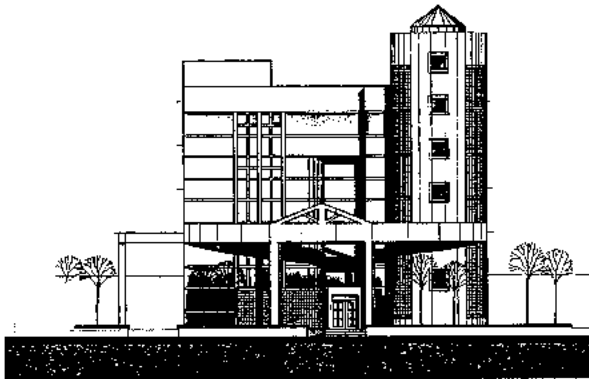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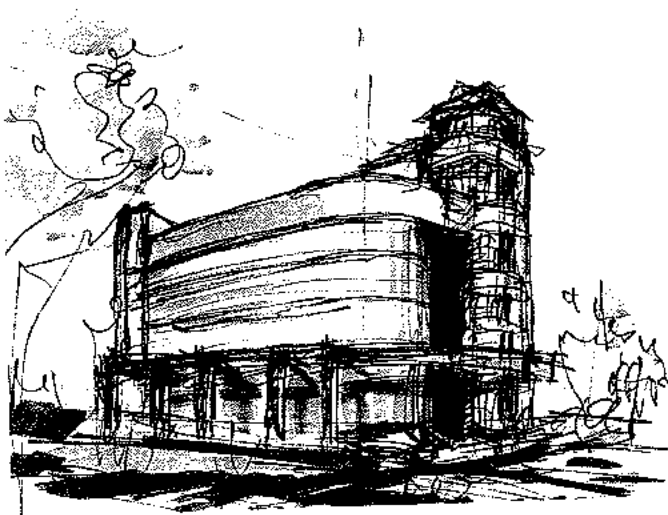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초기 스케치

가 될 것이므로 승강기를 설치함.

- 건물 특성상 이용자가 많으므로 각 층별로 충분한 대기 및 휴식공간을 할애 함.
- 주변 환경 및 향에 의해 각실을 배치함.

■ 입면계획

- 수직, 수평선을 이용한 단순함과 정렬함의 조화 유도
- 기존의 공공건물 이미지에서 벗어나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외관이 되도록 계획
- 색채 계획
 - 건물의 상징인 녹색을 주조색으로 함.

- 열은 녹색을 주조색으로 하고 짙은 녹색은 강조색으로 사용

- 현대적 이미지의 유리색 (Blue) 사용

■ 외장재료 계획

-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 선정 (스프레이 타일)
- 현대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재료선정 (커튼월)

■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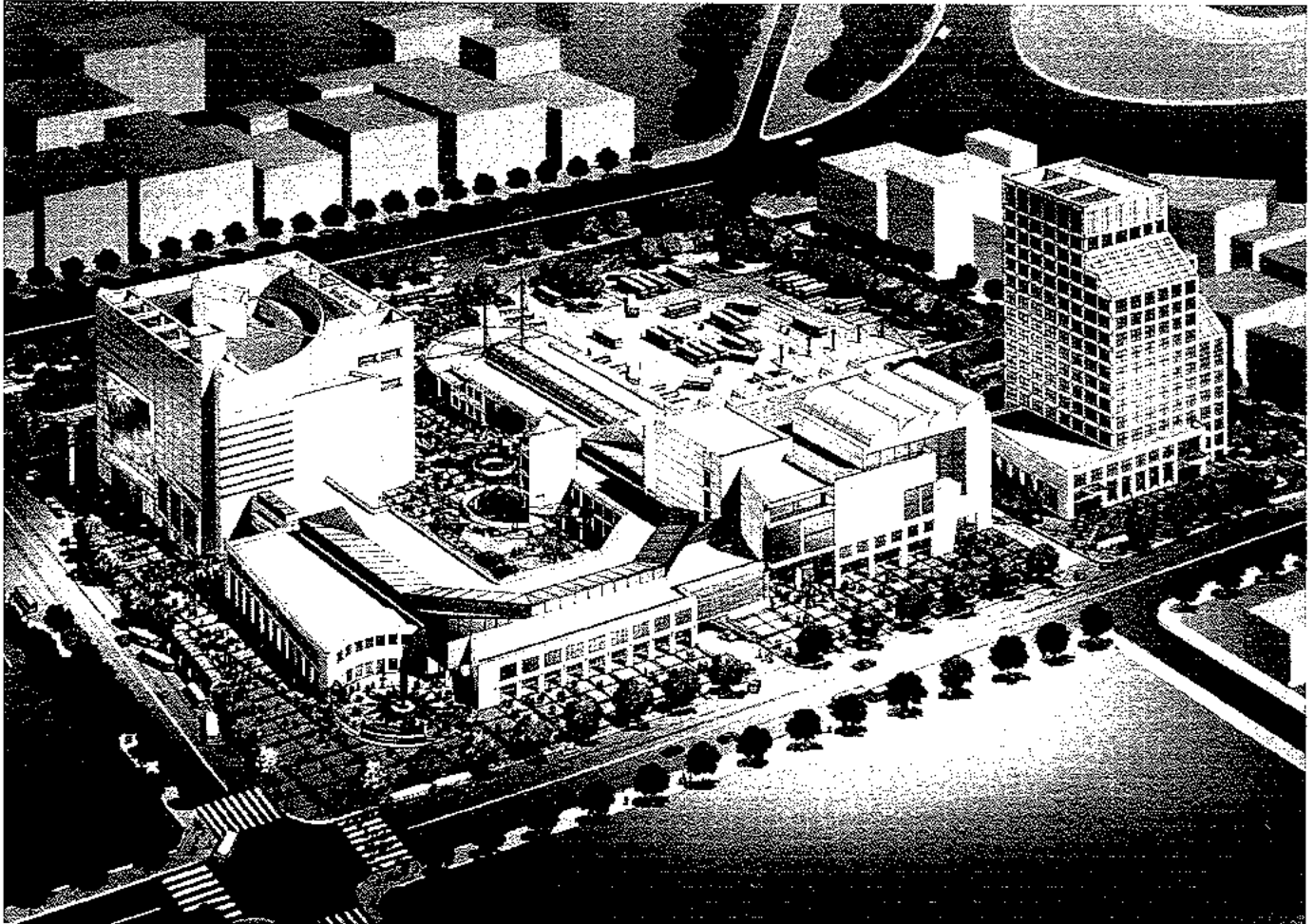
- 대인 진료 및 검사실을 될 수 있는 대로 아래층에 배치하고 보건행정과 관련된 실을 상층에 배치하여 이용자의 동선을 최소화 함.

청주여객 자동차 터미널

청주시에서는 2천년대 청주시 100만 인구를 대비한 생활, 문화, 정보, 경제, 건강,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대규모 녹지, 문화, 휴식공간 조성을 통한 시민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을 통한 도심교통난 완화 및

도시발전을 도모키 위하여 21C 전산화, 정보화, 기능화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형 종합터미널을 건립키로 하고 이에 대한 현상공 모를 실시하였다.

본지에서는 당선작인 (주)남산건축(안)을 게재한다.



조감도

당선작

(주)남산 건축안

설계:

이철홍, 박성하(남산건축)

김홍수(단우·모람건축)

김춘배(무원건축)

대지위치 / 청주시 가경동 1416, 1417

지역·지구 / 중심상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방화지구

대지면적 / 39,358.7㎡

건축면적 / 12,987㎡

연면적 / 96,821㎡

건폐율 / 32.9%

용적률 / 147.5%

규모 / 터미널 및 부대시설-

지하 1층, 지상 4층

쇼핑몰-지하 1층, 지상 2층

백화점-지하 3층, 지상 8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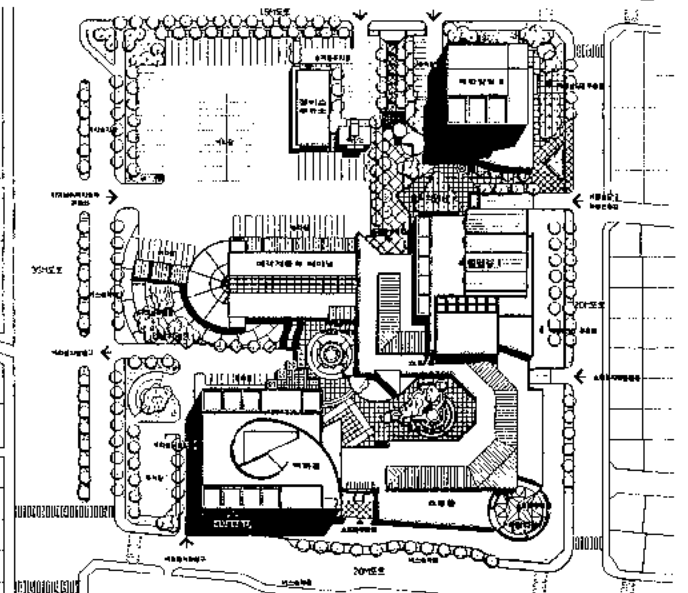
복합빌딩 I-지하 2층,

지상 5층

복합빌딩 II-지하 3층,

지상 1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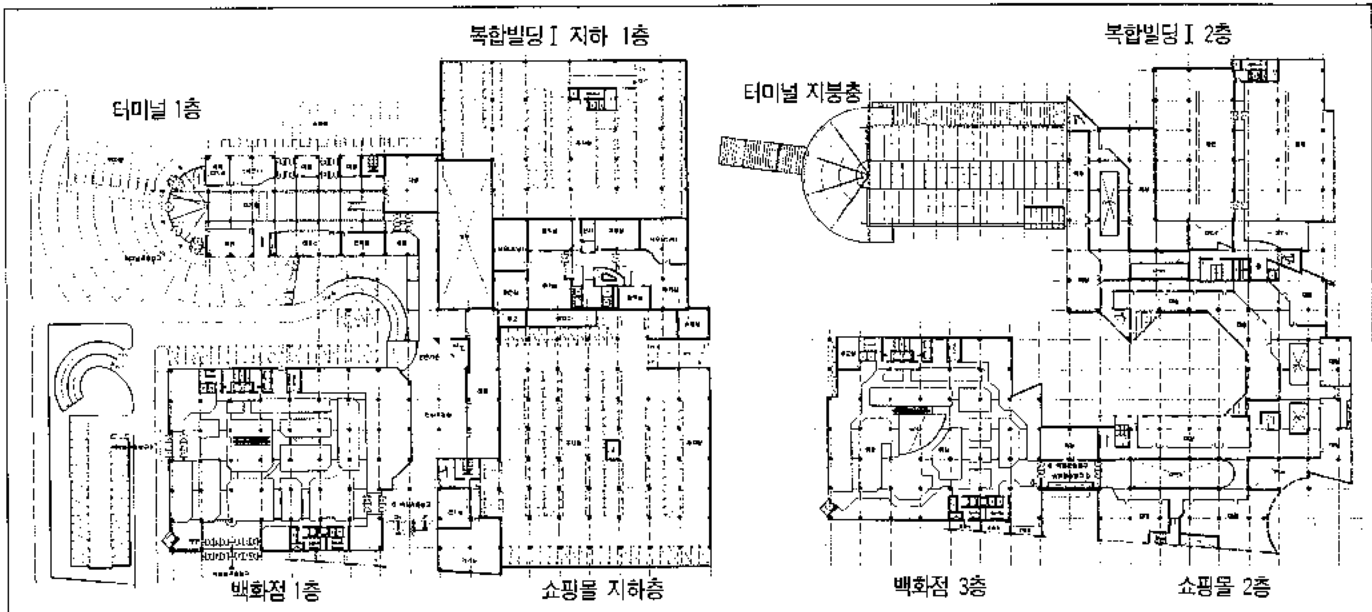
주차대수 / 879대(법정: 672대)



배치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I



■ 개발의 목적

- 2000년대 청주시 100만 인구를 대비한 생활, 문화, 정보, 경제, 건강,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복합 공간 조성
- 광역 청주권역 주민의 편의제공 극대화
-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청주시

개발 및 지역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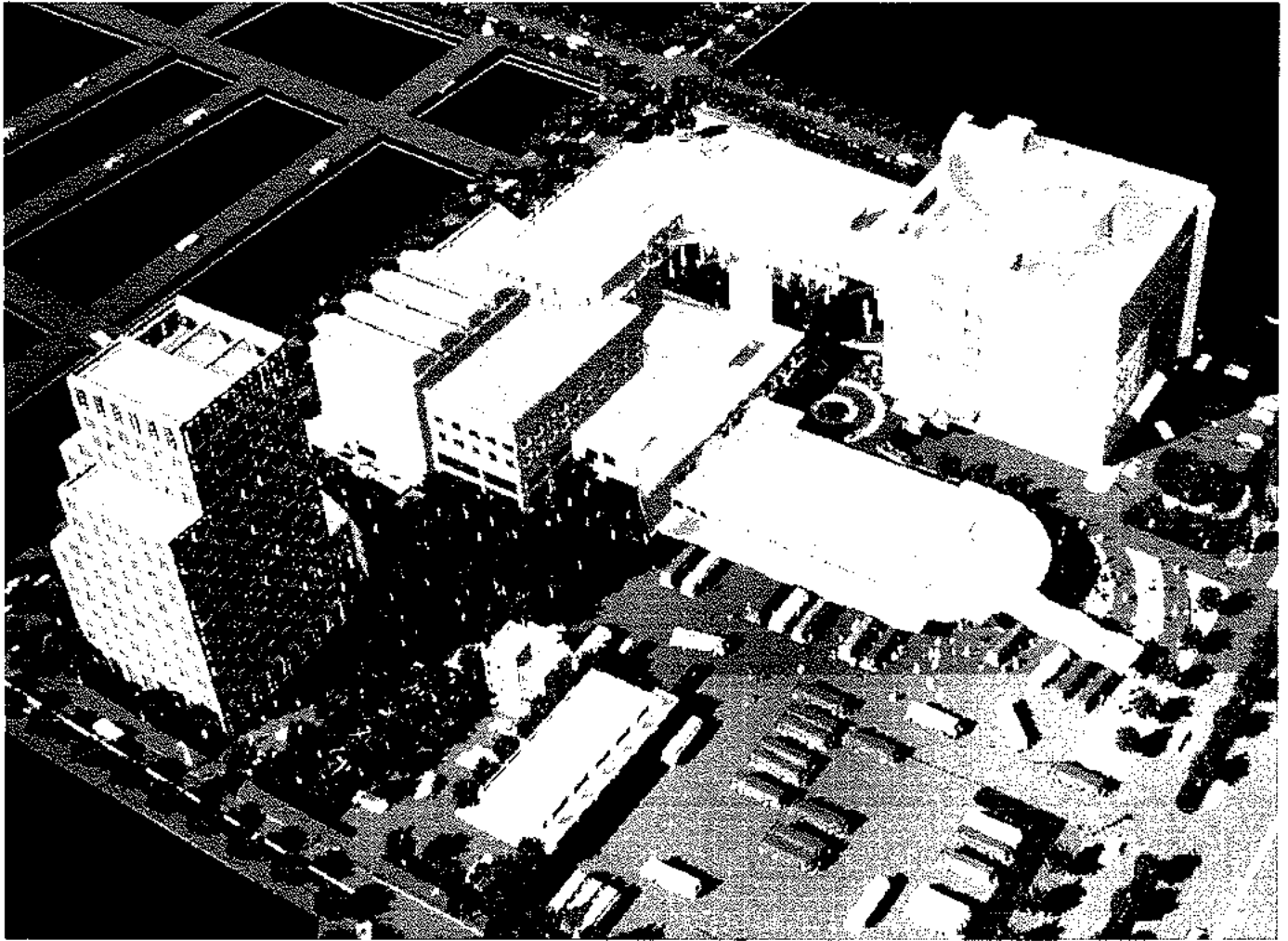
- 기존 고속터미널 이전을 통한 도심 교통난 완화 및 도시 발전 도모
- 대규모 녹지공간 및 문화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교육문화 도시로서의 정서에 부합

■ 개발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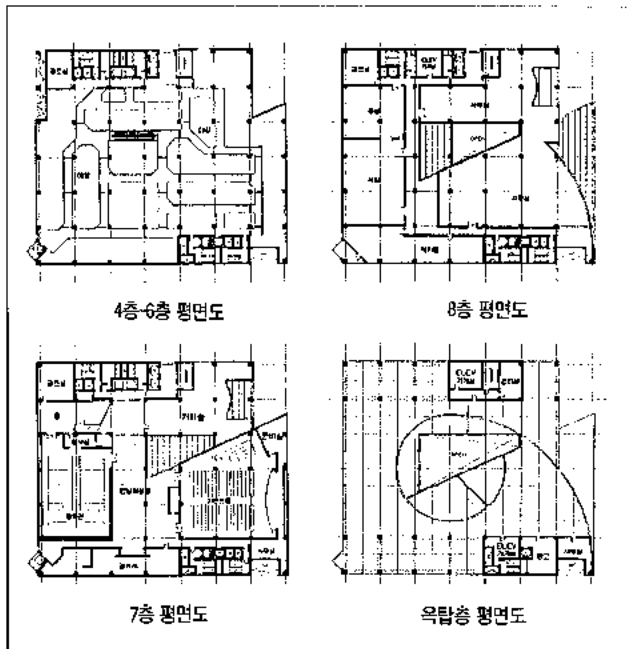
- 청주 문화권의 상징적 건물 건축
 - 청주시의 관문으로서 청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Land Mark)적 도시공간 계획
 - 청주 문화권과 어울리는 상

징적인 건물로서 최선의 미려하고 기능적인 터미널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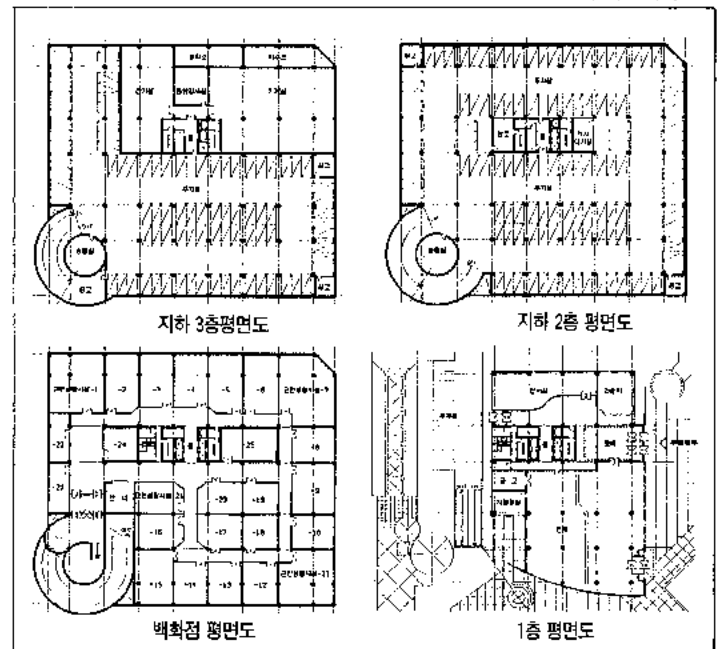
- 여유있는 여객시설의 확보 및 효율적인 동선 처리를 통한 승객 편의 극대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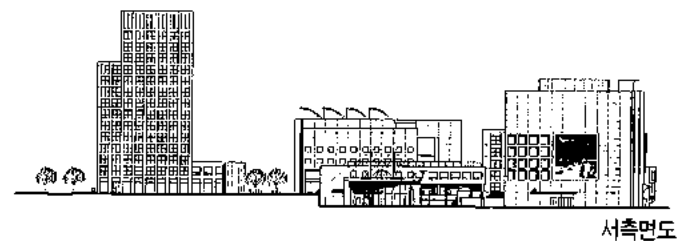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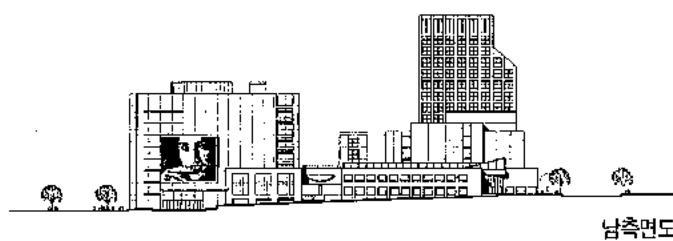
컴퓨터 시뮬레이션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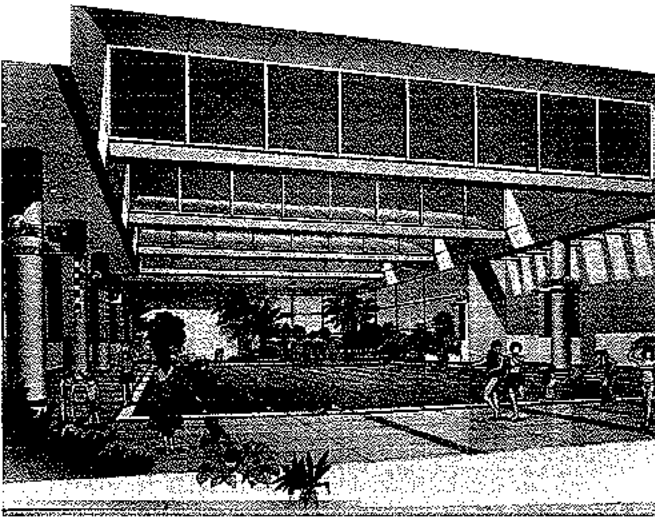


백화점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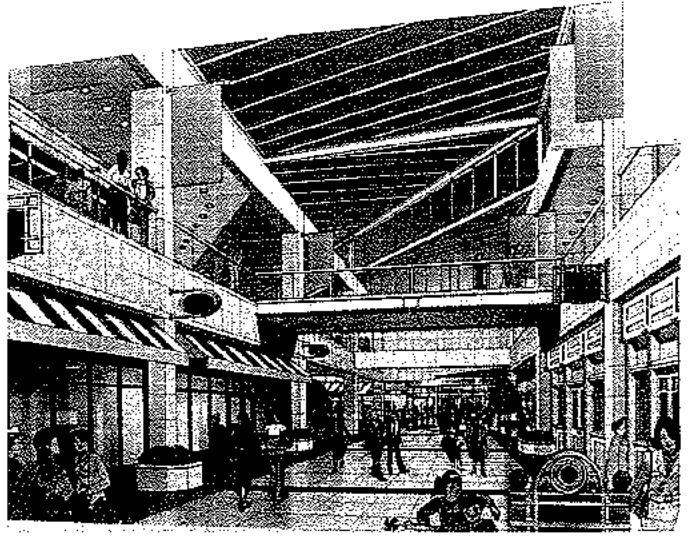


복합빌딩 II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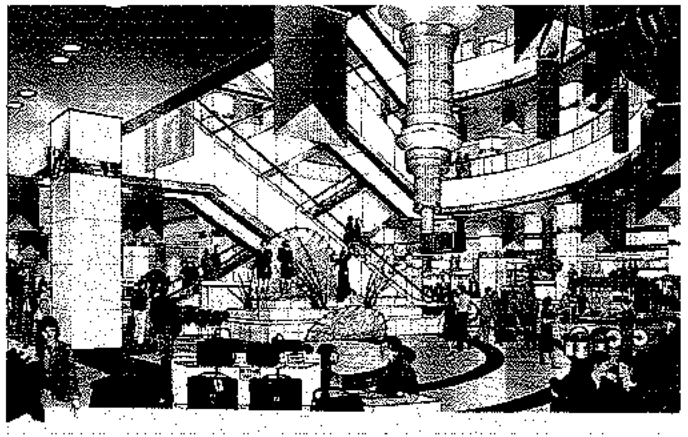
실내투시도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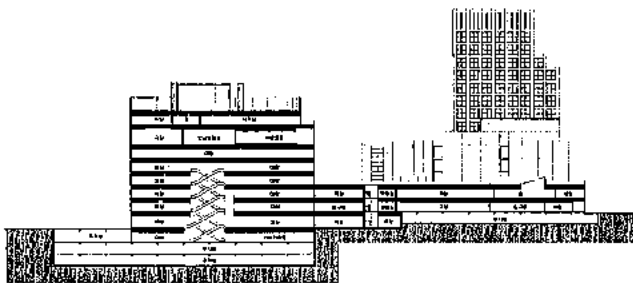
실내투시도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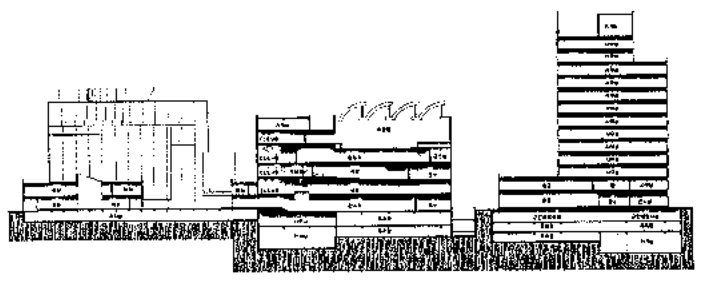
실내투시도Ⅲ



실내투시도Ⅳ



주단면도-1



주단면도-2

• 개발의 공익성 도모

- 기존의 고속터미널 이전을 통한 도심 교통소통 원활화 및 열악한 도심환경 개선
- 광역 청주권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 대규모 녹지광장 조성으로 시민 휴식공간 제공
- 여객 및 시민 편의도모
 - 미래형 터미널로서 이용객의 접근, 대기, 휴식을 위한 쾌적한 서비스 공간 확보
 -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상업, 업무, 금융, 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업무공간 확보

간 확보

- 현대식 유통구조를 갖춘 대규모 판매시설 제공을 통한 시민 편의 도모
- 지역 경제의 활성화
 -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 청주시 발전방향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간구조 형성

■ 토지이용계획

- 터미널 이용객을 중심으로 한 쇼핑물 형성으로 대지의 축 형성
- 복합기능을 갖는 건물로서 다양한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배치계획

-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친근감 조성 및 주변 환경 고려
- 차량 및 보행자의 자연스러운 출입을 고려한 동선 계획
- 장치 개발될 가정 3지구의 시외버스 터미널과의 연계성 고려

■ 종합배치계획

- 터미널 건물은 단지의 모든 방향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단지 중앙에 배치
- 복합시설의 합리적 배치로 단지 내외에서의 원활한 동선

처리

- 청주시민을 위한 시민휴식 및 문화예술공간 조성
- 래벨 차이를 이용한 광장(젊음의 광장)을 조성하여 입체적 단면 처리
- 가로변 활성화에 기여하는 입면 창출(회랑/식재/휴식공간)

영국의 미술관 건축

Art Museum Architecture of the United Kingdom

金龍昇/한양대 건축공학과 강사

by Kim, Yong-Seung

최근의 영국건축은 상당히 보수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유럽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런던에 대한 첫 인상에서 빈번히 나타난다.

특히 파리와 런던의 두 도시를 동시에 방문했던 여행객들에게는 두나라의 문화적 차이가 뚜렷하게 눈에 띄일 것이다. 한 도시에 잠시 머무는 동안 그 여행객에게 비쳐지는 한 나라의 문화적 특징은 주로 도시의 건축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파리의 건축과 런던의 건축은 현저한 차이를 느끼게 한다.

최근의 몇가지 국제적으로 알려진 건축물들을 예로 보면 파리의 콩피두

센터(1972~1977년, 리차드 로지스, 렌조 피아노), 오르세이 미술관(1980~1986년 게 올렌티), 루브르의 피라미드(아이엠 페이, 1983년) 등은 각각의 건축이 획기적이고 또는 급진적인 형태나 해결방법을 보여주면서 세계 여러나라 여행객들의 유명한 예술품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켜 줄뿐만 아니라 건축에 대한 호기심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외에도 지난 몇년간 미테랑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으며 진행되어온 그랜드 프로젝트(the Grand Project)는 파리에 라데팡스의 사무소건물, 아랍문화원, 라 빌레트 공원 등의 규모에서 웅장하고

형태에서 진보적인 건축들을 제공함으로써 미술관외에도 건축 그 자체가 여행객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과거에는 프랑스의 라이벌이며 한때 세계를 손아귀에 넣었던 영국의 수도 런던은 19세기의 건축양식인 신고전주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행객들이 빈번히 방문하는 장소나 건축물들도 19세기 이전에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며 박물관이나 미술관 또한 대부분이 19세기를 전후하여 설립된 후 약간의 증축계획들 외에는 뚜렷한 건축적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이 자랑하는 하이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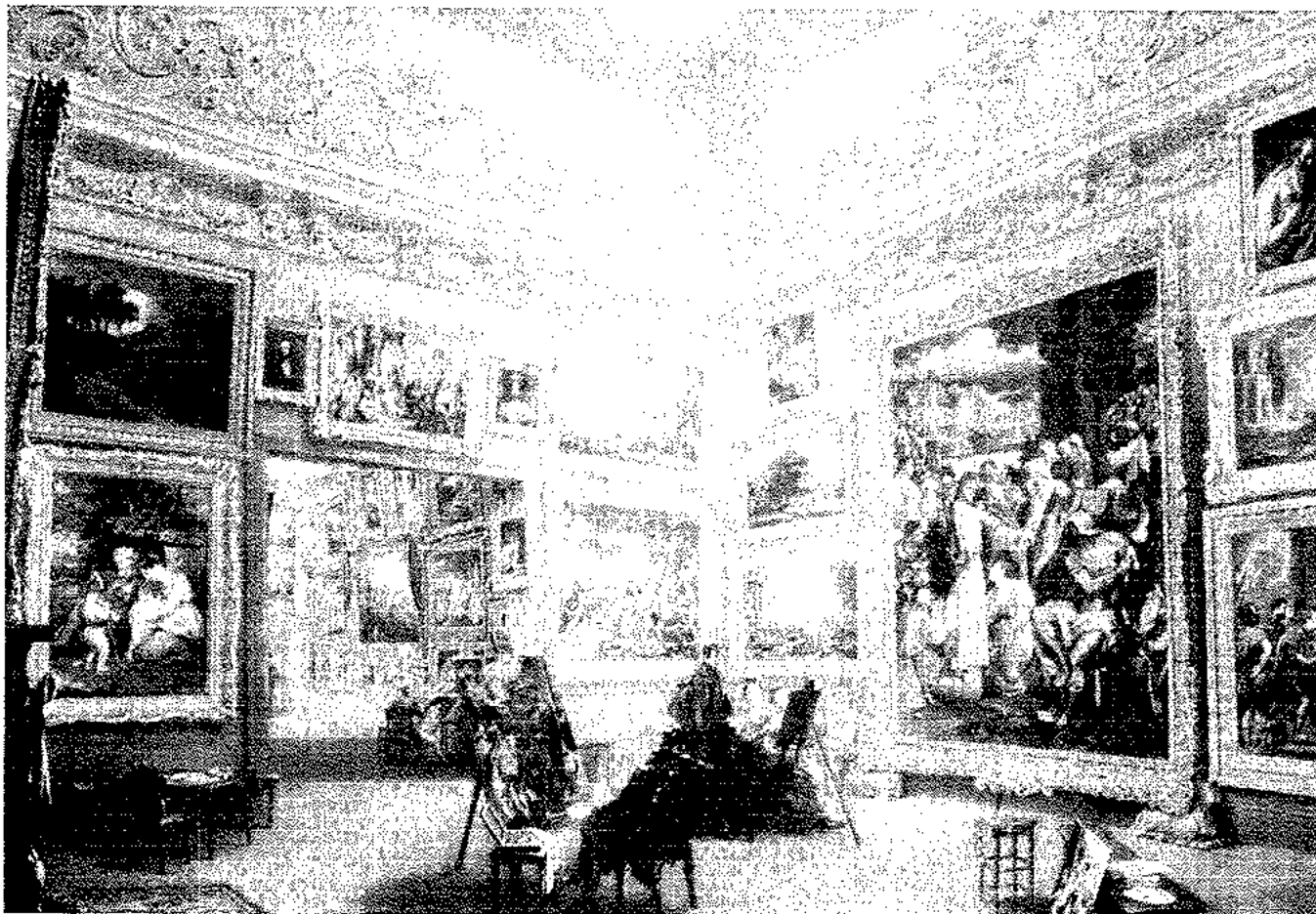


그림 1 국립미술관 내부, 런던, 1834



그림 2 버킹햄궁전. 런던, 1843

건축가들, 즉 리처드 로저스나 노만 포스티 등의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건축가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도시로서는 상당한 의외로 받아들여지며 현대적 건축물로 알려진 것은 로이즈사무소

건물(1978년~86년 리처드 로저스)을 비롯한 아주 극소수의 예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영국건축의 보수적 성향은 5, 6년전부터 찰스황태자가 벌이고 있는 건축캠페인에 의해 더욱 저변화하고 있다. 영국의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황태자의 “고전 건축으로 돌아가자”라는 캠페인은 여러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건축 공모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최근에 보여지는 영국의 건축은 파리에서 보여주는 진보적인 건축과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건축경향은 미술관이나 박물관 건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술관의 개념을 살펴보면, 단순히 예술전문가나 특정인들에게만 보여주려는 소극적 자세의 전통적 개념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예술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시설로서의 미술관으로 바뀌었다. 즉 기만히 앉아서 관람객들을 기다리는 기존의 미술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일반대중에게 봉사하는 공공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개념의 변화는 미술관 건축의 변화를 동반하여 많은 전통적 미술관들 즉 19세기 전후에 설립된 미술관 건물들이 기존의 전시공간 위주에서 탈피하여 일반대중을 위한 교육공간, 휴식공간, 판매공간 등의 필요로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미술관의 이러한 건축적 욕구를 파리에서는 새로이 미술관이나 문화공간을 계획하였고 기존 건물에 대한 중축계획의 경우에도 어떤 의미에서 더욱 활기를 제공할 수 있는 진보적 형태나 해결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에 런던에서는 두 세개의 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존의 건물에 대한 중축이나 개선을 위주로 하면서 해결방법 또한 최근의 보수적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보수적 성향에 영향을 받은 영국의 미술관 건축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국의 미술관 건축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초기 미술관의 건축계획

18세기까지는 진정한 의미의 대중을 위한 공공미술관이 영국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1753년에 설립된 대영박물관은 세계 최초의 대중을 위한 국립박물관이라 할 수 있겠으나 예술품들만을 위한 미술관은 유럽대륙 특히 프랑스에 그 개념이 뒤져

있었던 것이다. 이 당시 영국에서는 개인소장품들이 공개되었으나 여러가지 제한이 따랐고 왕궁에 있는 전시실들은 특정인들만을 대상으로 사전약속에 의해서만 공개되고 있었다.

19세기에 들어와서 개인 소장품들이 일반에게 공개되었는데 이는 귀족들의 대저택에서나 런던에 위치한 화가들의 갤러리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적인 미술관들로는 존 손의 박물관, 델워치의 미술관 등이 있으며, 이 당시 미술관들의 건축형태는 대부분 고전주의에 근거하여 디자인 되었으며 이것은 20세기 초기까지 계속되어 오다가 근대주의건축 운동에 의해 잠시 주춤하였으나, 최근에는 고전주의에 근거한 당시의 건축언어들이 재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세기 후반에는 영국의 미술관 건축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몇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대 박물관의 탄생과 그로 인한 거대한 규모의 전시 공간이 나타났고 둘째, 자본가들이 미술관이나 도서관에 제한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락한 영국정부의 결정과 그로 인한 시립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의 등장이며 마지막으로 그림에 대한 가격의 상승이었다. 이 세가지 대표적 현상들에 의해 19세기의 마지막 30년동안에는 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의 급증, 그에 따른 예술학교의 숫적 증가, 예술중개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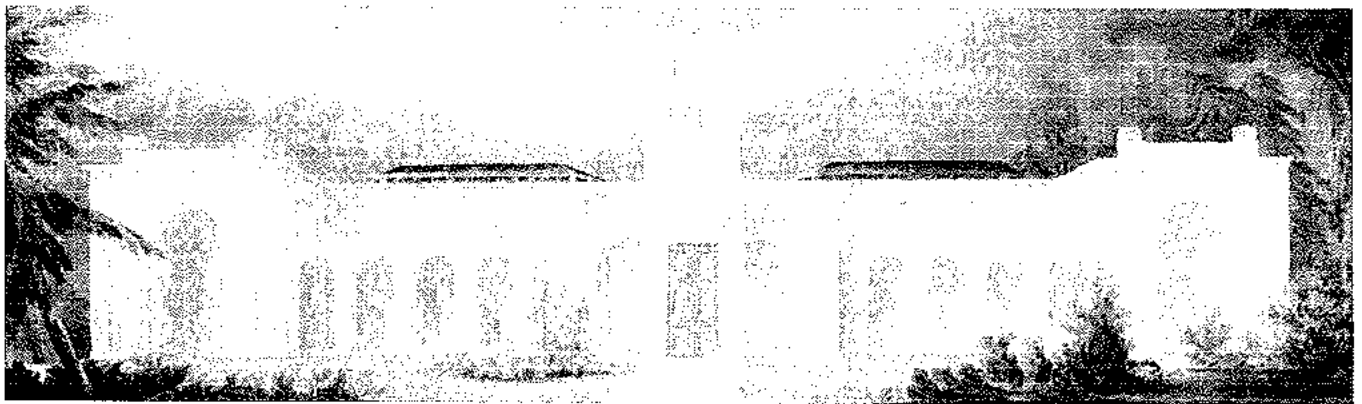


그림 3 달위치 갤러리, 런던

사회적 신분향상, 예술품의 전시를 위한 건물수의 급격한 증가 등이 눈에 띄었다.

이러한 예술에 대한 전반적 인식의 향상은 영국의 국립, 시립, 또는 개인미술관들의 수적 증가와 더불어 건축적 질의 향상도 가져왔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형태적인 면에서는 이전의 그것과 많은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제 미술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전시공간을 살펴보자.

전시공간은 주로 직사각형의 형태를 이루며 천장을 통한 조명이 일반적이었다. 그림들을 전시하는 양측면의 길이가 개구부가 있는 면보다 상당히 긴 형태의 직사각형 전시공간과 보통 양끝면에는 고전양식의 기둥들이 개구부 앞에 세워졌는데 이는 르네상스의 프로토타입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러한 전시공간은 18세기 이후, 미술관건물뿐 아니라 개인의 저택이나 왕궁에서 많이 채택되었으며, 애플리 하우스, 버킹햄궁전 등에서 볼 수 있다. 매우 많은 관람객들을 수용하는 전시실의 경우 보다 원활한 순환을 위해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의 공간이 사용되었으며 소머셋 하우스의 그레이트 룸을 예로 들 수 있겠다.

또한 대전시설의 성격으로 하나의 커다란 방으로 이루어진 전시공간은 루브르의 그랜드 갤러리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러한 긴 형태의 전시공간은 특히 그 미술관의 다른 공간들에 비해 위엄있고 특별한 느낌을 주려는 전시공간에 적용되었는데 이는 피츠윌리엄 미술관과 런던의 국립미술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긴 형태로 이루어진 하나의 전시공간으로부터 발전된 전시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긴 터널식의 전시공간을 여러 칸으로 나누어 아치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의 개구부를 통하여 연결하고 있는 방식(Enfilade)으로 19세기의 대부분의 미술관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시공간 형태이며 최근에 계획되는 미술관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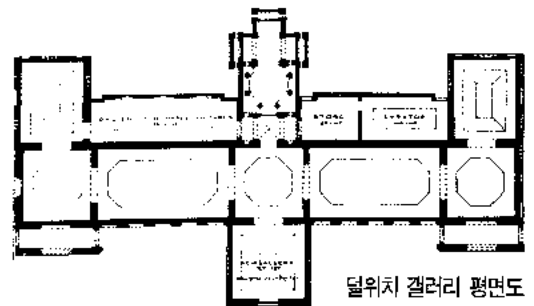
빈번히 채택되고 있다. 또한 미술관 관장들이나 미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전시공간이 미술품들을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으로 미술관이 보다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전시공간이 나타났는데 이는 선례의 알테스박물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중앙의 홀이나 로분다를 중심으로 3~4개의 전시실들이 둘러싸는 형태의 계획이다. 이것은 특히 관람객들의 방향감각에 도움을 줌으로써 큰 규모의 미술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달위치미술관이나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 등은 1층에서 모든 전시품들을 진열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영국의 미술관들은 그림들을 윗층에 전시하고 있다. 이는 복잡한 도심지에 위치함, 다른 종류의 예술품과 같이 전시됨, 천장으로부터의 조명이 필요함 등의 여러가지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영국미술관 건축에서 계단이나 홀 등의 건축요소의 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했다.

전시공간이외에 기타 공간들을 살펴보면 19세기의 미술관들에서는 특별전시 등을 위한 임시적 의미의 전시공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임시 전시는 미술관의 기본기능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다. 런던의 국립미술관을 보면 기존의 상설전시공간으로만 1980년대까지 유지되어 왔다.

또한 미술관 직원들의 특별업무나 미술품 보수작업 등을 주로 다른 곳에서나 야간에 이루어지므로써 당시의 미술관들은 사무공간이나 작업공간은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1889년 박물관 협회의 설립으로 인하여 이러한 태도가 변화면서 전시공간, 저장공간, 사무공간 등이 모두 중요하게 고려되어 계획되었다.



달위치 갤러리 평면도

그 이후 미술관의 일반대중에 대한 태도의 변화, 즉 적극적으로 대중과의 접촉을 시도하려는 태도로 인하여 관람객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됨으로써, 기존에 주를 이루었던 전시공간 외에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의 공간들이 계획에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2차세계대전 이후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미술관들은 효과적 전시를 통한 관람객들의 교육과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교육공간, 판매공간, 휴식공간 등의 계획에 중요하게 반영되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공간들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후 영국의 미술관 건축에는 지금까지 나타난 활발한 움직임이나 새로운 해결방법이 현저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 전후의 미술관 건축

20세기초에 나타난 영국의 미술관건축은 미국이나 독일의 건축에 질적·양적으로 뒤져있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즉 19세기의 미술관들에 대한 인상적인 발전과정은 20세기 초기에는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2차대전후 영국의 미술관들은 새로운 도약을 맞이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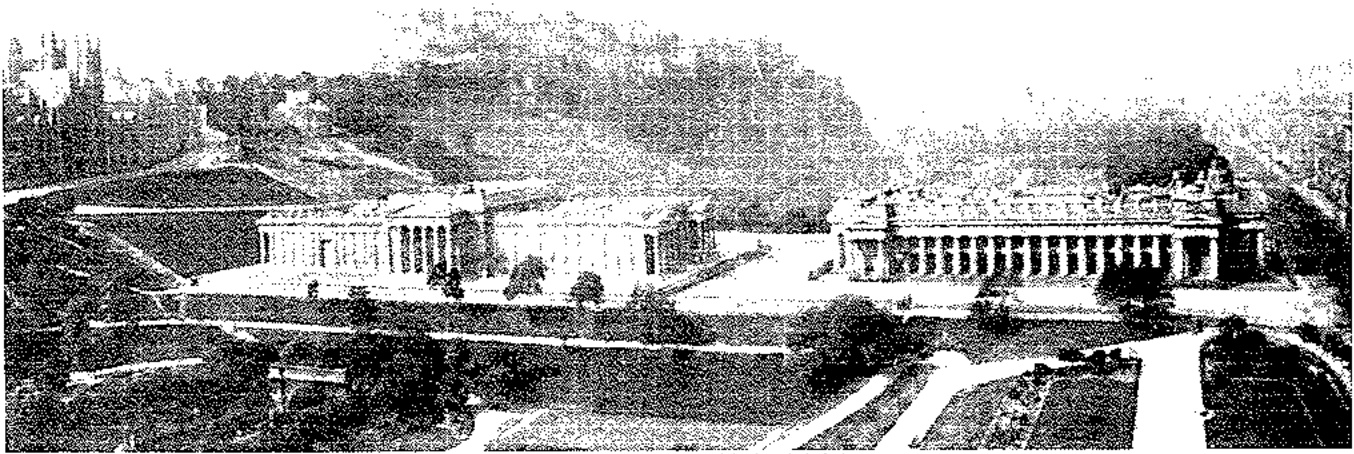


그림 4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 이딘버러

몇가지 예들(글라스 고우의 부렐미술관, 노위치의 예술을 위한 세인즈베리세터)을 제외하고는 19세기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증축에 관한 이야기가 그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68년에 완공된 헤이워드 갤러리(1965~1968, GLC)는 런던의 사우스뱅크의 복합예술 공간의 한 부분으로 대중을 위한 전시공간이다. 이 건물은 영국에서 당시 한창 유행하던 아키그램(Archigram)의 영향을 받은 GLC의 젊은 건축가들에 의해 디자인된 것으로 노출콘크리트가 사용되었으며 주변의 복합예술공간은 모두 콘크리트로 된 복잡한 미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갤러리는 예술의 특별전시를 위한 임시 전시공간으로 상설전시를 위한 공간은 없다. 건축형태는 르 꼬르뷔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으며 콘크리트로 된 외부와 내부에는 어떠한 장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외부에서 바라본 건물은 그 용도가 공장인지 비밀연구소인지 구별하기가 힘들다. 즉 창문이 거의 없는 입면과 분명히 구별되지 않는 출입구의 위치는 건물내부의 용도가 비밀스럽고, 어두운 측면의 느낌을 주고 있다. 전시공간은 스튜디오 성격을 가진 융통성 공간으로서 어떠한 기능도 가능하다.

또한 테임즈 강가에 위치한 공공시설로서 강을 향한 조망을 이용한 어떠한 휴식공간도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의외이다.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이 갤러리는 최근 미술관들이 추구하는 일반 대중과의 적극적인 접촉과는 거리가 먼 점들이 많고 또한 당시의 건축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비인간적 규모와 재료의 사용은 찰스황태자의 캠페인에서 가장 신랄한 비난을 받고 있는 건축물로 존재하고 있다.

1970년대에 런던의 국립미술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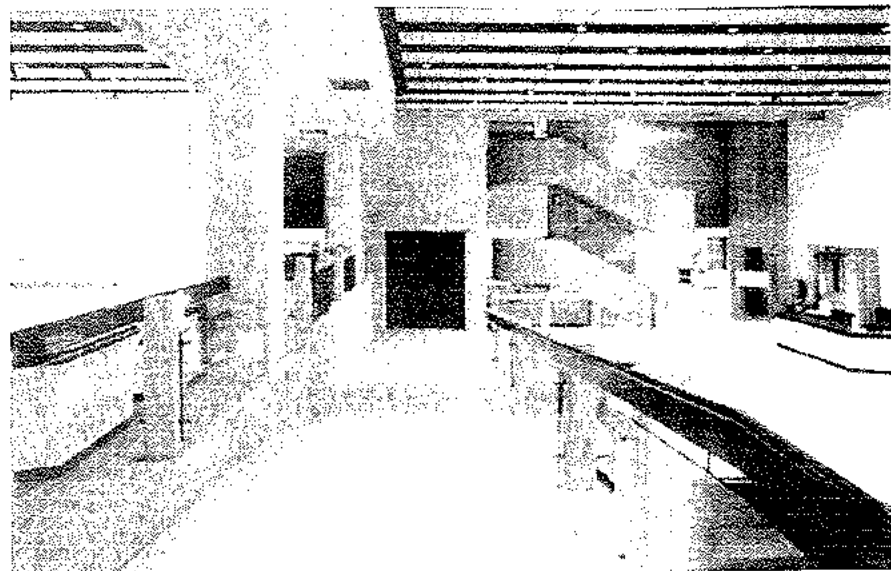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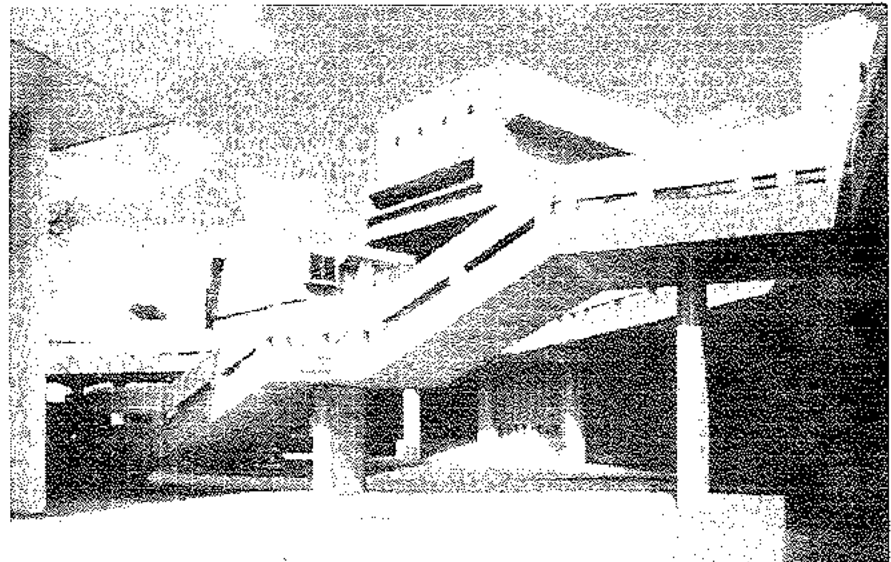


그림 5 헤이워드 갤러리, 런던.

테이트미술관의 증축계획이 결정되었다. 테이트의 경우를 보면 외부형태에서 미즈의 상자모양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천창으로부터의 조명을 위한 계획으로 격자모양의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공간은 당시 널리 주장된 융통성

공간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탁트인 융통성 공간은 미술품 전시에 대한 불확정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그림들의 전시공간으로 중요시되는 공간의 비례가 알맞게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국립미술관의 북쪽증축계획은 정부가

지정된 건축가들에 의해 1975년에 완성되었다. 전시공간들은 루브르에 의해 조절되는 천창으로부터의 효과적 조명을 위해 계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명계획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인하여 좁고 높은 그다지 우아하지 않은 비례를 가진 전시공간을 계획하였으며 이것은 항상 임시적 전시공간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고 있다.

글라스고우의 부렐박물관은 부렐이라는 기업인으로 부터 기증된 개인 소장품들을 위해 1971년에 공모전을 통하여 완성되었다. 당선된 바리 가슨(Bary Gasson)의 디자인은 수정을 거쳐 12년 후에 완성되었다.

이 박물관은 글라스고우의 한 공원내에 위치하여 나무숲을 이루는 수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계획된 것이 인상적이다. 계획 당시 건축가가 마음에 품었던 두가지 사항은 공원이라는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건물과 완전히 고정된 상설전시공간을 가진 미술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생각은 이 성공적인 박물관의 전제조건이 된 것이다.

긴 형태의 주 전시공간의 한 면을 유리벽으로 계획함에 있어서 나무숲과 유리면이 거의 닿을 듯하게 근접하여 위치하였으며 이것은 예술의 감상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연에 대한 경험도 즐길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건축개념은 코펜하겐근교의 루이지아나미술관과 알바알토의 건축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전시공간 또한 4000년의 기간에 걸친 여러지역의 전시품들을 연대별, 품목별로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감상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동시에 주 전시공간을 건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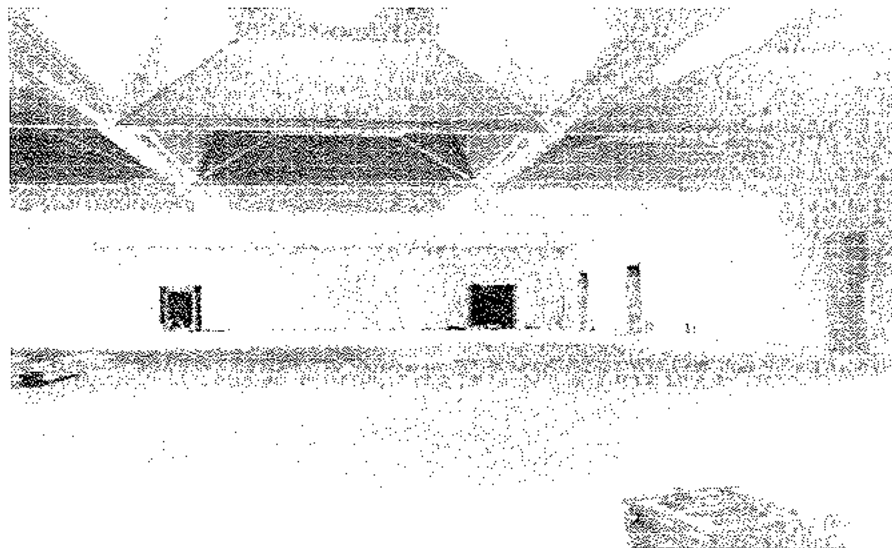


그림 6 Tate 갤러리, 런던.

언제든지 다른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계획되어졌다. 부렐이 외부형태는 아주 간단하게 보이며, 스테인레스 스틸, 유리, 돌 등의 재료를 효과적으로 매우 절제하여 사용하였다. 이 박물관의 성공의 배경에는 건축가가 계획전에 전시될 예술품들의 성격과 전시방법을 미리 알고 있음으로서 각각의 전시품을 세심하게 고려한 전시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었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의 영국은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건축가 노만 포스터와 제임스 스틸링에 의해 디자인 된 두개의 새로운 미술관을 보게 되었다. 그 이후 1991년에 개장된 국립미술관의 세인즈베리동은 공모전을 거쳐 당선된 미국의 건축가 로버트 벤추리에 의해 계획되었다.

1978년에 완공된 포스터의 예술을 위한 세인즈베리 센터는 아스트 앵글리아 대학의

캠퍼스내에 위치하여 미술사와 예술교육과 전시라는 분야에 현대 건축의 모든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 이 건물에서 포스터는 예술을 위한 건물의 디자인에 초기 기본 건축형태인 헛간의 의미를 주는 개방된 큰 전시공간을 계획하였다. 하이테크를 과감하게 사용하여 디자인되었고, 예술을 위한 창고의 성격을 띤 건물의 내부는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조금이나마 분리하고 있다. 전시공간은 진열되고 있는 전시품들과 건물의 규모와는 비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융통성을 가진 열려진 공간의 예술품 전시에 대한 적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제임스 스틸링의 클로아 미술관은 테이트미술관의 증축계획으로 터너의 그림들을 위해 계획되었다. 터너의 그림들의 성격으로 인하여 전시공간은 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빛이 가장 중요시되는 터너의 그림들을 위하여 천창으로부터의 조명에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건물 외부를 보면 주변의 환경에 조화되도록 그러나 적극적인 방법으로 계획되어졌다.

1994년에 완공된 국립미술관의 세인즈베리동은 기존 건물의 입면에 너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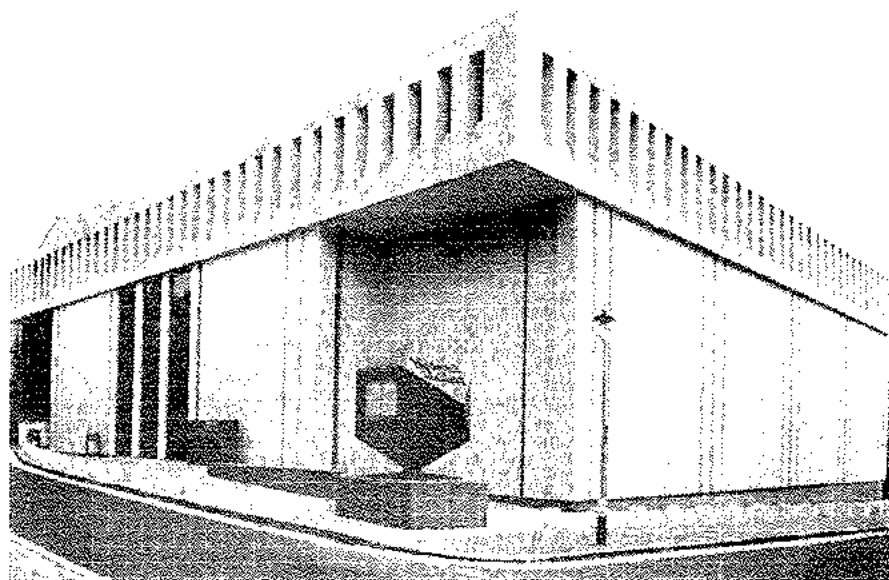


그림 7 국립미술관, 북쪽종축 런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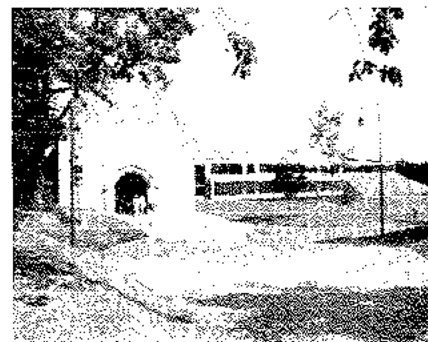


그림 8 부렐박물관, 글라스고우



그림 9 세인즈베리센터,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학

순응하였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초기 르네상스 작품들을 위한 전시공간으로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런던의 중심지의 하나인 트라팔가스퀘어에 면해있는 건물의 정면은 기존 국립미술관의 고전적 입면과 형태와 거의 구별이 안될 정도로 절제되어 개획되어 있으며, 이러한 외부형태와 입면은 최근 영국의 보수적 건축성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내부의 거대한 계단은 원형의 알테스 박물관에서부터 유래된 것으로 전시공간으로의 접근을 엄숙하게 만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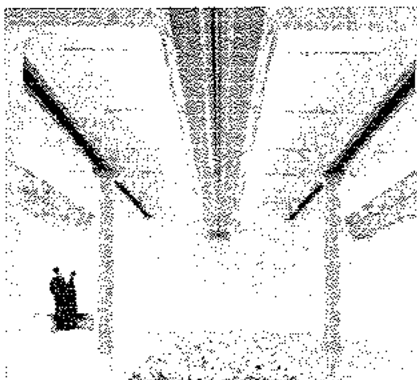


그림 10 클로아 갤러리, 런던.

있으며, 전시실의 구성과 연결은 존 손의 덜위치 미술관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이 건물의 1층과 2층에는 전시이외의 기능을 가진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즉, 휴식공간, 판매공간, 교육공간, 정보코너 등 관람객들을 위한 시설들로서 미술관의 방문을 더욱 보람되게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미술관들의 노력은 최근에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최근 영국의 미술관들의 건축형태는 보수적 경향을 따라 고전주의 건축을 표방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로저스나 포스터 등의 하이테크 건축가들에 의해 전시기능과 신기술을 접합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전시공간에 있어서는 18~19세기 유럽의 전통적 박물관들의 몇개의 기본형태들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방들로 연결된 전시공간과 천장으로부터의 조명은 그림을 보여주기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인 대중교육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개념의 변화 또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는 전시방법이나 미술관 관리·운영에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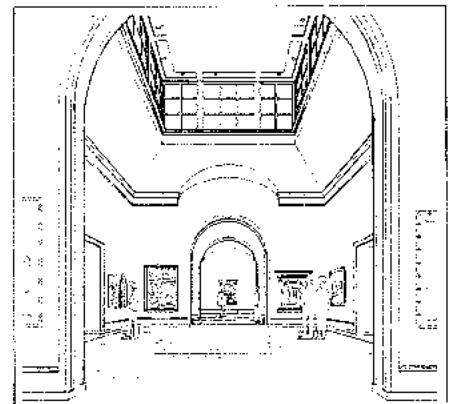


그림 11 국립미술관 증축, 세인즈베리동 런던.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주기성이었던 예술품의 보존·전시 이외에 이들을 대중에게 알리는 적극적 역할로 인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각종 서비스공간, 휴식공간, 교육공간 등의 다양한 공간들의 탄생을 가져왔다.

따라서 전통적 박물관들의 단순한 공간형태를 유지, 발전시키는 전사공간과 보다 다양하고 친근감 있는 형태의 타기능의 공간들이 최근의 미술관이나 박물관 건축의 특징이라 하겠다.

도심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I)

—權利變換에 관하여—

Downtown Redevelopment Enterprise-It's Disposal by Management Planning

崔燦煥/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Choi, Chan-Hwan

목 차

1. 도심재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2. 도심재개발 사업의 시후 평가
3. 도심재개발 사업의 기법
4. 도심재개발 사업의 지역선정과 구역지정
5. 도심재개발의 외국사례
6. 도심재개발의 관리처분

7. 도심재개발 사업의 정책과제
8. 도심재개발의 시설기준
9. 도심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의식
10. 도심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11. 풀란주텍 재개발 사업
12. 도심재개발 사업의 제도개선

1. 서

도심재개발은 눈으로 보기에는 낡은 건물을 헐어내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물리적인 변화라고 간단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재산권에 얽혀있는 수많은 권리자가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재산권의 변동과 독실 그리고 여러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는 점에서 재산권의 변화가 재개발의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심재개발사업이 도시환경개선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공익증진과 피상적인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전후에 일어나는 재산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재개발사업 전후의 권리변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법연구와 함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재개발사업 수행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도심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은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에 설정되어 있는 기존권리를 건축물의 건축 바닥면적으로 변환하여 주는 立體換地가 그 핵심이 된다. 입체환지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환지방법이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면적인 것임에 비추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하는 환지방법으로서 기존 부동산에 대한 평가와 감정가격의 산정, 그리고 기존권리유형과 그 평가 및 권리변환 방법 등 모두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며 뚜렷하게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입체환지의 기법이 활용되는 국가도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 기법개발도 미미하다. 즉 기존권리를 수용 보상해서 재개발하는 경우가 아닌 토지구획정리 사업방법에 의한 재개발을 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된 국가에(독일·일본·한국 등) 한정되어

있다.

토지구획정리방법이 우리나라 도시개발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고 많은 기여를 했지만 미개발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 비교적 쉬운 기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존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기존지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심재개발사업의 입체환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재개발의 입체환지 기법인 관리처분계획을 권리변환과 권리조정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도심재개발의 핵심적인 원리를 알고 그 適否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보다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기존 권리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구획정리 방법에 의한 입체환지방법이 보편화되어 있고 바람직한 재개발수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합리적인 입체환지 기법을 개발해야 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해서는 권리변환과 조정에 대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서 권리변환과 권리조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2. 관리처분상의 권리변환

관리처분상의 權利客體가 되는 토지 및 건물의 평가방법을 고찰하고 權利主體의 유형과 수에 따른 관리처분상의 권리변환을 살펴보고 이러한 권리가 재개발 전후에 어떻게 변환되는지의 기준 및 변환과정상의 유형과 이것이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수행을 수월케 하며 권리조정의 합리성을 제고한다.

1) 부동산의 평가

부동산의 평가방법은 일반적으로 대상부동산의

再生産原價(Reproduction Cost)에 減價修正을 하는 復成式評價法(Cost Approach)과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된 가격에서 접근하는 實買事例比較法(Market Data Approach—市場資料比較法) 및 예상되는 순수익에 착안한 收益還元法(Income Approach)의 3가지 방법에 의해 가격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가수정은 부동산의 잔존가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년수를 기초로한 정액법, 상환가금법과 관찰에 의한 관찰감가법, 양자를 병용한 방법이 있다. 감가수정은 감가상각과는 그 개념이나 사용목적, 기법 등 근본적으로 다르다.

매매사례비교법에서는 현재의 정상적인 가격을 알기위해서 특수한 매매사례인 경우에는 특수 사정을 감안한 事情補正을 하고 또한 거래시점과 현재와의 시간에 따른 가격변동을 고려한 시점수정을 한다.

수익환원법은 부동산잔여법(Property Residual Technique)인 토지잔여법과 건물잔여법의 실태를 중심으로 규정하며 순수익의 산정법으로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고 토지 및 건물의 개별환원이율은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토지 5~7%, 건물 8~12%로서 토지는 지방별(도시<농촌), 용도지역별(상업<주거<공업)로 다르며 건물의 경우 용도별(공장<주택<사무소<점포), 구조적 견고성(강<약), 상태(양호<불량) 등에 따라 환원이율이 다르며 여기에 토지는 비준가격, 건물은 정산가격의 가격구성비율을 가중평균한 통합환원이율(Overall Interest Rate)을 구한다. 순이익의 환원방법으로는 토지는 영구환원방법으로 건물은 유한환원방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건물 및 그 부지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으며,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양자를 함께 평가하는 방법과 이를 분리하여 각각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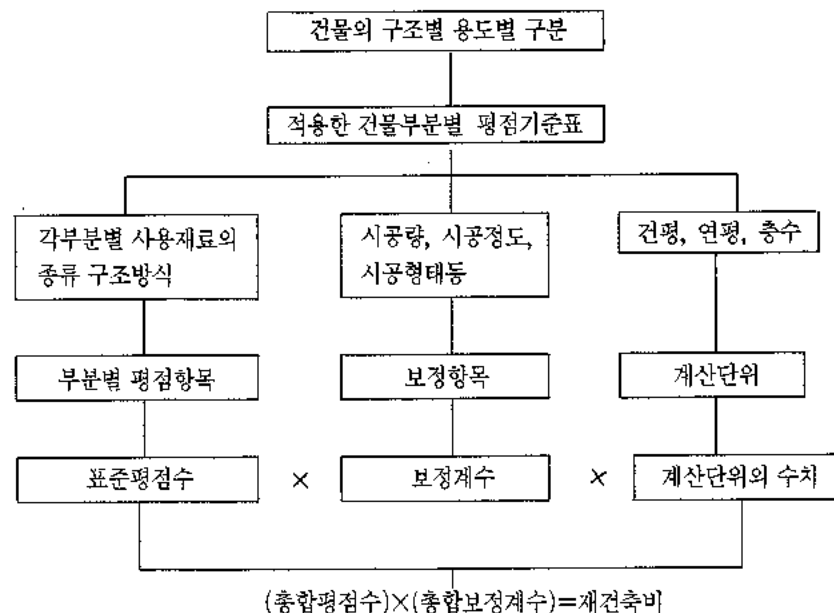
토지와 건물을 같이 평가하는 경우를 보면 재개발지구에서는 건물가격이 토지가격에 비해 극히 적은 것이 일반적이며 성격상 건물이 토지에 종속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건물을 과소 평가할 우려가 있다.

건물은 해체, 개조, 증축, 재건축이 가능하고 감가되는 반면 토지는 불멸, 부증, 영속성, 고정성 등으로 양자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는 부증적 공급과 가변적 수요의 합치성에서 자가가 형성되며 주관적 평가가 개입되어 객관적 화폐가액으로 표시된다.

토지의 실질적인 어떤 내적 객관적 가격을 정해서 경제상태, 수요도 등 여러 외적요인을 특정비율로 보정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지가는 이해관계가 직결된 문제로서 환지, 보류지계획, 건물에 의한 입체보상, 청산금 및 보상금 산출의 근거가 되므로 지가산정의 기준확립과 적용시의 현실 부합이라는 두가지 요구에 합치되어야 한다. 토지의 평가방법은 주로 노선가방식으로 하며 이것은 대지가 그 위치에 따라 용역가치가 달라지고 입지조건에 지역차로 인한 장소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가로계수 접근계수, 택지계수로 路絡價를 책정하여 평가하여 객관성이 있어 널리 채택되고 있다.

건물의 평가방법은 전술한 부동산 평가방법에 준하면 되겠으나 復成式評價方法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 감정평가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건물의 감정가격은 복성가격으로 결정한다. 다만 복성가격이 類推價格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유추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은 수익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감정평가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복성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그림 1〉 권리평가의 관계도

방법은 객관성이 있다.

복합식 평가법은 재건축비를 구하여 감가수정을 하는 것이며, 즉 限價格인 복성가격에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공제를 하여 復成現價(건물의 잔존가격)를 구한다. 재건축비는 부분별 적산법이 많이 쓰인다.

2) 權利類型

재개발에 있어서 권리는 대부분이 민법 제2편에 규정되어 있는 물권을 의미하며 토지 및 건물(부동산)에 관계되는 권리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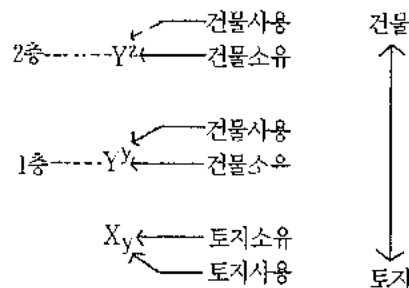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그것에 관계된 권리의 가액과 동일하다. 재개발은 기존의 부동산 권리에 따라 그 가액을 정한 후 건물 및 토지를 개발하여 그 권리가액에 맞추어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토지 및 건물의 평가방법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권리상에 배분하는 문제는 권리구성과 각 권리에 어떠한 비율로 할당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동이상」의 권리, 이익이 동일부동산에 존재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이것은 부동산가격을 권리상에 배분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서 사용, 수익, 처분에 관한 개별가격을 합한 것이 소유권(민법 제211조)의 가격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권리구성에 따라 일정한 부동산의 가격을 그 구성비에 따라 분할하여 배분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재개발에서 부동산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제권리를 평가하여 소멸보상하거나 이행하는 각종 권리변환에 필수적이며 기초적인 개념 설정이라 볼 수 있다.

부동산이 여러 종류의 권리가 있으나 권리유형을 토지소유, 토지사용, 건물소유, 건물사용에 따라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상에서 2층건물이 있을 경우 이러한 4가지 권리관계를 살펴보면 토지소유자(X)와 토지사용자(Y)가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토지사용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건물에서 2층을 Z에게 借家한 경우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런 4가지 권리관계가 관계자수에 따라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를 분류하면 표1과 같다.

토지나 건물이 평가액이 산정되면 소유, 사용에 어떠한 비율로 가격을 배분하느냐에 따라 관계권리자의 관리가액에 큰 차이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표 1〉 권리유형의 분류

관계자수	권리유형						
1	P ₁ 개인 단독 소유, 이용						
	$\frac{A^A}{A^A}$						
2	P ₂	P ₃	P ₄	P ₅	P ₆	P ₇	P ₈
	$\frac{A^A}{A^A}$	$\frac{A^A}{B^A}$	$\frac{B^A}{A^A}$	$\frac{A^A}{A^A}$	$\frac{A^A}{B^A}$	$\frac{B^A}{A^A}$	$\frac{B^A}{B^A}$
3	P ₉	P ₁₀	P ₁₁	P ₁₂	P ₁₃	P ₁₄	
	$\frac{B^A}{C^A}$	$\frac{C^A}{B^A}$	$\frac{C^A}{C^A}$	$\frac{C^A}{A^A}$	$\frac{A^A}{C^A}$	$\frac{A^A}{B^A}$	
4	P ₁₅ :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이용자가 모두 다름						
	$\frac{B^A}{C^A}$						

개발사정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토지소유 4, 토지사용 3, 건물소유 2, 건물사용 1의 비율로 배정된다면 P₁₀과 P₁₃의 관계권리자별 권리비율은

P₁₀의 경우 A=1 B=4 C=6이 되며,

P₁₃의 경우 A=3 B=3 C=5가 된다.

그런데 같은 권리에 관계권리자가 많으면 배분받은 총가액을 가지고 구성비에 따라 특정비율로 다시 배분하면 된다.

3) 권리변환의 기준

권리변환은 종전의 권리를 새로운 권리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권리변환은 토지구획정리수법을 사용한 재개발사업에서 행해지며 전면매수방법에서는 종전의 권리를 전부 매수하는 관계로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권리변환이 불필요하다. 민간조합 또는 법인에 의하여 재개발하는 경우에는 거의 권리변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각 권리에 대하여 어떻게 변환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 가운데 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시설건축부지(대지)내의 토지는 합필되어 일필의 토지로 되고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가 공유한다. 일필지일건물의 원칙이 적용된다.

2) 대지상에 건축물의 소유를 목적하는 地上權이 설정되어 이 설정에 따른 손실 보상으로서 토지소유자에게 시설건축물의 일부분이 부여된다. (건물의 구분소유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민법 제279조)이다.

3) 종전의 借地權은 소멸하고 이것에 대한 시설건축물의 일부가 부여된다.

4) 종전의 건축물은 시설자에게 귀속되고 이것에 대한 시설건축물의 일부가 부여된다.

5) 종전의 借家權은 소멸하고 차가인은 종전의 건물소유자가 취득한 시설건축물의 일부상에 차가권을 취득한다. (물상대위)

종전의 건물소유자가 권리의 변환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종전의 건물소유자에

대신하여 차가인의 건물소유자가 된다.

차가권은 專賣權과 賃借權을 말하며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할 권리(민법 제303조)이다.

임차권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불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18조)

6) 抵當權 등의 擔保權은 그 목적대가의 권리의 변환에 응하여 새로운 권리상에 이행한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를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무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민법 제356조)이다.

7) 권리변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 地役權(일정한 목적물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민법 제291조) 등의 용익권은 소멸하고 보상금이 지급된다.

8) 시설건축물중 종전권리에 대한 지급분을 제외한 부분은(유보안)은 시행자에게 귀속한다.

권리변환의 기준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 2〉 권리변환의 기준

종전권리	변환원칙	변환후 권리
① 토지소유권	토지의 병합 지상권의 설정	대지의 공유지분의 취득 (종전 토지소유자만) 토지권의 공유지분의 취득 건축물일부의 구분소유권취득 (전층공유권+공유지분) 토지권의 공유지분의 취득 건축물일부의 구분소유권취득 건축물일부에 관한 새로운 차가권 취득(설정)
② 차가권	착감	토지권의 공유지분의 취득
③ 건축물소유권	시행자에 귀속	건축물일부의 구분소유권취득
④ 차가권	착감 또는 物上代位	건축물일부에 관한 새로운 차가권 취득(설정)
⑤ 토지및건물에 관한 기타 의 권리		
용익권	착감	보상
지역권	착감	보상
저당권	채무유요	일기 각권리상에 이행
⑥ 공작물 竹木土石	착감	보상

이상의 권리변환의 기준은 원칙형이며 사정에 따라 일반적인 원칙에서 변형해서 권리변환을 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도시재개발법에 의하면 두가지 특별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1) 조합의 경우 시설지역구내의 관계권리자의 전원 동의를 얻게 되면 자유로이 권리를 처분할 수 있고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거나 토지를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건물의 구분 소유를 하지 않는 것 등 각종의 권리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2) 지방공공단체나 주택공단의 경우에는 지상권설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권리변환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대개 시설건축물일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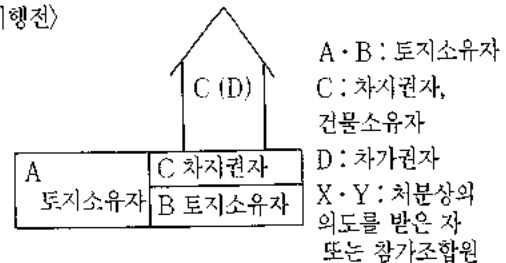
시설건축대지의 공유지분을 함께 묶어 취득한다.

1)의 경우에는 관계권리자의 전원 동의이므로 다양한 권리변환방법이 나타날 수 있으나 2)의 경우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건물상에 비례배분하여 건물상을 가진 사람은 대지소유권의 공유지분을 함께 취득하게 되므로 별도의 지상권설정이 불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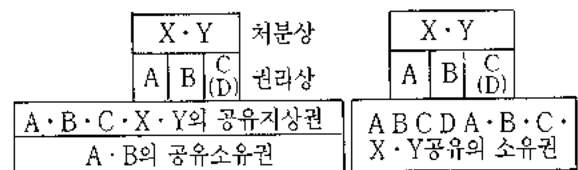
원칙형과 특칙형을 시행전의 권리관계에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일반적인 건축물은 원칙형이 많아 건축물의 처분상을 받은 경우는 토지의 공유소유권의 지분을 주지 않고

(시행전)



(시행후)



원칙형

건물구분 소유권 자는 전부 공유지상권을 가진다.

D는 차가권자이므로 C의 권리상에 차가권을 가진다.

특칙형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는 전부 대지의 공유소유권을 얻게 되어 지상권이 불필요하다.

원칙형에 비해 C·X·Y가 대지 공유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림 2〉 원칙형과 특칙형의 시행전·후의 권리관계

공유지상권만 설정하는 원칙형이 많고 아파트의 경우는 거의 모두 소유권의 공유를 하는 특칙형이다.

4) 권리변환의 유형

권리변환의 유형을 재개발전후에 따른 권리변환관계를 고려하여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종전의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

이것은 매수 또는 보상으로 종전의 권리가 일단 소멸되며 신권리로 변환, 이행되지 않는 경우로서 그것에 대해서는 개발전의 권리평가와 조정(1차 조정)만 하면 되고 개발후의 권리조정(2차 조정)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종전권리의 평가만 공정하게 하여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이나 기타의 공작물, 축목토석 등에 관한 권리로서 보상으로 일단 소멸되고 개발후 별도의 약정에 의해 다시 갱신될 수는 있으나

계속 유효하게 권리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개 권리평가와 조정이 용이한 편이나 이러한 권리가 많을수록 1차 조정이 복잡해지며 전면 매수방법은 전체권리를 소멸시키는 수법을 말한다.

2) 종전의 권리가 그대로 이행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권(저당권, 가등기 등)은 개발후의 각 권리상에 그대로 이행되며 따라서 권리의 평가, 조정이 비교적 용이하다.

3) 종전의 권리가 형태를 변화하여 이행되는 경우

종전의 권리가 변환 이행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권, 차질권, 건설소유권이 있다. 토지를 병합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면 토지소유권은 대지소유권의 공유지분 형태로 바뀌면서 별도로 지상권의 공유지분과 건축물 일부의 구분소유권(진용부분의 소유권과 공용부분의 공유지분)을 새로 취득하게 된다.

4)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에 대금을 투자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신규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권리가 보상으로 소멸되는 경우(1)와는 반대로 개발전의 권리평가와 조정은 필요없는 대신 개발후의 권리평가와 조정이 요구된다.

투자액에 대하여 지상권의 공유지분과 건물일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건물상의 잔여부분을 매각처분함으로써 생긴 것이다.

이러한 권리변환에 따르는 권리의 이동에는 다음의 4단계가 있다.

권리의 제1차 이동은 종전의 권리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며, 권리의 제2차 이동은 종전의 권리를 원칙으로 그대로 이동하지만 일부를 감소 또는 공동 소유한다.

권리의 제3차 이동은 종전의 권리를 동가치의 다른 권리에 바꾸어 놓는 것(권리변환)을 말하며 입체환지, 飛換地 이외에 사업구역외의 권리로 바꾸는 예도 포함된다.

권리의 제4차 이동은 종전의 권리를 자산으로 대체해서 옮기는 것이다.

5. 권리별 권리변환

재개발전후의 권리변환 및 신권리취득관계를

실행자와 관계권리자별로 나타낸 것이 <그림 3> 이다.

형태로 변환하고 신규건물의 일부구분소유권과 함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또 건물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도 대가로 신규건물의 일부구분소유권을 제공하게 되며 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으로 보상금, 건물철거비, 이전비, 신규건물의 건설공사비로 사용되며 대가로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권을 부여하게 된다.

건물구분소유권은 지상권의 지분과 건물상의 소유권이며 건물상의 소유권은 전용부분의 소유권과 공용부분의 지분이다.

건물의 공용부분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보일러실 등 공동사용이 필요하다.

신규건물을 건설해서 종전권리의 이행(변환)분에 대한 건물상을 주고 잔여상은 매각처분해서 공사비, 보상금 등의 재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것이 개발로 인한 이익금이 된다. 건물상의 매입하는 사람이 투자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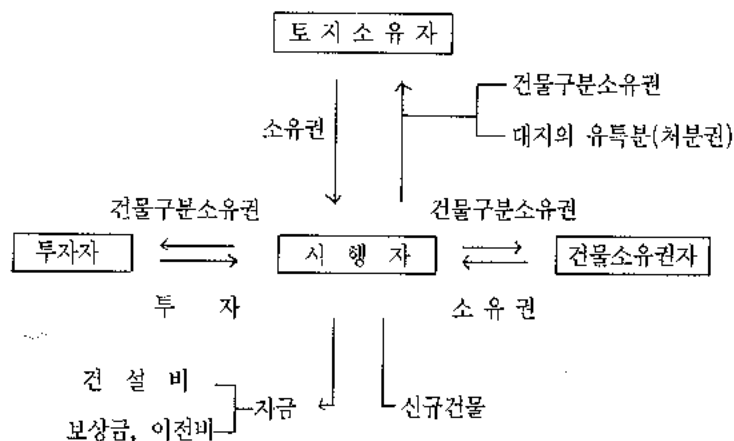
항상 권리의 수수에는 등가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개발전의 총물량과 비용보다 개발후의 총물량이 많으면 개발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며 개발후의 총물량이 적으면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개발이익이 생길 경우 시행자가 관계권리자로 구성된 조합이라면 사업의 관계권리자에게 특정비율로 배분되었으나 공공기관이라면 사업의 이익금으로 귀속되며 다른 사업집행의 자금으로 전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성격을 지녀 손실을 가져온다면 민간개발은 유도될 수 없으므로 시행자가 공공기관이 되어 손실을 감당해야 할 것이며, 이때는 재개발사업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보다는 그 사업으로 인해 지구외부의 경제적 효과가 증대되거나 비경제적인 효과가 경제적인 손실보다 클 경우에 재개발의 합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공공정책적인 면에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1) 토지소유권의 권리변환

원래 소유권이란 사용, 수익, 처분에 관한 권리로써 토지소유권의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사용에 대한



<그림 3> 권리변환 관계도

권리... 종전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 건물구분소유권을 가진 전권리에 배분되므로 건물로 구분소유권을 할당받는 지상권은 종전에 비해 감소되게 되므로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건물구분소유권을 급부받게 된다.

수익에 대한 권리...임대차의 개념인 사용료를 받게 되는 것으로서 토지를 소유하여 수익하도록 투자된 금액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셈이며 토지사용자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받는 대신에 이에 상응하는 건물상면적으로 대체되고 건물일부에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처분에 대한 권리...재산물건으로서 교환가치는 종전과 등가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한다. 대지의 공유지분의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전후의 조건을 상쇄시킨다.

토지구획정리의 개념으로 불매 자가상승분에 상당하는 면적을 공공용지나 보유지로 둘 수 있으며 자가상승에 비해 감소로 인한 손실이 클때는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건물구분소유권을 급부하여 균형을 유지한다. 처분에 대한 권리를 저지권으로 하여 변환한다.

이와같은 개념을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4>이다.

<그림 4>를 보면 사용, 수익에 관해서는 지상권을 설정하여 건물상용 급부받게 되며 처분권은 원사지소유자에게만 제공된다. 건물이 수명을 다하게 되어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건물구분소유권은 소멸되고 처분권에 해당하는 대지공지분을 가진 사람만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종래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건물이 존속하는 한 건물의 구분소유권으로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된다.

(2) 차지권의 권리변환

토지소유자는 수익, 처분에 관한 권리에 상당하는 신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차지권자는 사용, 수익에 대한 권리에 해당되는 신권리를 급부받게 된다.

차지권은 지상권의 공유지분의 형태로 바뀌면서 신규로 건축물의 일부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받게 되며, 건물소유권은 건물일부의 구분소유권으로 되면서 토지권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여기서 보면 대지소유권의 공유지분은 종전 토지소유권자에게만 교부되고 지상권의 공유지분과 건물의 구분소유권은 같이 설정되어야 한다.

지상권이 타인의 토지에 있는 어떤 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 정의되므로(민법제279조 참조) 이러한 권리가 설정되지 않으면 토지소유권없이 건물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지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을 별도로 인정하여 각각 독립해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토지권의 설정이 필수불가결하고 건물소유권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종전의 권리가 그 형태를 변화하여 이행하므로 권리의 1차평가 및 조정과 함께 2차평가 및 조정이 필요하며 개발전후의 권리평가가 가액 불변상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등가로 변환시키는 것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경우가 재개발에서 권리변환상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관해서 상세한 것은 뒤에 기술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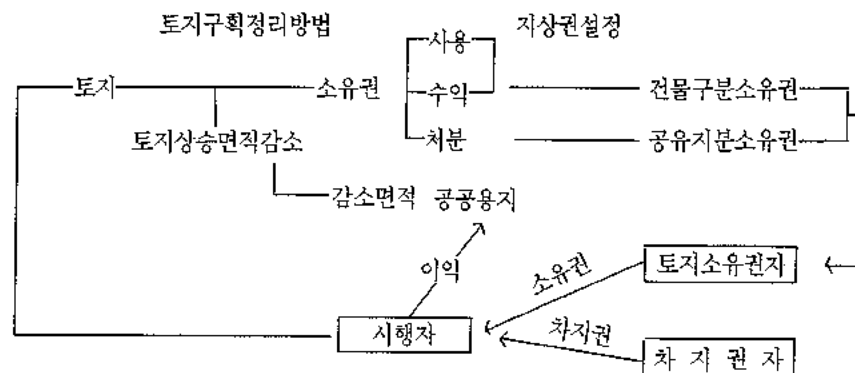
(3) 건물에 관한 권리변환

종전건물의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건물구분 소유권으로 변환되며 종전의 지상권(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사용)은 개발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대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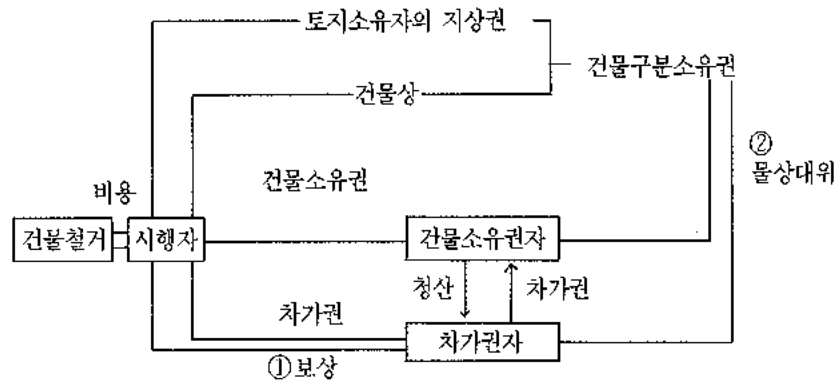
物上代位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 그 시행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설정된 토지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또는 임차권은 그 권리의 설정자가 분양 신청한 경우에는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시설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설정해 주는 것이다.

도시재개발법 제55조에는 물상대위는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 등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금은 저당권설정자가 지금을 청산금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급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차가권은 건물소유자에게 주고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있으며 가장 흔히 쓰인다. 차가권을 시행자에게 明渡하여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며 시행자가 종전권리에 상당하는 만큼의 새로운 건물에 대한



<그림 4> 토지권리 변환관계도



〈그림 5〉 건물 권리변환 관계도

차가권을 부여하는 물상대위를 할 수도 있다. 시행자는 건물절거로 인한 종전건물의 가격이 손실을 보게되며 또한 절거비용을 들이고 이것은 개발이익으로 충당한다.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은 소유자가 금전으로 清算解除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자가 보상으로 소멸시키고 소유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가액의 권리를 감하여 지급하면 된다. 그런데 담보권이 종전권리 가액보다 클때는 시행자가 보상하여 소멸시킬 수 없으며 소유자가 그 저당권을 포기하더라도 급부받는 신권리에 담보권을 이행하면 된다.

소멸되는 권리중 종전소유권에 존속되어 負(一)의 역할을 하는 것(예 用益權)은 권리변환시 보상금지분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감하여 소유자에게 신권리를 지급하고 기타 공작물 등의 권리소멸은 이행되는 종전권리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보상으로 소멸되며 타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반드시 상기의 원칙에 따라 권리가 변환되는 것은 아니며 대체로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별도의 규약에 의해 바꿀 수 있다. 소유권은 地上權:抵地權의 비율을 대개 9:1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지가의 90%가 건물의 구분소유권에 배분되고 있는 셈이므로 지가가 높은 지역일 수록 배분받는 상면적도 많게된다.

차가권은 일단 보상소멸되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권리자가 조합원으로 개발에 참여하게 되면 소유권과 거의 같이 생각하여 평가하고 권리조정을 할 수 있다. 단 건물소유자의 권리에서 차가권에 해당하는 만큼을 줄여서 변환하면 된다.

3. 소결

공정한 권리평가와 권리변환 및 조정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상 가장 어려운 문제로서 개발전후의 권리가격이 불변되는 원칙을 설정하여 사업을 집행하되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를 병합하여 별도의 지상권을 설정하여

건물상에 배분하고 원토지소유자에게 공유지분한다.

둘째, 공동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을 주되 조합이나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권리의 변환형태에 따라 몇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멸되는 권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변환되는 권리는 등가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넷째, 개발이익배분상에는 종전건물에 관계된 권리는 인정하지 않으며, 토지에 관한 권리만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조합의 별도 규정을 두어 조정하여 적용시키는 방법도 생각된다.

재개발사업을 추진 또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민원과 분쟁의 하나는 이해관계에 얽혀진 재개발사업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다.

재개발전후의 권리관계가 정확하여 정립되지 않는한 끊임없는 분류와 민원이 발생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와같은 관계를 보다 객관화하고 공정성을 가지도록 뒷받침 할 수 있다.

건축, 건축인 그리고 COMPUTER

Architecture, Architect and Computer

朴贊遠/한국조형건축사사무소(인천)

by Park, Chan-Won

머릿말

이렇게 펜을 들면서 수많은 선후배분들이 계신데 원고를 쓴다는 것이 무척이나 송구스럽기도 하고 본 협회 전산 위원회의 기라성 같은 회원들이 계신데 펜을 들어 Computer 관련 원고를 쓰자니 망설여진다. 하지만 사무자동화 및 전산화 하려는 회원들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된다면 하는 바람에서 써보니 우리 대한민국 건축계를 이끌어 가는 선후배님들께서 너그러운 눈길로 보셨으면 한다.

그리고 선후배님들에게 힘찬 손 내밀어 본다.

서로 연구하며 노력하자고...

우리와 대한민국 건축계를 위하여...

1. 건축과 인간, 그리고 자연 !

오늘도 현장에서 콘크리트 강도를 파악코자 코야드릴로 시료를 떼와 시험소에 의뢰하면서 몇달전 준공한 병원 의사 선생님과 식사하며 나누던 대화가 생각난다. 우리는 철근 콘크리트니 철골조니 조적조니 하며 구조에 대한 안전규칙도 만들어 가며 실험에 따른 자료를 갖고 구조계산을 하며 6층이상은 내진설계적용 등을 하며, 균열이 발생하면 규준치를 정하여 그 이하면 가능하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창조주께서 만드신 인간을 보면 아! 하는 감탄사밖에 할말을 있게 된다. 우선 뼈대는—외국자료를 보니—대퇴골(넓적다리의 뼈)은 충격하중이 무려 1,400kg/cm²에서도 견딜 수 있고 280kg/cm²의 응력을 지탱하기도 하면서도 무게는 콘크리트에 비해 엄청나게 가볍다. 굵어봐야 불과 직경 2.5cm이며 가운데는 비어있는 경이스런 구조를 보면 감탄이 안나올 수 없고 딱딱한 달콤한 사탕 등을 깨물때 웬만한 압력으로도 깨지지 않는 사탕을 위에서 누르는 것이 아닌 아랫턱뼈를 위로 치올려 어렵잖게 부수어 단맛을 즐기는 것을 보면... 또한 물속에 들어가보면 눈, 입등의 벌어진 틈이 닫혀버리면서 불한방을 안새고 수많은 땀구멍이 있고 수축이완이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방수를 하며, 수많은 굴곡이 있어도 단 한군데 보난곳이 없으며, 구조적으로 완벽한 캔틸레버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순간적인 엄청난 충격으로 발뒤꿈치가 찢리는 Punching Shear가 없도록 설계(?)된 것을 보면 창조주께서 세계적인 건축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면 창조주에 대한 모욕일까? 사랑하는 연인과의 포옹할때 쓰는 손아귀의 양력과 펀칭 등을 보면 재차 감탄 할뿐이다.

자연의 모든 것은 건축의 근본이라는 선배님들의 문구를 되새기며 회물아치는 바람속에 서있는 나무줄기에서, 하늘거리는 코스모스 줄기에서, 날아다니는 나비와, 떨어지는 빗방울에서도, 아주 단단하지도 않고 물처럼 흐물거리지 않는 흙(대지)에서 또다른 창조주의 건축철학교훈을 배운다.

그리고 “建築”이라는 단어에 자신의 예소함과 숙연함을 함께 느끼며, 또한 철학을 느끼며 인류학적인 사명감을 느낀다.

2. 오늘도 동분서주 하루가 바쁘다 !

오늘도 건축전문 잡지를 읽으며 여러가지 생각에 잠겨본다. 해야할 일이 너무도 많다. 하고 싶은 일들도 너무도 많다. 하고 있는 일도 많다. 꾸준히 배워야 한다. 또한 사무실도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작품도 만들고 싶다. 나 한몸 고생하는 것은 이일을 선택한 당연한 고통이라 생각이 들어도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직원들 고생하는 것은 안스럽기만 하다.

선배님들의 말씀대로 건축의 길은 걸어 갈수록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많은 것같고 조그마한 깨우침이 자만심만 키운 것같으며 점점 왜소해 보이고... 정부에서도 건축을 전공한 건축인들 중에도 그래도 좀 더 나은 이들을(60점이상) 나머지 부족한 부분(40점부분)을 연구하며 우리나라의 건축계를 이끌어 가라는 뜻으로 건축사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화 몇통, 지시 및 협의 하다보면 점심시간... 현장 다녀와서 협의하다 보면 저녁, 계획하고 체크하다보면

오늘도 늦느냐는 집에서 전화...

오늘의 아침이 조금전인데 벌써 노을이 지는 저녁이나 하루가 왜그리 짧은지, 소대끼고 제도판에서 출다와 색연필로 구상하다 보면 그 누가 시계바늘을 한참 돌려놓은 것처럼 덧없이 흘러갔다... 허겁지겁 하루 이틀 1달 2달, 었그제 여름 휴가계획서를 작성했는데 벌써 인하장 주문연락 전화가 날라든다.

3. 존경받는 선배와 아낌받는 후배!

스승과 제자, 사제의 정, 존경받는 은사와 사랑받는 제자, 함께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정겨운 풍경이 우리 건축계에도 있어 흐뭇한 것 같다.

얼마전, 이노책에서 보니 협회장을 지내신 前 회장님께서 김희춘교수님을 고문으로 모시고 함께 작품활동을 하는 것을 보니, 부럽기도 하였다.

노장 원로님은 그동안의 건축활동에서 쌓은 경험과 업적을 바탕으로 펼쳐 나가며 후진들에게 알려주며 자문하여 주고, 젊은의 신세대는 추진력과 새로운 기술, 지식으로 힘차게 한데 어울려 더불어 발전하면 그 얼마나 감동적일까?

얼마전 건축을 잘 모르는 건축주가 노장 회원님께 연성을 높이는 상황을 보았다.

이해타산이 있어 그렇겠지만 건축주가 부친뻘되는 소장분에게 꼭 그런식의 행동을 벌여야 하는가 하는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그 연세에 과거 대학을 졸업할 수준이며 엘리트층이며 과거 화려한 경력도 있으셨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다.

우리 소장세대가 모시며 일선에서 뛰고, 자문을 해주시는 원로들이 함께 연구하며, 토론하고, 타 지역의 기술발전에 뒤지지 않도록 노력하면 자연히 사무실의 직원들이나 분위기가 더욱 좋을 것 같다.

우리 지역회원들 중에 그러한 제도를 실시하는 회원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다 많은 활성화가 되기 위하여는 부단한 공부를 하며 노력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스스로 연구하며 자질 향상도 꾀하고 제대로 존경받고 대우받는 건축인이 되는 풍토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4. 건축인(협회)價

오늘도 거리마다 공사가 한창이다.

많은 건축인들이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있다.

그런데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순수한 우리 건축가들의 마음 같으면 좋으려면 그 중 남이아 어찌되던 남이아 죽을수던 나중에 분양후에 어찌되었던 눈앞의 황금에 눈먼 일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건축인, 건축가들이 꿀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뒤편 설거지까지 감당해야 할 경우도 생긴다.

우리 건축사들이 전생애 그렇게 남들에게 죄를 지은 것이 많은지... 어찌다 회원들끼리 모여 토론도 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같은 종류 비슷한 곤욕들도 있었다. 그런줄 알았으면 미리 상의도 하고 전과자(?)상습 악덕 건축업자의 정보를 받았더라면 쉽게 처리가 되고 미리 대책을 세웠을걸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남들 사정 아랑곳 않고 꼭 내 실속만을 찾는

일부업자들 때문에 피해는 건축인들 뿐만 아니라, 입주자, 관련 공무원, 심지어 같은 계열의 선량한 업자들까지도 고통을 겪는다.

또한 감리때 어느 현장에 가 보았더니 좋은 아이디어로 일반적인 공사비로 양질의 주택과, 건축작품을 만들어 하자가 없는 입주자와 편리함과, 감리 및 설계자들의 의도를 최대한 살리며 진행하는 업자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싶은때도 있었다. 그 얼마나 흐뭇하고 보기좋은 현상이며 지역발전과 지역 시민에 바람직한 건축인, 건설인인가!

열심히 땀흘린 뒤에는 당연히 어느정도의 대가가 있는 것이건만 그 대가를 단시간에 맘도없이 노력도 없이 갈퀴질하라는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 같은 물지각한 건설인들이 더러 있어...

그래서 우리 협회원들이 겪은 경험담, 다른 회원들이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및 자료들을 엮은 실패담과 성공담 등 자료집을 만들면 회원들에게도 도움이 되며 우리 건축계가 보다 나은 발돋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또한 열심히, 성실히, 창의적으로 사공분야에서 활약중인 건축인들을 선정, 건축상 등을 수여하는 제도 등을 설립하여, 의욕을 더 북돋아 주는 것도 고려해 보는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5. 20,000년

어느날, 리디오의 F.M에서, 사람이 태어나 찬란히 빛나는 태양을 20,000년정도 본다고 D.J가 방송을 한다.

오늘도 어김없이 태양은 떠 오른다.

찬란하게 온 누리를 밝히며 밤새 어둡고 스산한 기운을 깨뜨리며...

정말 값진 밝음이다.

계산해보니 요사이 수명이 길어 25,000년정도 볼수 있을 것 같다. 그중 1/5은 세상을 모르고 지내 버린 날들이고, 또한 그중 1/5은 인생의 황혼기에 감상짓어 보내면 남는 것은 3/5의 15,000년정도인 것 같다.

일년, 이년, 삼년... 앞으로 6년후 서기 2000년이 왔을때 나는 그 찬란한 태양을 몇번 더 볼 수 있으며 지난날의 남긴 것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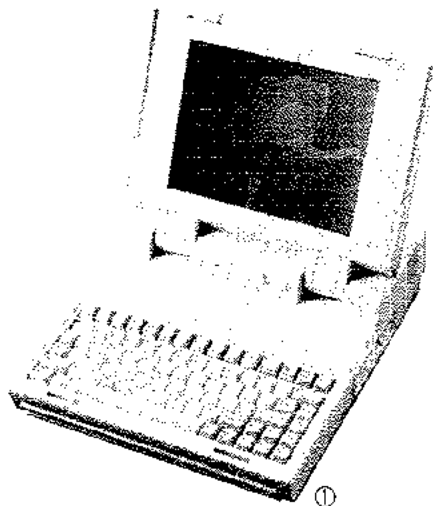
골뎀이 생각할 날이 오겠지. 지하도시와 해양도시, 인텔리전트빌딩, 1996년도의 개방, 멀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Study와 가까이는 수시로 바뀌는 건축관련법, 정신없이 쏟아지는 지침속에서 5, 6종의 전문잡지와 컴퓨터잡지는 큰 제목만 읽기에도 시간이 벅차다. 더구나 컴퓨터 앞에 앉아 그 무슨 보물을 보듯이 들여다보며 키보드 누르다 보면 누구나가 말하듯이 시간 잡아먹는 기계이다. 물론 메뉴얼보며 깨닫는 지식에 보람도 느끼지만, 항상 꾸준히 해야하는 OA와 CAD정보, 통신이용을 익혀야 하는 컴퓨터, 들고다니는 휴대용 Note Book Computer가 활기를 띠고 나오는데 곧이어 손바닥만한 팜탑Computer가 나오니 또한 율하반기부터는 영화관 등의 예매도 모뎀을 통해 사무실에서 할 수 있으니 우리 건축인들이 너무도 할 것이 많다. 후배나 직원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6. 교육

요사이 계산적 슬라이드를 들고 다니며 구조계산하는 구조 전문가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아니, 그 이름도 날리던 Casio, Sharp 계산기도 수급과 경리장부용으로 여직원들에게 밀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것을 졸업전에, 소수점도 애매한 사칙연산을 부지런히 배우며 시험을 보아 누가 빨리 흔들며 답을 산출하나 하는 우스운 시절도 있었다. 그나마 실습을 나와서 설계사무실(당시의 명칭)에 가보니 소수점 이하 몇자리까지도 정확하게 단 1초도 안걸리며 쪽 나오는 것을 보며 우리의 교육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가슴 깊이 느꼈다. 그후 교육도 서서히 변화를 하였건만 계절이 수없이 바뀔 지금도 그 형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안타까움을 더한다. 현장 공사에선 거의 장비 작업이 많고 되도록이면 건축에 조립식의 추세로 이어지는데 과거의 학습만 되풀이 하고 있으니... 우리 실무진들과 협회에서 함께 연구하여 건축교육계를 이끌어 가는 것이 어떨지...

7. 재택근무

벌써 재택근무라는 단어가 생소한 단어가 아닌 자주 듣는 용어 같다. 물론 한글 대사전이나 건축 용어 사전에는 아직 실려 있는지 모르지만... 주로 보험회사 등에서 주로 활용하려는 조금은 장, 단점이 있는 제도 같다. 이제 우리 건축계에도 앞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적어본다. 대도시들은 예전 변화가 주변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조그마한 시가 아닌 거대한 도시로 변하고, 동서로부터 남북의 광활한 경계 그리고 대규모 인구 형성이 되어 있는 도시로 탈바꿈 하였고 교통 사정도 날로 어려워져 가는데 이제 왕복2시간 이상의 출퇴근 4시간이 될날도 머지 않으리라. 머지않아 CAD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계요원은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 1주일에 1일 혹은 토요일을 겸한 2일 정도의 재택근무가 오히려 능률적일 날도 오리라 생각이 든다. 그래서 노트북 Computer로 작업 후 디스켓이나 통신을 이용한 화일 전송은 여건만 허락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을 예감이 든다.



① Note Book Computer

② 모스(MOSS)

토목전용 패키지 교통 공학 단지개발 등의 3차원 서페이스 모델링 분야에 용이하다.

③ 이글/아크로

폴리스(EAGLE/ACROPOUS) 모델의 3차원 형상 표현 기법에 따라 선처리, 면처리, 구체처리 방식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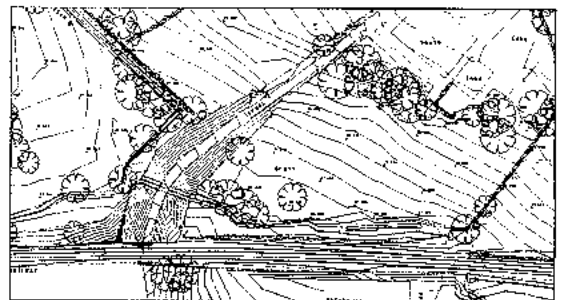
8. 지하공간

얼마전 누군가 대지 90평의 조그마한 땅에 설계를 의뢰하며 고급빌라라 지하에 풀장 및 스포츠 시설을 지하 4층까지 계획을 요청하였다. 이리저리 고민을 하며 우선 지질의 상태가 중요하니 보링테스트를 하여 암반이 아니기를 하느님께 기도한 후 알려달라고 하였다. 점심을 먹으며 생각하니 이미 선진국에서는 지질조사가 끝나 건축물의 지하 계획과 지하철 등 지하 이용계획에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다. 이제 과거처럼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축물이 아니라 대지의 폭등으로 지하층의 이용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가 관계로 지하 3층이상의 건물이 늘어나는 추세에 주차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을 볼때, 도시가스관, 상하수도, 전화, 전기 등 시설라인과 지하수의 상태들을 조만간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자료화하여 우리 회원들도 이용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든다. 항상 분쟁의 요인이 되는 공사중 이웃건물의 피해가 거의 토공사와 관련이 깊은 것을 보면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토공사라 생각된다. 특히 우리 인천 지역은 썰르릉 및 침수지역의 광역화 등의 불리한 지질여건으로 잠시만 방심해도 부동침하 등의 결과 등이 설계, 감리건축인을 괴롭혀 기득이나 과중한 업무와 할일이 많아 새벽부터 뛰는 발뒤꿈치를 무겁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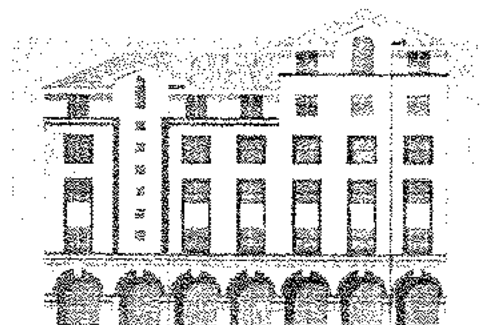
9. 건축과 CAD

캐드, 캐드... 많은 사람들의 옛날에 국민학교 시절 철수, 바둑이처럼 쉽게 부르던 흔한소리다. 대대체 CAD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차라리 고개를 돌려 버리면 어떨까? 꼭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 나이에... 경기도 어려운 이때에...

자! 그럼 많은 분들도 잘하시겠지만 좀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결코 컴퓨터의 사용이 목적이 아니고 도구활용이 중요한 종합예술인 건축을 뒷전에 두고 CAD의 박사가 되면 무언가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닐까? 가끔 후배들이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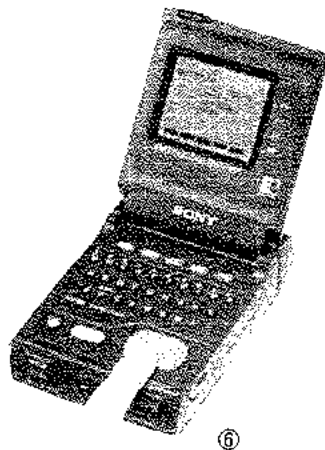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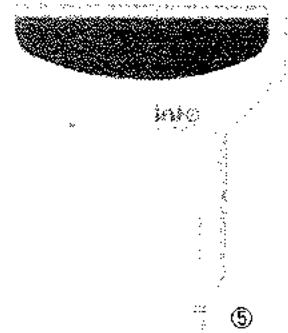
컴퓨터의 미술에 끌려 CAD프로그램(LISP)을 짜고 밤낮 총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애인 눈동자 바라보듯 하다가 몇달 후 목적의식에 외문을 가하며 기로에 서는 것을 종종 보아왔고 상담도 해보았다. 종합예술인 건축이 목적인데 컴퓨터의 활용 중 그것도 일부인 CAD속에서 프로그래밍으로 전락하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고민을 하는 것을 보며 결코 컴퓨터는 도구이지(Tool) 결코 목적이 아닌 것을 강조하여 왔다. 그것도 우리 업무의 절반 비중도 안되는 캐드가 인생의 전부처럼 중독된 것을 보면 차라리 안타까울 정도이다. 주로 O.A쪽과 통신이 더욱 매력적인데...

CAD를 2차원적인 Drawing위주로 CAD를 많이 생각하는데, 2차원적인 평, 입, 단면도와 구조도의 Drafting은 CADD라는 단어가 있듯이 이제 CAD의 개념은 3차원적인 투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니메이션의 단계, 즉 Presentation 측면적인 것과 조경이나 일조권 검토 등의 기능, 법규검토, 단지계획, 도시계획적인 한차원 오른 분야를, 그리고 구조계산, 전적 등의 포괄적인 개념 마인드의 정립이 더 중요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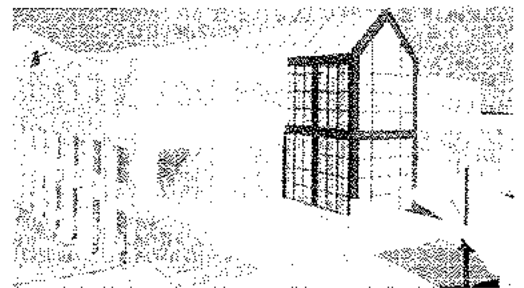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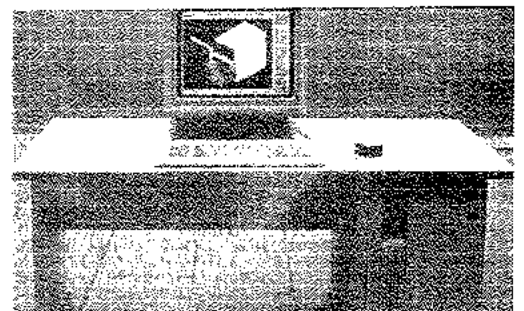
또한, 고건축분야는 그동안 자기 것을 제대로 찾아 지켜야하는 우리건축인들에게는 특히 Computer(CAD)의 장점을 가장 멋드러지게 활용하는 분야라 생각된다. 이제는 선조들의 감탄스런 지혜나 유산을 지킬 수 있고 기하학적인 3차원 지붕, 처마, 다포들의 곡선, 그리고 아름다운 단청과 수없이 반복되는 완자무늬와 기와선들을, 그동안 우리 건축인들이 유일한 운형자의 크나큰 헤택속에서 주눅들어 밤을 세웠다. 특히 잉킹하다가 운형자의 황포와 부질없는 실수가 생길때는 애꿎게 담배와 재떨이로 화풀이를 했던 기억이 난다. 그래픽 분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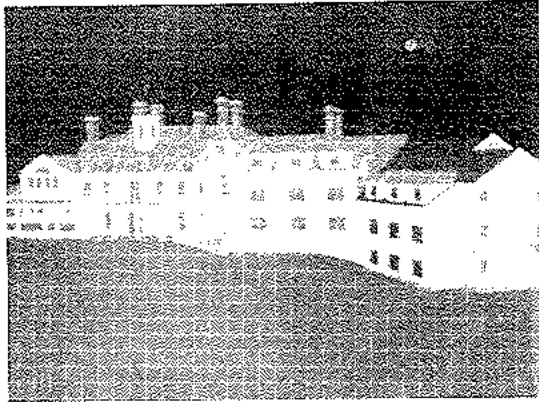


- ④ 복사기방식 스캐너
칼라와 흑백을 모두 입력할 수 있다.
- ⑤ 칼라 핸드 스캐너
- ⑥ 거리에서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디스크맨
- ⑦ CV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능력없이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로 3차원 모델의 기하학적 직표에 의한 자동치수 기입 능력이 있다.
- ⑧ 소나타(SONATA)
빌딩모델링시스템으로 통합화된 정보관리 노력으로 데이터 변환을 빠르게 하며, 스케줄링이 가능하다.



현재 2차원을 지나 3차원적인 면과 Presentation적인 애니메이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고 몇년 후에는 멀티미디어의 활용 등으로 홀로그램과 점박이 되어 입체적인 건물예상도, 그리고 좀 더 나가 현실감(Virtual Reality-가상의 실제)을 넣은 CAD의 활용으로 현상 설계 심의시 심사위원들 각자가 안경 같은 V.R 기기를 쓰고 볼마우스로 움직여 고개를 돌리며 분야별로 건물과 내외부 파악 및 심의할 날이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라 상상이 된다. 또한 엔지니어링 계통이나 현장계통은 구조계산의 결과로 부재리스트의 숫자 입력으로 도면이 자동 제도 되는 것은 현재도 사용하고 있지만 물량산출과 내역서 작성이 설계와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도, 한국 I.B.M의 AES프로그램 연구발표회에서 연구발표회에서 앞으로의 비전을 예측할 수 있다고 느낀다. 예전의 준공 후의 형태를 현장 사진과 투시도의 사진으로 몽타즈하던 기법이 멀티미디어의 영상 조합과 편집기능으로 앞으로 건축 예술세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같은 느낌이다. 단순한 제도 차원의 플로터 도면 뿐만 아니라 칼라무정전 플로터의 도입으로 나날이 새로움을 느낀다. 이제는 투시도 제작 계통의 건축인과 단순 작업의 반복의 용역 건축인들은, 제3의 물결이 걸 건너편에서 푸른 신호등의 점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느끼며 다함께 젊음의 건축인과 경륜의 건축인들과 정감어린 대화를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⑨

10. 정보화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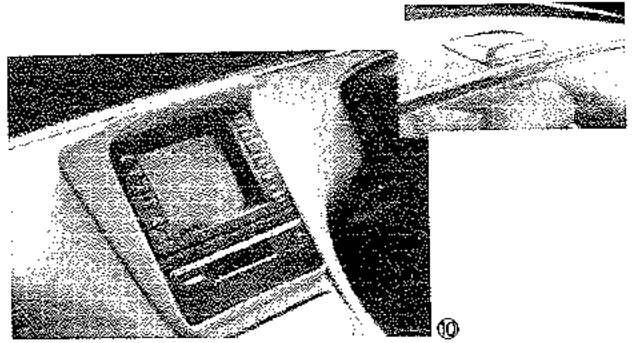
신문에는 예전에 세소식이 인쇄되어 사진과 함께 매스컴의 주역할을 해왔었다. 그래서 1900년대초에는 일 단위의 소식을 접하고 라디오와 TV가 나와 시간 단위의 뉴스가 접하게 되더니 이제 정보통신의 Computer로 순간, 초단위의 신속한 뉴스를 접한다. 신속한 뉴스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뉴스를 얼마전에는 도서관이나 신문사에 찾아가 소풍날 바위밑의 보물찾기 하듯이 이리저리 들추어 기사를 찾던 일이 아련한데 이제는 정보은행을 통하여 지난날이 아니라 작년의 몇개 신문을 접장이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알 수 있고 원하는 단어를 갖고 Key Word 탐색을 하면 손오공 같이 마음대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으니 이시대 1990년대를 사는 축복에 감사할 뿐이다.

몇년 전, 후배가 보여줄 것이 있다고 만나자 하여 점심시간에 그 친구사무실에 간 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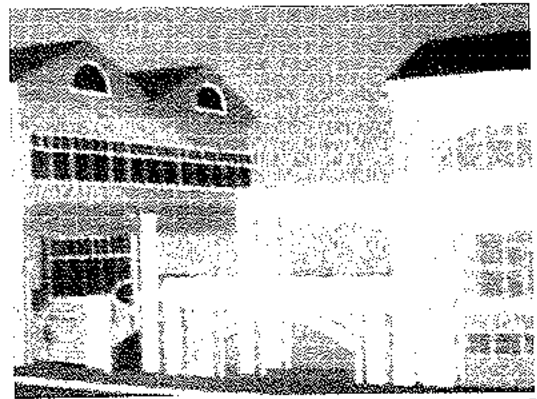
반갑게 반기는 후배가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자 전화 벨소리가 울리며 몇가지 신문의 기사가 쏟아진다. 시간은 12:30분 그러나 뉴스는 12:14분 뉴스였다. 또한 전사회 프로그가 줄줄이 나온다. 국내 및 외국의 정보들이 번호에 따라 쏟아져 나온다. 얼마전 아파트 제건축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자치회장으로 부터 안전진단 기관에 관한 법개정 문제가 있었다는데 자세한 소식을 알 수 있나는 소식을 듣고 Note Book Computer를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전화를 이용하여 통신을 연결하였다. 정부 각 부처 목록중에서 건설부 법령관련란에 들어가니 정확한 내용이 줄줄이 엮여져 나온다.

Ketel이라는(지금은 하이텔로 바뀌었지만) 한국 경제 신문의 정보 은행의 도움으로 전화료만 지출하면 받아오는 황금상자를 바로 이용할 수 있었다. 얼마 후 내 책상위에도 황금 상자를 들여 놓았고 이제는 Hitel이 매달 9,000원의 이용요금의 유료화로 바뀌었지만 여직원 채용에도 한몫을 한다.

먼저번 어버이날에 토요일이라 시간이 없어 장모님께 컴퓨터를 이용하여 꽃배달을 주문하여 손쉽게 감사의 답례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흐뭇하다 (참고: 국내-4시간, 5시간, 외국-3일 정도후 도착)또한 각 정부 각 부서의 관보나 자료(우리에서는 건설부 및 관련공사)가 관계 법령과 함께 엄청나게 쌓여있어 업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본다.



⑩



⑪

11. 컴퓨터통신

보통 일반적인 CAD를 Computer활용의 대명사라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CAD는 25~35% 문서작성이나 데이터 베이스 계통은 25~35% 그리고 통신분야가 30~40%라 생각이 든다. 즉, 통신에서의 활용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지금도 여러 회원님들이 쓰시는 Hitel이나 데이콤을 보시면 그 역량을 금방 알 수 있듯이...

3일전 모 컴퓨터 전문 잡지사에서 원고를 부탁한다는 전화가 왔다. 물론 전문지식은 없고 건축과 관련된 CAD의 활용에 대하여 자유스런 내용을 부탁하기에 1주일후로 약속을 하였다. 3개월전에도 창간호에 실을 원고를 부탁 받은 적이 있었다. 편집 시간에 쫓겨 급히 보내달라 하며, Hitel을 통한 (Modem)통신 전송을 부탁하길래 아래 한글로 작성, 서로 오고가고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며 송고를 마쳤다.

시태크를 충실히 실현한 셈이다. 물론 Fax도 있으니까 구매여 Modem을 통한 통신이 필요하겠냐고 반문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FAX로 받는 것은 또다시 워드프로세서로 여직원의 기능적인 면을 더한 시간의 손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이다.

더구나 1~2매 정도면 모르지만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여직원의 두드림의 비효율적이고 안타까운 기능적인 시간 낭비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제, 구매여, 70년대말의 중동 공사때처럼 설계직 인원의 수십명이 "잘라마리꿈"하며 모래바람과 싸우며 "사데기"술을 마실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 중이다.

(1차로) 몇년전에 서울에서 지방의 대형 Project를 수행하며 서류나 도면을 주고 받을때, 고속버스를 통하여 도면과 서류 전달을 부단히 하였고, 몇조차 몇시도착을 2~3번 반복하여 전화기에 소리치고

⑨ DCA시빌(CIVIL) 소프트웨어 PC화면에서 종횡단과 토공량의 자동계산, 단위 도로 설계 기능을 제공한다.

⑩ 액정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지도 크기는 1/800,000, 1/300,000, 1/50,000이며 도로나 오사카 일부에서는 1/12,500까지 표시된다. 지동위 측량부분에 인공위성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는 시스템이 들어있다.

⑪ 어리스(APRIS) PC와 워크스테이션용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맞도록 11개의 모듈로 분류, 원하는 대로 조합이 가능하다.

터미널에 나가 기다렸다 수령하고, 수정 후 다시 보내고...

(2차로) 그후 몇년 후 전기, 설비 설계용역을 협의때, 협력사무실 팀에서 디스켓을 주며 도면 제작성 노고와 시간 낭비를 줄여 많은 회원님들의 혜택을 누렸으리라. 얼마나 편리하며 서로 좋은가!

(3차로) 그러나 이제부터는 통신을 통한 File전송(다운로드, 업로드)을 이용하여 대도시 교통지옥에서 왕복 몇시간의 귀중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장차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물론 몇년 안있으면 화상전화가 대중화 되면 Meeting등은 더욱 자유스러워지니까.

12. 사무자동화

불과 몇해전만 해도 건축사 사무소에서 보통 Computer 하면, 곧 CAD가 인식되어 비싼 최신 기종에 대형 모니터만 있고 최신 플로터만 있으면 전산화가 낙후된 사무구조에서 벗어 났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아직도 타자기 대응으로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타이핑된 공문서류를 보고 흡족해 하시는 일부 회원분도 혹시 있으시지 모른다는 생각이 얼핏 든다. 나는 가끔 조물주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 가치있고 보람있으며 작품성 있는 건축활동과 첨단 기술인 컴퓨터를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창작할 수 있는 시대에서 이 천직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축복 아닌가 하면서...

처음 82년에 그 당시 소장님이 구조계산용으로 사용하시던 Sharp PC 1500의 프로그램어를 그자신인 Computer가 스스로 검색, 고쳐달라고 표시하는 것이 무척이나 신기 하였다. 그 마력의 8Bit의 애플 컴퓨터를 콘맘먹고 들여놓고 흑백TV에 연결하여 신희초 새벽 2~3시까지 두드려며 보물캐듯 들여다 보던때가 었것 같은데 11년이 지난 지금, 노트북 Computer로 O.A와 통신 그리고 홈뱅킹제도인 은행의 잔고 확인과 입출금 조화를 하고 있으니 감회가 새롭다고나 할까?

사무실의 O.A는 초기시설에 스프레드시트인 로터스 및 쿼트로의 초기인 버지컬크, 그리고 DATA 베이스의 초기인 P.F.S, 또한 대표적인 워드프로세서는 아래한글 대신 캐나다에서 만들었다는 중앙한글이 그 당시의 애플컴퓨터의 대명사였던 것이 지금은 자유자재의 문장작성을 하는 아래 한글의 워드프로세서, 3차원그래프까지 그리는 쿼트로의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자료의 은행인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까지 있어서 다 처리하니 좋은 세상이다. 설계 또한 Drawing부터 브리핑까지 척척 Computer가 해결해 주는 시대에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에 고마워하고, 열심히 배우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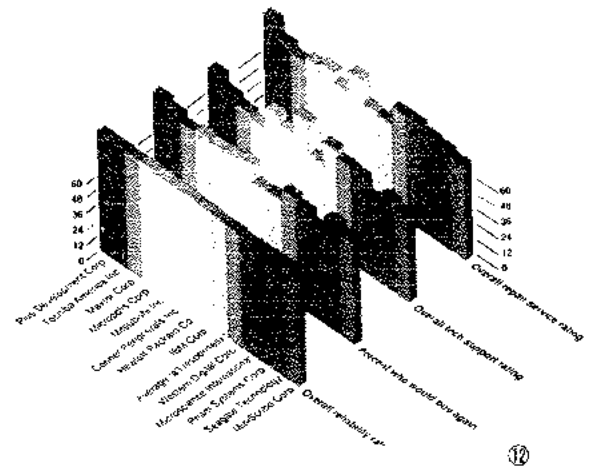
컴퓨터를 쓰다보면 과거의 타자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쉽게 느끼며 그래서 타자기는 고물상이나 박물관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곧 도래하고, 휴대용 전화처럼 컴퓨터를 들고 다니다가 차 안에서 FAX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다가왔고 데스크 탑에서 랩탑을 뛰어넘어 노트북 컴퓨터가 선보이더니 곧이어 손바닥 만한 팜탑 컴퓨터가 선보이는 발전을 거듭해 가니 이 어찌 외면하고 삼국시대의 쟁기를 갖고

살아가라.

마치 자동차의 등장시대에 고속버스를 싫다하고 우마차 타고 터덜터덜 하루종일 걸어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앞선다.

그리고 우리회원들에게 필요한 유료 프로그램들은 협회에서 희망회원을 파악, 일괄단체 구입하면 더욱 경제적이며, A/S도 수월하리라 생각되어 적극 상정(?)하는 바이다.

CAD와 O.A를 Note Book Computer로 활용하여 종합예술인 건축에 첨단과학 활용의 밝은 미래가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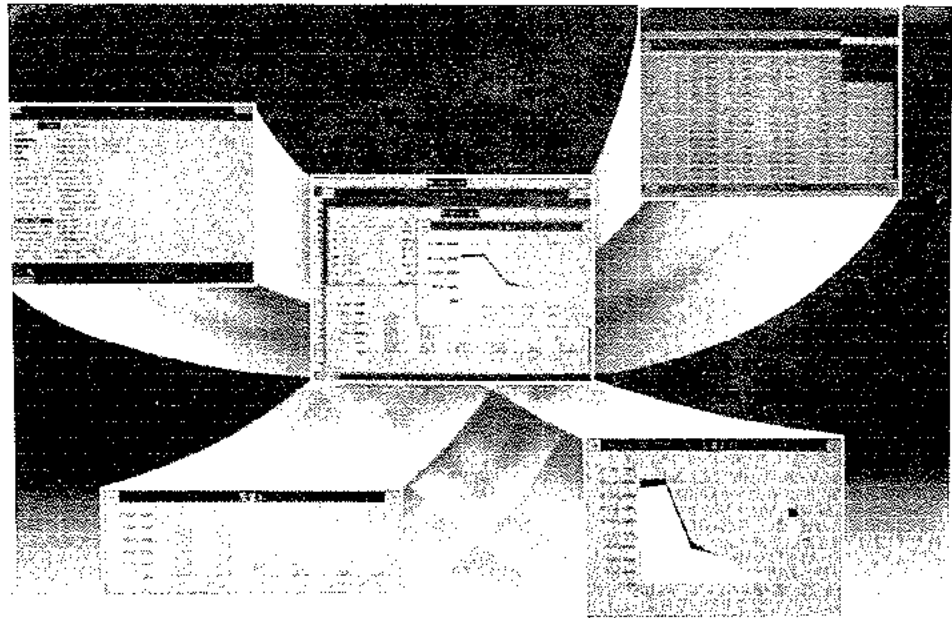
13. 통신과 정보 그리고 서류

올해초 협회에서 오는 공문철을 뒤적이며 설계 수탁 파악 관개로 진화번호부 두꺼보다 두꺼운 공문철을 보며 비슷한 유형의 공문들을 일일이 고를 생각을 하니 답답하여 곧바로 자료관리 2.0이라는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으로 공문제목을 입력시키며 몇일 후 회파람을 불러 정리를 하였다. 이렇게 편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그 후 출퇴근때 생각하니 이제 공문도 일일이 우편발송하여 시간과 인력을 소비하는 것 보다 요사이 FAX가 많이 돌 있으니 FAX발송이 좋지 않은가 생각하다가 이럴바에는 차라리 타자기의 키보드나 컴퓨터의 키보드 en드리는 배일만, 자료로 넣어 통신으로 주고 받으면 자연스러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언제든지 원하는 자료와 원하는 분야의(설계수탁 등) 자료이용이 손쉬워지리라 생각이 든다. 엄청난 업무를 사무자동화(O.A : Office Automation)로 손쉽게 일련의 계획과 감리 그리고 경영업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느껴본다. 또한 똑같은 서식의 3~4장 기록과 같은 항목이 몇번씩 반복되는 자자 서식의 기록도 쉽게 해결되어 직원들의 짜증스런 업무반복과 실수로 인한 피로움을 따듯한 커피한잔 나눌 수 있고 사무실 가족 분위기도 좋아지리라 느껴본다.

14. CD-ROM

몇일전 국내의 건축관련 CAD프로그램 회사의 연구소장을 만나 좋은 의견을 나누었다. 한참 대화를 나누며 밝고 희망찬 건축계의 앞날을 기대할 수 있었다. 젊은 나이에 특히 그동안 느껴왔던 건축자료의 CD-ROM화는 근시일내로 다가올 멀티미디어의

《미국의 PC Magazine이 미국 소비자들 상대로 한 HDD제조업체 설문조사에서 플러스 회에게 최고의 점수를 주었다. ①의 그래프는 신뢰성, 2차 구입의향, 기술지원, 사후수리 등 4가지 항목에서 각각 최고 점수를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선물이며 우리 건축계가 준비해야 할 민족적인 사업이란 생각이 든다. 몇년전의 걸프전 상황을 CD-ROM화 시켜 미국에서는 많은 판매와 각광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하고 곧 국내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었다. 우리 건축인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자료집성을 일본건축계에서는 1900년대초기에 이미 완성하였고 미국에서는 타임세이버, 그래픽스텐다드를, 서구에서는 건축자료 보람이라는 자료의 체계화, 집성화, 표준화를 이루어 후진양성과 민족발전에 힘쓰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일본의 자료집성 혜택(?)에 힘입어 나의 것에 늦은감도 있는 것 같다. 이제 CD-ROM에 제작되는 건축분야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건축과 일제하의 건축물(서울시 청사 등) 지질, 지형자료도 외국에서 받아다 써야될지 모르는 경제예측에서 정보 및 자료 예측상대로 엮매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부디 기우이기를 바랄뿐이다. 누구나 즐겨찾는 노래방에서의 반주와 영상이 거의 일본에서 제작 편집되어 국내 수입되어 문화 침투가 1단계라면 임진왜란 등의 한일 관계 과거사에서 그릇된 역사와 일본에 유리한 일방적인 CD-ROM의 세계유통은 앞으로의 민족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것이 건축계에도 비슷한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고건축 및 문화재 자료나 지질자료를 일본이나 미국의 CD-ROM을 빌리거나, 또는 구입해 쓰는 것을 후배들이 본다면? 그 무슨 얼굴로 대하나 상상기도 싫은 일이다. 이제 국내 S회사에서 CD-ROM의 국내제작이 가능하다는 반가운 소식에 안도를 하며 우리 건축인들의 3단계에서 협의, 연구하여 지질 및 지형을 포함한 고건축과 건축자료 집성의 CD-ROM를 준비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느껴본다.

15. 멀티미디어

건축실개분야에 처음 기웃대는 70년대초 사무실에서 허가제출키 위하여 청사진을 전문점에 의뢰하다가

사정상 자체로 할 수밖에 없어 햇빛 쏘이는 패널을 만들고 그당시 흔하던 암모니아물을 만들어 청사진 굽던(?)것이 었그제 같다. 이제는 몇장의 복사는 물론 깨알같은 도면은 확대/축소 마음대로 하고 칼라 복사까지 가능한 시대가 되어 가짜 수표가 나오니 숨돌릴 틈도 없다.

할아버님께서 1960년대 부터 시골에서 문간방을 공개하여 그 고을의 꼬마들에게 “하늘천 따지”의 천자문부터 논어, 대학을 가르치시며 긴수염 휘날리시던 어릴적의 기억이 아스라하다.

그런데 중손자시대인 1990년대에는 불과 5만원 짜리 “천자문”이라는 프로그램을 사다 Computer에 설치해 놓으니 각 글씨마다의 뜻과 획쓰는 순서, 가나다순의 순서 배열은, 물론 일목요연하게 찾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고사성서, 삼강오륜, 존칭 그리고 획의 적고 많은 순서대로...

심지어 제사상 차리는 것까지...

그리고 연습문제도 함께 되어 훈장님의 회초리 대신 함께 공부하는 동네 꼬마 친구들에게 무안함과 긍지를 느끼게 해준다.

얼마전, 큰마음먹고 멀티미디어(486컴퓨터)를 구입하였다. 컴퓨터를 쓰다가, TV도 보고, 친척들이오면 노래방도 하여 즐기고, 통신도 하며 게임도 하며, 음악도 듣고, 영어공부도 하니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

지금 이 원고를 쓰면서 거실의 Computer에서 CD-ROM Drive를 활용하여 음악 CD의 감미로운 멜로디를 들으며 촉박한 원고 교정을 보고 있다.

오늘!

1993년 격동의 건축계의 한해를 마무리하며, 기라성 같으신 수많은 선후배님들 앞에서, 자신을 모르는 초라한 펜을 들어 짧은펜을 흘린것, 진심으로 양해말씀 올리며 대한민국의 건축계를 위해.

뜨거운 악수를 내밉니다.

밝고 보람된 나날을 기원하면서...

1993년도 「건축사」誌 총목차

차례/1993년 1월호 통권 제285호

신년사	우리 建築의 活路/李永熙	16
칼럼	건축사의 새로운 비전/金熙春	18
제언	建築設計監理用役社の 제도개선에 따른 제언/韓鍾彥	20
회원작품	안성여자작업촌원림/金希洙	22
	대전 센트리아 오피스텔/安吉元	26
	상 마오로 안나의 집/徐輔光	30
	방배동 삼호 침례교회/禹時衛	34
	남양농협 단위조합/鄭求榮	38
	경주 석구빌딩/孫明文	42
	기흥주택/金得洙	44
계획작품	동천온천개발계획/(주)동영건축+鄭德薰	46
스케치	경주실내체육관/閔泳浩	50
일하며 생각하며	新年斷想/金自浩	54
전통건축연구	한옥설계의 방법론적 고찰(IV)/張順鏞	56
해외건축	21세기 건축을 향하여-크리스티안 드 보잠박/이용재賢	62
현상설계	中國 台海花園 국제현상설계경기, 한국 청소년수련 마을, 구리시 실내체육관, 연극 전용극장 '원각사'	68
법령	건축법 질의·회신/건설부 건축계획과	90
연구	패러다임(Paradigm), 건축적 사고유형 및 디자인 특성(5)/吉成鎬	94
기고	ARCASIA(아시아 건축사 협의회)에 관하여	104
설문조사	건축사 공제조합 설립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112
통계	1992년 11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118
협회소식		120

차례/1993년 2월호 통권 제286호

칼럼	기술이 존중되는 사회/李光炯	16
일하며 생각하며	시장경제면 광배이나?/咸仁善	18
회원작품	위례 상업고등학교/黃仁	20
	기독교 방송국/(주)정림건축	24
	상이나시오 관/太太珍+金武鉉	30
	한국타이어 본사 사옥/金厚錫	34
	인크라인 II/朱榮正	38
	서울대학교 부설 정밀기계설계 공동연구소/(주)서울건축	40
	광주 Y씨 주택/鏡頊洙	44
스케치	군산 K불광센터/金恩倍	46
계획작품	전북 농지개발조합 청사/盧亨來	48
비평	시내장산이라는 이름의 지주라기/李廷根	50
전통건축	한옥설계의 방법론적 고찰(V)/張順鏞	58
법령	건축법 질의·회신/건설부 건축계획과	64
해외건축	21세기 건축을 향하여-콘 페디슨 폭스의 건축세계	70
현상설계	한국담배인삼공사 서울영업본부 사옥, 구리 시청사	76
기획연재	패러다임(Paradigm), 건축적 사고유형 및 디자인 특성(6)/吉成鎬	90
연구	지하공간 개발의 현황과 발전방향/嚴 浣	98
	한국설계경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禹時衛	108
통계	1992년 12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118
협회소식		120

차례/1993년 3월호 통권 제287호

칼럼	李 建設次官에게/安秉義	14
일하며 생각하며	건축=방인가?/李廷根	16
'93전국 건축사 대회·'93한국건축전 이모저모		18
특집: '93한국건축전 주장작		
	건축사부분	
	(대 상) 예술의 전당 서울 오페라극장/金錫敬	24
	(우수상) 안양아동복지사관/崔勝元	28
	섬유센터/崔賢泳+鄭東明	32
	한국 테이빙 정보 봉사 연구센터/(주)정림건축	36
	현빛빌딩/安口成	40
	신원월드 컨트리클럽 하우스/徐千植	44
	이홀리 박물관/安文孝	45
	서대신동 주택(전시시설)/金瑛燮	46
	일동제약사옥/金春雄	47
	신인부분/학생부분	48
	심사평/姜健熙, 朴吉龍, 崔英集	66
비평	건축비평의 현장-그 논의의 계속을 위하여/閔賢植	68
기획연재	패러다임(Paradigm), 건축적 사고유형 및 디자인 특성(7)/吉成鎬	76
해외건축	21세기 건축을 향하여-아라타 이소자키	84
연구	지하공간 개발의 현황과 발전방향(2)/嚴 浣	90
기고	"P"빌딩 구조설계에 얽힌 이야기/李昌男	98
법령	건축법 질의·회신/건설부 건축계획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등 개정령	102
통계	1993년 1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109
협회소식		118

차례/1993년 4월호 통권 제288호

칼럼	우리 건축계에도 천단정치가 필요하다?/金嶺愛	14
특별기고	건축사법 개정시안 유감/申文燮	16
회원작품	강실교회/禹時衛	18
	한국은행 포항지점/金基雄	24
	스포크 시티/(주)정림건축	28
	선건축사옥/全在根	32
	슈퍼리어 빌딩/安錫鎬	36
	동양공업 전문대학 도서관 및 연구동/尹泰雄	40
	석천장/金原孜	46
	논현동 한우리 빌라/宋光燮	48
계획작품	천주교 오금교회/朴在煥	52
스케치	대구 N-빌딩/承孝相	54
특집	분당 신도시 주택 설계 전시회 분당 신도시 건설과 주택 전람회의 의의/安健燮	57
	신주거 문화의 사금석/朴研心	61
	「한국의 주거문화 1994」에 대하여/金仁喆	67
기고	"P"빌딩 구조설계에 얽힌 이야기/李昌男	74
현상설계	경부고속철도 천안역사 한국통신 전주정보통신센터	76
	한국통신 제주전화국	87
법령	건축법 질의·회신	9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개정조례	10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중개정령	107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중개정령	108
통계	1993년 2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110
협회소식		112

차례/1993년 5월호 통권 제289호

회원작품	추천종합문화예술화관/韓淑元	8
	영동포 구민회관/柳春秀	14
	힐하우스/趙載元+金熙鎬	20
	성막교회/咸仁善	26
	코스모 플라자/尹性憲	32
	인원 신용동 한일빌딩/宋光燮	36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주)정림건축	40
계획작품	장식교회/崔泰集	42
스케치	스케치 5채/洪宰東	46
일하며 생각하며	구조 대안 제시의 활성화/李昌男	48
비평	비전의 제시와 동남의 정리/李純宰	50
현상설계	대전시청사 거여지구 아파트 단지계획	60
	분당성당	80
기고	"P"빌딩 구조설계에 얽힌 이야기(3)/李昌男	82
법령	건축법 질의·회신	86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안)	94
통계	1993년 3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102
협회소식		104

차례/1993년 6월호 통권 제290호

취임사	협회의 나아갈 길/吳雄錫	10
일하며 생각하며	세자의 삼가/宋祿九	12
회원작품	양재 287.3/趙成龍	14
	주내교회/金漢根	20
	동덕여자대학교 인덕관/金仁錫	24
	한마음 문화센터/吳慶恩	28
	시·상빌딩/劉 建	32
	동산빌딩/金春雄	36
스케치	생명의 집/孫 旭	38
계획작품	양주군 문화회관/林長烈	40
비평	趙成龍 건축의 엘리타시즘 「양재 287.3」/朴吉龍	42
특별기고	구조안전진단 감상(2)/李昌男	50
연구	도심지개발의 현황과 문제점(1)/崔燦煥	53
	르 꼬르비지에와 建築創造의 力學(1)/李英哲	58
	품질관리 그 문제점과 대책(1)/李仲浩	64
법령	건축법 질의·회신	70
현상설계	가위기념·군민 종합회관 중앙그룹 본사사옥	76
	함평루아 교회	90
	부산시립 미술관	98
연구	현행 주택과 운수운들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池鍾相	106
기고	건축을 설계도시의 저작권법상의 권리/鄭德薰	110
법령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령	113
통계	1993년 4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116
협회소식		118

차례/1993년 7월호 통권 제281호

칼럼	아름다움과 편리함이 조화된 건물을 짓자/李光炯	14
회원작품	학동 수종당/承孝相	16
	반포동 빌라/梁在國	22
	옥련동 주택/宋光燾	24
	제일은행 체육관/蔣應在	27
	동아생명 사옥/(주)정림건축	30
	강로화 신학교 강의동/崔東奎	36
계획작품	예천문화회관/河壽鎭	40
스케치	제3청사 현상공모(안)/金祺順	42
비평	미완성의 탈바꿈 「성락교회」/金鍾憲	44
기획연재	한국의 주거문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1)/金鍾愛	50
	도심재개발 사업의 사후평가/崔燦煥	56
연구	트 코르뷔지에와 建築創造의 力量(2)/李英哲	63
	품질관리 그 문제점과 대책(2)/李仲浩	70
기고	"P"빌딩 구조 설계에 얽힌 이야기(4)/李昌男	78
	고효율의 난방공급에 관한 고찰/池建相	82
현상설계	화천 군민회관	86
	온정구 문화예술회관	89
	계주관광 민속관	96
연구	중국의 건축 匠人들/韓東洙	100
법령	건축법 질의·회신	108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112
	건축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	115
통계	1993년 5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118
협회소식		120

차례/1993년 8월호 통권 제292호

칼럼	개혁의 물결, 우리의 새로운 도약/金榮洙	14
일하며 생각하며	전통건축사상서/李起勳	16
기획진단	건축부조리-무엇이 문제인가?/尹赫敬	18
기고	토켈엔지니어의 한계/田鳳壽	28
	"P"빌딩 구조설계에 얽힌 이야기(5)/李昌男	32
회원작품	명일동 우남빌딩/孫科浩	36
	대림산업(주)부산사옥/金 浩	40
	금복주 빌딩/金厚錫	44
	(주)동인상호신용금고/徐元在	48
	현법재판소/金希洙+金性東	52
	창원 팔용동 주민회관/許正道	56
	인크라인 I/朱榮正	62
스케치	한샘타워/金錫敬	66
계획작품	이규성 한의원/朱榮正	68
비평	금강안과 옥리수(金剛眼과 酷吏手) 「학동 수종당」/成仁秀	70
기획연재	한국의 주거문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2)/金鍾愛	76
	도심재개발 사업의 기법/崔燦煥	82
현상설계	인천 종합터미널	92
	의정부 종합문예회관	102
	담양 죽세공예 진흥단지	108
법령	건축법 질의·회신	112
통계	1993년 6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118
협회소식		120

차례/1993년 9월호 통권 제293호

논단	건축개혁을 위한 공동인식의 장을 만들자/李鍾寬	14
칼럼	무엇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가? (1)/朴舒弘	16
기획진단	건축실제계의 문제와 개혁 방안/元鍾一	18
회원작품	상계동 교회/尹柱憲	26
	성실 교회/姜純一	30
	서초중앙감리교회/全在根	34
	양재동 빌딩/金煥燮	38
	삼양그룹연구소/(주)정림건축+피킨스 엔지니어링(미국)	44
계획작품	예천교회/河壽鎭	50
스케치	남미여행 스케치/夫大珍	52
비평	한국의 해체적 상황, 그 논의의 시작/李芝薰	54
일하며 생각하며	건축사가 묻는 바는 방법/李昌男	62
연구	트 코르뷔지에와 건축창조의 역학(3)/李英哲	68
현상설계	한반 종합문예회관	76
건축기행	농경유감/金恩培	86
연구	품질관리 그 문제점과 대책(3)/李仲浩	92
통계	1993년 7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102
협회소식		104

차례/1993년 10월호 통권 제294호

칼럼	무엇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가? (2)/朴舒弘	16
회원작품	KBS 속초 방송국/鄭德薰	18
	이화여대 행정관/(주)정림건축	24
	근화여자 중·고등학교/孫明文	30
	EXPO 테크노피아관/趙敬元	36
	EXPO 선정창의관/徐元在	42
	사당동 향림빌딩/尹泰雄	48
	역삼동 영우빌딩/金正植	54
계획작품	안양평촌지구 지하주차장/李世權+朴雲天	60
스케치	담양 죽세공예 진흥단지 계획(안)/南相金	62
기고	목동 아파트 설계 회고/河在鵬	64
	미국 건축사 자격시험에 관한 해설/張林鍾+朴舒弘	67
포럼	젊은 건축가들의 국제포럼(IFYA) 참가기/金寬錫	72
건축기행	세계는 넓고 볼 곳은 많다/朴在煥	74
기획연재	한국의 주거문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3)/金鍾愛	84
	도심재개발 사업의 지역선정과 구역지정/崔燦煥	91
연구	중국의 고건축을 보는 눈/韓東洙	96
통계	1993년 8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104
협회소식		106

차례/1993년 11월호 통권 제295호

각려사	93년도 시·도건축사와 정기총회 회장 격려사/吳雄錫	14
칼럼	출세보다는 행복한 건축사가 되어야!/權棟雄	16
일하며 생각하며	종합건설업 면허제와 건축의 본질/元鍾一	18
회원작품	서강대학교 다산관/夫大珍+金武鎭	20
	비봉종합고등학교 유도체육관/吳基守	26
	국립 부여박물관/韓奎奎	30
	만도 R&D 기술연구소/(주)그룹원+姜煥錫	36
	문주회관/南相金	40
	김포 군민회관 및 실내체육관/盧亨來	46
	이대목동병원/(주)정림건축	50
계획작품	이화관광호텔/金壽洋	54
스케치	D-스펙스 계획(안)/金亨俊	56
기고	영화속의 건축/尹泰雄	58
아카시아	'93아카시아 행사 참관기/李根昌	60
	아카시아 제14차 이사회 및 제7회 포럼 참가기/李炳根	61
토론회	건축감리의 방향 설정(그 책임과 한계)	64
기획연재	도심재개발의 외국사례/崔燦煥	80
현상설계	부산전구청사	92
	한국이동통신 분당지원사설	100
기획연재	중국의 고건축을 보는 눈(2)/韓東洙	108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개정령	122
통계	1993년 9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124
협회소식		126

차례/1993년 12월호 통권 제296호

제28회 정기총회	개회사/吳雄錫	14
	치사/高炳佑	16
	축사/徐廷華	17
특별기고	건축진정-이대로는 안된다/尹赫敬	18
회원작품	부산 카톨릭 대학/姜錫元	22
	대덕퍼픽문화센터/(주)정림건축	28
	탐라교육원 연수동/姜幸生	34
	문자암 컨트리 클럽/李忠彦+金光燮	38
	덕진구청 청사/故 李榮洙	42
	카톨릭중앙의료원 의정부 성모병원/金宗根	46
	광주 "K"씨 주택/韓瑣洙	50
계획작품	뉴서울 플라자/朴舒弘	54
스케치	14세대를 위한 마을/朴研心+董敦根	56
비평	헌법재판소-"단절과 권위"/李範宰	58
토론회	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건설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66
현상설계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전회관	86
	진도군민 종합복지회관	92
	중구 보건소 청사	98
	청주여객 자동차 터미널	100
건축기행	영국의 미술관 건축/金龍昇	104
기획연재	도심재개발의 관리처분 계획(Ⅱ)/崔燦煥	110
	건축, 건축인 그리고 COMPUTER/朴贊遠	117
통계	1993년 10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126
협회소식		128

1993년 10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0월분 1천68만7천7백78㎡보다 9.9% (1백5만7천3백28㎡)
증가 한 1천1백74만5천1백6㎡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0월 누계 9천83만8천2백3㎡보다 12.9%(1천1백74만3천1

백5㎡)증가한 1억2백58만1천3백8㎡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전월 9월분 1천2백62만6천4백69㎡보다 7.0% (88만1천3백63㎡) 감
소한 1천1백74만5천1백6㎡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増減 狀態)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2년도	1993년도	증 · 감	비율(%)
증가지역	부산	1,161,671	2,681,281	1,519,610	130.8%
	대구	600,836	636,204	35,368	5.9%
	경기	1,793,151	2,535,592	742,441	41.4%
	강원	401,879	429,530	27,651	6.9%
	충남	403,049	1,163,343	760,294	188.6%
	전북	206,917	293,679	86,762	41.9%
	경남	785,033	969,983	184,950	23.6%
	제주	55,886	80,699	24,813	44.4%
감소지역	서울	2,291,283	1,060,528	(1,230,755)	-53.7%
	인천	347,017	265,429	(81,588)	-23.5%
	광주	391,183	251,540	(139,643)	-35.7%
	대전	733,947	162,872	(571,075)	-77.8%
	충북	407,476	270,095	(137,381)	-33.7%
	전남	450,647	298,498	(152,149)	-33.8%
	경북	657,803	645,833	(11,970)	-1.8%
합	계	10,687,778	11,745,106	1,057,328	9.9%

全國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増減 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용 도 별	9월분	10월분	증 · 감	비율(%)
단 독 주 택	595,847	526,316	(69,531)	-11.7%
다 세 대 주 택	186,341	177,234	(9,107)	-4.9%
연 립 주 택	78,067	784,585	(706,518)	905.0%
아 파 트	7,055,721	5,532,731	(1,522,990)	-21.6%
근린생활시설	1,328,616	1,237,055	(91,561)	-6.9%
종 교 시 설	129,910	88,162	(41,748)	-32.1%
의 료 시 설	28,568	19,771	(8,797)	-30.8%
교육연구시설	224,571	182,950	(41,621)	-18.5%
업 무 시 설	305,214	316,040	10,826	3.5%
숙 박 시 설	180,189	109,001	(71,188)	-39.5%
공 장	1,071,578	1,186,959	115,381	10.8%
기 타	1,441,847	1,584,302	142,455	9.9%
계	12,626,469	11,745,106	(881,363)	-7.0%

市 · 道別 前年對比 全國圖書申告 概況(10月分)

구분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	2,901	3,136	2,291,283	924	1,015	1,060,528	(1,977)	(2,121)	(1,230,755)	-53.7%	
부산	1,157	1,565	1,161,671	848	1,335	2,681,281	(309)	(230)	1,519,610	130.8%	
대구	923	1,034	600,836	1,045	1,758	636,204	122	724	35,368	5.9%	
인천	572	664	347,017	347	348	265,429	(225)	(316)	(81,588)	-23.5%	
광주	366	455	391,183	298	347	251,540	(68)	(108)	(139,643)	-35.7%	
대전	436	556	733,947	324	344	162,872	(112)	(212)	(571,075)	-77.8%	
경기	1,446	1,813	1,793,151	1,925	3,038	2,535,592	479	1,225	742,441	41.4%	
강원	513	611	401,879	686	946	429,530	173	335	27,651	6.9%	
충북	645	830	407,476	608	759	270,095	(37)	(71)	(137,381)	-33.7%	
충남	437	450	403,049	635	721	1,163,343	198	271	760,294	188.6%	
전북	370	391	206,917	359	417	293,679	(11)	26	86,762	41.9%	
전남	461	665	450,647	600	787	298,498	139	122	(152,149)	-33.8%	
경북	631	844	657,803	778	1,173	645,833	147	329	(11,970)	-1.8%	
경남	918	1,150	785,033	1,162	1,572	969,983	244	422	184,950	23.6%	
제주	163	171	55,886	209	236	80,699	46	65	24,813	44.4%	
합 계	11,939	14,335	10,687,778	10,748	14,796	11,745,106	(1,191)	461	1,057,328	9.9%	()=마이너스

市・道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1~10月 合計分)

구분 건축사회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 울	23,728	24,956	16,164,104	25,740	26,753	15,116,982	2,012	1,797	(1,047,122)	-6.5%	
부 산	13,001	16,657	8,606,767	9,350	12,303	11,193,838	(3,651)	(4,354)	2,587,071	30.1%	
대 구	8,407	9,087	3,656,349	12,196	15,770	6,562,567	3,789	6,683	2,906,218	79.5%	
인 천	4,267	5,485	4,242,258	5,954	6,185	5,156,752	1,687	700	914,494	21.6%	
광 주	3,308	3,859	2,697,813	3,048	3,493	2,649,291	(260)	(366)	(48,522)	-1.8%	
대 전	4,048	4,677	4,391,786	3,535	3,904	3,362,956	(513)	(773)	(1,028,830)	-23.4%	
경 기	16,958	22,085	20,684,389	18,917	24,582	23,122,676	1,959	2,497	2,438,287	11.8%	
강 원	5,988	6,967	3,487,273	6,142	7,310	3,287,348	154	323	(199,925)	-5.7%	
충 북	6,873	8,376	3,149,106	6,551	8,238	4,006,713	(322)	(138)	857,607	27.2%	
충 남	5,074	5,431	3,672,297	5,002	5,377	5,409,408	(72)	(54)	1,737,111	47.3%	
전 북	4,203	4,838	2,855,509	3,561	4,301	3,696,690	(642)	(537)	841,181	29.5%	
전 남	5,521	6,996	3,419,652	4,812	6,410	3,139,216	(709)	(586)	(280,436)	-8.2%	
경 북	7,611	9,325	5,617,229	7,558	10,787	6,865,531	(53)	1,462	1,248,302	22.2%	
경 남	10,852	13,491	7,353,005	11,010	14,026	8,174,257	158	535	821,252	11.2%	
제 주	2,349	2,618	840,666	1,851	2,207	837,083	(498)	(411)	(3,583)	-0.4%	
합 계	122,188	144,868	90,838,203	125,227	151,646	102,581,308	3,039	6,778	11,743,105	12.9%	()=마이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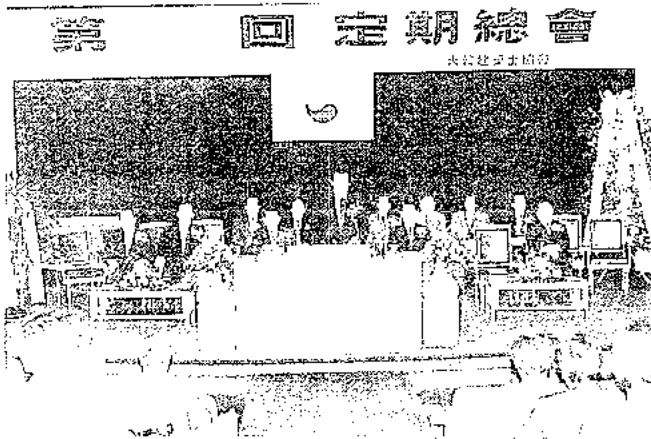
用途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10月分)

구분 용도별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 독 주 택	4,228	4,358	777,483	2,783	3,176	526,316	(1,445)	(1,182)	(251,167)	-32.3%	
다 세 대 주 택	649	784	314,664	385	453	177,234	(264)	(331)	(137,430)	-43.7%	
연 립 주 택	52	60	64,277	110	523	784,585	58	463	720,308	1120.6%	
아 파 트	167	1,202	5,234,949	236	1,143	5,532,731	69	(59)	297,782	5.7%	
근린생활시설	4,372	4,586	1,507,683	3,498	3,726	1,237,055	(874)	(860)	(270,628)	-17.9%	
종 교 시 설	142	176	118,821	131	146	88,162	(11)	(30)	(30,659)	-25.8%	
의 료 시 설	25	27	234,747	13	13	19,771	(12)	(14)	(214,976)	-91.6%	
교육연구시설	132	185	295,677	144	179	182,950	12	(6)	(112,727)	-38.1%	
업 무 시 설	132	135	409,964	141	169	316,040	9	34	(93,924)	-22.9%	
숙 박 시 설	35	35	42,671	78	80	109,001	43	45	66,330	155.4%	
공 장	683	1,121	859,803	853	1,417	1,186,959	170	296	327,156	38.1%	
기 타	1,322	1,666	827,039	2,376	3,771	1,584,302	1,054	2,105	757,263	91.6%	
합 계	11,939	14,335	10,687,778	10,748	14,796	11,745,106	(1,191)	461	1,057,328	9.9%	()=마이너스

用途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1~10月 合計分)

구분 용도별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 독 주 택	50,301	52,537	8,200,039	46,701	49,128	9,150,113	(3,600)	(3,409)	950,074	11.6%	
다 세 대 주 택	4,808	6,389	2,275,110	9,247	10,119	4,570,745	4,439	3,730	2,295,635	100.9%	
연 립 주 택	526	696	867,046	688	1,528	2,216,433	162	832	1,349,387	155.6%	
아 파 트	1,624	9,014	39,975,197	1,907	9,541	42,394,100	283	527	2,418,903	6.1%	
근린생활시설	39,591	41,475	13,593,651	37,499	39,763	14,209,032	(2,092)	(1,712)	615,381	4.5%	
종 교 시 설	1,233	1,471	735,404	1,195	1,414	978,660	(38)	(57)	243,256	33.1%	
의 료 시 설	173	196	559,773	165	174	271,081	(8)	(22)	(288,692)	-51.6%	
교육연구시설	1,420	1,782	3,111,486	1,290	1,650	3,080,943	(130)	(132)	(30,543)	-1.0%	
업 무 시 설	1,632	1,799	4,251,119	1,323	1,457	3,439,408	(309)	(342)	(811,711)	-19.1%	
숙 박 시 설	368	386	563,488	1,115	1,177	1,525,083	747	791	961,595	170.7%	
공 장	6,779	11,140	8,569,624	7,635	12,387	9,585,008	856	1,247	1,015,384	11.8%	
기 타	13,733	17,983	8,136,266	16,462	23,308	11,160,702	2,729	5,325	3,024,436	37.2%	
합 계	122,188	144,868	90,838,203	125,227	151,646	102,581,308	3,039	6,778	11,743,105	12.9%	()=마이너스

제28회 정기총회 개최



개회사를 하는 오용석회장

본 협회 제28회 정기총회가 지난 26일(금) 오전 10시부터 본 협회 대강당에서 재적대의원 418명 중 3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오용석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가 사회개혁 차원에서 운영하는 행정쇄신위원회의 건축사관련 제도의 심의·결정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등 급박한 상황변화 속에서도 협회발전을 위해 심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또한 「변화와 개혁」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강조하고,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저력있는 협회”를 만들자」고 말하고, 「모두가 어려움을 나누고 화합하는 가운데 건축문화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邁進하자」고 당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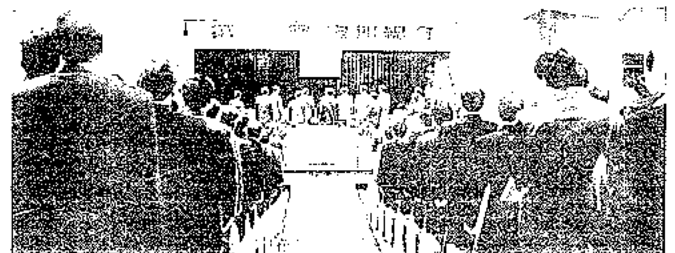
한편, 홍철 건설부 차관보가 대독한 건설부장관 치사에서는 「그동안 우리 건축계가 괄목할 만한 양적성장에 비해 건축물의 질적성장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 「건축물의 질적향상에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각종 사책을 펴나감은 물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리의 중요성을 감안, 여러 관련제도의 보완,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 시

대의 건축문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건축사상 정립에 배전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어 서정화 국회건설위원장과 김호일의원 그리고 장석웅 한국건축가협회장의 축사가 있은 다음 감사패와 공로패 수여 후, 이어서 93년도 임시총회 회의록을 유인물로 대체, 승인하고, 추대위원의 추대보고, 주요 업무보고, 감사보고에 이어 부의안건 상정에 들어가 제1호의 안에서 제7호의 안까지 일괄상정하여 심의에 들어갔다.

의안별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안 : 94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2호의 안 : 94년도 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3호의 안 : 94년도 건축법령 연구소 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조건부 승인 (인건비 등 경상비는 94년 3월까지 집행하고, 94년 3월 임시총회에서 경정예산으로 조정)
- 제4호의 안 : 94년도 건축사시험 및 연수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국민의례 광경



총회를 주재하는 오용석 회장



공로 회원에 대한 공로패 수여 광경

- 제5호의 안 : 94년도 건축사연금 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6호의 안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7호의 안 : 임원개선의 건
—이사 : 김택성(서울, 흥인건축), 김인곤(서울, 건축), 이종관(서울, 한국 건축)
(이상 3명 재선임)

- 이준현(서울, 신신 건축), 김규태(서울, 예일건축)
(이상 2명 신임)
- 김광욱(서울, 동양 건축)
(보선)
- 감사 : 오인준(대구, 삼보·한라 건축)
(신임)

新任任員

監事



吳仁俊

1938년 12월 20일생
영남대 건축공학과 졸업
대구건축사회 회장 역임
중합건축사사무소 삼보·한라대표

理事



金洸郁

1943년 10월 19일생
서울대 건축공학과 졸업
서울건축사회 간사 역임
(주)동양중합건축사사무소 대표



金奎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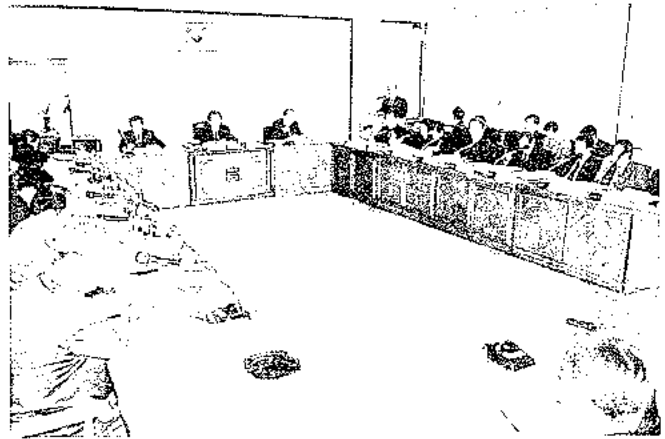
1940년 4월 15일생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서울건축사회 강남분소장 역임
건축사사무소 예일 대표



李俊憲

1941년 5월 17일생
연세대 건축공학과 졸업
중합건축사사무소 신신 대표

제9회 이사회 개최



이사회 풍경

본 협회는 지난 11월 11일(목) 오후 2시부터 본협회 대회의실에서 제9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제28회 정기총회 일정 및 의제 결정의 건, 9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 산(안) 승인의 건, 추대회원 추대 승인의 건, 공로회원 및 모

법직원 표창 승인의 건, 일반회계 목간정용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등은 원안대로 통과되거나 일부 수정 통과됐으며, 이사회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은 부결하는 등 제 안건을 처리했다.

토론회 개최

—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건설 환경 개선방안—

建築文化 揚達을 爲한 建設環境 改善方案에 關한 政策討論會

日時: 11월 23일 (화) 14시 30분
場所: 國會 議事廳 小會議室
主 催: 社團法人 韓國建設政策研究院



토론회 진행

한국건설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11월 23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건설환경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건설정책

연구원이 개최한 제6차 토론회로서 건축사의 창작활동과 종합건설면허제도를 중심으로 중앙대 이명호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자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대구건축사회, 등반 대회 개최

대구건축사회 취미부서인 대구건축사 산악회에서는 지난 10월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에 걸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바루산(해발4,101m)을 등반하고 자바섬과 인도차이나만도를 견문

하고 돌아왔다.

회원 24명과 부인 등 37명이 참석한 이번행사는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행사로서 매년 1회씩 해외등반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 사무환경개선 세미나 개최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는 김택성 이사

사무환경개선추진위원회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공동 주최한 21세기를 향한 국제 사무환경개선 세미나가 지난 11월 24일(수) 서울대 경영대학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사무생산성향상을 위한 혁신적 방안으로 그동안 실천적으로 이루어져 온 사무환경개선운동에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강사로는 안중호 서울대학교수(주제: 사무환경혁신과 경영전략), 松村英彌 일본 뉴오피스

추진협의회 사무국장(주제: 일본 "뉴오피스운동"의 현황과 전망), Francois Bonnay 불란서 Clestra Hauserman 부사장(주제: 유럽사무실의 최근경향과 구성기법), Thomas M. Brown 미국 Knoll그룹 아시아-태평양지역 부사장(주제: 21세기의 사무가구 기능과 역할)

우리 협회의 건축위원회 위원장인 김택성이가 「인텔리전트 빌딩과 사무환경」이라는 주제로 이 행사에 참여했다.

「서울시 건축상」작품 공모

서울시에서는 시내 우수 건축물을 선정, 설계자, 건축주, 시공자를 포함으로서 건축문화의 창달과 도시미관 조성을 도모코자 아래와 같이 제12회 서울시 건축상 작품을 모집한다.

- 모집분야: 주거용건축물, 상업용건축물, 특수건축물
- 상의종류: 금상(1), 은상(2), 동상(3), 장려상(3)
- 모집대상: 건축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설계 작품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작품(92년~93년에 준공 또는 준공예정인 건축물)

- 제출요령: 용모원서, 90cm×90cm패널 2~4, 작품사진(5"×7")각 10장
- 제출기간: 1993. 12. 6~12. 15
-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건축지도과 (731-6381~4)

93년도 건축사자격(면허)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건설부는 93년도 건축사자격(면허)시험 최종 합격자를 지난 11월 17일(수) 발표했다.

2차시험 응시자 1,052명 중 특별전형합격자 6명을 포함, 총

761명이 합격해 지난해 257명에 비해 502명이 증가됐다.

합격자는 오는 12월 중순경 소양교육 이수 후, 면허증을 교부받게 된다.

(주)홍성산업, 석재무늬 복합패널 개발

홍성산업(주)(대표 김태진)에서는 최근 대리석무늬 복합패널을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발에 성공, 시판에 나섰다.

알루미늄 복합패널 전문 생산업체인 홍성산업(주)이 개발한 이 제품은 최근 뛰어난 시공성과 방음성, 경량성 등으로 급격

히 수요가 증가한 알루미늄 복합패널로서 그동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던 것을 국산화한 것으로 우선 내장용에 주력생산한 후 점차 외장용도 개발, 공급할 계획이다.

※문의: (주)홍성산업(562-1264)

■ 정정합니다.

본지 11월호 106p에 게재된 한국통신 분당이동통신 지원시설 현장설계 가작(공간종합건축안)에 대한 내용중(대표: 민경식)은 (소장: 정종영)으로 정정합니다.